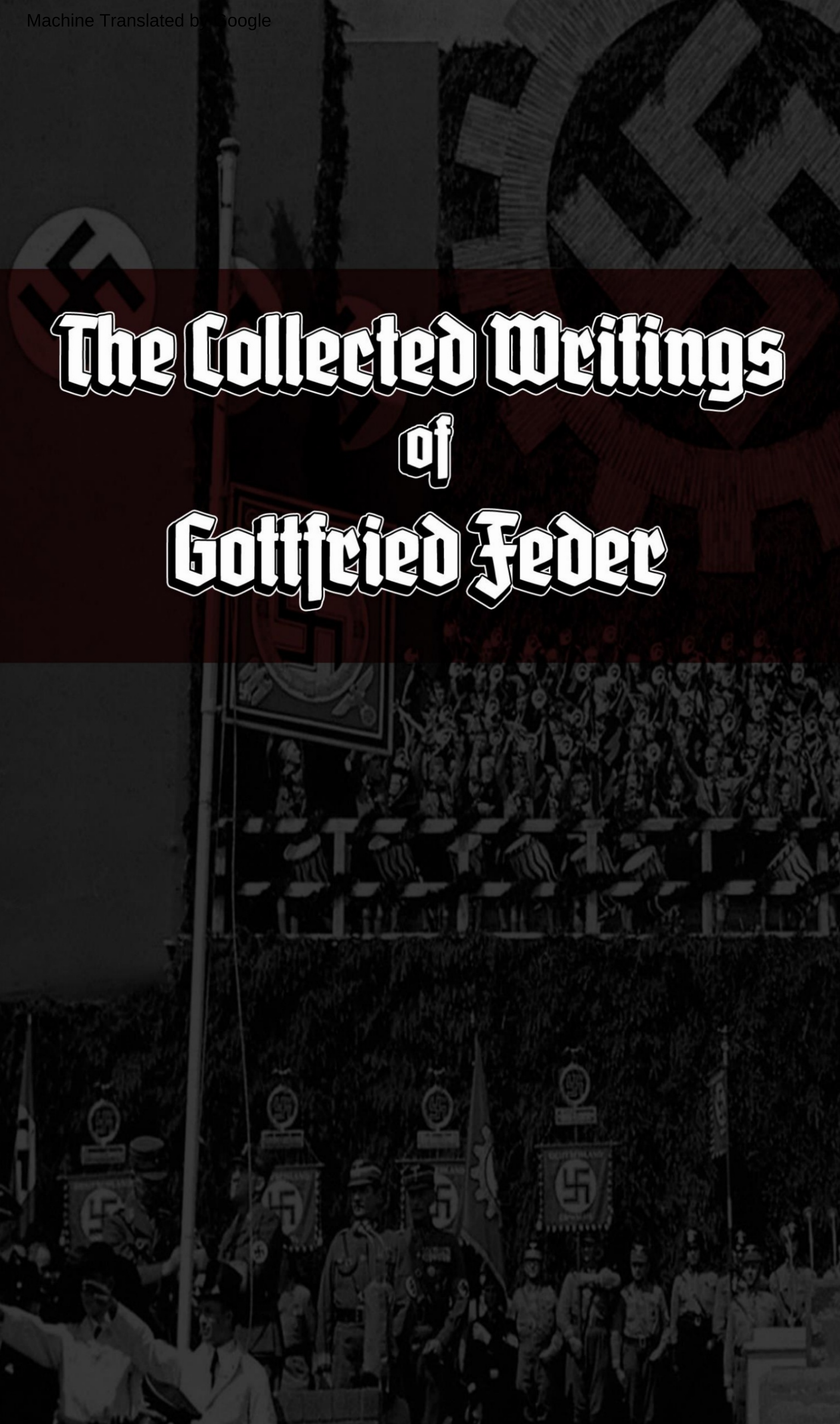


The Collected Writings of Gottfried Feder

수집된 글

고트프리트 페더

칼리 유가, 130 AH에 출판됨

SUDETENLAND
VERLAG

목차

고트프리트 페더



고트프리트 페더 (Gottfried Feder, 1883년 1월 27일 , 독일 뷔르츠부르크 — 9월 24일) , 1941년, 무르나우(Murnau)는 독일의 정치 활동가이자 주요 경제 이론가 였습니다. 독일 국가사회주의의 초기 단계.

토목 기술자인 페더는 1919년 그의 저서 '해체 선언문' 으로 악명을 얻었습니다. '이해관계의 노예' 와 그 해 9월 뮌헨 에서 열린 독일 노동당 회의에서의 그의 연설은 아돌프 히틀러 의 즉각적인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정계 입문. 페더의 사회주의 및 반자본주의 사상은 이후 1920년 3월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을 위한 25개항 강령과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 운동 의 교리문답"으로 여겼던 페더 자신의 저서 '국가사회주의 기반에 관한 독일 국가'에서 표현되었습니다. 1924년에서 1936년 사이 페더 는 독일 국회 의사당 에 참석하여 NSDAP 경제 위원회 의장(1931년), 독일 경제부 장관(1933년), 주 주택 위원(1934년)을 역임했습니다 . 그러나 나치 정책이 기존 경제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적응하면서 당 업무에서 페더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었고, 1936년에는 사실상 무명으로 전락 했습니다 .

국가 프로그램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과 그 일반 개념

의 부상에 대한 역사적 설명

아돌프 히틀러의 경력에 대한 전기적 조사가 포함된 NSDAP

아돌프 히틀러는 1889년 4월 20일 , 옛 마을인 인의 브라우나우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이에른.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의 고아였고, 세관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독일 농민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13세에 아버지를 잃었고, 4년 후에는 어머니도 잃었습니다. 당시 아돌프 히틀러는 국립학교를 졸업하고 다뉴브 강변 린츠에 있는 레알슈투에(Realschu1e)의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공무원이 되기를 바랐지만, 히틀러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그는 더 이상 지체 없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17세에 히틀러는 건축가가 되겠다는 목표로 빈으로 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건축 인부로 모르타르를 섞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건축가의 제도사로 일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18세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반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지만, 아직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어린 시절부터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으며, 노동 시절의 사회적 경험과 민족주의적 신념을 결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빈에서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았습니다.

1912년, 그는 학생 신분으로 뮌헨으로 이주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즐거움은 전혀 없었지만, 주머니에 50크로넨을 넣고 집을 나선 그날부터 노동과 궁핍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1914년 2월, 그는 오스트리아군 복무 의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는 즉시 독일군에 자원 입대했고, 바이에른 국왕 루트비히에게 직접 호소하여 바이에른 연대에 자원 입대 허가를 받았습니다. 1914년 10월 10일 , 새로운 연대가 진군했습니다.

1914년 12월 2일 , 25세의 자원봉사자는 2등 철십자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수업.

'바이에른발트' 공격과 위츠하테 인근의 다른 교전에서 보여준 용맹함을 인정받아, 그는 급파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임무는 특별한 용기와 신뢰성을 요구했는데, 맹렬한 포화 속에서 개활지를 가로질러 보고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임무 덕분에 그의 이름은 연대 내에서 좁은 동지들 너머로 금세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16년 10월 7 일 , 그는 포탄 파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1917년 3월, 그는 연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퐁텐 근교 전투에서 특별한 용맹을 보인 공로로 연대 훈장(Regiments-Diplom)을 비롯한 여러 훈장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1급 철십자 훈장(I Class Iron Cross)을 받았습니다.

1918년 10월 14일, 그는 당시 영국군이 처음으로 사용하던 머스터드 가스에 의해 연대의 많은 동지들과 함께 중상을 입었고,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이 일로 히틀러는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919년, 그는 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정당에 가입하여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운동의 강령을 개략적으로 작성하고 그 성격과 목표를 확립했습니다.

핵: 일곱 남자

1919년 9월, 아돌프 히틀러는 7명의 청중 앞에서 첫 연설을 했습니다. 그 후 11명, 25명, 47명, 12월에는 111명, 1920년 1월에는 270명, 그 직후에는 400명의 청중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1920년 11월 14 일 , 그는 1700명이 모인 대중 집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이제 1년간의 활동 끝에 당원이 64명으로 늘어난 신생 당의 선전을 조직했습니다. 1년 후인 1920년에는 이미 당원이 3000명에 달했습니다. 뮌헨에서 히틀러의 선전 활동은 대단하여 마침내 일주일에 세 번씩 대중 집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고, 월요일에는 교육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베르사유 조약의 어리석음을 공격했고,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중앙당 등이 그 조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들 당의 슬로건인 "무기를 포기하라, 그러면 다른 당들도 무장 해제할 것이다"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기를 포기한 후에도 나머지 당원들이 계속 무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설했습니다. 설령 자기 돈으로 무장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무장 해제된 독일 국민에게서 짜낸 수백만 달러로 무장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그는 SPD와 중앙당이 조약에 서명하도록 선전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우리가 무엇에 서명하든 루르 지방은 점령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921년

올해는 로젠하임과 란츠후트에 최초의 지역 단체들이 설립된 해였습니다. 히틀러는 당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조직을 조직하고 바이에른에서 분리주의 운동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는 뮌헨 서커스에서 5천 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사민당(SPD), 중도파, 그리고 국민당이 주장했듯이 조약 이행이 독일의 평화롭고 조용한 번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어리석은 정책의 결과는 대규모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독일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흑적 정부가 국유 철도의 국유화를 해제할 계획이라는 히틀러의 주장은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선언되었습니다. 당내 반란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에게 독재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당헌을 초안했습니다.

히틀러의 이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사회민주당은 이제 테러라는 수단을 통해 그 골칫덩어리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유혈 충돌이 벌어졌고, 우리 지도자의 강철 같은 신경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무적의 경호대 4가 결성되었는데, 이후 이 부대는 '돌격대(Sturmabteilung)'로 명명되었습니다.

1922년

뮌헨 정복이 진행되는 동안, 이 운동은 바이에른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타협을 통해 다른 정당들과 연합하려는 모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점차 모든 유사한 '민족주의' 정당 조직을 파괴하고 국가사회주의 운동을 그보다 우위에 두었습니다.

1922년 10월, 히틀러는 8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코부르크로 진군하여 24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 도시의 적색 테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당시 아돌프 히틀러는 흑적 연합 정책의 결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치닫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체제의 가장 위험하고 가장 증오스러운 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중앙당은 논쟁을 통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을 중단하고 명예훼손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1923년

1923년 1월, 제1차 당 대회가 개최되었고, 당의 첫 깃발이 헌정되었습니다. 돌격대(Sturmabteilung)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의 선전은 철저히 연구되고 개선되었으며, 조직의 영구적인 원칙들은 확립되고 확립되었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히틀러 주변에 모였고, 그들 대부분은 오늘날 투쟁에서 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히틀러에 대한 공격은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반대자들의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처음으로 투옥되었고, 끊임없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순간도 체제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3년 여름, 아돌프 히틀러는 바이에른주의 대부분 도시인 라티스본, 호프, 바이로이트, 뉘른베르크, 퓌르트, 잉골슈타트, 뷔르츠부르크, 슈바인푸르트에서 적색 테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종종 거리 싸움에서 피를 흘리며 사회민주당과 공산당 테러 조직을 물리쳤습니다.

무능한 제국 정부에 맞선 그의 투쟁은 신랄한 비난을 동반했습니다. 그는 루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약한 저항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프랑스와의 이해관계와 이행이라는 어리석은 정책을 끊임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영국과 이탈리아와의 이해관계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1923년 11월, 아돌프 히틀러는 체제 전복을 시도했습니다. 반란은 실패했고 히틀러는 체포되었습니다.

1924년

위대한 재판은 1921년 3월 뮌헨에서 열렸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우리 지도자는 압도적인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히틀러의 변호는 재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 그를 기소한 변호인의 변론은 그의 명예로운 동기를 뒷받침하는 놀라운 증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에게 구금을 선고했습니다.

국가사회당은 지도자를 잃음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적대 세력은 운동이 끝났다고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 악명 높은 도스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독일 약탈 체제가 고의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청년 계획(Young Plan)으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중도파에게는 얼마나 큰 승리였습니까! 독일을 노예화하려는 목표는 명백히 달성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자유로웠던 동료들을 통해 도스 협정에 맞서 싸우려 했지만 허사였다. 그는 중도당, 사민당, 그리고 국민당이 이 계획에 따른 외국 차관이 국가 번영을 증진시키고 실업을 종식시키며 임금을 인상하고 세금을 감면하며 농업을 구제할 것이라는 약속은 단지 국민을 속이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했지만 허사였다. 도스 협정은 차관에 대한 이자가 산업을 마비시키는 반면, 차관 자체는 단지 이 계획에 따른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만 쓰일 뿐이기 때문에 빈곤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들에게 지적했지만 허사였다. 파산과 실업이 증가하고 임금은 상승할 것이다.

경제는 침체되고, 가격과 세금은 더욱 오르게 될 것이며, 농부들은 완전히 파산에 직면하게 되어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12월 20일 히틀러는 요새를 떠났다.

1925년

1925년 2월 27 일 까지 아돌프 히틀러는 당의 재건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투옥 후 4000명의 청중 앞에서 첫 연설을 했습니다.

11월 9일 사건 이후 국가사회주의 운동은 해체되었습니다. ,
그리고 모든 재산과 자금이 몰수되었다. 그리하여 아돌프 히틀러는 이제 당을 기초부터 재건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작했다. 베를린의 포어베르츠와 게르마니아는 그의 노력을 비웃으며 "감옥에 갇혀 미쳐버린 바보"를 조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지도 아래 당 재건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옛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그의 주변에 충실하게 모였습니다. 히틀러는 당 언론에 새로운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1925년 12월까지 당원은 27,000명에 달했습니다. 중앙당과 사회당은
이에 놀란 민주당은 대통령이 2년 동안 대중 앞에서 연설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1926년

올해 6월에는 히틀러가 투옥된 이후 처음으로 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부르주아 세계는 여전히 이행 정책이 독일을 구원하고 도스 협정이 산업을 되살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지배가 흔들릴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헤어져 중앙당과 SPD와 함께 행진했다. 당은 투쟁을 계속했고, 연말에는 당원 수가 49,000명에 달했다.

1927년

히틀러의 공개 연설 금지 명령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철회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대중 집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매달 당은 점점 더 굳건해졌습니다.

히틀러가 옳았다는 것은 전방위적인 사건으로 점점 더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도스 협정은 폭로되었고,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중도당은 거짓말과 횡포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을 구제하려 했습니다.

8월, 히틀러는 뉘른베르크에서 당대회를 소집했고, 이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연말까지 당원 수는 7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1928년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당을 이끌고 기존 체제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이제 독일 내외의 파괴자들에게 냉혹한 적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특히 농민과 중산층의 무분별한 몰락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국내 시장에 닥칠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수백 차례의 회의에서 이행 정책은 광기이며, 그 정책은

그 결과는 독일 산업의 죽음과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중도당은 복수를 위해 조롱과 비웃음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과 욕설은 히틀러 개인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연말까지 당원 수는 10만8000명이었고 당원은 12명이었다.
국회의사당에 앉았습니다.

1929년

아돌프 히틀러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기존 체제와의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당의 언론은 완벽해졌고, 돌격대(Sturmabteilung)는 확대되었으며, 조직은 강화되었고, 선전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교리는 국민 의식 속에 깊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4 일 , 뉘른베르크에서 제2차 당대회가 엄청난 규모로 열렸습니다. 히틀러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기세로 흑적 체제를 공격했고, '민주주의'라는 말의 모든 것에 맞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서 경쟁자 없이 우뚝 섰습니다. 그를 당 지도부에서 몰아내려는 모든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당원 수는 178,000명이 되었다.

1930년

청년 계획에 대한 투쟁이 한창이었다. 힌덴부르크는 청년 계획을 열렬히 옹호하며, 이를 통해 독일이 구원받고, 독일 산업이 부활하며, 실업이 줄어들고, 농민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으며, 세금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그러한 견해를 비현실적이고 치명적이라고 묘사했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예언했습니다. 그의 당은 격렬한 전투 속에서도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대파는 거짓말로 응수했습니다.

9월 14일 에 국회의사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 1930년. 당은 6.5%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100만 표가 모였고, 107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내부 조직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습니다.
외부에서 조장된 몇몇 소규모 반란 시도는 히틀러에 의해 즉시 진압되었고,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추방되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SPD의 손에 넘어간 중도당은 히틀러에 대항하여 교회를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도당 소속 주교와 사제들은 국가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광신적인 공격을 시작하고, 그 추종자들을 파문했으며, 심지어 기독교식 장례까지 거부했습니다. 히틀러는 중도파가 독일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확고히 고수했고, 이전보다 더욱 단호하게 중도파에 맞선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조금이라도 바꾸도록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연말까지 당원 수는 389,000명이 되었습니다.

1931년

청년 계획에 대한 투쟁은 계속되었다. 히틀러가 예견했던 결과가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산업을 살리기 위해 비상 조치를 통해 행정을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고, 아돌프 히틀러는 이 정책의 치명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몇 달, 아니 몇 주 만에 그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사이 여러 국가사회주의 신문이 창간되기 시작했고, 당 중앙 출판부는 점차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직은 매우 효율적이 되었고, 돌격대(Sturmabteilung)는 시간이 흐르면서 높은 발전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거짓말에 빠져 프랑스에서 상품 주문을 허용했습니다.

1931년 말까지 히틀러당 당원 수는 80만 6천 명으로 늘어났고, 한 달 후에는 86만 2천 명,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다시 9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당원이 약 백만 명이었고, 투표소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지자가 모였습니다.

한때 가난한 노동자였고, 나중에는 전선에서 병사로 복무했던 그가 불과 13년 만에 독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 조직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반대자들이 이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거짓말과 명예 훼손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항상 승리해 왔으며, 이번에는 제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될 뻔했습니다.

독일 역사상 당, 고위 금융인, 자본, 언론, 여론, 관료주의, 거짓말, 테러리즘, 박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년 만에 이와 비슷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있었는가?

그는 보호받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깨닫고 오로지 자신의 힘에만 의지했습니다.

머리말

1926년 바이마르에서 당평의회는 독일 정치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간결한 형식으로 다루는 일련의 팸플릿을 발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국가사회주의가 우리 공적 삶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류와 결함을 제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일관되고 완전한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었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다음 과학적으로 그것의 기원을 탐구하며,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영감을 얻어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운명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이 팸플릿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운영, 재정 및 경제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혼란 속에서 '로셰 드 브론즈(rocher de bronze)'를 높이 세우고, 면밀한 연구를 통해 명확한 지식을 축적하여, 그 모든 것에서 단결된 정치적 의지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1927년 8월 31일 열린 대회의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강령 문제는 행정위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강령은 확정되어 있으며, 저는 강령에 명시된 운동의 원칙이 변경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총통의 이 단호한 선언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된 강령이 부정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우리 운동과 같은 운동의 생명력과 파급력에 더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문제, 거대 금융권에 맞선 투쟁, 도스 조약, 빈곤화 정책, 또는 우리 프로그램에 포함된 다른 문제에서 우리와 전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국제 연맹, 로카르노 조약을 통해 타협과 비겁함으로 독일 민족의 자유를 팔아치우려는 사람은 우리에게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NSDAP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강단 연설과 언론의 폭로에서 쉽게 내뱉는 '우월한 사적 지식'을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우리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라도 몇 가지 사소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정치 운동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정적들이 어떤 한 가지 주장을 요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혐오스러운 왜곡으로 엉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는 문제가 다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식적인 논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당사국들처럼 편의주의적 이유로 소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우리의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 조건들을 숙달함으로써 우리의 프로그램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할 것입니다.

나는 아돌프 히틀러로부터 이 팜플렛 시리즈를 발행하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당의 공식 문헌을 형성합니다.

저는 1930년 3월 6일자 당 공식 선언문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제국주의 동맹의 주요 기관지인 도이체 타게스차이퉁이 제기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시켰습니다.
그 신문사는 내 답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토지 소유권과 상속에 대한 우리의 나쁜 성향에 대한 모든 거짓말을 없애는 가장 좋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 농업 인구와 농업에 대한 NSDAP의 입장에 대한 공식 당 선언문

뮌헨, 1930년 3월 6일

1. 독일의 농업과 농민 계층의 중요성

독일 국민은 식량의 상당 부분을 외국 식량 수입에서 얻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산업 수출, 무역, 그리고 해외 자본 투자로 이러한 수입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이러한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입 식량을 대부분 외국 차관의 도움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독일 국민은 신용을 제공하는 국제 금융 기관에 점점 더 큰 빚을 지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독일 국민은 점점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독일이 필수 식량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농업의 생산량 증가는 독일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건전하고 생산성이 높은 국민은 우리 산업에 필수적이며,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국민을 건강의 유산을 이어받은 주체로, 국가 젊음의 원천으로, 그리고 군사력의 중추로 여깁니다.

일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 계층의 수를 늘리는 효율적인 농업 계층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사회주의 정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은 미래 세대의 모든 국민의 복지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2. 오늘날 국가의 농민계급과 농업에 대한 방치

증가할 수 있는 농업 생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부들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재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고, 농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을 늘릴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농업이 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현행 재정 정책 때문입니다. 이는 정당의 고려 사항과, 독일 의회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대인 세계 금융 시장이 독일 농업을 파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일 국민, 특히 노동계급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놓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더 유리한 조건에서 일하고 독일 농업에 대한 보호 정책에 의해 견제를 받지 않는 외국 농업인과의 경쟁에서,

3. 대형 도매 중개인이 밀어붙인 엄청난 이익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위치합니다.

4. 농부가 전기와 인공 비료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억압적인 비율
주로 유대인이 운영하는 관심사.

높은 세금은 토지 노동에 대한 낮은 수익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빚에 시달리고 고리대금에 시달립니다. 농부는 이 폭정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결국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에게 모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독일 농민 계층은 몰수당하고 있습니다.

3.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제국에서는 토지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독일을 위한 농업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독일 정부가 실제로 국제적인 자본가들의 통제를 받고 의회 민주주의 정부 체제의 도움을 받는 한, 국가 인구의 빈곤 상황이 크게 개선되거나 농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토지에 기반을 둔 독일의 힘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새롭고 매우 다른 독일 국가에서는 농부와 농업이 진정한 국가 독일 국가의 주요 지원이라는 사실로 인해 그들에게 합당한 배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나타납니다.

1. 독일 민족이 획득하고 방어하는 독일 국토는 독일 민족의 주거지이자 생계 수단으로서 독일 민족에게 봉사해야 한다. 이 국토를 점유하는 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를 관리해야 한다.

2. 독일 국민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3. 합법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재산을 소유할 권리에는 국가 이익을 위해 이를 사용할 의무가 수반된다.
이 의무를 감독하기 위해 특별법원이 임명되어야 하며, 이 법원은 토지 소유자 계층의 모든 부서 대표와 국가 대표 1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독일 토지는 금융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소유자에게 불로소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독일 토지는 스스로 경작할 의향이 있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토지 매각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가집니다.

사채업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작에 필요한 대출은 국가가 인정하는 협회나 국가가 직접 농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5. 토지 사용에 대한 세금은 재산의 규모와 질에 따라 국가에 납부됩니다. 이 토지세는 토지 재산에 대한 추가 과세를 배제합니다.

6. 경작량에 대해서는 확고한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많은 수의 중소 규모 농장을 필요로 합니다.

농장. 그러나 대규모 농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규모 사업체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7. 재산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법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부채가 축적됩니다.

8. 국가는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가지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부여된:

    a. 국가 구성원이 소유하지 않은 경우

    b. 토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자가 악의적으로 농업은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c.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을 때, 독립적인 농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d. 국가 이익을 위한 특별한 국가 목적(예: 통신, 국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독일 법에 따라)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는 보상 없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니 국가의 의무는 인구 정책에 대한 높은 고려를 바탕으로 한 9. 계획에 따라 이용 가능한 토지를 식민지화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생계가 가능한 조건 하에 정착민에게 세습 소유지로 할당되어야 합니다. 정착민은 시민적 및 직업적 적합성을 심사하여 선정되어야 합니다. 상속권이 없는 농부의 아들에게는 특별한 우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부 국경 지역의 식민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농장을 건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시장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규모 농장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독일의 외교 정책의 의무는 늘어나는 독일 인구를 양육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4. 농업계급은 경제적, 교육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1. 토지 주민의 현재 빈곤은 조세 감면 및 기타 긴급 조치를 통해 즉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부채는 법률에 따라 대출 이자율을 전쟁 전 수준으로 낮추고, 강탈 행위에 대해서는 약식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농업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어야 합니다. 독일 농업은 관세, 국가의 수입 규제, 그리고 전국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 결정은 시장 투기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대규모 중개업체에 의한 농업 이익의 착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가는 중개업체의 사업을 농업 협회로 이전하는 것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 조직의 임무는 농부의 운영 비용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도구, 비료, 종자, 번식 제공)

(우호적인 조건의 가축 사육, 개량, 해충 방제, 무료 상담, 화학 연구 등) 국가는 해당 단체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는 농민들이 인공 비료와 전력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폭 절감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3. 각 단체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계약을 통해 농장 노동자 계층을 농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감독과 중재는 국가의 역할입니다. 훌륭한 노동자들이 농장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과 임금은 전반적인 농업 상황이 개선되는 즉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호전되면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이러한 관행은 앞으로 금지될 것입니다.

4. 농민 계층의 국가적 중요성은 국가가 농업 기술 교육을 장려할 것을 요구한다. (청소년 기관, 농업 고등학교 등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5. 전문가 조직은 농업계급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독일 자유를 위한 NSDAP의 정치 운동만이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시골 인구가 가난한 것은 독일 국민 전체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계층의 노동자가 독일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며, 선과 악으로 얽힌 도시 사람들과 시골 사람들 사이에 질투심을 조장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현재의 정치 체제하에서 경제적 지원은 영구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정치적 노예 제도가 우리 국민의 빈곤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방법만이 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국가 노예화에 책임이 있었고 지금도 책임이 있는 오래된 정당들은
자유로 가는 길의 선두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국가에서는 전문가 조직들이 중요한 경제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 방향으로 많은 준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 질서의 기초를 놓는 정치적 해방 투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투쟁은 단일 직업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방을 위한 정치적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운동
NSDAP입니다

(서명) 아돌프 히틀러



토지 소유권에 대한 NSDAP 정책

Gottfried Feder의 답변

1930년 1월 25 일자 Deutsche Tageszeitung (47호) 에는 브란덴부르크 란트분트(Brandenburg Landbund) 지도자들이 제기한 여러 질문이 실렸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적은 토지 사유재산, 상속, 신용 공여 증가, 관세, 가격 규제, 이익 분배,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정치적, 선거·전술적 관심사에 대한 나치독일사회민주당(NSDAP)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당 강령 17항에 대한 추후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불안을 달래기 위해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NSDAP는 자신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토지 소유권."

답변: 국가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원칙으로 인정하고 이를 국가 보호 하에 있음.

이는 국가 경제 생활에서 크고 작은 모든 기업이 건강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체 프로그램의 정신은 국가사회주의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확고하고 일관된 반대자이며, 일반 몰수라는 파괴적인 중심 교리를 철저히 거부하고 영구적인 농업 계급이 국가를 위한 가장 좋고 확실한 기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는 농업의 모든 가치를 자신들을 위해 동원하고 세금과 대출에 대한 이자를 통해 농부를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자본가들에 대한 단호한 반대자이기도 하며, 대기업의 이익에 의한 침략으로부터 농부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자의 속박과 세금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강력하고 건강한 농부 계층이 필요합니다.

2.

두 번째 질문은 히틀러가 임명한 나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자'.

"국가사회주의는 재산상속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후계자 의무?"

답변: 국가 이념의 근간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연속성, 즉 조상들이 개간하고 경작했던 땅의 상속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국가사회주의는 토지 소유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상속의 원칙도 인정합니다.

재산이 먼 친척에게 돌아가면 국가사회주의 국가는 특별세를 부과하지만,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가는 경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세율에 따라 평가됩니다.

3장.

이 질문은 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제기되었습니다.
토지 담보에 대한 사적 자본가의 대출 금지로 인한 결과.

답변: 농업 재산을 부채에서 자유롭게 하고, 농부들을 전문 금융가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하고자 하는 국가(실제로 많은 농부들이 유대인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음)가 자본주의의 화폐 독점을 무너뜨리고 이자의 노예 상태를 없애고자 하는 국가라면, 필요한 신용을 거부하거나 엄청난 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 사회주의는 농업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4.

"이자의 속박을 깨뜨리는 것." 불로소득의 폐지. "무엇인가"
국가사회주의당이 저축된 자본이나 상속된 자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답변: 오늘날 농부 중에 이자를 받아 '노동 소득'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토지 소유자 중에 임대료에서 저축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는 아직 약간의 자본이 남아 있는 일부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국가사회주의 프로그램의 가장 필수적인 요구에 대한 고의적인 오해나 무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문자 그대로 "이자의 굴레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축이나 주택 담보 대출, 또는 정부 대출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이자를 이자라는 굴레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고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저축을 모두 잃고, 농부가 파산 직전의 금리로 신규 주택 담보 대출과 단기 대출에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현 자본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농민의 진정한 이익에 반하며, 은행과 그 대리인들이 농업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팸플릿 『국가와 사회의 근간』(Der Staat auf nationaler und sozialer Grundlage)과 『국가 사회주의 재단과 국가사회주의당(NSDAP)의 강령에 관한 독일 국가』(Das Programm der NSDA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세금과 관련된 당사의 정책은 소비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접세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자에게는 사업을 제약하는 세금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당은 수입 관세를 철폐할 계획인가?"

답변: 란트분트는 국가사회주의당이 국회에서 농산물에 대한 보호 관세를 전적으로 지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사회주의당의 원칙, 즉 도시와 농촌에서 국민의 활동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6.

이익 분배 문제입니다. 이 광범위하고 어려운 주제를 여기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 주간지 『디 플램(Die Flamme)』에 여러 편의 글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Deutsche Tageszeitung 기사는 인용된 문장들을 문맥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학파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윤 분배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우리 강령은 공장 노동자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농업을 다루는 팸플릿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7.

노령보험 혜택 확대.

"이 목적을 위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가요?"

답변: 현재 노령보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많은 경우 부족하여 빈곤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과세 부담이 사라지고, 현재 실업 상태이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으로 복귀하게 되면, 과거 취업했던 사람들에게 충분한 노령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마련될 것입니다.

7, 9, 10.

이런 것들은 당의 전술과 관련된 문제일 뿐, 어떤 원칙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독일에 불행을 가져온 연립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는, 독일 국민당과 기독교 민족 농민당처럼 (비록 온 세상이 우리를 그들과 갈라놓았지만) 때때로 공산주의자들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지지자들이 어디서 오는지 지시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량한 독일인의 마음을 지닌,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 노동자, 부르주아, 농민에게 의지합니다. 그들은 의회의 악정과 (평화 조약의) 비참한 이행 정책의 종식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다른 정당들과의 '사회적 소통'이 독일 민족을 마르크스주의와 의회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 협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독재적 행동과 단호한 권력 행사만이 독일을 진흙탕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국민은 아름다운 말이 아닌 강경함을 원하며, 협상이 아닌 가난하고 억압받는 우리 국민을 위한 든든한 노력을 원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완전하고 명확한 설명은 국가사회주의 총서 19호(헤르만 슈나이더, 에커스도르프, 나슬라우 지구)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농업에 대한 국가사회주의의 전체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고통받는 독일 농민 계층을 재건하기 위한 잘 고안된 제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흐너 박사의 16번째 글에는 우리 경제 정책의 의미와 정신에 대한 훌륭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히얼 대령이 쓴 12번은 우리의 국가 방위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적들이 악의적이고 거짓으로 왜곡하여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특정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발언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상임 관리 계급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분명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계급에 반대한다면, 위대한 프로이센 국왕을 그렇게 진심으로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서 군대가 그랬듯이, 순수하고 청렴결백한 관리 계급은 국내에서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명예와 의무는 다시 한번 우리 관리들에게 필수적인 자질이 되어야 합니다. 적군과 흑군의 부름에 응하는 그런 관리들은 다가오는 국가에서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당의 감시자들은 명예와 의무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이 공무원들을 반대하며 그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연금을 폐지하려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거짓말에 불과하며, 이는 우리 반대파 언론에서 유포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평생 독일에 충실히 봉사해 온 모든 국민에게 노년의 근심 걱정을 덜어줄 명예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복지 제도가 '빈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연금 개념을 자영업자와 수공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어떻게 기금을 마련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수억 원의 해외 송금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 국내 은행에 더 많은 돈을 송금하지 않게 되면, 그 금액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노령연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실업 지원 및 보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일이 아닙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현행 지원 제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의회에서 실직자들의 더 나은 처우를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옳은 상태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현 정부와 같이 어리석은 외교 및 국내 정책으로 노동, 식량 생산, 모든 상업을 심연의 가장자리로 몰아넣은 정부는 정책을 그대로 실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계에 일할 수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복직시키지 못하는 국가는 마땅히 없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 지원 문제를 재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입니다.

실업 수당 제도에 대한 다양한 공격은, 비록 사회 지원 남용 사례를 언급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원칙에서 우리를 돌리지는 못합니다. 거의 300만 명의 실업자 가운데 실업 수당이 폐지되면 기꺼이 직장에 복귀할 악명 높은 게으름뱅이가 2~3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50만 명의 훌륭한 근로자, 직원, 엔지니어, 기술자, 작업반장, 사무원 등이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참한 실업 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의 철저히 건전하지 못한 국가 정책의 실패 때문입니다.

종교와 성직자에 대한 공격

NSDA.P.가 공격을 꿈꾸지 않는다고 너무 자주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와 그 훌륭한 종들.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중앙당과 바이에른 인민당의 부패한 정책입니다. 이들은 무신론적이고 신을 부정하는 사회민주당과 공동의 대의를 맺을 때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위험에 처했다"고 외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신과 맺는 관계에 대해 매우 높고 신성한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적 갈등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2. 25개 항목

1920년 2월 25일, 뮌헨의 호프브로이하우스 페스트잘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세계에 자신들의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당 헌법 제2조에서는 이 강령이 변경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독일 노동당의 강령은 제한적이어서, 강령에서 선언된 목표가 달성된 후에는 당의 지속적인 존재를 보장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대중의 불만을 증폭시키기만 할 뿐, 새로운 강령을 내놓을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1. 우리는 모든 독일인의 연합을 요구하며, 올바른 원칙에 따라 위대한 독일을 형성합니다.
   국가가 누리는 자결권.

2. 우리는 독일 국민이 다른 나라와 교류할 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베르사유 조약과 생제르맹 조약을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우리는 우리 국민의 식량 공급과 과잉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해 땅과 영토(식민지)를 요구합니다.

4. 국민의 구성원만이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다. 독일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그들의 신조가 무엇이든, 국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대인은 국민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5. 국가 시민이 아닌 사람은 독일에 손님으로만 거주할 수 있으며,
   외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국가 정부와 법률에 대한 투표권은 오직 그 국가의 시민에게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국, 지방 또는 소규모 지방에서 어떤 종류든 모든 공식 임명은 오직 그 국가의 시민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의회가 인품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정당의 고려만으로 직책을 채우는 부패한 관행에 반대합니다.

7. 우리는 국가가 국민의 산업과 생계를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국가 전체 주민을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외국인(비국민)은 제국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8. 모든 비독일계 이민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1914년 8월 2일 이후 독일에 입국한 모든 비독일계 이민자는 즉시 제국에서 출국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9. 모든 국민은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평등하다.

10.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를 사용하여 일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여야 합니다. 개인의 활동이 전체의 이익과 충돌해서는 안 되지만,
    지역사회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1. 노동으로 얻지 못한 소득의 폐지.

이익의 속박 폐지.

12. 모든 전쟁은 국가에 막대한 생명과 재산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개인적 이득은 국가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전쟁 이익을 무자비하게 몰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13. 우리는 지금까지 회사(트러스트)로 형성되어 온 모든 사업의 국유화를 요구합니다.

14. 우리는 도매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15. 우리는 노년을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16. 우리는 건강한 중산층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도매 사업장을 즉시 공유화하고, 이를 소규모 상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및 소규모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모든 소규모 공급업체에 대한 극도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17. 우리는 국가적 요구에 맞는 토지 개혁, 공동 목적을 위한 토지의 무상 몰수에 관한 법률 제정, 토지 대출에 대한 이자 폐지, 그리고 토지에 대한 모든 투기 금지를 요구합니다 .

18. 우리는 공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국가에 반하는 흉악한 범죄자, 고리대금업자, 폭리업자 등은 신조나 인종을 불문하고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19. 우리는 물질주의적 세계 질서에 봉사하는 로마법이 독일 전역을 위한 법 체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20. 유능하고 근면한 모든 독일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고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국가 교육 시스템의 철저한 재구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실생활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국가 이념(국가 사회학)에 대한 이해는 학생의 지능이 처음 발달하는 시기부터 시작되는 학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희생하여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재능 있는 자녀들의 발전을 요구합니다. 계층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21. 국가는 산모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법률로 정한 의무적인 체조와 스포츠를 통해 신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신체 발달에 참여하는 클럽을 광범위하게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22. 우리는 유급 군대의 폐지와 국군의 창설을 요구한다.

23. 우리는 의도적인 정치적 거짓말과 언론의 유포에 맞서 법적 투쟁을 요구합니다. 독일 국민 언론의 창설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1] 1928년 4월 13일 , 아돌프 히틀러는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나치당(NSDAP) 강령 17항에 대한 우리의 반대자들의 잘못된 해석에 답변해야 합니다."

NSDAP는 사유재산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무보상 몰수'라는 표현은 단지 필요한 경우 불법적으로 취득했거나 국가 복지에 부합하지 않게 관리되는 토지를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이는 국가 복지에 따라 집행되며, 무엇보다도 토지에 투자하는 유대인 기업들을 겨냥합니다.

뮌헨, 1928년 4월 13일 .

(서명) 아돌프 히틀러



a. 독일 신문 편집자와 그들의 보조원들은 모두 독일 신문을 사용합니다. 언어는 해당 국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b. 독일어가 아닌 신문이 게재되려면 국가의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문은 반드시 독일어로 인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c. 비독일인은 독일 신문에 재정적으로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해당 신문의 발행 금지 및 해당 신문에 연루된 비독일인의 즉각적인 추방입니다. 국가 복지에 기여하지 않는 신문의 발행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삶을 붕괴시킬 수 있는 모든 예술 및 문학적 경향에 대한 법적 기소와 위에서 언급한 요구 사항에 반하는 제도의 탄압을 요구합니다.

24. 우리는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고 독일 민족의 도덕적 감정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내 모든 종교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당은 그 자체로 긍정적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신조에 있어서는 특정 신앙고백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은 우리 안팎의 유대적 유물론적 정신에 맞서 싸우며, 우리 민족은 오직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서만 내부에서 영구적인 건강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기 이익보다 공동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25. 앞서 말한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강력한 국가 중앙 권력의 수립을 요구한다.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된 의회가 제국 전체와 그 조직에 대해 의심할 여지 없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제국이 연방의 여러 주에서 공포한 일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계급과 직업별로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당의 지도자들은 필요하다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직설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생명 - 앞서 언급한 사항의 충족을 보장합니다.

뮌헨, 1920년 2월 24일.

卐 卐 卐 卐 卐

1920년 5월 22 일 회원 총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이 강령은 변경 불가능하다"는 결의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모든 조항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강령을 심화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령에 담긴 원칙과 주요 사상은 절대적인 결의와 확고한 명확성을 가지고 훼손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편의주의적 고려에서 굽히거나 비틀어서는 안 되며, 정치, 사회, 경제의 현 상황에서는 매우 환영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의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은밀한 간섭도 안 되고, 감정의 변화도 안 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납 활자로 인쇄했습니다. 자기보다 공동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즉 강령의 정신과 국가사회주의의 핵심인 이익의 속박 철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달성되면, 개인주의 사회 이론의 부패한 영향 아래 국가, 민족, 경제가 분리된 오늘날의 사회 질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를 통해 보편주의적 사회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승리로 이어집니다.

건설된 것입니다. 오늘날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고 은행가와 증권거래소 투기꾼들의 불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가짜 국가는 무모한 사적 부와 최저한의 정치적 폭리를 위한 무대입니다. 국민에 대한 배려는커녕, 고결한 도덕적 연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 중 가장 무자비한 돈의 힘은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국가, 민족, 사회, 도덕, 연극, 문학, 그리고 그보다 더 가늠하기 어려운 모든 도덕 문제에 부패하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물론 이 거대한 투쟁에는 흔들림도, 물러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일 뿐입니다.

제가 쓴 책, '국민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독일 국가의 모습(F. Eher Nachf.)'에서 제가 제시한 동일한 기본 원칙에 대한 다소 다양한 견해는 변경 사항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 경제, 금융, 문화적 삶의 측면에 따라 수집되고 정리된 일련의 요점입니다.

만약 제 견해 (22쪽 참조) 가 25개조와 다르거나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히틀러는 결코 간략한 서문에서 제 책을 "우리 운동의 교리문답"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취향에 따라 두 견해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두 견해를 비교해 보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에 표현된 우리의 요구 사항에 대한 미래의 절대적인 동의를 보장하고, 모든 운동을 손상시킬 수 있는 충격으로부터 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1926년 2월 11일 밤베르크에서 열린 모든 지구 조직자 회의에서 전문가와 아마추어 비평가, 불평꾼, 전문가가 제시한 '개선을 위한 제안'에 따라 아돌프 히틀러는 공식적으로 고트프리트 페더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자로 임명했습니다.

3. 기본 아이디어

이 팸플릿을 통해 우리는 국가사회주의 국가 개념의 핵심 원칙들을 가능한 한 간략하고 간결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이후 팸플릿에서는 국가 개념의 사회학적, 이론적, 그리고 정신적 측면들을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다른 정치적 열망이나 이를 대표하는 정당과 협회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단지 우리의 요구 사항의 핵심 사항만을 제시할 것입니다.

세상은 혼돈에서 생겨났고, 질서는 무질서에서 생겨났으며, 조직은 엄청난 혼란에서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혼돈, 투쟁, 증오, 억압, 약탈, 잔혹함, 이기심이 만연합니다. 형제는 형제에게서 멀어지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공격하고, 단지 만자 십자가를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짐과 같은 궁핍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마르크스주의 노동자들이 고용주나 당 지도자, 은행가, 증권거래소의 흡혈귀, 혹은 도매 폭리를 취하는 자들을 공격하거나 살해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혼돈에 대한 유일한 희생은 선량하고 단순한 노동자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성을 잃고 자기 계급의 약탈자들과 힘을 합치려 몰려드는 한편, 그들을 구원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맹렬하게 반기를 듭니다.

민족주의 정당과 다른 정당들은 정부에 참여하거나, 자신들의 국가적 이상을 파괴하고 명예와 인격을 모두 잃은 자들과 정부에 개입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방위 단체들은 '국가', 즉 세베링과 그제신스키의 국가에 침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주의자, 국제주의자, 유대인들과 함께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소위 '법치주의(Rechtskreise)'라는 자들은 독수리와 뱀, 늑대와 양, 인류와 콜레라균이 협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질서, 정치적 혼돈, 정치적 무기력함에 '질서'라는 외양을 부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사회주의자들, 즉 '광신자들'에 맞서 싸웁니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과 지위를 일부 박탈할지도 모른다는 광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정치적 빵과 물고기의 몫'을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산업계는 단 하나의 목표, 즉 이윤을 추구하고, 단 하나의 열망, 즉 신용을 갈망하며, 단 하나의 저항, 즉 과세에 반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은 단 하나, 즉 은행입니다. 그들은 이자에 대한 굴레를 타파하라는 국가사회주의의 요구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욕망은 '빚을 지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아무런 노력이나 노력 없이 대출을 통해 거둬들이는 막대한 공물을 그들은 완벽하게 질서정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정당들을 결성하고, 과중한 세금의 주요 원인인 도스 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명예는 기업에서 사라졌고, 모든 것은 강력한 기업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최대의 적, 거대 금융에 굴복했습니다. 빚더미에 쌓인 공장과 사무실의 고용주들은 최소한의 돈으로도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의 모든 이익은 이자와 배당금의 형태로 비인격적인 화폐 권력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통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혼란을 막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는 세금과 이자 지불로 짓눌리고, 아래에서는 침수된 사람들의 불평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국가에 맹목적으로 묶여 있는 반면, 현재의 혼돈 속에서 착취하는 자들은 그들이 노동 대중을 노예처럼 부리는 권력을 유지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마르크스주의의 광기가 아니라 갈고리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일 경제의 비극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독일이 제때에 대처한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음을, 오직 우리만이 목격하고 인지하고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온갖 이름을 내건 결사체들이, 기본 이념은 합리적이지만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사회생활 속에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채,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사회 전체인 국가와 소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기 계층을 위해 작은 이익만 챙기는 데 급급합니다. 정치적·경제적 원칙도 없이, 그들은 각 정당에 순순히 따집니다. 그들은 기존 체제에 굴복하고 소위 최고 권위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들은 독일 국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무수한 조직자, 이사, 그리고 배후 조종자들에게 지불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적인 조치인 인플레이션은 모든 계층, 즉 검소한 사람들, 협회 회원들, 장인들의 저축을 앗아갔습니다.
녹색 테이블에서 바로 나온 새로운 세금은 수년간의 노력에 기반한 희망을 무너뜨립니다. 수많은 회의, 논의, 정부 대표단 파견을 통해 얻은 이점은 대개 생계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해 무산됩니다.

혼돈과 광기! 농부가 어떻게 이런 박해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들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물건을 살 수 있겠습니까? 생계비 지수가 계속 오르는데 공무원과 직원들의 봉급을 올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국가의 도움을 바라기만 합니다. 모든 빈곤과 억압을 초래한 국가는 '국부'가 아니라, 돈의 전제주의에 찌든 폭군이며 세금 징수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옛 정당으로 돌아서서 정치에 관심이 없고 소속감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 당에도 속하지 않고, 동시에 예전처럼 비참한 당내 다툼을 계속하도록 놔두세요.

국가사회주의가 제시한 위대한 과제는 질서를 회복하고, 혼란을 해소하고, 낡은 질서에서 벗어난 세상을 다시 질서 있게 만들고, 그 질서를 수호하는 결의입니다. 이는 가장 높은 플라톤적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찰이 있는 국가의 겉보기 질서도, 관습에 의해 신성시되고 법으로 허용되는 재정 약탈도, 조직이나 트러스트, 그리고 국가를 배신하기 위한 다른 조직적인 수단들의 음모도, 그것들이 아무리 잘 '기능'한다고 하더라도, '질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강도단조차도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교도소에도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유기체로서 국가 안에서 우리 공적 삶의 모든 측면은 고통, 속박, 억압, 불성실함을 드러내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부와 국민, 정당과 정당, 동시에 가장 부자연스러운 동맹을 맺고, 고용주와 고용인, 상인과 생산자 및 소비자, 지주와 소작인, 노동자와 농부, 공무원과 국민, 노동자와 노동자가 서로 대립합니다.

'부르주아', 즉 교회와 국가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며, 각자는 맹목적으로 특정 적에게 아부하고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 출세, 돈줄만 생각한다. 아무도 상대방이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도 이웃의 복지나 공동체에 대한 더 고귀한 의무를 생각하지 않는다. 숨 막힐 듯 개인적인 이익을 좇는 것이다. 이웃을 팔꿈치로 치고, 이득을 얻으려면 그의 몸을 짓밟아도 된다. 왜 신경이나 쓰겠는가? 그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기업이다.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우리는 거대한 세상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단순한 영혼들, 불쌍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혼돈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구원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살하거나,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다고 생각하고 황금송아지를 쫓는 경주에 뛰어들어 맹목적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 "우리가 홍수를 겪고 나면,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국가의 사기가 이처럼 끔찍하게 훼손되는 것은 사회의 지적 기반 전체가 흔들리거나 거짓일 때에만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모두 같은 신을 숭배한다는 것을 봅니다.
개인주의. 개인적 이익만이 유일한 동기이며, 삶에서 자신이 속한 좁은 계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시리즈에 대한 추가 기여가 나타날 것이며 주의 깊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사회 구성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여기서는 오늘날 국가 및 정치경제의 유기적 오류와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본질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적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이며, 국가는 최상의 경우 개인이나 단체들의 편리한 집합체입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에 대한 이 교리를 돌무더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돌무더기에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는 개별 돌 조각뿐입니다. 돌무더기의 모양은 우연의 문제입니다. 돌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결과는 돌무더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돌.

같은 비유로, 우리 국가사회주의 사회 교리와 국가 철학에 부합하는 국가는 바로 집입니다. 기계적으로 말하자면, 집 역시 수많은 개별 벽돌, 즉 모래, 시멘트, 들보, 창문, 문, 바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집, 즉 방은 더 높은 실체, 새롭고 독특하며 그 자체로 완전한 어떤 것이며, 단순히 벽돌을 쌓아 올린 것 이상의 것임을 누구든 알 수 있습니다. 집은 여러 개의 개별적인 부분들을 쌓아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부분들을 의도적인 계획에 따라 조립함으로써만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이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유기적으로 질서를 잡고 형태를 갖추기 전까지, 그리고 여러 부분들로부터 합리적인 전체가 조립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국가(Sate)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때서야 구성 요소들은 목적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비엔나 대학교 전 총장 오트마르 슈판은 그의 저서 『현재의 국가(Der wahre Staat)』와 『게젤샤프트슬레어(Gesellschaftslehre)』에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국가의 보편적 질서라는 고상한 이상과 대조되는 오늘날의 개인주의적 국가의 사회학적 토대를 훌륭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가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선이다.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익에 봉사할 때에만 개인은 각자의 위치에서 더 높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각자는 진정한 사회주의, 공동체 의식, 참된 삶에 도달하고, 안전 의식을 획득하며, 이러한 사상의 지배 하에서만 오늘날의 강도질 체제에서 유기적인 국가 정부가 탄생하여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은 지배를 위해 싸우는 세력의 무력한 희생자이며, 그의 연합은 그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즉 게으른 이윤 추구자와 착취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외침, 중앙 정부의 경건한 선언, 그리고 재계의 부담에 대한 불평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이자를 생각하면 아무도 세계의 적, 세계를 압도하는 금융, 그리고 그 대표자인 유대인 재벌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

모든 계층이 이자의 채찍질을 느껴왔습니다. 세금 징수원은 모든 계층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은행과 증권 거래소의 권력에 반대하겠습니까? 자본은 지구상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마치 고통이나 노동 없이도 마치 자기 외부에서처럼 성장하고, 이자와 배당금을 통해, 그리고 매 순간 더욱 강력해지고 강해짐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악마적인 거짓의 원리는 창조적인 노동의 품위를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져라, 관심의 노예가 우리의 전쟁 외침이다.

저는 다른 모든 요구의 근간이 되는 이 요구가 우리 당 내에서조차 그 광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당의 연설자 중 대부분은 이 기본적인 문제를 감히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당의 슬로건 중 하나가 "자본과 증권거래소에 맞서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자의 예속'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것이 국가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금융'이 어떻게 국민을 노예화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올바르고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타파할 때 전체 국민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는 극소수에게만 충분히 명확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그의 위대한 저서인 나의 투쟁(제1권, 224-225쪽)에서 이 문제의 엄청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919년 6월, 고트프리트 페더가 이자의 굴레를 타파하는 것에 관해 처음으로 강의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것이 독일 민족의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론적 진리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국제 자본과 금융에 맞선 투쟁은 독일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

모든 진지한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확신을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결은 유대인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유대주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운동 전체의 근간이 되는 감정의 토대입니다.
모든 국가사회주의자는 반유대주의자이지만, 모든 반유대주의자가 국가사회주의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유대주의는 부정적입니다. 반유대주의자는 국가적 전염병 병원균의 보균자를 인정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대개 유대인 개인에 대한 증오와 유대인의 사업 성공에 대한 증오로 변질됩니다. 그러다가 기껏해야 반유대주의가 일어나 유대인을 국가와 경제에서 몰아내는 데 일조합니다. 반유대주의자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다음에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대인이 쫓겨난 후에도 오늘날의 유대인 지배 원칙, 즉 전체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원칙과 유대인의 은행 및 신용 시스템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오늘날의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자기 인종에 대해 분노할 준비가 된 혼혈 유대인이나 '평범한 독일인'이 여전히 충분히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앉아 있던 자리에 '반유대주의자'가 많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국가사회주의는 이익의 속박을 타파하라는 주요 요구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건설적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고, 그 결과는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제 에세이 『우리의 강령(Das Herzstück unseres Programms)』(Nat.Soc. Jahrbuch, 1927)에서 저는 다른 모든 정당과 단체들 사이에서 우리의 요구가 갖는 독특한 위치를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다른 모든 요구 속에서 우리는 우파와 좌파 정당에서 유사하고 유사한 열망을 발견합니다. 우리 정당 외에는 이 하나의 요구에 상응하는 정당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타도"라는 거짓 외침을 내뱉는 좌파도, 조국에 대한 구호를 내세우는 우파도 새로운 세계 시대를 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든 반동주의자든 우리 경제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고,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처럼 파괴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건설할 능력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처럼요.

관심의 노예상태란 무엇을 뜻하는가?

세계 금융의 돈 지배 하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

토지 소유자는 농장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런 속박에 시달리는데, 대출 이자는 그의 노동의 결과를 거의 먹어 치울 정도로 매우 높거나, 빚을 지고 마치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그 저당을 끌고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는 상점과 공장에서 싼값으로 생산하고, 주주는 일하지 않고 얻은 배당금과 보너스를 받습니다.

소득이 있는 중산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노동은 거의 전적으로 은행 당좌대월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반면, 노동이나 어려움 없이 배당금, 투자, 그리고 은행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검소한 저축가나 소액 자본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잘못된 제도에 빚을 졌거나 지고 있지만, 그들의 평생 동안 그들의 적은 이자는 세금의 형태로 빼앗겼고, 우리는 그들이 늙었을 때 그들의 전체 수입의 일부를 쉽게 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힘들게 사업을 키워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유 계약자가 아니며, 압박받고 싶지 않다면 탐욕스러운 이사회와 주주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적자를 대출로 메우는 모든 국가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속은 자국의 주권, 재정, 철도, 세금, 관세에 대한 통제권을 화폐 권력, 은행가에게 넘겨주는 모든 국가에 파멸을 의미합니다. 독일이 도스 법을 수용한 것처럼요.

창조적인 노동 역시, 무엇보다도 돈을 먼저 생각한다면, 똑같은 속박에 시달립니다. 오늘날
'사업의 하인'인 돈이 노동의 주인, 사실상 잔혹한 폭군이 되었습니다.

이익에 대한 노예적 태도는 자본 대 노동, 피 대 돈, 창조적 노동 대 착취 등의 대립을 실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은 우리 국가와 우리 인종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므로, 우리 국가가 수치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은 오로지 이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행복, 번영, 문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희망도 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돌아가는 중심축입니다. 단순한 재정 정책의 필수 조건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 원칙과 결과가 정치 및 경제 생활에 깊이 스며들면서, 경제 연구의 핵심 질문이기도 하며, 따라서 모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각자에게 결정을 요구합니다. 국가에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무한한 개인의 부를 축적할 것인가. 이는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의미합니다."

모든 '세계적 문제'는 혼돈 속에서 불꽃처럼 솟아오르는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예언자와 책도 그 단어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국가사회주의의 이 광대한 기본 원칙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내 팜플렛에서 문제의 모든 본질적인 측면을 조명했습니다. Das Manifest zur Brechung der Zinsknechtschaft — 뮌헨, 1926(현재 절판); Der Staatsbankrott, Die Rettung — Jos. C. Huber, Diessen, 1919; Der kommende Steuerstreik — 디센, 1921; 그리고 Der Deutsche Staat auf nationaler und sozialer Grundlage - Frz. Eher Nachf., 뮌헨(모두 Thierschstr. 11, 뮌헨에 있는 우리 당 도서관을 통해 구할 수 있음).

이 문제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려면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실용 경제학은 자본주의적 사상을 너무나 밀접하게 따랐기 때문에, 이 사상과 함께 자란 모든 사람은 이 사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팜플렛이 곧 출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회원들에게 다가올 민족주의 국가의 매우 중요한 임무에 대한 설명이 제공될 것입니다.

위에 주어진 우리 프로그램의 두 가지 매우 새로운 기본 원칙 외에도,
국가의 일반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특정한 사항을 언급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가 정책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제국은 독일인의 고향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외교 정책에 대한 위대한 원칙이며, 독일의 정치적 해방, 인종 정책의 모든 요구 사항, 국가 구성원 자격 조건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경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경제의 의무는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본에 최대한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경제 정책의 원칙은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사회주의의 근본적인 태도를 포괄하며,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신디케이트, 트러스트)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가 단순히 국가를 착취하고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사업에서 중요한 도덕적 문제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우리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금융 재벌은 국가를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내의 국가.

이 원칙은 엄청난 변화를 수반합니다. 이는 이자율의 속박을 깨기 위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들, 즉 금융 국유화, 신용 시스템 및 은행 시스템의 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제는 우리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세법과 관련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도 포함됩니다.
세금 없는 국가의 목표.

사회적 주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법 가운데 가장 높은 법은 일반 복지이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은 모든 계층, 모든 직업이 사회 정책에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집단만을 위해 이익을 취하려 하는 오늘날의 관행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주거지를 마련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을 위한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육과 도덕적 진보에 관한 우리의 불변의 원칙은 바로 그 방향의 모든 활동이 오직 독일 국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도덕적, 지적 힘이 예술에 새로운 르네상스, 새로운 고전 시대를 열도록 하는 것은 명령이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상처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유대인 독재 정권의 손에 의한 우리 독일의 예술적, 지적 생활의 침해, 특히 언론에 대한 독살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공공 생활의 이 중요한 영역 외에도 고려해야 할 다른 개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법 체계는 다양한 새로운 제도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민주적 투표에 의한 의회 선출이라는 스캔들은 제거되어야 하며, 독재 정권의 이행기가 지나면 국가의 외적 형태와 연방 국가의 내부 기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간략한 개요에서 이러한 질문의 광대한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엄청난 기본 원칙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군주국이 될지 공화국이 될지, 5개 주 또는 25개 주로 구성된 연방이 될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그 주들이 모두 강력한 중앙 정부 하에 통합된 독일 주여야 하며, 외국인과 마주할 때, 그리고 독일 국민만이 국내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4. 프로그램 요구 사항 세부 정보

Der deutsche Staat에서 Gottfried Feder가 공식화했습니다.

신규 회원 모집 시, 다음 형태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조항은 앞 장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더 중요한 항목 아래에 배치됩니다.

NSDAP의 정치 및 경제 프로그램

우리의 목표는 독일 정신으로 독일의 자유를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 원칙: 독일 제국은 독일인의 고향입니다.

   a. 외교 정책에서:

   - 독일 민족 전체를 포괄하는 동질적 국가 형성.
   - 해외에서 독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합니다.

   b. 인종 정책에서:

   - 독일 민족 전체를 포괄하는 동질적 국가 형성.
   - 해외에서 독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합니다.

   c. 내부 정책에서:

   - 독일의 정신과 운명을 공유하는 전체 공동체를 표방하는 독일인만이 국가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독일인이 아닌 사람은 손님 자격으로만 독일 국가에 거주할 수 있으며, 외국법에 따라 거주해야 합니다.
   - 독일인의 권리는 외국 시민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2. 우리의 경제 원칙: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본에 최대한 높은 이익을 보장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 국가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원칙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호한다.
   법.

   b. 그러나 국가 복지는 개인의 손에 부를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c. 모든 독일인은 일반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문화.

   d. 모든 독일인의 노동 의무의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의 신성함이 존중되는 한, 모든 독일인은 자신의 노동의 결과를 자유롭게 벌고 처분할 수 있다.

마. 농업을 포함한 경제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의 건전한 결합이 장려되어야 한다.

f. 지금까지 회사 형태로 존재해 온 모든 기존 사업체는 국유화되다.

g. 고리대금과 이익 추구 및 손해를 입히는 개인적 부를 축적하는 행위 국민의 적으로 간주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h. 매년 1년 동안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 도입 독일 사람.

3. 우리의 재정 원칙: 재정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금융 재벌들이 국가 안에 국가를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이자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 나아가 국민의 빚으로부터 구제받는다.

b. 제국은행과 발행 기관의 국유화. c. 모든 주요 공공사업(수력, 철도 등)에 대한

자금 조달은 대출이 아닌 무이자 국채 발행이나 현금 사용 없이 이루어진다.

d. 담보를 기반으로 한 고정 통화 기준 도입.

마.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국가적 사업 개발 은행 설립(통화 개혁).

f. 사회경제적 원칙에 따른 조세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소비자는 간접세 부담에서, 생산자는 과도한 조세 부담에서 해방(재정 개혁 및 조세 감면).

4. 우리의 사회-정치적 원칙: 일반 복지가 모든 법 중 가장 높은 법입니다.

가. 연금 제도를 국유화하여 노령보험을 대규모로 확대한다. 독일 국가의 모든 구성원은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또는 영구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연령 이전에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연금을 보장받는다.

b. 생산적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효율성과 연령에 따라 이윤을 창출하는 데 참여합니다. 또한 국가적 관점에서 이러한 과업을 완수하는 데 대한 책임을 공유합니다.

c. 전쟁과 혁명으로 얻은 모든 이익(정직한 노동으로 얻은 것이 아닌 것, 고리대금업자와 돈벌이꾼의 재산)을 사회적 목적으로 압류합니다.

d. 제20호(새로운 국립은행)에 제안된 수단을 통해 제국 전역에 광범위한 신규 건설을 실시하여 주택 부족을 해소합니다.

5. 우리의 문화적 목표는 모든 과학과 미술이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건강한 국가를 기반으로 번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위대한 업적을 이룬 후, 젊은이들이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는 자유로워지도록 훈련합니다. 독일 문화의 전통.

나. 신조와 양심의 완전한 자유.

c. 기독교 교파에 대한 특별 보호.

d. 독일의 도덕적 본능에 반하고 국가와 민족에 해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교리를 억제합니다.

마. 언론, 문학, 무대, 예술, 영화관 등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영향을 억제합니다.

f. 독일 중등학교의 교육의 자유; 지배구조의 형성
고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계층.

6. 군사 문제.

a. 모든 자유 독일인이 봉사하고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가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무기.

나. 유급 군대의 폐지.

c. 전문 장교로 구성된 고도로 훈련된 부대의 지휘 하에 국가 방위를 위한 국가군 창설.

7. 기타 권장사항

가. 언론 개혁. 국익에 반하는 모든 언론사의 탄압. 모든 허위 및 고의로 조작된 정보에 대한 엄중한 책임.

나.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 경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없애고, 당선자의 면책권을 보장합니다.

c. 무역 및 전문직업을 위한 특별 상공회의소 설립.

d. 토지법에 관한 사법 개혁 - 토지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인정; 토지 담보로 사채를 빌릴 권리 없음; 특히 외국인과 유대인의 경우 국가가 우선매수권을 갖도록 함; 소유자의 부실 관리 시 국가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민법은 오늘날 주로 지배적인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법적 보호와 대조적으로 개인의 명예와 건강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e. 주법 개혁.

독일인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국가 형태는 중앙집권적인 인적 권력으로 통합된 주권적 통제입니다. 국민은 이 중앙집권적인 인적 권력을 선출된 군주가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행사할 것인지 나중에 결정해야 합니다.

제국의 연방적 성격.

독일 국가는 인종과 역사에 따라 긴밀하게 연결된 여러 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는 내정에 있어서 매우 광범위한 독립을 가져야 합니다.

독일 국가를 해외에서 대표하고, 여권과 관세를 마련하고, 육군과 해군을 보호하는 것은 제국의 임무입니다.

이 국가적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에는 세 가지 주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의회제도, 자본가 재벌들.

1. 우리의 반마르크스주의 캠페인은 유대인 카를 마르크스의 파괴적인 교리, 즉 국가를 분열시키는 계급 전쟁,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유재산 폐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경제적 유물론적 관점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2. 의회에 대한 우리의 캠페인은 소위 국민의 대표자들의 책임감 부족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면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소환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도덕적 부패, 인척주의, 매수)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은 최후의 악, 즉 그러한 의회에 의존하는 정부를 초래합니다.

3. 다른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돈에 대항하는 우리의 캠페인은 세계를 포용하는 돈의 힘, 즉 거대 대출 기관에 의한 우리 국민의 끊임없는 착취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탐욕과 약탈이라는 영혼을 죽이는 물질주의적 정신과 그것이 우리의 공공, 상업, 문화 생활 전반에 걸쳐 일으키는 모든 파괴적인 수반 행위에 맞서는 엄청난 투쟁입니다.

주된 갈등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구조, 즉 창조하고 창조하는 정신과 불안하고 탐욕스러운 정신으로 대표되는 두 세계 이론 사이의 갈등입니다. 뿌리가 깊지만 영적 경험에 있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한 창조 정신은 주로 아리아 인종에 의해 주도됩니다. 반면, 어디에도 뿌리가 없고 오로지 물질적이고 상업적인 것만을 목표로 하는 탐욕스러운 정신은 주로 유대인에 의해 주도됩니다.

반유대주의와 마찬가지로 국가 사회주의는 유대적 유물주의 정신을 악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쟁이 단순히 셈족 정신을 파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사회주의의 위대한 강령은 반유대주의적 파괴 욕망을 훨씬 뛰어넘어 노동과 성취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완성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이 고귀한 목표가 달성되면 국가사회주의당은 자동적으로 해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사회주의가 독일 전체 국민의 삶 전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치당(NSDAP)은 일반적인 의미의 정당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진 국민의 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강하고 단호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독일을 대외적으로는 치욕과 무력함에서, 대내적으로는 사기 저하에서 구출하고, 대외적으로는 독일을 다시 한번 강하고 존경받는 나라로, 대내적으로는 도덕적, 경제적으로 건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독일 제국은 독일 국민의 고향입니다."

오늘날의 비참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국가 정책의 원칙에 대한 모든 단어는 채찍으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 제국' — 오늘날 독일 제국은 어디에 있는가? 독일이 독립 국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아니다! 국가법 분야의 가장 안일한 전문가들조차도 지금의 독일을 모든 주권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나라라고 묘사할 수 없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5가지 권리는 영토에 대한 주권, 군대에 대한 주권,
재정, 내부 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입니다.

국제법에 따른 국가의 권리에 대한 추가 설명 없이 이런 식으로 일반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오늘날 독일의 입장과 비교해 보면, 더 이상 주권을 가진 '독일제국'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영토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는 언제든 독일 영토를 허가 없이, 반대 없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코인, 폴란드인, 덴마크인

방해받을 걱정 없이 독일 영토로의 어떤 침입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구체제'는 국경의 사소한 침범에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렸습니다. 당시 독일 영토로의 군사적 침입은 '전쟁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는 자국 영토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행복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격퇴할 수 있는 무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유 국가는 외국이 자국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군대의 병력, 장비, 무기, 수비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국가는 분명히 '주권 국가'가 아니며, 권력 수단을 통제할 수 없고, 군사력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독일은 적의 군축 및 통제 위원회에 굴복함으로써 이를 실현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휴전 조건 하에서 이러한 굴욕을 겪었고 국제적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부 통제력의 일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군사적 통제가 무너지자마자 금융 재벌들은 독일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착취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선, 혁명의 진흙탕 물결이 독일을 휩쓸었다. 그러자 고리대금업자와 폭리꾼, 사회민주당의 반역자, 혼돈의 자식들, 탈영병, 감옥에 갇힌 자들이 민주당과 중도파와 권력을 나눠 가졌고, 그 배후에서 모든 금융업자들인 유대인들이 제 할 일을 했다. 곧 소위 국민당의 프리메이슨, 특히 슈트레제만 형제가 소집되었다. 마지막 일격이 곧 다가왔다. 도스 법을 내세운 전문가들은 독일의 재정 통제권을 빼앗아 독일과 외국의 금융 거물들인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넘겼다. 제국의회는 철도와 함께 모든 통신 통제권을, 그리고 세금과 관세 통제권의 상당 부분을 배상 위원에게 넘겨주었다.

사법 통제는 더 이상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령된 지역은 외국 군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독일의 나머지 지역은 공화국 방위와 같은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권리의 불안정, 소위 '계엄령(Aufwertungsgesetze)'을 통한 조직적인 공공 강도 행위는 법원으로 하여금 악을 선으로 선언하도록 강요합니다.

독일은 더 이상 주권 국가가 아닙니다. 노예 식민지입니다. 독일인들은 억압받고, 투옥되고,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단지 그들이 여전히 '독일인'이고 노예 생활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독일이 다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독일 제국은 독일인들의 본거지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질서 유지를 위한 기계, 단순한 '국가', '권한', '정부', 소수의 군림하는 가문을 위한 안식처가 아니라, '집', 그 매력적인 단어, 고향에 대한 사랑, 아름답고, 햇살 같고, 사랑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고향의 흙 냄새가 솟아오르고, 방랑자는 발밑에 고향의 흙을 느끼며 기쁨에 휩싸입니다. 그는 혈연으로 고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느낌은 안정감이며, 그로부터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어납니다. 국가와 민족은 이보다 더 훌륭한 목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중한 사회 정책보다, 실업 보험보다, 주택 계획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자신의 집을 갖는다는 것은 집을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입니다.

집은 열정이나 개인적인 이유로든 봉사하는 '제국 국가' 이상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그것은 행정, 자기 이익의 방어, 가축의 요람, 인신과 재산의 보호 이상의 것입니다. 이 모든 공공 시설은 가정이라는 개념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주는 것처럼,

조직된 가족은 호텔이나 감옥의 방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것으로, 목적을 위한 연합이라는 개념보다 우월하다. 이는 사회 국가에 대한 자유주의적-의회적-민주주의적 개념이다.

국가 정책

원칙: 독일 제국은 독일인의 고향이 되어야지, 유대인, 러시아인(공산주의자), 독일이라는 조국이 없는 사회민주당(크리스피엔)의 고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독일 영토에 장기 또는 단기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의 고향이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바이마르 헌법에 대해 날카롭고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헌법은 '독일 국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국가적, 혹은 인종적 의미에서의 '독일인'이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a) 외교 정책.

1. 독일 민족의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견고한 국가를 건설합니다.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체코, 이탈리아의 주권 하에 살고 있든, 모든 독일 혈통은 독일 제국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들이 요구했던 것, 즉 독일인이 조국인 독일 국가에 속하기로 결정할 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데텐 독일, 알자스-로렌,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국제연맹 식민지, 그리고 옛 오스트리아를 계승한 국가들에 있는 모든 독일인을 우리의 영토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제국주의적 경향을 명백히 배제합니다. 이는 모든 강력한 민족이 자연적 요구로 내세우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요구입니다.

2. 해외에서 독일의 이익을 강력하게 대표하는 것은 또 다른 필수적인 결과입니다.
a 지점의

대개 가장 뛰어나고 근면하며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 즉 엔지니어, 탐험가, 교수, 상인, 의사들이 독일 문화를 가지고 외국에 나갑니다. 그들은 위대한 독일 민족 가족의 일원이며, 결코 그 가족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해외에 있을 때 고향으로부터 보호를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게르만 사상을 의식적으로 전파하는 선봉대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사도'가 아니라 북유럽 사상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외국적 관념을 갖지 말고, 독일의 우월성을 고수해야 합니다. 우리 외무부는 쇠빗자루로 깨끗이 쓸어내야 합니다. 에르츠베르거와 슈트레제만처럼 외국인에게 아첨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의 이익을 강력하게 대변하는 것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중받게 되고, 경멸 대신 독일의 욕망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b) 인종 정책.

3. 유대인과 모든 비독일인을 모든 공공 생활의 책임 있는 직위에서 배제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 국가사회주의자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인종적 교리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대인을 '유대교 국가의 시민'으로 보는 사람, 즉 이질적이고 분리된, 기생적인 성격의 민족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요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딸기나무 한가운데서 우연히 자란 양배추가 딸기나무였고, 거기서 좋은 딸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거나 생각한다면, 마치 양 떼 사이에 끼어든 새끼 사자가 양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독일인은 중국이나 인도의 정부 관리로 적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중국인이나 호텐토트인이 독일 도시의 재무부 관리나 시장으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종적 특성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유대인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보다 엔베르 파샤나 장개석이 독일을 통치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확실한 것은 혁명이 국가 질서의 끈을 느슨하게 했고, 오랜 역사를 가진 유대인 은행가들과 최근 독일로 이주한 동독 유대인들이 독일을 빈곤하게 만듦으로써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북유럽 제도의 붕괴를 목격했고, 경험해 왔습니다. 이는 항상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교활한 민족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만이 열려 있습니다. 질서가 유지되는 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습니다." (플룬더스바일렌 박람회에서의 괴테)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4. 동방 유대인과 기타 기생 외국인의 이민을 중단해야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과 유대인은 추방되어야 합니다.

대인플레이션 당시 갈리시아와 폴란드 출신 유대인들은 독일 도시로 벌레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집이 매우 부족했지만, 곧 그들은 아주 좋은 집을 갖게 되었고, 독일인들은 빈민굴로 기어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것을 사들이는 더러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진주, 페르시아 양탄자, 다이아몬드, 금, 은, 백금, 전쟁 차관, 1,000마르크 지폐, 구리, 납, 문학 작품, 극장, 곡물(증발 회사)까지. 그들은 금세 눈에 띄는 부를 축적했고, '평범한 독일인'들의 눈에는 독일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타협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종적 신념이 명확하고 확고한 행정가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유대주의적 접근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인종의 건강을 회복해야 하며, 우리 나라는 북유럽적 이념의 의미에서 북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NSDAP의 '임시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독일 민족이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때까지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끔찍한 인종적 타락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억제될 수 있었던 것은 인종 문제에 대한 관심이 널리 퍼져 있고 이 주제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고하고 지속적인 작업만이 우리가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c) 국가 시민권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5. 독일 문화와 공동 운명을 믿는 독일인 외에는 아무도
모든 독일인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린다.

여기서도 한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독일 태생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국가와 민족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외국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 즉 공동 운명에 대한 몫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고귀한 명예를 박탈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6. 비독일인은 독일 국가에 손님으로만 거주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영원한 아첨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해 고안된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외국 시민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이 예의 바르게 처신하는 한 손님처럼 대접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7. 독일인의 권리와 이익은 외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다 우선한다.

우리의 추가적인 요구 사항은 강령에 상세히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형태는 나중에 정착될 것이며, 유대인을 배제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에 대한 강령은 패권 확보 방법 등에 대한 전술적 세부 사항을 제시하는 행동 강령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령을 너무 엄격하게 정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위대한 투쟁에서 우리는 결코 훼손되지 않을 원칙들을 먼저 정해야 하며, 부르주아 정당과 사회당의 표를 얻는 방법을 모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정책

국민의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정부의 의무이며,
자본의 가능한 가장 높은 이익을 확보합니다.

단순하고 평범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자명한 사실을 원칙으로 선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생산자, 농부, 장인, 제조업자에게는 자신이 만든 것이 자신에 의해 사용되거나 소비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혹은 상품으로서 타인에 의해 소비된다는 것도 상식입니다.

그의 눈에는 생산이나 소비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이
터무니없고, 불가능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이는 우리의 인력 모집 작업에서 가장 큰 지적 난제 중 하나에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 동포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노동과 경제의 의미와 목표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매우 옳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소위 정치 경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국가 정치 경제의 명백한 의무와 완전히 상반되는 끔찍한 특징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리대금업자와 폭리꾼들은 어떻습니까? 이 만능 약탈자들은 생필품을 공급할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무언가를 생산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경제적 의미에서 강도이자 반역자이며, 단지 자신들을 위해 부를 축적할 뿐입니다.

은행은 어떨까요? 은행은 돈을 유통시키고 '신용'을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이 이 일을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더 잘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누구에게 신용을 줄까요? —

가난한 사람들, 자기 집도 없고, 집을 짓거나 절실한 주거 필요를 채워줄 사람도 없는 노동자들에게요? 절대 안 됩니다! 농부들에게도, 사업을 하고 경제적 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에게도요?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상환 의무 외에 담보가 제공될 때에만 주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자를 받습니다. 은행들이 생산자의 고객에게 양질의, 저렴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경제적 필수품을 신속하고, 저렴한, 그리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공급하는지에 관심이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의 유일한 생각은 이자, 수수료, 또는 은행이 화폐 공급을 활용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이자나 수수료, 아니면 그 무엇으로든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무엇을 생산합니까? 아무것도! 그들은 무엇을 버나요? 막대한 돈을.

따라서 대금업자, 폭리업자, 은행, 금융업자들은 필수품을 공급하지 않고, 오히려 지배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막대한 이윤을 챙깁니다. 사실상 그들은 오늘날의 반사회적 경제 체제를 압제하고 착취합니다. 경제학의 주요 과제는 대출 이자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수입의 일부를 '도시'에 내놓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공장주, 혹은 노동자들이 '착취자' 또는 '흡혈귀'라고 부르는 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하고, 대량 생산하고, 평균화하고, 높은 소매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는 가능한 한 가장 큰 이윤을 남기려 합니다.

그는 직원들의 가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의 상품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에게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값싼 쓰레기라도 보기 좋게 진열되기만 하면 끊임없이 달려든다.

자본에 대한 수익이 그에게 가장 먼저 돌아오고,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뭔가를 합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진정한 공장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는 경제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고귀한 사명을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그의 임무는 사람들의 진정한 경제적 필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발명가라면, 그는 스스로 이 선구적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비용을 낮추고 최대한 유리하게 배치해야 하며,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생산의 질과 양을 유지하고, 직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여 그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항상 공장과 거래 방식의 개선과 갱신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것을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최고이자 최고의 의미에서 '생필품을 공급하는' 것이며, 이익은 그가 그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아도 저절로 창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가장 훌륭하고 널리 알려진 예는 헨리 포드입니다. 우리 중공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명성을 떨치는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Krupp, Kirdorf, Abbe, Mannesmann, Siemens 등 다수.

이런 사업의 성격은 근로자의 이익을 돌보는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갖춘 사람이 직접 경영하지 않고 비인격적인 유한회사에 넘겨질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체 창업자가 최대주주이기도 하고 제품의 우수성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자본가 주주들의 이익에 압도당합니다. 이전 소유주였던 경영진은 이제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회에 사업 방식과 근무 조건 개선을 의존하게 되었고, 주주들은 (노예 감독관의 이익을 넘어서는) 근로자의 복지와 업무의 우수성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꽤 큰 규모입니다. 독점 주식의 도입은 매우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기꾼들은 주식을 독점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대규모 산업 시설의 소유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소에게 주식은 그저 가지고 놀 수 있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생산이나 노동 조건에는 관심이 없으며, 대부분은 법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사업의 제품이나 마케팅, 노동, 임금, 유지 보수 조건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시장에서 이 공장이나 저 공장의 주식을 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주가 됩니다.

이제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이러한 사태를 살펴보고, 자본주의 체제의 부패한 본질을 깨닫도록 하자.

오늘날 기업은 단지 자본 수익만을 추구합니다.

대형 소매점들은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매력', '허세', '평균적인', '사치품'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불필요한 것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온갖 세련된 예술로 지어진 거대한 궁전들은 겉보기에는 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쓸모없는 물건들을 사도록 유혹하고, 쉬운 지불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고객들이 온갖 돈을 순전히 사치품에 쓰도록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상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사치의 온상이 됩니다. 아무도 선물로 무언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 큰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싸게 사는 사람은 비싼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궁전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아둔 동전으로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화장실, 요정 같은 조명에 돈을 내고 기분 좋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또한 대형 상점들이 소규모 상점 주인들에게 파멸을 초래하고, 가내 노동과 직원들을 극도로 잔혹하게 착취하며, 생산되는 상품은 대부분 쓰레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상품은 보통 괜찮은 전문 상점에서 파는 상품보다 더 비쌉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대형 상점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우리는 대형 상점을 실제 운영되는 자본주의 사상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하며, 이는 생필품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주주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생활 필수품 제공에 대한 이러한 선도적 개념(이는 공산주의 경제 체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목해야 함)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8. 국가사회주의는 재산의 사유화를 원칙으로 인정하고, 명예롭게 취득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법으로 보호합니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없지만, '노동'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의 산물은 노동하는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것입니다. 생산자는 자신의 노동이나 그 가치가 왜 모호한 '공동체'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자신의 노동의 결실이 개인, 즉 자본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사유화의 인정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집은 진정으로 한 사람의 소유물이고, 그 집이 그 가족을 보호해야 비로소 실체가 됩니다. 자기 텃밭에서 직접 기른 과일과 채소는 북적이는 식당에서 먹는 음식보다 더 맛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갈망이나 소유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사유재산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도 뿌리가 없습니다.

약탈적인 유형의 인간은 항상 시기심이 많고, 늘 새로운 것을 소유하려 하지만, 땅에서 자란 튼튼한 북유럽인은 생각이 지극히 겸손합니다. 그는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결코 벌 수 없는 좋은 별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집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의 서너 배를 지불해야 하는 임대 주택이 아니라, 자기만의 작고 멋진 집을 원합니다. 그러나 자본가인 유대인은 어떤 땅에도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상은 증서, 저당권 증서, 약속어음으로 가득 찬 큰 금고입니다. 그의 목표는 부동산이 아니라 타인의 저당 잡힌 재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하지 않지만, 채권 뭉치를 모아 돈을 빌려준 모든 사람을 마음대로 휘두를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다음 요구는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9. 국가의 복지를 위해서는 부의 축적에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손에 의해.

부 자체는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관리된 소유물은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부를 축복에서 저주로 바꾼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대출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바로 강도입니다.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와 빚에 찌든 중산층은 부유층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빚 때문에 압류당하고 있으며, 조국도 고향도 모르는 금융가들의 권력은 현대판 강도 남작의 성채인 은행에 앉아 점점 더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10. 모든 독일인은 다음의 발전을 위한 노동 공동체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공동복지와 문화.

이러한 노동 공동체라는 개념은 보편주의적 사회 개념의 경제적 전복을 함축합니다. 모든 노동과 생산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라는 더 높은 개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과 근면에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이 동료 인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내용은 이러한 요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11. 모든 독일인에게 부과된 일반적 노동의무의 틀 안에서, 그리고 사유재산의 원칙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독일인은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노동의 결과를 처분할 자유가 있다.

앞서 말한 내용은 마르크스주의의 사회화 계획과 대규모 금융을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가는 사회적 봉사라는 이념으로 연결된 최대한 많은 수의 자유로운 존재를 포함해야 합니다. — 물론 광산, 고로, 압연 공장, 조선소를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수십만 명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구두 장인이 다섯 개의 거대한 구두 공장보다 낫습니다.

독일 북부와 동부의 대규모 토지는 소규모 자유보유 농가가 관리하는 것보다 대규모로 운영될 때 생산성이 더 높습니다. 소규모 자유보유 농가는 도시와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농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사업의 건강한 조합
유지되어야 합니다.

13. 거대 기업(신디케이트, 트러스트)은 국유화된다. 이러한 요구는 자본주의 사상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투쟁과 일맥상통한다. — 특정 생산 부문에서 신디케이트와 트러스트의 첫 번째 목표는 다른 유사한 기업들과 연합하는 것이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좋은 상품을 싼 가격에 유통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링'은 특히 잘나가는 신생 기업들에 의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같은 사업 분야의 신생 기업들은 인수되어 매각되는데, 종종 매우 높은 가격에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공급은 풀링(pooling) 방식으로 조절되는데, 이를 통해 그들은 겉보기에 진정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주주들의 관심사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품은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존 기업의 지불 능력을 위협할 경우 도입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대한 본사에서 거대한 신탁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기업들은 명백히 '사회화될 시기'에 있습니다. 즉, 개별 경쟁 기업이 수행하는 지역 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마비되어 자본주의의 탐욕에만 봉사할 뿐입니다.

14. 고리대금업자와 이익 추구자, 그리고 국가를 희생시켜 무자비하게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현재의 법은 개인 재산에 특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사소한 절도는 비인도적으로 처벌되는 반면,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온 나라를 약탈하는 대규모 사기꾼을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취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독일에서처럼 대규모 인플레이션 범죄로 인해 산업 국가 전체가 저축 전체를 잃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안정화 이후 은행들의 탐욕은 노상 강도보다 더 심했다. 조직적인 강도단보다 '전쟁 회사'의 행위에 희생된 독일인들이 더 많았다.

때가 되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자세히 다룰 것이고, 이에 대한 법적 공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조직적 사기'는 소액의 금전 절도나 사기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15. 모든 독일인에게 의무 노동 연도 또는 복무 연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노동을 통한 봉사 의무는 국민에게 봉사 의무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독일인에게 온 공동체가 한 사람처럼 함께 일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독일인에게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무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금융 정책

관심의 굴레를 깨다.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두 번째 장에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조치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16. 국가와 국민이 부채로부터 해방되고 대형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해방됩니다.

국가는 빚을 질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개인은 때때로 대출을 받고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조폐국을 통제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국가는 미친 듯이 이것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렌텐마르크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고, 소위 라이히스방크에 통제권을 넘긴 후에는 소위 라이히스마르크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가는 인플레이션의 위험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이 권리를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다음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17. 라이히스방크와 모든 발행은행이 국유화되고,

18. 모든 대규모 공공사업(수력, 철도 등)에 대한 자금 조달이 대출이 아닌 무이자 국채 발행이나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폐를 찍어내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결론은 국가가 무이자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새로운 가치가 동시에 창출된다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규모 경제 사업이 차관 없이는 시작될 수 없다는 사실은 순전히 광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의 화폐 생산권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가장 유익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력을 이용하는 대규모 발전소는 다음과 같은 평범한 방식으로 건립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여 바이에른, 작센 등의 수력 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지방 의회 또는 기타 기관은 건설 계획을 결정하고, 재무부 장관이나 국립은행에 일련의 은행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지폐에는 계획 중인 신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었음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이 지폐는 국가 또는 제국의 공동 신용으로 뒷받침됩니다. 누구도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설은 국가를 대표하는 의회가 승인한 추가 신용으로 진행되며, 이 지폐는 다른 지폐와 마찬가지로 법정 통화가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이 돈으로 질산염이나 전기가 고객에게 공급되고, 몇 년 후에는 해당 발전소를 회수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 국가와 국민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여 막대한 새 수입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는 더욱 부유해집니다.

현재 시스템의 어리석음을 증명하기 위해 앞서 말한 내용을 다음과 비교해 보자.
지금.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소수의 자본가들이 의회의 찬성 투표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바로 국가가 그들에게서 돈을 빌리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특정 사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대해 영구적인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맷돌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용은 채권을 발행하여 '신규 구매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새로운 지폐로 표현되든 새로운 채권으로 표현되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새로운 사업이 자본에 저당 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동체는 피해를 입습니다. 자본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안전하게 만들고, 가격을 결정하며, 이익을 취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수력 발전으로 더 부유해지는 것은 사실상 금융가들입니다. 그들은 상환에 무관심하며, 영구적인 젖소와 같은 독점권을 선호합니다.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전류나 질산염에 비싼 값을 치르고, 다시 한번 국가 재산의 일부가 금융가들의 이익을 위해 전환됩니다.

독자 여러분께 저의 이전 저서, 특히 『독일 국가(Der deutsche Staat)』를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팸플릿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리즈의 몇몇 글에서는 다가올 국가의 새로운 화폐 창출 방식의 다양한 특수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9. 우리는 고정된 주화 기준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물론 지금은 고정된 주화 기준이 있지만, 강도 행위는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집권하자마자 인플레이션 사기극을 즉시 종식시키고 새로운 보장된 주화 기준 제도를 도입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20. 개발과 경제를 위한 새로운 국립은행 설립.

이 요구는 국가 사회주의 도서관의 팜플렛 8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Die Wohnungsnot und die Sociale Bau - und Wirtschaftsbank als Retterin aus Wohnungselend, Wirtschaftskrise und Erwerbs1osene1end. 금융정책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우리 정치계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계에도 깊숙이 파고든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1921년, 저는 이 요구를 완전히 작성된 법안 형태로 바이에른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에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즉 은행계가 협의에 참여하자 정부는 '연방의 유토피아'를 거부했습니다.

1921년 2월 튀링겐 주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후, 우리 당은 주 의회에서 그러한 은행 설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재무장관 폰 클루히츠너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부르주아 계층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주 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정부는 개발 및 경제를 위한 사회 은행을 설립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국 정부는 라이히스뱅크의 압력을 받아 국민의 의지가 관철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각 주에 유사한 은행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도스 연도(1924년)의 짧은 회기 동안 정부 측은 그 해 가을에 해산될 때까지 신중하게 연기했습니다.

은행 설립 법안이 메클렌부르크 주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독일 민족주의 재무장관의 우유부단함과 라이히스방크(Reichsbank)의 방해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개발은행의 기본 아이디어는 위에서 설명한 공공적 목적을 위한 화폐 창출 계획과 마찬가지로 단순합니다.

경제개발은행과 같은 통합 경제법인은 신축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한 개발 자금(바우마르크-샤이넨)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축 주택은 막대한 이자 부담 없이 건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이자 부담만으로도 충분한 주택을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독일인에게는 자기만의 집이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도 없는 땅에 사는 자유로운 국민.

21. 사회·정치·경제적 원칙에 따라 조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소비자는 간접세 부담에서, 생산자는 활동을 제약하는 세금으로부터 해방된다.

사회 정책

사회 정책은 현 정치권의 만병통치약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토입니다. 듣기 좋고, 대중의 지지를 얻으며,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는 정당에 표를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각 정당이 공무원에게 급여 인상을 약속하면, 그것을 사회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원과 근로자들의 희망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전쟁 피해자, 젊은 교사, 해외에 있는 독일인에게 약간의 구제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적' 플루트를 연주할 때 정치적 쥐잡이들을 쫓아다닙니다 .

먼저, 사회 정책이란 공익을 최고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회 정책은 사실상 전체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온갖 부주의한 약속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독일이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으로 이토록 무력해진 지금, 이는 도스법과 이제는 영법,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삶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소위 '실현 정책'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사회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허황되고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독일의 삶이 이처럼 비좁은 지금, 각자가 이웃을 짓밟고 앞서 나가려 하고 밀어내려 애쓰는 지금,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엇갈리는 지금, 한 계층을 다른 계층에게 희생시키면서 우대하겠다는 약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 정책'이 아니라, 한 계층을 다른 계층에 대항하도록 부추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개선'이 더 높은 생활비와 세금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정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의라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불운한 착취당하는 노동계급은 그들의 정당한 임금, 그들의 적절한 사회 질서에서 지위가 그들에게 박탈당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의 경제생활이 깊은 상처, 즉 엄청난 불의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급 전쟁'과 '수탈자의 수탈'과 '사회화'라는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내세운 마르크스주의의 결론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 복지가 최고의 법칙인 진정한 사회 정책의 모든 진정한 요구 사항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계급 전쟁의 주요 원칙은, 정책 원칙으로서, 증오입니다. '수탈자의 몰수'는 시기심을 경제 원리로 만들고, '사회화'는 지도부의 개성을 무너뜨리고 지성과 효율성 대신 물질주의, 즉 대중을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에 대한 암시.

공산주의 경제 체제의 완전한 파산과 1918년 독일 혁명의 비참한 실패를 보면, 마르크스주의 교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특히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점은, 마르크스주의에서 탄생한 이 사이비 사회주의가 상식이나 어떤 '사회적' 사상에도 기반하지 않고, 건설적이지도 않으며, 정치 사상의 가장 깊은 곳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것처럼, 이 사이비 사회주의는 저속하고 혼란스러운 개인주의라는 일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증오와 시기심으로 뭉친 소수의 개인들이 국민의 나머지 절반에 대해 건설적인 목적이 아닌, 단지 그 신념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수도 없으며, 그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증오와 약탈에 대한 욕망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르크스주의 증권거래소 반란으로는 살아있는 국가가 탄생할 수 없고, 그저 폐허 더미만 남게 될 뿐이라는 사실에 말입니다.

국가사회주의가 다시 한번 적절한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소 반란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적 반역의 표현입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개인주의에 기반한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 필연적으로 거대 금융 거물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자본주의적'(마르크스주의, 계급 간 전쟁)이라고 자처하는 사회정치 이론들, 즉 오늘날 사회 정책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동일한 지적 원칙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구성원 하나하나를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고귀한 민족적 단결이라는 관념 아래 활동하는 다양한 계급들을 고통스럽게 연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열망은 순전히 이기적이며,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욕망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둘은 같은 지적 줄기에서 자랍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장 격렬한 적대자인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 구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 전체가 그들의 개념과 크게 다릅니다. 그것은 계급 투쟁도 아니고 계급 이기주의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된 법칙은 바로 전체의 복지입니다.

22. 생명연금의 국유화를 통해 노령보험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독일 국민은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 영구 장애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사회적 긴장을 야기하는 것은 임금, 봉급,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 즉 노년에 대한 불안감, 즉 거리로 내던져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리한 불안감이 다양한 직업 종사자들을 마르크스주의와 자본주의적 유형의 허울뿐인 사회 조직으로 결집시키고,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적대감을 더욱 씁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양측의 가장 저열한 본능을 자극하고, 그 결과 상호 적대감을 조성합니다. 노동자의 진정한 삶의 목표는 순간적인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 속에서 사라지고, 사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나이.

공무원 계층의 경우, 국가가 은퇴 후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훌륭하고 칭찬할 만한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이는 자본주의적 소득 이상에 대한 적절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이며, 개인의 노동과 효율성에 기반한 진정한 국가적 생계 지원 이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 복지의 기준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 사회주의의 가장 높고 고귀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23. 모든 사람을 위한 이익 공유.

NSDAP는 이러한 요구에 공감합니다. 사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순수한 사회주의적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본주의로부터 우리에게 매력적이지만 부패한 선물로 다가옵니다.

타인의 노동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공유하는 것은 국가사회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불로소득의 범주에 속합니다. 자신의 노동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원칙으로서 이를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움은 사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합니다. 즉, 노동자의 생산, 기술 및 근면에 따른 몫과 발명가, 회계사, 상인, 경영진 및 사업과 관련된 기타 상황의 두뇌 활동에 따른 몫의 양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당사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자본이 사업에서 얻고자 하는 이익의 일부는 노동자에게 환원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국가사회주의 국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민 전체의 생산 이익을 분배하라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더 나은, 더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국가가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윤 분배에 대한 현재의 요구는 이윤에 대한 욕망(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이나 시기심(본질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에서만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에서 소수의 지분을 주는 자본주의적 방법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방법의 유일한 목적은 대주주에게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적 질투의 관념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 요소를 떨어뜨리고 일반 대중을 해치기 때문이다.

명확성을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발 공장에서 '이익 분배'를 하는 근로자들이 사업 주식 몇 주나 소액의 보너스, 원가로 신발 한 켤레를 얻는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셔츠, 정장, 양말, 음식, 음료에 대해서도 똑같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단사, 빵집 주인, 양조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 분배'를 통해 의류 제조업체, 빵집, 양조장의 탐욕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인하는 국가 생산의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나눠주는 매력입니다.

거리 청소부, 일용직 노동자, 철도 노동자, 우편 배달부, 운수 노동자, 병원 노동자 등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농업 노동자, 광부, 건설 노동자,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이 가치 증대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윤 분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면, 진정한 국가사회주의자의 사회 정의에 대한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의 경우 (농사의 세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수확이 좋은 해에는 '이익'이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중공업에서도 광산은 세계 경쟁의 압력으로 인해 겨우 이윤을 남길 뿐입니다.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문에 종사하지만, 상황상 직접적인 이윤 분배를 기대할 수 없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직원들이, 나이트클럽이나 터키식 목욕탕의 세탁부나 짐꾼으로, 또는 전 세계에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안경이나 화학 공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계층보다 더 적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후자가 사치품 생산의 이윤과 배당금을 나눠 갖는다면,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이점을 얻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질까요?

우리는 수년간 기업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온 근로자와 공무원들에게 쏟아지는 배당금, 보너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돈의 홍수를 떠올리곤 합니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성격의 열망은 이 일반 원칙에 관한 논문에서 논의하거나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요구는 중요한 요구이며, 지지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것입니다. '이익'은 주로 전반적인 사업 상황과 경영진의 기술적 능력 및 영업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는 잘못된 시공이나 계산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숙련되고 근면하더라도, 그들은 한 해의 사업 결과나 이익 또는 손실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효율성은 적절하고 충분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만, 그들이 이익의 일부를 요구할 도덕적 또는 경제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들은 사업 연도의 손실을 저축으로 메워야 한다는 제안에 당연히 저항할 것입니다. 또한, 임원들의 부실 경영이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임금 삭감으로 메워야 한다는 요구도 당연히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 분배'는 위험과 손실을 공유할 능력과 의지가 있거나, 특별한 효율성이 이를 정당화할 만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익 분배의 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독일의 대형 염색 공장이 왜 IG Farbenindustrie의 주주들을 위한 자본주의적 젖소로만 남아야 하고, 기껏해야 가격을 인상하여 노동자와 관리자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나눠줘야 하는가?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임무는 가격을 크게 낮춰 독점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대중에게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회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 질서(주주들의 주장)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간략하게 표현된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 원칙을 지침으로 삼아 모든 사업에서 이익이 전문 금융가의 주머니로만 들어가는 최대한 광범위한 이익 분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4. 정직한 노동으로 얻은 이익이 아닌 전쟁과 혁명을 통해 얻은 이익, 나아가 마르크화의 안정화와 재평가를 통해 얻은 이익의 몰수, 또한 대금업자와 강탈자의 재산 몰수.

이는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처벌과 정의의 척도입니다.

25. 제20호(개발은행)에 명시된 수단을 활용하여 제국 전역에 걸쳐 대규모 주택 건설을 통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이로써 사회정치적 요구 목록은 마무리된다. 기술적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 팸플릿에서 많은 것을 다룰 수 없다. 이는 매우 광범위하고 특수한 주제이며, 오직 재정 전문가들만이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재정 전문가들이 이를 수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치 독일 도서관의 팸플릿 8은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종교와 예술

이 주제에 대해 프로그램 내에서 몇 가지 주요 원칙만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러한 원칙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종교 문제를 일반 정치에 대한 발언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물론 유대교의 비밀 교리가 지닌 부패한 영향력을 공개적인 발언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모든 어리석은 공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해를 끼쳤을 뿐이다"와 같은 표현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지능도, 정치적 지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개입한 것을 비난할 수도 있고,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은 종교재판과 마녀 재판에서 십자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잔혹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상을 개인의 실수와 타락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교화했으며, 고난의 길을 통해 그들을 하느님께 인도했습니다.

중세 문화는 십자가의 표징으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성취, 희생, 용감한 신앙은 모두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의 내적인 영적 핵심과 역사를 거치며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파생물을 신중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긍정적 기독교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독일 민족이 언젠가는 종교적 신념과 경험에 대한 새로운 형태를 발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모든 문제, 희망, 욕망을 논의할 곳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사회주의와 같은 프로그램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예술, 문학, 과학, 연극, 영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 전반에 걸쳐 우리 국가에 해를 끼치는 모든 파괴적인 영향력에 맞서는 것이 시급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원칙 강령, 즉 25개 조항은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군사 및 기타 개혁

국군, 상공회의소, 참정권과 법률 개혁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대한 문제들이어서 몇 문장으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은 프로그램 자체에 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들을 구상하고 구체화하며, 무엇보다도 역사적 과거에 접목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국가 업무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풍부한 연구 분야를 갖게 됩니다.

국가 사회주의의 중요성은 그것이 국가적 삶의 어떤 영역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삶을 건설해야 할 전혀 새로운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5.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곧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자초한 잘못으로 흔적조차 거의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린 왕조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폐위된 계층이 이전의 특권적 지위에 다시 앉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장교 계층과 공무원들은 다른 전문직 계층보다 실제로 더 높거나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국가에 봉사한다는 우리의 이상에 따라 일하는 한에서 말입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제복이나 금장식이 아니라, 성과입니다.

우리는 노동계급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나 인위적인 지위 상승, 또는 어떤 종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구도 과거에 억압받았던 계급이 권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열망이 현실로 구현되면 1918년 11월 증권거래소 반란과 같은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력을 장악한 것은 '억압받는' 계층이 아니라, 정치 사기꾼, 탐욕스러운 모험가, 이익 추구자, 떠벌이, 바보들로 구성된 무리입니다. 이들은 정치 기구와 행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약속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익집단'의 독재.

국가사회주의 하에서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한다 하더라도, 우리 강령의 원칙에 완전히 젖어 있는, 단호하고 열정적이며 경험이 풍부한, 매우 철저하게 훈련된 참모진이 없다면 성공할 가망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순수한 선동가들이 새로운 질서에 끼어들어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붕괴되는 사회 질서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그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의회와 행정부에서 서서히 기반을 다지고, 연립 정부에서 한두 자리만 맡다가 결국에는 허리가 부러지는 신생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에서 우리의 역할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독일 사회민주당이 정치적, 지적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이미 주요 원칙에서 벗어난 독일 민족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직위나 권력 때문에 장관직에 오르는 장관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직위는 우리의 위대한 목표를 향한 하나의 무대로 간주할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에는 항상 우리 세계관이라는 불타는 검이 존재합니다.

한편에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회주의적 성격의 가짜 국가는 필연적으로 금융가들의 폭정을 가릴 수밖에 없었고, 그 발밑에는 유대인 지지자와 정착민들이 들끓으며 이 체제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 국민의 해방과 정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 사회 정의와 국가적 자유의 참된 상태를 달성할 것입니다.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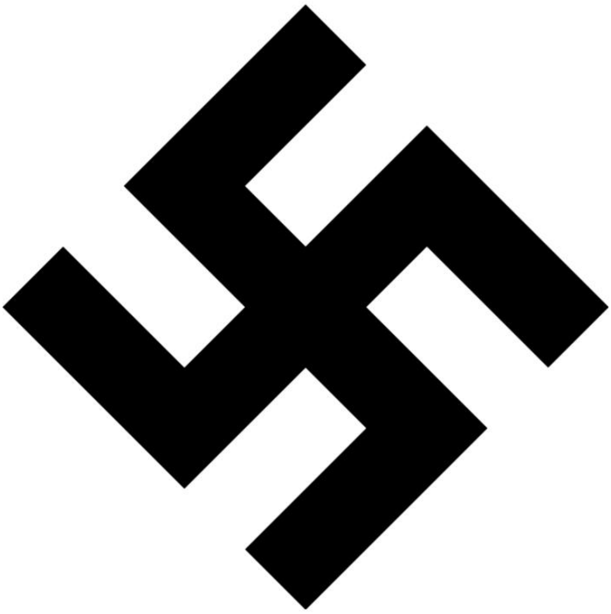
국가사회주의 도서관의 첫 번째 팸플릿의 임무는 국가사회주의자에게 당 강령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주장을 주홍색 실처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칙을 거듭거듭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와 그 마르크스주의 및 부르주아 위성 세력과 날카롭게 대립하는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강력한 이상을 위해 싸우는 투쟁이며, 새로운 독일을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세상 앞에 폭풍의 깃발을 흔들며, 언제나 젊고 빛나네
그리고 햇빛 아래 반짝이는 갈고리 모양의 십자가가 솟아 있는데, 이는 삶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폐지를 위한 선언문

관심의 노예



금본위제는 우리 현대 문화권, 그리고 사실상 온 인류가 겪고 있는 무겁고, 모든 것을 포괄하며, 압도적인 질병입니다. 그것은 마치 파괴적인 질병과 같고,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은 맹렬한 독과 같습니다.

맘몬주의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압도적인 국제 금융 세력, 인민의 자결권보다 우위에 있는 초정부적 금융 권력, 국제적 대자본, 순수한 금본위제 국제연합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광범위한 계층을 사로잡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끝없는 이익에 대한 욕망, 순전히 세속적인 삶의 개념은 이미 모든 도덕적 개념의 무서운 쇠퇴로 이어졌고 앞으로 더 심화될 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국제적 플루토크라시에서 구체화되어 정점에 도달합니다.

맘몬주의의 주요 힘의 원천은 이자를 통해 생산되는 손쉽고 끝없는 소득입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라는 철저히 부도덕한 아이디어에서 골드 인터내셔널이 탄생했습니다.
이자에 대한 욕망과 온갖 종류의 이익 추구에서 비롯된 정신적, 도덕적 구조는 부르주아지의 일부를 무섭게 부패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라는 개념은 거대 대출 자본의 사악한 발명품입니다. 이 개념만이 소수의 거물들이 생산적인 사람들과 그들의 일자리 잠재력을 희생시키면서 게으른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이 개념은 깊고 화해할 수 없는 차이와 계급적 증오를 낳았고, 이로 인해 시민과 형제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인류를 치유하는 유일한 치료법이자 근본적인 수단은

이익에 대한 예속의 폐지.

화폐에 대한 이자에 대한 노예제도의 폐지는 유일하게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적 노동을 숨겨진 강제적 화폐 권력으로부터 결정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자에 대한 노예제도의 폐지는 자유로운 인간성의 회복, 즉 인간을 노예제도로부터, 그리고 물질주의가 인간의 영혼을 속박했던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자에 대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자에 대한 노예제도의 폐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차용자본에서부터!

왜?

차용자본은 모든 산업 대자본에 비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거대 화폐 세력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이자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산업 대자본 대비 차용자본 비율은 20:1입니다. 독일 국민은 직접세와 간접세, 임대료, 그리고 생활비 상승의 형태로 차용자본에 대한 이자로 매년 120억 유로 이상을 조달해야 합니다. 전쟁 호황기에도 독일 주식회사가 분배한 배당금 총액은 10억 유로에 불과했습니다.

대출자본의 눈사태 와 같은 성장은 인간의 모든 계산 능력을 능가합니다.
이자를 통한 영원하고 끝없는, 노력 없는 수입, 그리고 이자에 대한 이자를 통한 수입입니다.

이자에 대한 노예제도의 폐지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주는가?
독일의, 지구상 모든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를 위해?

이자에 대한 노예 제도의 폐지는 모든 직접세와 간접세의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 모든 나라, 모든 주, 모든 대륙의 가치 생산자들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직접세와 간접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국가 수입은 끊임없이 거대 차관 자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갑니다.

우편, 전신, 전화, 철도, 광산, 산림 등 국유기업의 이익은 학교, 대학, 법원, 행정기관, 사회복지 등 모든 필수적인 국가적 약속을 이행하는 데 충분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주의는 그 이익이 인류에게 아무런 축복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입니다.
공기업은 여전히 대규모 대출자본의 조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독일 국민을 위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그리고 이어서 국제 연맹의 문화적 공동체에 우리와 함께 가입하기를 원하는 모든 유사 민족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전쟁 채권은 독일 제국의 모든 다른 채무 증서, 특히 철도 채권을 포함한 독일 연방 국가의 모든 다른 채무 증서, 그리고 모든 지방 정부의 사채 채권과 함께 이자에 대한 의무가 취소됨에 따라 액면가에 대한 법정 통화로 선언됩니다(또는 오히려 은행 대출로 전환됩니다).

2. 기타 모든 고정 이자 채권, 담보채권, 산업채권, 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 이자에 대한 의무는 원금 상환 의무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20년 또는 25년 후, 이자율에 따라 대출 원금은 상환되고 부채는 상환됩니다.

3. 모든 부동산 부채, 저당권 등은 토지대장에 기록된 비용에 따라 지금까지 지불해야 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할부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채에서 벗어난 주택과 토지는 부분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소유가 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임대료를 통제하고 인하하는 데 더 유리해집니다.]

4. 전체 통화 시스템은 국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민간 은행, 즉 우편수표은행, 저축은행, 신용조합도 모두 지점 형태로 제휴해야 합니다.

5. 모든 부동산 대출은 국영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 신용 및 상업 신용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 민간 은행(PB)에 위탁됩니다.
이 허가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부여되며, 특정 지역에는 지점 설립이 금지됩니다. 부과되는 수수료 규모는 국가가 정합니다.

6. 주식 증권은 고정금리 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 5%의 이자율로 상환됩니다. 초과 이익의 일부는 "위험이 있는" 자본에 대한 보상으로 주주에게 지급되며(고정금리 채권이나 주화 담보 채권과는 대조적입니다), 나머지 잉여금은 주권적 노동권에 의해 사회적으로 분배되거나 제품 가격 인하에 사용됩니다.

7. 신체적 이유(고령, 질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작업 장애, 극심한 청년기)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현재 자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동일한 수준, 심지어는 더 높은 수준의 연금으로 계속 지급되며, 그 대가로 증권이 지급됩니다.

8. 현재 지폐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제국 및 국가의 전쟁 채권 증서와 기타 채무 증서에 대해 보편적이고 강력한 누진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9. 국민의 집중적인 계몽을 통해 화폐는 완료된 노동에 대한 증빙서에 불과하며, 또한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물론 고도로 발달된 경제는 화폐를 수단으로 필요로 하지만,

교환이 이루어지면 화폐의 기능도 그것으로 끝나게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화폐는 생산적 노동을 희생시키면서 이자를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초월적 힘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회 문제를 위한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우리의 물질주의적 무지로 인해 이자의 신성함이라는 교리가 기괴한 자기기만이며, 오직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출이자의 복음이 우리의 사고 전체를 국제적 금권 정치라는 황금빛 그물에 얽매어 놓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능한 화폐 권력에 의해, 소수의 부자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고 의도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랑스럽고 생각 없는 자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자는 세금으로 완전히 상쇄됩니다. 우리의 모든 세금 입법은 이자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단지 대자본에 대한 조공 의무일 뿐이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위한 노동의 성취를 위한 자발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폐 이자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은 세계 혁명의 명확한 모토이며, 초정부적 화폐 권력의 족쇄로부터 생산 노동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구현 및 근거

우리는 우리 가난한 민족이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견뎌내야 했던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심각하게 병들었고, 온 세상은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나라들은 속수무책으로 말을 더듬는다. 열렬한 갈망, 구원을 향한 외침이 우울한 대중 속으로 스며든다. 웃음과 춤, 영화와 화려한 행렬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잊으려 한다. 환멸에 빠진 희망과 깊은 내면의 고통을 잊으려 한다.

혁명의 성과라고 기꺼이 부를 만한 것에 대한 끔찍한 실망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을 다르게 상상했을까요? 어떻게 그 모든 멋진 약속들이 다르게 실행되었을까요? 칠흑 같은 밤, 군사적 붕괴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이 반짝이는 금처럼 보였지만, 이제 흐린 날이 그 발견을 비추자, 그것들은 모두 썩은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밤에 그토록 아름답게 빛나던 이 썩은 나무 조각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했던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리고 이 비참한 보물들로 온 주머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절망의 분노가 바로 가장 가난한 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이 형제들을 향해 무의미한 분노를 터뜨리고, 구원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양심의 가책과 어리석음이 사람들을 더욱 자극한다면 완전한 광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는 볼셰비키 러시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사회화라고 불리는 국유화는 실패로 판명되었다고 침착한 레닌은 선언합니다. 경제는 파괴되었고, 화폐의 구매력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지식인들은 살해당했고, 노동자들은 빵을 잃었습니다. 온 국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중국과 라트비아 용병들을 기반으로 한 피비린내 나는 테러만이 배신당한 민중의 복수로부터 붉은 독재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제 투기꾼들, 광신적인 당 광신자들, 가장 큰 짐을 진 부르주아 계급의 대표들, 그리고 독일 민중과는 본질적으로 가장 동떨어진 인종의 구성원들이 정부에 계속 허용된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과연 우리 귀에 속삭이던 그 아름다운 말이란 무엇이었을까? 협상된
평화, 국제연맹, 의회주의, 국민주권,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자본주의 파괴, 군국주의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와 비슷한 아름다운 슬로건들. 새로운 자유 인민이 일어나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이 모든 망상과 슬로건들을 최고의 도덕적 진지함으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지적이고 사려 깊은 의사처럼 병의 증상을 양심적으로 검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환자의 현재 상태를 꼼꼼하게 진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심각한 질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실현되지 않았고, 실현될 수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卐卐卐卐卐

우리 시대의 질병을 '돈주의'라고 합니다.

맘몬주의란 무엇인가?

금본주의는 거대한 국제 금융 세력들의 사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지배입니다. 그러나 금본주의는 또한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금본주의라는 독에 감염된 모든 자들이 이러한 금본위제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금본주의는 그 자체로는 건강한 인간의 소유욕이 무한히 비대해진 것입니다. 금본주의는 광기로 커진 돈에 대한 욕망으로, 돈 위에 돈을 쌓는 것 외에는 더 높은 목표를 알지 못하고, 전 세계의 모든 세력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려 무자비하게 강압하며, 결국 경제적 노예화와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노동 잠재력 착취로 이어집니다. 금본주의는 모든 도덕 관념의 쇠퇴를 초래한 사고방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는 금본주의는 인간의 잔혹하고 무자비한 이기주의와 동일시되어야 합니다. 금본주의는 탐욕, 끝없는 지배 욕망, 세상의 재화와 보물을 빼앗는 데만 전적으로 집중하는 사고방식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순전히 세속적인 인간 유형의 종교입니다.

물질만능주의는 사회주의의 정반대 개념입니다. 사회주의는 인간이 세상에 오직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공동체와 모든 인류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으며, 자신의 가족, 부족 구성원, 그리고 동족의 순간적인 안녕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자녀와 동족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상을 최고의 도덕 관념으로 여깁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물질만능주의를 권력에 굶주린 만민의 대자본가들의 의식적인 공모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물질만능주의의 은밀한 도래였습니다.

거대 재벌들은 세계를 아우르는 영미 제국주의의 궁극적인 원동력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대국들은 실제로 세계대전의 끔찍한 대량 학살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모든 거대 신문의 소유주로서, 강대국들은 실제로 세상을 거짓의 그물망으로 엮어냈습니다. 그들은 만족스럽게 모든 저급한 열정을 자극하고, 현 추세의 성장을 부지런히 조장했으며, 교묘한 언론 선전을 통해 프랑스의 복수주의를 끓어오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범슬라브주의 사상, 세르비아의 강대국이라는 자만심,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돈에 대한 필요성을 세심하게 키워냈고, 결국 세계 대전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독일의 우리들 사이에서도 수출 수치, 국가 부, 확장, 대형 은행 프로젝트, 국제 금융 거래만을 더 알고 싶어하는 금욕주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대중 도덕의 몰락, 지배 계층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의 쇠퇴, 국민 생활의 피상성으로 이어졌으며, 이 모든 요소가 무서운 붕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어디서부터 물질주의가, 어디서부터 국제적 대자본이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을 얻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강대국들의 국제 협력이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상 이와 유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화폐적 성격의 국제적 의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 무역의 확대를 통해 비로소 국제적 이해관계 경제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깊은 뿌리를 건드리고, 골든 인터내셔널이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끌어내는 가장 내밀한 힘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이자는 노동의 추가 없이 단순히 돈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무한정으로 유입되는 재화의 흐름으로, 거대한 화폐 권력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차용 이자는 금 인터내셔널의 탄생을 가져온 사악한 원리입니다. 차용 자본은 도처에 그 피의 통로를 굳건히 박고 있습니다. 말미잘의 팔처럼 거대 차용 자본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부 대출, 정부 채권, 철도 채권, 전쟁 채권, 주택 담보 대출, 담보부 채권 등 온갖 종류의 대출 상품이 우리의 경제생활 전체를 어떤 식으로든 얽어매어,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황금빛 그물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이자 원칙 때문에, 모든 종류의 소유에는 소득에 대한 권리가 따른다는 완전히 미친 정치적 망상에 따라, 우리는 화폐 이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화폐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영구적인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이고 타당한 도덕적 근거는 단 하나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자에 대한, 그리고 생산적 노동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한 이러한 내적 저항은 모든 민족과 시대의 영혼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힘에 대한 이러한 깊은 내적 저항이 우리 시대만큼 여러 나라에서 의식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맘몬주의가 세계 지배를 시작하기 위해 이처럼 전 세계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준비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비열함, 권력욕, 복수심, 탐욕, 시기, 거짓을 교묘하게 은폐하면서도 잔혹하게 공격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었습니다. 세계대전은 인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로, 미래에 맘몬주의적 유물론적 세계관과 사회주의적 귀족주의적 세계관 중 어느 쪽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지 결정하는 투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상.

표면적으로는, 돈에 기반한 영미 연합이 의심할 여지 없이 처음에는 승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동방에서 볼셰비즘이 등장했는데, 볼셰비즘에서 위대한 사상을 보고 싶다면, 돈에 기반한 세계관과 정반대되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볼셰비즘이 이를 위해 사용하려는 방법은 아이젠바르트 박사의 엉터리 치료법입니다. 내독증에 걸린 사람을 메스로 머리, 팔, 다리를 절단하여 치료하려는 시도입니다.

볼셰비즘의 난동에 맞서, 이 무의미한 전복에 맞서, 우리는 통일된 힘으로 모든 노동계급을 하나로 묶는 실행 가능한 새로운 사상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병들게 한 독을 몰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돈에 대한 이자를 폐지하는 노예제도의 폐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대출 자본에 대한 이자가 우리의 재정적 빈곤의 진짜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고정 이자 대출 자본의 엄청난 불균형, 즉 창조적 노동의 적용 없이 스스로 성장하고 실제로 영원히 성장하는 자본의 불균형입니다.
독일에서 이러한 차입 자본은 이미 2,500억으로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과 대조적으로, 독일 전체 산업의 산업 운영 자본은 118억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16,000개의 산업 유한책임회사 [GmbH]의 자본금 35억을 고려하면, 총 산업 자본은 약 150억에 불과합니다. 20:1이 첫 번째 기본 결과입니다 .

이러한 평가는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의 경우 대출 자본과 관련된 모든 조치가 산업 대기업에 대한 조치보다 20배나 효과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상기 차입 자본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약 2,500억 마르크로 추산되며, 전체 기간을 합산하면 연간 약 125억 마르크에 달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1916년에 분배된 모든 산업 배당금의 총액은 1915년에 약 10억 마르크였습니다. 이전 수십 년 동안 이 수치는 평균 약 6억 마르크였습니다. 전쟁 마지막 2년(1914-1918) 동안 이 수치는 상당히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금년(1919년)에는 훨씬 더 큰 폭락을 기록할 것입니다.

모든 독일 주식회사[AG]의 평균 수익성은 8.21%였습니다. 따라서 고정 금리 대출 가치의 평균 수익률보다 약 3.5% 더 높을 뿐입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미래에 독일 국민은 대차대조표 자본의 각종 영구 이자로 매년 약 125억 파운드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최대 호황기의 산업 자본 수익률은 10억 파운드였고, 안정된 번영기에는 6억 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20:1에서 12:1에 달하는 엄청난 비율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요인은 이자와 이자에 대한 이자를 통해 거대 대출 자본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고등 수학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이 문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체스 게임의 발명에 얽힌 매혹적인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유한 인도 왕 시흐람은 왕실 게임을 발명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발명가에게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자의 소원은 왕이 체스 게임의 첫 번째 칸에는 밀 한 알, 두 번째 칸에는 두 알, 세 번째 칸에는 네 알을 주어 각 칸에 항상 이전 칸의 두 배씩 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현자의 겉보기에 겸손해 보이는 소원에 미소를 지으며 밀 한 자루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각 칸에 밀알을 분배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자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천 년 동안 전 세계의 수확을 모두 거두어도 체스판의 64칸을 채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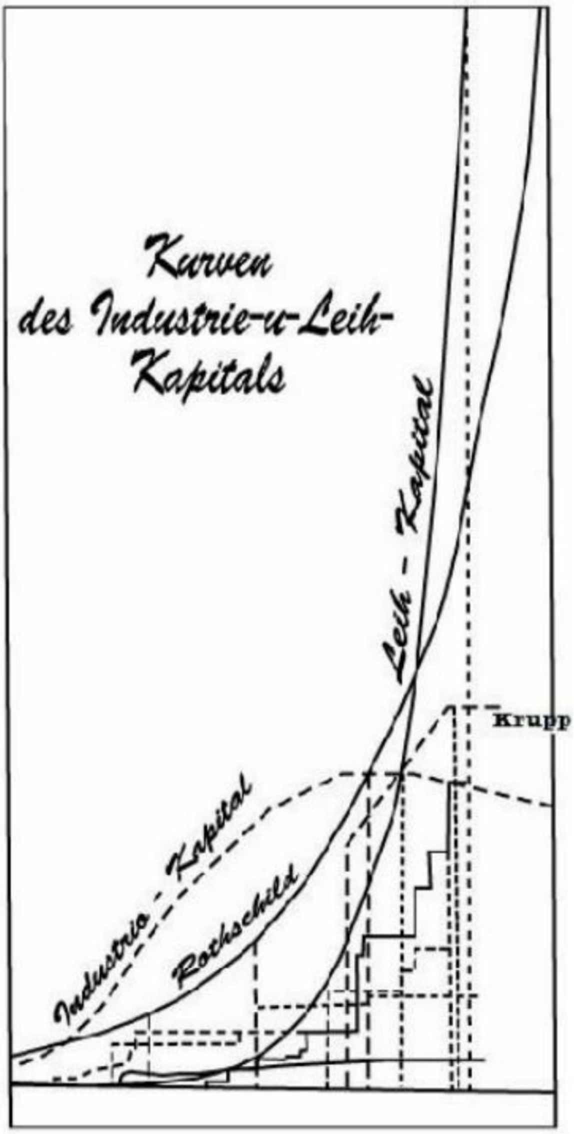
[3] 물론 17:1이 더 정확하지만, 아마도 페더는 그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학창 시절 복리 계산의 고통을 아직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탄생 당시 투자된 페니는 복리로 15년마다 두 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리스도 탄생 후 15년 만에 페니는 2페니로, 서기 30년에는 4페니로, 서기 45년에는 8페니로, 이런 식으로 계속 불어났습니다. 오늘날 이 페니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구, 태양, 그리고 모든 행성의 부피를 합친 금의 부피는 복리로 투자된 이 페니의 가치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로, 가장 오래된 국제적 재벌 가문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은 오늘날 약 400억 파운드로 평가됩니다. 1800년경 프랑크푸르트에서, 언급할 만한 재산은 없었지만, 노령의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가 헤센의 빌헬름 1세 백작이 보관을 위해 맡긴 수백만 파운드를 부분 지급 준비금 대출을 통해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만약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자와 이자에 대한 이자를 통한 화폐 축적이 페니(1페니)의 비율만큼만 이루어졌다면, 이 곡선은 지금처럼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스차일드 가문의 총 부가 페니의 비율만큼만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1935년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은 800억 파운드, 1950년에는 1,600억 파운드, 1965년에는 3,200억 파운드가 되었을 것이며, 이는 이미 독일 국민 총부를 훨씬 넘어섰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수학적 법칙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 증가를 나타내는 곡선, 체스판의 밀알 개수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곡선, 그리고 페니의 곱셈에서 도출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복리로 발생하는 수익은 간단한 수학적 곡선입니다. 이러한 모든 곡선에는

같은 성격입니다. 처음에는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곡선이 점점 가파르게 변하고 곧 사실상 무한대와 거의 접선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성장곡선은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로 작은 규모에서 시작되어 곧 곡선이 급격히 확대되다가 자본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곡선은 더 완만해지고, 새로운 발명품으로 기존 공장, 기계 등의 가치가 하락하면 특정 산업에서는 오히려 소폭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루프 공장의 발전이라는 한 가지 사례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1826년, 노인 크루프는 거의 재산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855년, 알프레드 크루프는 이집트 정부를 대신하여 대포 36문에 대한 첫 주문을 받았습니다.

1873년에 크루프는 이미 1만 2천 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1903년에 베르타 크루프 부인은 전체 공장과 부지를 알프레드 크루프에게 매각했습니다.

1억 6천만 달러의 주식회사였습니다. 오늘날 주식 자본의 총 가치는 2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크루프라는 이름은 우리 독일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산업 발전의 정점입니다. 세계 최초의 [강철] 대포 제조업체입니다. 가장 끈기 있고, 목적 의식이 강하며, 집약적인 생산성의 거대한 총합입니다. 수십만 명의 우리 동지들에게 크루프의 노력은 빵과 일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무기와 방위를 의미했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의 수십억 달러에 비하면 왜소합니다. 한 세기 동안 크루프 가문의 재산이 증가한 것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자와 이자에 대한 이자를 통해 수고 없이 끊임없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굵은 선으로 그려진 두 곡선은 대출 이자를 나타내며, 위쪽 곡선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 추이를, 아래쪽 곡선은 처음에는 평평하다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곡선의 특징적인 추이를 매우 일반적으로 보여주는데, 수평축의 소폭 상승이 수직축의 가치를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빗금친 선은 지난 40~50년간 우리 산업 전체의 발전 곡선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르게 빗금친 가는 선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몇몇 대기업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며, 산업 자본의 빗금친 곡선의 일반적인 특징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차용자본 곡선이 매우 압축되어 표시된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 곡선은 크루프 가문의 재산 곡선보다 80배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곡선을 보여주는 목적은 두 유형의 자본이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차용자본 곡선은 처음에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후 그 발전은 더욱 빨라지고, 점점 더 거칠어지며 모든 것을 끌어당기면서 인간의 관념을 훨씬 뛰어넘어 무한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면 산업 자본의 곡선은 유한합니다! 흔적이 세부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더라도, 전반적으로 산업 발전의 근본적인 특징은 초기의 강력한 발전 이후 일정 기간의 성숙, 즉 포화 상태가 이어지고, 그 후에는 조만간 쇠퇴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卐 卐 卐 卐 卐

차입 자본과 산업 자본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차입 자본의 파괴적인 영향과 대규모 산업 기업에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한 기업 자본의 사업 이윤(배당금) 사이의 차이를 이 비교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자본과 산업자본이 따르는 수학적 법칙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망가진 금융 경제를 바로잡기 위한 지렛대를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 즉 자본 그 자체가 인류의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대 대부자본의 끝없는 이자에 대한 욕망은 모든 노동하는 인류의 저주입니다!

자본은 있어야 해! 노동은 있어야 해! 노동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본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노동 없는 자본은 불모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구이자 가장 고귀한 과제이며, 세계 혁명의 가장 현명한 의미는 화폐 이자에 대한 노예 제도의 폐지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현재 가치는 400억 파운드입니다. 미국 금융계의 억만장자들인 칸, 로브, 쉬프, 슈파이어, 모건, 밴더빌트, 애스터의 가치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최소 600억~700억 달러입니다. 5%의 이자율만 적용해도 50억~60억 달러 규모의 이 여덟 가구는 소득을 얻게 되는데, 칼 헬페리히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1912년 프로이센의 모든 납세자가 연간 소득으로 누렸던 금액의 약 75%에 해당합니다. (당시 납세자는 약 2,100만 명이었고, 그 중 75%는 약 1,500만 명이었습니다. 납세자 한 명당 평균 1.56명의 친척이 있으므로, 친척은 2,300만 명입니다.)

따라서 약 3,800만 명의 독일인들이 앞서 언급한 억만장자들의 연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물론 미국 억만장자들은 로스차일드 가문 등과 같은 의미에서 순수한 대출자본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미국 억만장자들이 정말로 "1억 달러짜리 백만장자"인지 "1,000달러짜리 백만장자"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백만 마르크 억만장자"라고 한다면, 전자의 경우 크로이소스 한두 명 정도만 더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라테나우의 "300"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록은 확실히 정리될 것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300명 대 3,800만 명이라는 알려진 비율은 국제 차관 자본의 잔혹한 지배에 대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력적인 노동을 졸라매는 이 무서운 사슬을 벗어던지자. 돈에서 이자를 낼 수 있는 힘을 빼앗고, 다시는 이자를 낼 수 없게 만들어서 인류 전체가 국제 차용자본에 대한 이자를 전적으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생길 때까지 그렇게 하자.

따라서 레버가 어디에 있는지 처음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 가지 점입니다.
우리의 내부 재정난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는 산업 자본에 대한 사회주의 사상 세계 전체의 공격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가적 이윤의 의도된 완전한 규제나 사회화조차도 – 경제가 약화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

우리 제국과 국가의 예산에 따른 엄청난 재정적 부담에 비하면 웃기게도 빈약한 액수일 것입니다.

화폐 이자에 대한 노예 제도의 폐지를 통해, 모든 재정적 불안은 단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다시금 발밑에 든든한 기반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비참한 채권 경제로 가장 기괴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속였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차관 자본이란 빚 외에 또 무엇이겠습니까? 차관 자본은 빚입니다! 이 말을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일 국민 전체가 전쟁 비용으로 1,500억 달러를 빌렸다는 것은 무슨 광기입니까? 심지어 75억 달러의 이자를 약속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불가피했던, 그 75억 달러를 완전히 허황된 세금으로 스스로에게 징수하려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느낀다면 말입니다.

한편, 이러한 자기기만의 비극적인 점은 우리가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 활용해 온 이 전쟁 채권 경제 전체의 어리석음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대자본가들만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중소 자본가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 기업, 무역, 산업계는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모든 생각의 정치적 측면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그들은 사실상 대차자본, 그리고 오직 이것[즉, 산업 자본이 아닌]만이 모든 노동하는 인류의 저주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상황을 왜곡할 수는 있지만, 결국 모든 근면한 대중은 차차자본에 대한 이자 지불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소 자본가들은 그들의 멋진 이자 지불에 대해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자는 완전히 세금으로 징수되어야 합니다. 직접세의 형태든 간접세, 인지세, 관세, 또는 기타 상업 부담의 형태로든, 근면한 사람들은 항상 속고 대기업은 수혜자가 됩니다. 마르크스 와 엥겔스의 사회주의 사상 세계가 어떻게

공산당 선언에서 에르푸르트 강령(특히 카우츠키)에 이르기까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주의 사상계, 심지어 현 사회주의 지도자들조차 마치 명령이라도 내린 듯 차관자본의 이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자의 신성함은 금기시되고, 이자는 지성소 중 지성소입니다. 아무도 감히 이자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재산, 귀족, 신체와 소유물의 안전, 왕실의 법률, 특권과 종교적 신념, 장교의 명예, 조국, 그리고 자유는 어느 정도 불법화되어 있지만, 이자는 신성하고 공격할 수 없습니다. 부의 몰수와 사회화, 즉 표면적으로는 개인 전체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다소 미화되기는 하지만 노골적인 법 위반이 오늘날의 질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이자는, 이자가 아니라 , "나를 만지지 마라"는 것입니다.

제국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은 국가 예산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 엄청난 무게는 국가라는 배를 심연으로 끌어내리지만…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사기입니다… 오직 거대 금융 세력의 이익을 위해 조장되는 끔찍한 자기기만입니다. 에이

여기서는 나중에 논의될 소액 연금 수급자와 관련된 이의 제기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여, 생각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의 제기는 고려되지 않지만, 이러한 보상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제공될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취! 이자 사취 ! 강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정당하다면, 전쟁 중에 전장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였을 텐데, 이자 사취와 관련해서는 가장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채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 50억 달러로 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국민들의 저축을 싹쓸이했습니다. 그 돈은 다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대출이 다시 그 돈을 빨아들였고, 그와 함께 마지막 남은 저축도 함께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펌프가 등장하여 수십억 달러를 빨아들였고, 다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 매력적인 게임이 아홉 번 반복되자 제국은 1,000억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국민들은 당연히 1000억 달러 상당의 정교하게 인쇄된 지폐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국가가 나타나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더군요.

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저는 가끔 오른쪽 위 주머니에서 100마르크 지폐를 꺼내 왼쪽 주머니에 넣는다고 해도 절대 파산할 수 없습니다. 전쟁 채권 경제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파산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분명 가장 큰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

돈에 대한 이자의 노예 상태를 깨뜨립시다! 전쟁 채권을 이자가 폐지된 법정 통화로 선포합시다. 그러면 국가 파산의 악몽이 태양 아래 3월의 눈처럼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

4. 페더는 여기서 독일 국가를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닌 통합된 실체로 간주합니다. 일부 독일인에게서 다른 독일인으로 이체된 돈은 독일 국가 내에 남아 있으며, 이는 독일 정부가 분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에 있음을 의미하며, 일부 개인에게는 당장 불리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 지불 취소는 위장된 국가 파산이라고요.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 국가 파산이라는 유령은 사실 허황된 이야기이고, 맘몬주의 세력이 만들어낸 괴물일 뿐이야.

프란츠 뢰어의 저서, Was jeder vom Staatsbankerott wissen muß [모든 사람이 국가 파산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완전히 금전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저자는 사회화를 통해 우리를 위협하는 경제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결국 경제 재건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올바르게 조언하지만, 그는 이자의 신성함에 대한 미신적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는 국가 파산을 전적으로 물질주의의 이자와 일치하는, 완전히 무서운 재앙으로 묘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뢰어가 더 나은 역사 지식에도 불구하고 마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지막 문장에서 "파멸적인 경제적 재앙을 막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81쪽에서는 공공 재정 부실의 결과가 부분적으로 매우 빠르게 역전되었음을 인정하고, 68쪽에서는 어쨌든 러시아가 (지난 세기) 이러한 통화 위기를 지속적인 문제 없이 극복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76쪽에서는 국가 파산의 영향을 검토하면서, 물론 심각한 경제 문제 등이 발생했지만, 대체로 국가나 경제력의 파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국가 경제의 급속한 회복과 공공 재정의 회복은 충분히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저자가 세 줄 더 이어가며 국가 파산은 절대적으로 경제적 재앙을 의미하며 무한한 비참함을 초래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러한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특수한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정직할까요? 전쟁 채권의 견고함에 대해 위선적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세금 부담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재무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다가가 이렇게 선언할 용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전쟁 공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서 정확히 같은 액수의 세금을 징수해야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전쟁 중 저는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더 현명한 방법(영국을 보세요)이 떠오르지 않아서 고금리 전쟁 공채로 사기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모두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지만, 더 이상 숨바꼭질을 하고 싶지 않다면... 저, 즉 국가는 더 이상 이자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고, 납세자인 여러분은 이 이자 지불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거래가 완전히 간소화됩니다. 우리는 막대한 세금 관료주의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관료주의를 피하고, 따라서 막대한 양의 돈과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기를 폭로하는 데 오랫동안 머뭇거렸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큰 그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바이에른 주 세금 신고서에 따르면,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 즉 세금 신고서에 따라 3만 마르크 이상의 이자를 받은 사람들은 822명입니다. 이는 독일 전체 납세 의무자(바이에른 주, St-Z. 1913)의 0.4%에 불과하며, 따라서 약 1만 명입니다. (상위 1만 명!)

이 혁명적 요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가능한 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먼저 우리 국민의 관점에서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겐 쉬퍼 국무장관은 베를린 상공회의소에서 한 중요한 연설에서 "무시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만 옳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가 경제의 막대한 부채와 전례 없는 통화 가치 하락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화 조약을 통해 우리에게 부과되는 부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존재하는 채무 증서(certificate of divisibility)는 약 2,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먼저, 연합국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500억 달러의 전쟁 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채무는 약 3,000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 논문의 좁은 범위를 아무리 크게 제한하더라도, 독일 국민의 부의 규모에 대해서는 몇 마디 언급해야 합니다. 헬페리히와 슈타인만-부허의 연구는 독일 국민의 부를 약 3,500억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리 신중하게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가치만을 부여할 뿐입니다. 이는 경제 활동이 원활했던 시기에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재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로 보수, 수로 개량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제작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을지라도, 엄밀히 말하면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부를 측정하는 더 나은 척도는 방위 분담금이나 전시 재산세에 대한 세금 신고서에서 나오는 소위 과세 대상 재산입니다. 이 경우 총 1,920억 달러가 발생하는데, 이는 헬페리히의 수치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에 따르면 법적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소액 재산의 경우 이 금액에 약 10%가 추가될 수 있으며 "침묵의 준비금 " 의 경우 거의 동일한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2,500억이 넘는 국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조차도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가장 올바른 것은 수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부라는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부는 오로지 국민 전체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 잠재력에서만 표현되며, 따라서 자본이라는 좁은 개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엄청난 규모에 속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광물 자원, 풍부한 삼림, 비옥한 토양이라는 또 다른 국부 원천을 살펴봐야 하지만, 이러한 것들 역시 수치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광물 자원이 미개발되었는지, 아니면 지질학적 보고서에 따르면 수십억 톤의 석탄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0에서 무한대 사이를 오가기 때문입니다.

곧.

독일이 정말 가난한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독일은 독점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풍부한 광물 자원은 주변국 대부분에 크게 뒤처져 있으며, 중국, 인도, 미국 제국의 비할 데 없는 광물 자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토양의 비옥도는 러시아의 축복받은 검은 땅이나 손쉽게 생산할 수 있는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광활한 토지에 비하면 훨씬 부족합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 국민의 일할 수 있는 잠재력과 의지, 그리고 충분한 일자리의 확보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담보 부채나 채무 증서에 대한 담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

5 "침묵의 준비금"은 회계에서 양의 값을 과소평가하고 음의 값을 과대평가하는 결과이므로 가능한 가장 낮은 순자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자가 붙는 전쟁 채권이든, 이자가 붙지 않는 제국 지폐이든, 그 뒤에는 오로지 국민 전체의 세금 잠재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세금 잠재력이란 전체 근로 인구의 노동력의 함수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물론 국가 수입원과 지출의 주요 항목들을 스스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사생활에서 돈 버는 데 대한 관심이 차지하는 넓은 영역과 국가 재정 관리의 중요한 문제들에 우리가 쏟는 관심 사이에는 현저한 대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경제와 국가 경제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수입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체국과 철도의 순이익; 둘째, 광산, 임업청 및 기타 국영 기업의 순이익; 셋째, 통행료 및 간접세; 넷째, 직접세.

이처럼 지극히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순전히 이론적인 논의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 1911년 바이에른 주 예산의 각 항목을 규모 순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편, 전신, 철도는 1억 2천만 유로, 산림, 광산 등은 약 4천만 유로, 간접세는 5천 3백만 유로, 직접세는 6천만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인지세, 수수료, 상속세, 토지세, 제국으로부터의 세수 이전 등에서 추가로 6천 7백만 유로가 유입되었습니다.

지출은 어떨까요? 우선 철도 부채를 포함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8,500만 유로입니다. 왕실 부채 500만 유로, 사법 행정 부채 2,700만 유로, 내무부 부채 4,000만 유로, 교회 및 학교 부채 5,100만 유로, 재정 행정 부채 1,300만 유로, 제국 관련 지출 5,000만 유로, 연금 부채 3,600만 유로, 기타 지출 500만 유로입니다. 당시 바이에른 재정이 호황이었던 해에 연간 예산은 2,700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범위 내에서는 이자 노예 제도 폐지를 통해 생략할 수 있는 지출만 고려됩니다. 여기서는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이 당연히 8,500만 마르크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여기에 재정 관리에 대한 지출의 대부분인 약 1,000만 마르크를 더하면, 제국 관련 지출의 상당 부분, 여기에 절반인 2,500만 마르크를 더하면, 마지막으로 왕실 지출인 500만 마르크가 모두 없어져 총 1억 2,500만 마르크가 됩니다.

이러한 항목이 사라진다는 것은 모든 직접세와 간접세 부과 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 앞서 보았듯이 이로 인해 5,300만 마르크와 6,000만 마르크, 총 1억 1,300만 마르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직접세와 간접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간접세는 한편으로는 교육적 기능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적 기능을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가는 경찰 기관을 통해 재산에 대한 안전한 소유권을 유지해야 하므로, 자유롭고 투명하게 소유된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적정하고 누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고 공평한 일입니다. 상업과 산업이 운영 이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국가는 또한 이들을 위한 공공 상거래로의 유지 및 개발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표권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상응하는 최소 인두세를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합니다.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개인과 그의 재산의 안전에 대한 배려도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간접세 분야에서 모든 순수 사치세의 강력한 확대는 최상의 의미에서 규제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국민의 모든 간단한 식료품과 필수품은 세금이 면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 정책의 결과는 높은 수입에서 그다지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세금은 실질적인 부담이 아니라 개인이 개인적 본질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민이며 시민적 권리 외에도 시민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국유기업의 부채 상환에는 세수가 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유기업의 순이익만으로도 학교, 대학, 사법 행정, 내부 행정 등에 드는 국가 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세수는 국가 예산으로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던 국가의 특수 문화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주로 고아원,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탁아소, 임산부 보호, 결핵, 알코올, 성병 퇴치, 그리고 특히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주거와 인도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전원 도시와 정착촌 건설에 대해 생각합니다.

卐 卐 卐 卐 卐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우리는 처녀지를 봅니다. 이자 노예 제도의 폐지가 모든 세금의 폐지를 의미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거대한 투쟁에서 승리한 국민으로 나왔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듯 성급하게 축하해서는 안 됩니다. 적들이 우리에게 부과한 짐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방금 사용한 바이에른 주 예산이라는 아주 단순한 사례에 근거하여 처녀지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독일 연방주에서도 매우 유사한 관계를 찾아볼 수 있으며, 국유기업, 철도, 우체국, 전신, 산림, 광산 등의 잉여금으로 사법 행정 전반, 국가 건설 사업을 포함한 모든 내부 행정, 학교 및 대학에 대한 모든 지출, 그리고 문화 활동을 위한 모든 지출을 어려움 없이 충당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우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렇지 않은 걸까요? 이자가 슬금슬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자 때문에 국민의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이자로 인해 설탕과 소금, 맥주와 와인, 성냥과 담배, 그리고 수많은 생필품에 간접세가 부과됩니다.

이자로 인해 직접세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곡물 가격 상승의 형태로 전가되는 토지세,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주택세,

생산적 노동에 부담을 주고, 공무원과 고정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불가피하게 떨어뜨리는 소득세를 부과하며, 결국에는 주는 데는 소극적이지만 받는 데는 만족하지 못하는 차용 자본이 자본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1911년 세무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에른에서 수령한 2억 5,300만 달러의 자본 배당금 중 810만 달러가 모두 주세로 납부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본 배당금, 즉 자본에 대한 모든 이자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노동을 통해 조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공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도

이는 우리 주 예산에서 가장 큰 항목이며, 이자 지급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주 수입에 기여하는 바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 규모로 보면, 자본가는 총 6천만 달러 중 8백만 달러를 직접세로 납부했는데, 이는 1911년 바이에른 주에서 납부한 직접 국가세의 8분의 1에서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직접세는 국가 총수입의 약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차관 자본은 국가 총수요의 약 30분의 1에서 48분의 1 정도만 기여합니다.

전쟁 중,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세무 입법이 자본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강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간접세도 거의 그에 맞춰 강화되어 상대적 규모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예산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 비율 자체도 이미 훨씬 불리합니다. 제국은 개별 연방주와 동일한 세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세는 연방주에 유보되어 있고, 제국의 기업은 제국의 우편국과 철도(프로이센 국영 철도는 포함되지 않음)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통행료와 간접세만 남습니다.

제국의 수입원의 규모 순서 (1917년과 1918년의 독일제국 통계연보 참조)는 1915년에 간접세로 10억, 특별세(전쟁 기여금, 등록금)로 8억 등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1/3 이상, 구체적으로 13억이 이미 1915년에 제국의 부채에 대한 이자로 소모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차용 자본이 다시 밀려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직접세가 필요합니다. 설탕은 1억 6,300만, 소금은 6,100만, 맥주는 1억 2,800만, 담배, 슈냅스, 스파클링 와인, 램프 연료, 성냥, 카드 놀이,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품목에 세금을 부과하여 10억 마르크를 모아 자본가들의 주머니로 완전히 흘러들게 했습니다.

오늘날 제국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지불할지는 수수께끼입니다. 1,000억 달러의 전쟁 공채와 기타 전쟁 공채를 기준으로 볼 때, 이자 지급액만 연간 8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체국과 철도 수입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습니다. 통행료 인상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접세는 5배에서 10배 정도만 인상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화폐 이자에 대한 노예 제도의 폐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명확한 통찰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 공채 경제 전체는 엄청난 자기기만이었습니다. 독일 국민은 전쟁을 위해 스스로 1,000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그 대가로 50억 달러의 이자를 약속했고, 따라서 50억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모든 혜택은 자본 배당금을 너무 많이 끌어다 써버릴 수 없는 대자본가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자본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비율은 극히 미미합니다.

제 발표의 주요 내용을 통해 많은 독자들이 품고 있는, 예쁜 증서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결국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포가 이미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자 경제 전체가 거대한 자기기만이라는 것을 한 가지 예를 통해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탄탄한 중산층 상위 소득 계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이 노동으로 10,000마르크의 소득을 올리고, 여기에 자본 배당금으로 5,000마르크를 더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중 약 1,500마르크는 직접세로 납부될 것이고, 그다음 최소 1,000~1,200마르크는 고액 임대료로 납부될 것입니다.

영원한 이자를 위해 깎아내렸습니다. 5~6인 가족에게는 간접세 형태로 1,000마르크가 추가로 탕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과거 중소 자본가들이 유리한 세율로 누렸던 훌륭한 자본 배당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환상적인 세금 제도를 직접 검토해 보면, 훨씬 더 많은 노동 소득이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대자본가의 상황은 상당히 다른 듯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 배당금으로 100만 마르크만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독일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운 좋은 사람은 자본 배당금에 대한 세금으로 기껏해야 5만~6만 마르크를 납부합니다. 간접세도 앞의 예에서 가장이 낸 금액보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예산으로는 오늘날처럼 돈이 많이 드는 시대에도 4만~5만 마르크로도 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대략 90만 마르크 정도의 현금이 남아 있다면, 대출에 대한 5% 이자를 더하면 내년에 4만 5천 마르크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근로 인구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자로만 생활하는 소규모 연금 수급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일할 수 있다면, 당연히 노동으로 소득을 올리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 잠재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수많은 동지들보다 훨씬 나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부를 갉아먹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5% 이자로 받아온 연금을 계속 쓴다면, 결국 그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쪼갤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할 수 없거나 질병이나 노령으로 약해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계층을 위한 사회 복지 개발을 통해 적절한 생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다음과 같이 시각화합니다.

지금까지 6만 마르크의 자본 투자 이자로 생계를 유지해 온 한 노부인, 미망인이 법적으로 선포된 이자 노예 제도의 폐지를 통해 수입원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연금 제도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앞서 언급한 사람에게 자본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연간 연금을 이전 이자 수익률보다 더 높일 수 있게 되어, 이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국, 국가의 채권, 또는 담보 채권으로 6만 마르크를 양도하면 연간 4,000마르크의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망인에게 자녀가 있고 재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유증하고자 하는 경우, 4만 마르크만 연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2만 마르크는 자녀에게 유보할 수 있습니다. 4만 마르크 중 연금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수령액의 최대 1/12까지 매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노예 제도 폐지로 인한 과도한 세금 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미망인의 생계비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각 계층의 개인적 이익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혁명적 요구는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상이 실현됨에 따라, 그 건강상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쟁 채권에 대한 이자 면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미 위에서 분리된 문제에 의해 나는 이미 소규모 자본가들(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초미의 광고를 통해 유도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이

전쟁 채권에 가입하기 위해 저축을 사용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직접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세법에 따라 수백만 마르크의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고려 사항과는 별개로, 자녀의 복지를 위해 모두에게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채권자들이 제국의 부채에 대한 영원한 이자를 포기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조국에 1만 마르크를 기부한 애국자가 100년 안에 원금 손실 없이 5만 마르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고리대금 청구권 외에 실제로 무엇을 잃게 되겠습니까? 그의 자녀와 손주들은 영원히 일해야만 모든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卐卐卐卐卐

빌린 돈의 상환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작년[1918년] 11월 20일, 저는 바이에른 인민주 정부[쿠르트 아이스너]에 제출한 문제에 대한 간략한 주요 아이디어에서 20년 동안 연 5%의 이율로 이자 지불을 상환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다음에서 훨씬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단순함 때문에 분명히 선호될 만합니다. "이자가 취소되면 전쟁 채권 증서는 통화로 선언됩니다." 이것은 콜럼버스의 달걀입니다. 이 조치의 장점은 우선 아무도 실제로 그것으로부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채권 증서는 여전히 창고에 놓여 있지만, 젊은이는 책이나 캐비닛 또는 누군가가 친구에게 빌려줄 수 있는 다른 유용한 물건보다 더 이상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전쟁 채권을 꺼내서 지불하면 됩니다.
전쟁 채권은 결국 다른 10, 20, 100, 1000마르크 지폐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움과 지폐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자 경제에서 무이자 국가 경제로의 순조로운 전환 속에서 시장에 화폐가 넘쳐날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 모든 전쟁 채권 증서는 실제로 이미 잘 보호되어 은행 금고나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다른 은닉처, 예를 들어 양모 양말이나 거름 더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약 400억에 달하는 우리가 발행한 지폐가 유통되지 않고 대부분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비축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쟁 전 경제 호황기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화폐는 약 40억~60억에 불과했으며, 점점 더 일반화되는 무현금 경제에서 오늘날 그 두 배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6

卐卐卐卐卐

이자 상각은 모든 고정 이자 자산에 대해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산의 경우, 배당 수익 자산과 마찬가지로, 특히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원래 제안된 20년 또는 25년 만기 연금 "상환"을 권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노예제도의 폐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주택 문제의 해결, 즉 과도한 임대료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담보권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

6 이후 섹션에서 Feder는 전쟁 채권 증서를 단순히 통화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는 대신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담보 대출의 경우, 한 번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영원한 혜택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에게 끊임없이 손쉽게 재화가 유입되어야 하는가? 왜 대다수의 국민이 이 불건전한 이자 원칙 때문에 해마다 높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가? 주택 관리와 유지에는 끊임없는 노동과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완전히 삭감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간략하게 언급해 두자. 따라서 임대료 인하는 담보 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 가지 분명히 강조해야 할 점은, 이자에 대한 노예 상태의 폐지가 우리의 총체적인 가치 생산 노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 생산적 노동, 상품 생산, 부의 획득에 어떤 식으로든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근로자는 숨 막히고 불합리하며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영혼은 중독성 있는 독에서 정화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자 문제의 유익성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말이다.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15장 등 구약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우리는 이자 중단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일곱 번째 해는 항상 수락이나 희년이어야 하며, 동포들의 모든 빚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594년, 솔론은 입법을 통해 개인 채무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이 법은 '위대한 세이사크테이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라고 불렸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기원전 332년에 렉스 게미키 아라는 법으로 로마 시민들이 이자를 받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복리 금지령이 제정되었는데, 원래 빌린 금액만큼 연체 이자가 누적되면 더 이상 이자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교황 레오 1세(대제)는 443년에 이자 수취를 전면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직자만 대출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자 금지는 교회법의 일부가 되었고, 평신도에게도 구속력 있는 규정이 되었습니다. 세속 법률 또한 점차 교회법적 견해에 따라 변화했고, 심지어 이자를 청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협까지 가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500년, 1530년, 그리고 1577년 신성 로마 제국의 경찰 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러한 법은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빈번히 우회되었으며, 이 짧은 역사적 회고에서 언급할 만한 놀라운 역사적 사실은 11세기에서 17세기까지의 교회법에 따라 기독교인에게는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유대인에게는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어떤 경제적 종양이 이처럼 강력한 부담 경감을 초래했는지 조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특히 어떤 권력과 세력이 이자 금지 조항을 거듭거듭 위반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고리대금업자들이 종종 단기 노동을 했습니다. 농부나 시민들이 피를 말려가며 모여서 폭리업자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자 문제의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학살은 매우 강력히 비난받습니다.

또한, 더 이상 농포낭을 절제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는 개인의 국소적 질병 증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인류 전체를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卐卐卐卐卐

우리의 현대 문화, 경제 관계의 국제성이 바로 이자 원칙을 그토록 살인적으로 만든다는 점을 가장 강조해서 말해야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역사적 회고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비유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바빌로니아인이 아시리아인을, 로마인이 카르타고인을, 게르만족이 로마인을 정복했을 당시에는 이자에 대한 노예 제도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인 세계 강대국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자금 또한 차입을 통해 조달되지 않고 평화 기간 동안 축적된 보물로 조달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흄은 그의 저서 『공공 신용에 관한 에세이』에서 이에 대한 매우 훌륭한 개요를 제시합니다. 소유권의 연속성과 국제법이 존재하는 현대만이 차용 자본이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탄생 당시 이자를 받고 투자되었던 페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소유권이 여러 차례 폭력에 굴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옛 로스차일드가 이자를 받고 투자했던 페니는 여전히 존재하며, 국제법이 존재한다면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지구상의 넓은 지역이 자연 경제에서 화폐 경제로 전환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이자 부과에 대한 모든 제한과 이자 금지가 폐지되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영국은 1854년에, 덴마크는 1856년에, 벨기에는 1865년에, 오스트리아는 186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자가 돈의 소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개념은 불과 반세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이자 개념이 처음으로 돈을 우리가 알게 된 보편적 강압의 악마적 힘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본가에 대한 국가의 초기,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증가하는 부채 역시 19 세기 중반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 그 이후로 우리는 국가가 민속 공동체의 수탁자에서 자본주의적 이익의 수탁자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전쟁 채권에서 정점에 달했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오로지 돈에 대한 이익만을 위해 사용되는 전쟁 채권이며, 세계 차관이라는 거대한 신용 체계로 장식되어야 합니다.

卐卐卐卐卐

이러한 간략한 회고를 통해 우리는 차용자본에 초세속적인 힘을 빌려 스스로 영원하고 끝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차용자본은 스스로를 빨아들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타고났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행위와 악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차용자본이 구름 위에 왕좌에 앉아, 덧없음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파괴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대한 총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집과 오두막, 철도와 다리가 포탄에 산산이 조각나 먼지와 재로 변한다 해도, 저당권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도 채권과 공공 채무 증서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을과 도시, 그리고 지방 전체가 전쟁의 광기 어린 파괴에 희생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채무 증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름 위에 왕좌에 앉은 골드 인터내셔널은 탐욕에 번뜩이는 눈으로 인류의 광란적인 질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인류가 마침내 물질만능주의의 이자 노예로 전락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국제적이며 전 세계를 해방해야 합니다. 최초로 이룬 국가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따라올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국가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종종 나에게 제기되었는데,
네라고 대답하세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이자 청구에 대해 우리는 당연히 무력합니다. 이 청구는 단순히 지불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자본 유출은 가능한 한 차단되어야 하지만, 입법자가 살인, 과실치사, 사기 등에 대한 법률 제정을 주저하는 것처럼, 악당들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가 공공 재정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중 가장 훌륭한 계층이 전리품을 국외로 안전하게 옮기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수억, 심지어 수십억 마르크의 전쟁 채권이 해외에서 지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조차도 이자 노예제를 폐지하지 못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500억 마르크가 넘는 국내 고정 이자 투자 자산 중 대다수는 여전히 국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 이자에 대한 노예제도의 폐지는 우리 재정을 최종적이고 영구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급진적인 수단입니다. - 이자 공동체의 폐지는 억압적인 직접세와 간접세를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국유 기업은, 특히 더 적합한 부문(내륙 항해, 전기, 항공 교통 등)을 사회화한 후에는 국가의 모든 사회적, 문화적 과제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잉여금을 공공 금고에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고려 외에도, 이익 공동체의 폐지는 모든 활동 분야의 생산적 노동에 마땅히 부여되어야 할 우선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돈은 다시금 그에 합당한 역할, 즉 우리 국가 경제의 강력한 추진력에 봉사하는 도구로 돌아갈 것입니다. 돈은 다시 본래의 모습, 즉 완료된 노동에 대한 증표가 될 것이며, 이로써 우리 시대의 맹렬한 돈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전체 노동 인구의 단결 전선 구축을 지향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용 자본의 만족을 위해 간접세로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는 무산 노동자부터, 공무원과 피고용인으로 구성된 부르주아 계급 전체, 그리고 열악한 주택, 농지 임대료, 은행 이자 등의 형태로 돈의 무자비한 폭정을 직접 경험하는 농업 및 소규모 상업 중산층, 그리고 거대 산업의 주요 수장, 발명가, 그리고 경영자들까지, 이들은 모두 거대 차용 자본의 손아귀에 거의 얽매여 있으며, 이들의 삶의 첫 번째 과제는 항상 배후에서 조종하는 화폐 권력을 위한 연금, 배당금, 그리고 이자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예술가, 작가, 배우, 학자, 그리고 기타 독립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지식인 계층 또한 이 집단에 속합니다.

대부자본은 자연인 집단 또는 이자 원칙의 인격화로서 의식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통제에 대한 무한한 욕망의 사실을 숨기려 하고, 로마법에 기초한 우리의 전체 법적 전통, 즉 부자들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재산 보호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의 정의감에 이자 의 예속이 폐지 되어야 합니다.

금본위제에 의한 전 세계의 경제적 노예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 나와야 하며,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맘몬주의의 독을 몰아내는 방법 중 하나로 돈이 나와야 합니다.

전쟁 채권의 은행 신용으로의 전환

제1조의 전쟁채권 등을 법정통화로 전환하라는 요구는 시장에 과도한 통화 공급을 의미한다는 반론에 여러 차례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반론은 그 자체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전쟁채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화폐로 선언된 이러한 서류의 물리적 존재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비현실적일지라도 이러한 우려는 마치 새로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처럼 불행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조를 개정하여, 이자 지급 의무의 입법 폐지 이후 전쟁 채권을 비롯한 다른 공채와 함께 [화폐가 아닌] 은행 신용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공식은 전쟁 채권의 종이로서의 물리적 존재가 중단된다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채권 증서는 은행, 은행가, 저축 기관 등에 의해 제국은행(Reichsbank)에 전달되고, 액면가에 대한 신용 어음이 발행된 후 파기됩니다. 이로써 독일의 거의 모든 사람이 은행 신용, 즉 사용할 수 있는 개설된 은행 계좌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또한 대규모 투자를 개인 소유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큰 이점이 있는데,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는 전달되지 않은 증명서가 무효로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최소한 전쟁 채권이 국외에서 얼마나 지출되는지(이로 인해 독일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항이 이자에 대한 노예제 폐지를 어떤 식으로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외국에 비해 너무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자 요구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외국 채권 보유자에 대한 이자 취소도 전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전쟁 광기에서] 자각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가는 데 많은 진전이 있었고, 역사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조치로 인해 대국에 대한 전쟁 행위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이자 청구가 무력으로 강제 집행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어, 슐츠, 콘 씨가 국경을 넘어 독일 전쟁 채권을 가지고 와서 이자를 청구했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조차 독일에 최후통첩을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국가가 파산한 것처럼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쟁 채권에 대한 추첨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증명서를 전달하여 얻은 통계를 바탕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해외에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만 추첨하여 제국 지폐로 지불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쟁 채권 배분에 대한 환영할 만한 확인과, 그에 따라 매우 간편하게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장학금 담당자들은 라이히스방크 지점에 NN 씨 계좌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물론 납세자의 항소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전쟁 채권을 은행 신용으로 전환(전환)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회적 평준화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전쟁 채권에 대한 소액 투자, 즉 전쟁 채권 발행을 진정한 애국 행위로 간주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소액 출자(예를 들어 5천 마르크 또는 1만 마르크)는 액면가로 상환되고, 모든 고액 출자금은 확정된 비율로 차입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정부 채권에 대한 차입도 정확히 동일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법률 수요에 대한 특별 논평 선언서

§ 1 모

든 국가 및 지방 정부의 부채 인수는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 노예 제도의 폐지와 병행하여 전체 통화 시스템에 대한 단일하고 대규모적인 규제만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에 관하여

이자 노예 제도 폐지는 다른 모든 고정 금리 채권에도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명백합니다. 이는 이러한 채권의 터무니없는 호황을 막기 위한 것이며, 공공 채권만 무이자 채권으로 선언될 경우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부채 자체의 감소는 매년 상환을 통해 달성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부채 대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채무 상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3에 관하여

이 문단은 앞선 문단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제5조의 주택 담보 대출 국유화 요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의 부담을 지고 있는 농부나 주택 소유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계속 지불하지만, 더 이상 영원한 이자가 아닌 상환 형태로 지불합니다. 따라서 기존 이자율에 따라 20년, 25년 또는 30년 후에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이 부채에서 해방됩니다. (주택 담보 은행은 당연히 이 기간 동안만 담보 채권 보유자에게 담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 해방과 더불어 담보 대출에서 해방된 부동산에 대한 공동체의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주택의 보편적 등록부, 혹은 부동산 등기부가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채 없는 부동산 소유권은 당연히 투자한 자본의 상환권과 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영구적인 청구권, 부동산 소유권과 함께 발생하는 모든 비용, 경비 등을 지불할 권리, 그리고 소유자 자신이 하는 작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를 도시 아파트의 예를 들어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은 10만 마르크입니다. 이에 따라 모기지 은행이 포지션 1에 4%의 연이율로 5만 마르크를 투자했고, 비법인이 포지션 1에 5%의 연이율로 2만 마르크를 투자했습니다.

---

7 주택 등록과 부채 없는 소유자의 권리 사이의 연관성은 임대 부동산의 성장을 관리하여 합리적인 수익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2순위, 30,000마르크는 집주인이 직접 지불한 금액입니다. 임대료 수입은 7,000마르크입니다. 이 중 1차 담보 대출금으로 2,000마르크, 2차 담보 대출금으로 1,000마르크, 그리고 기타 비용 및 지출 등으로 1,000마르크를 지불해야 합니다. 총 4,000마르크입니다. 따라서 3,000마르크는 집주인에게 자신의 투자 자본 30,000마르크에 대한 이자로 남게 됩니다.

화폐 이자에 대한 법적 폐지 시행 후 10년 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저당권은 3만 마르크, 2차 저당권은 1만 마르크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투자 원금을 완전히 회수했지만, 5만 마르크에 대한 새로운 공공 소유권이 부여됩니다. 이로써 국가는 추가 임대료 수입에 대해 발언권을 갖고 임대료 금액을 결정할 권리가 시작됩니다 .

상환과 관련하여 주택 소유자를 담보 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본은 이자 노예 제도 폐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좁은 의미의 순수한 차용 자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험" 자본, 구체적으로는 가치 있는 재화, 특히 주택으로 전환된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긴 상환 기간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비율을 주택 운영 비용에 영구적으로 포함할 것인지는 주택 소유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속력 있는 제안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분야에서도 이자 경제에서 무이자 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25년 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담보 대출이 상환되었고, 영구 비용만 동일하거나, 주택의 연식이 더 길어서 1,000마르크에서 1,500마르크로 증가했습니다. 이 금액에서 주택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수익도 약 1,000~1,500마르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수입의 약 3,000마르크는 협상 불가능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원래 임대료 수입 7,000마르크 중 나머지 4,000마르크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임대료를 절반 이상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 주택에서 이를 수행할 수도 있고, 국가는 임대료를 20, 30 또는 40%만 낮춰 그 차액으로 다른 공공 필수품, 특히 공공 주택 건설에 막대한 수입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대저택의 임대료는 인하되지 않거나, 크게 인하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건설이나 특수한 사회적 목적을 위한 추가 재원이 크게 확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 상황은 – 저는 이것이 매우 유익한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방식으로, 노동자 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공동체(국가)가 지금도 임대료 결정에 참여하는 내적 정당성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국가의 참여권이 확대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포함됩니다.
건전한 은행 발행 기반과 모기지 채권자에게 신용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 4 및 5에 관하여

이 단락들은 전체 화폐 시스템의 사회화를 요구합니다. 화폐는 오직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완료된 노동에 대한 증표일 뿐입니다.

---

8 페더는 5만 마르크라는 수치를 어떻게 도출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파트 가치의 절반이지만, 기업 담보 대출 금액과도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금액이 담보 대출금보다 크지 않아 주택 소유주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페더가 고통 없는 전환을 강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 담보 대출금이 가치의 절반보다 적더라도 페더의 계획에 따르면 국가는 여전히 담보 대출금보다 더 많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화폐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적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국가의 화폐 토큰을 위조하는 행위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화폐 시스템을 집단의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사회적 요구입니다. 집단의 노동력이 화폐 토큰의 유일한 기반이며, 이 근본적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재정의 전반적인 악화와 화폐 시스템 전반의 완전한 무정부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5절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민간 은행가들이 개인 및 상업 신용을 포기함으로써 전체 신용 체계는 더욱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국가 신용 체계뿐 아니라 지방 정부 및 부동산 신용 체계에서도 이자 노예제 폐지를 위해 최대한의 엄격함과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 국가 일반의 필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신용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또한 그 자체로 개인 신용의 무이자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개인 신용만큼 엄청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고정금리 대출 자본이 2,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은 12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모든 신용, 주식, 참여 증서, 광산 지분, 지분 등은 위험 자본입니다. 이 자본의 수익률은 자금을 위탁받은 사람들의 근면성과 효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위험과 손실 위험이라는 요소가 개인적 신뢰 문제와 함께 작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종류의 보상이 여전히 필수적으로 여겨집니다. 주식 등의 소유자는 자신이 자금을 위탁한 기업이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기업이 파산하면 그는 자신의 자금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라이히하이젠반의 사채 소유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엘자스-로트링겐에 있는] 제국 철도는 엘자스-로트링겐의 상실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채권 보유자는 계속해서 이자를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국민 세금으로부터. 철도는 작년 프로이센과 바이에른에서처럼 어떤 규모든 적자 재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채권 보유자들은 여전히 이자 수입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근로 인구의 노동 잠재력과 소비에서 나오는 공물로부터.

마지막으로 이 근본적인 구별을 완벽하게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뱀파이어가 사람들의 잠재력을 빨아들이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신용은 민간 은행을 통한 개인 거래에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다시 할당되어야 합니다. 은행가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신용 추구자의 개인적 효율성이 다시 개인 신용의 결정 요인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하는 수수료는 화폐의 유동성에 따라 스스로 조절될 것이며, 이는 결국 이자 노예 제도의 폐지와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 6에 관하여

제5조의 핵심은 특히 배당자산에도 적용됩니다. 사회적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 산업 기업에도 대출된 자본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 산업 기업이 투자자에 대한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민족에 대한 차관자본의 관계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서도 더 작은 규모로 반복됩니다. 여기서도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감독, 엔지니어, 기업가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습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우리가 산업과 기업을 영원한 이자를 빨아들이는 존재로부터 해방시킨다면, 제품 가격을 낮추고 잉여가치를 지역 사회, 노동자, 중간 관리자, 특정 기업의 이사회, 즉 제조업과 가치를 실제로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분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 7에 관하여

이 단락에서는 자연스럽게 보험 분야 전체가 언급되는데, 이는 유사한 무이자 기준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납부된 보험료는 이자를 더해서 증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험 회사는 저축 기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험의 위험과 이점은 유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 8에 관하여

우리의 막대한 부채 증서로 인해 초래된 우리 화폐 가치 하락과 관련하여, 우리는 강력한 누진 재산세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력한 누진세"를 강조합니다.

지폐 수 감소 등의 목적을 위한 [일률적인] 재산세는 국민의 눈에 모래를 뿌리는 자기기만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모든 곳의 모든 부의 절반을 몰수하여 채권으로 지불받고 이를 펄프로 만든다고 해도, 실제로는 종이의 양이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반면 환산 계수는 유통되는 전체 종이의 허구적 가치를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항상 소비재와 사용재에만 속하며, 완료된 노동에 대한 종이 증서에는 결코 속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우리 마르크화의 환율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율 개선조차도 결국 노동력과 생산력, 다시 말해 우리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 의견과 반박

어떤 사상도 반대 없이 자리 잡은 적이 없으며, 특히 이자의 신성함과 불가침성에 대한 오랫동안 확립된 가정으로부터 그토록 급진적으로 벗어나는 사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제기된 반대 의견과 예상되는 반대 의견 모두에서 항상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제기되는 반대 의견 중 어떤 부분이 이자의 폐지, 즉 노예제라는 개념을 고의로 왜곡한 데 기반하고 있는지, 둘째, 모든 진실되고 사실에 기반한 의구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가장 빈번한 반대 의견은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면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9 이는 주식회사의 문제입니다. 독일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주식회사는 가족이 자유롭게 소유한 회사입니다. 이런 특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용이 요령이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빠져든 함정이며, 지금은 무력하게 빠져 있는 함정입니다.

국민들이 정말 더 많은 자본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면, 중앙 정부 금고에서 무이자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만 하면 됩니다. 결국 새 지폐를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자부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까?! 이자가 붙든 안 붙든 상관없습니다! 그 유일하고 유일한 기반은 국민의 노동력과 세금입니다. 왜 처음부터 모든 공공 지출에 영원한 이자의 무거운 짐을 얹어야 합니까?

네, 하지만 국가는 지역 사회를 위한 문화적 노력을 어떻게 완수해야 할까요?
돈을 빌리고 이 과업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자가 부과되는 대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주장은 전적으로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을 꼼꼼히 읽은 후에는 오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자 노예제가 폐지된 후에는 국가의 모든 문화적, 사회적 과제가 국유 기업, 우편 서비스, 철도, 광산, 산림 등의 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주권 국가인 인민 국가(Volksstaat)는 물질주의 국가에서 규칙으로 선언된 이자 발생 증서 대신 무이자 가치 토큰을 발행하여 언제든지 특별한 문화적 과제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철도, 운하, 수력 발전 건설과 같은 특별한 문화적 과제를 불필요한 영원한 이자를 약속하며 스스로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국유 사업의 수익으로 건설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면,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국가는 이 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정확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노동력과 세금 잠재력을 가진 국민이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영원한 이자 의무만을 부과하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이자 발생 대출)을 지지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이 돈에 집착하는 국가의 집착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본가들은 발행된 지폐를 모아서 지폐를 축적할 뿐이다.
돈.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반박됩니다. 첫째, 단순히 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무익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미 충족되었을 것이고, 자본가들이 자발적으로 이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이미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자본가는 집에 지폐를 쌓아두면 스스로 이자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본가는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집에 거액을 쌓아두고 도둑, 강도, 강도, 가택 수색, 화재, 홍수 등으로 자신의 재산이 위협받는 것을 끊임없이 지켜봐야 하는 화폐 축적자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정직한 시민이라면 머지않아 이러한 걱정에 지쳐 국립은행으로 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립은행은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제 계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만, 이자 지급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세 번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돈으로 일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상품을 제조하고, 산업 사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훌륭하게 만들고, 예술과 학문을 지원하고, 간단히 말해, 맘몬 숭배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돈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명품의 시험, 젊고 유능한 장인이나 사업가의 사업 창립 등 어떤 목적을 위해 민간 자본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이자 노예 제도의 폐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 이자 노예제가 폐지된 후, 물론 더 이상 돈을 안전하게 투자하고 이자의 무의미한 소비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자본가는 이전 시대처럼 오히려 그러한 목적을 위해 돈을 걸고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부족이나 필요성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유능한 사업가들과 가장 영리한 발명가들로부터, "배당금"을 보장하지 않는 한 그러한 목적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불평을 끊임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둘째, 다가올 국가의 임무는 관대한 지원을 통해 모든 유능한 세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부터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지만, 너무 소극적이어서 공적 지원 제공에 수반되는 번거로운 규제 때문에 자극은커녕 오히려 억제와 주저함이 초래되었습니다. 셋째, 수백만 마르크를 할당하면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독일 발명가, 엔지니어, 장인 등의 노동의 기쁨, 근면성, 그리고 끈기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가가 행운의 발명품의 결과에 참여할 권리를 통해 (영국을 예로 들 수 있듯이) 그 지출은 상당한 보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 노예제도의 폐지는 필연적으로 부의 고갈로 이어진다.

오호! 누가 그런 주장을 합니까? 물론입니다! 자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소비하는 데 삶을 적응시키고 일할 결심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매년 5%씩 소비한다면 20년 안에 재산을 완전히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만, 이는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자 노예 제도의 폐지입니다. 우리는 연금으로 사는 것이 시민의 가장 높은 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돈벌이적 타락을 끝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 많은 사람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영원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을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자 지배의 폐지가 부의 소멸과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자 노예제의 폐지는 영원한 이자 지출로부터 해방되고 부담 없이 재화를 생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에 기반한 부의 창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자 노예제의 폐지는 모든 삶의 비용을 전면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과중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모든 근로자가 미래에 저축을 축적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자 노예제의 폐지를 통해 재화와 가치를 생산하는 산업, 상업, 무역의 국민경제 노동은 어떤 식으로든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최대한으로 증진됩니다.

자본가가 더 이상 이자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자는 무엇을 얻게 될까?

이 질문은 더 이상 거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외침이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노동자가 대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확인했습니다. [즉, 노동자가 얻는 것은 세금 인하와 생활비 절감입니다.]

누군가가 재산을 남기지 못한다면 가족의 유대감은 약해지고 손상됩니다.
아이들.

네, 현실은 어떤가요? 저는 대체로 돈은 가족이라는 의식과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부유한 부모의 자녀들이

가난한 부모보다 그들의 부모가 더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유한 부모가 가난한 부모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걸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최선의 양육을 마련하고 규율을 가르치며 근면하고 건강하며 용감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 중 어느 것이 자녀에게 더 중요할까요?

특별한 경우, 자녀의 재정적 미래를 보장하려는 정당한 노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그리고 자녀를 위한 부모의 검소함은 이자 노예 제도의 폐지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국민 경제가 이자 노예 제도라는 전면적인 압력에서 해방될 때, 저축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마르크의 수입과 5,000 마르크의 연금 소득을 가진 사람의 사례에서, 모든 중소 규모 재산이 주택 임대료 등의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실상 어떠한 유익한 효과도 박탈당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액 및 중액 재산 소유자에게 채권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사기, 자기기만, 빙빙 도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대자본은 헌신적인 언론을 통해 이자의 신성함과 불가침성에 대한 믿음을 전 세계에 악마적으로 전파하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마취적인 이자의 소비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게으르고 노동 없는 이자의 소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양심의 가책을 잠재우고, 이 최고의 선인 맘몬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동지들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 정치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국가는 채권자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포기할 수 없다.

"의무"란 무슨 뜻일까요? 국가가 처음부터 채권자에게서 직접세와 간접세를 정확히 같은 금액으로 징수하여 이자를 징수해야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 과연 도덕적일까요? 거기에 무슨 도덕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더 정직하지 않을까요? "세금으로 같은 액수를 받아야만 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는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 돈을 위해 전쟁 채권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고, 이제 더 이상 숨바꼭질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인 저는 이자를 내지 않고, 납세자인 여러분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거래는 상당히 간소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세무 관료주의와 마찬가지로 이자를 챙기는 극단적인 관료주의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합의한 건가요?" 샤이데만 씨, 당신은 낡은 타협 정부의 국무장관으로서 전쟁 채권의 안전성과 불가침성에 대한 어리석은 선언을 내뱉으며 모든 광고판에 다시 이름을 올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망신시킬 뿐입니다. 그 모든 사기의 이익은 사실상 거대 차관 자본에만 돌아갔습니다.

재정 관리들과 은행 전문가들은 전쟁 채권과 공공 부채에 대한 이자에 대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공공 파산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연설에 따르면 우리는 어차피 공개적으로 파산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파산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현 권력자들의 실제 무능에 더해, 그 무능함을 역사적으로 성급하게 입증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왜 파산을 선언해야 합니까?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3마르크를 왼쪽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 바지 주머니가 파산했다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 차관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수십억 달러를 먼저 꺼내고는 다시 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차관이 들어왔고, 다시 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다시 펌프가 들어와 수십억 달러를 빨아들였다가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 게임이 아홉 번 반복된 후, 국가는 1,000억 달러의 빚을 쾌락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대가로 국민들은 1,000억 달러의 고가의 지폐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국가가 그렇게 부유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국가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끔찍하네. 1,000억 달러의 빚을 지고 파산 직전이야." - 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어쨌든 그건 자기기만일 뿐입니다! 저도 가끔씩 한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다른 쪽 주머니에 넣으면 절대 파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내 전쟁 차관 부채와 관련하여 국가 파산에 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공공 파산을 선언할 필요가 없으며, 어리석은 이자 지불과 막대하지만 더 어리석은 세금으로 인한 엄청난 노동을 스스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거대 대출 자본의 유혹에서 벗어나자! 거대 대출 자본만이 이 대출이자 세금 사기에서 이득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값진 금덩어리가 남고, 노동자들은 이 잉여금을 간접세의 형태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중소 자본가들은 그저 자기 꼬리만 쫓을 뿐이다.

세계 경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은 독일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신용을 잃고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며, 우리는 여전히 전 세계에 대한 이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는 세계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자 노예제 폐지라는 이념은 화폐 이자에 대한 국제적 노예화에 맞서는 모든 생산적인 사람들의 구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내부의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병든 이웃이 동시에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이 어리석은 행위가 대자본가에게만 이익이 되고 다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미친 듯이 굴고 세금과 이자를 낸다면 더욱 어리석은 짓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방적인 모범으로 길을 안내합시다. 화폐 이자에 대한 노예화에서 스스로를 해방합시다. 그러면 이 승리하는 해방 이념의 힘이 세계 인민들이 우리를 따르도록 자극할 것임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의 이니셔티브가 억압되지 않는다면 확신합니다.
독일의 물질주의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필요성에 따라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아이디어는 자본 보호에 불과합니다.
그때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부자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여. 당신이 정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 공산주의자이고 따라서 "모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고 주장한다면 당신과 토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그리고 그와 함께 당신이 러시아의 위대한 볼셰비키 지도자들, 특히 레닌의 실제 사상을 실제로 알고 있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며, 따라서 레닌이 지적한 소비에트 공화국의 다음 과제인 "모든 생산과 유통에 대한 보편적인 회계 처리와 통제"가 인간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긴다면.

10피터 크로포트킨, 빵의 정복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일이 끔찍한 폭정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하고, 마음속 깊이 확신을 가진 공산주의자나 스파르타쿠스주의자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 논쟁하지 말자. 우리는 단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볼셰비즘의 혼돈에서 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엄격한 국가가 될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이자-노예 제도에서 해방된 국민 경제를 갖춘 새로운 국가가 될지는 미래가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공산주의적 마음 깊은 곳에서 - 당신이 정직하다면 - 여전히 아내와 자식을 그리워하고, 에스키모나 줄루 카피르보다 당신에게 더 가까운 인간적 영혼을 그리워한다면, 소련 감독관이 지휘하는 공장 노동 중에도 여전히 작은 별장이나 작은 정원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길에서 만나는 모든 암캐를 이용할 권리가 거리의 개처럼 있다는 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아내라고 부르고 싶다면, 단지 당신에게만 속해야 할 임금에서 무언가를 저축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더 이상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당신은 이미 마음속에서 큰 소리로 외친 캐치프레이즈인 "모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에서 깨어난 것입니다.그렇다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내, 아이, 집, 농장, 저축 -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단지 얻기를 바랄 뿐이든, 그것조차도 당신만의 것이어야 합니다.

친구여, 만약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당신에게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면, 만약 어떤 무작위의 사람이 와서 "모두"의 이름으로 당신의 저축을 빼앗고, 그가 당신을 위해 다른 아이를 데려오고 당신의 아이를 데려간다면, 모든 아이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친구여,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지 말자.

아마도 모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속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의 메시지가 실제로 모든 문화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소유권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낮추는 강력한 논리적 강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면, 레닌이 말한 의미에서 모든 지상 생산과 유통에 대한 회계 처리와 통제가 강제될 수 있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개미 군락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우리는 언어, 영혼, 사고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본능적으로 강제 노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종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11

하지만 이제 그만하세요, 친구 스파르타쿠스. 이 근본적인 고려 사항을 머리와 가슴 깊이 새겨 두세요. 그러면 다른 당사자들과 대화할 때 당신의 질문에 대한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건파와 무소속파의 두 사회주의적 지향을 지닌 동지들이여!12

저는 당신 측에서 이자 노예제 폐지에 대한 심각한 모순이나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르크스부터 현재의 지도자인 에버트, 샤이데만, 카우츠키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사상계 전체와 함께 당신을 명확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1. 사회주의자의 의지: 노동계급의 향상은 무조건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의견이 일치한다.

---

11 "인간의 종말"은 에스겔서에서 따온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인간의 목적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하에서 인간의 목적은 무분별한 노예 상태가 되며, 이는 곧 인간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12 페더는 여기서 사회민주당과 그 평화주의 분파인 독립 사회민주당을 지칭합니다.

2. 이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밟은 길은 거의 전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국가 개념은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로 이어진다. 감소.

5.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다른 목표, 즉 모든 근로자 중에서 노동계급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끔찍한 내부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의 논리적 귀결이 노동자 운동의 실제적 목표와 정반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6. 이러한 내부적 분열로 인해 방향에 대한 명백한 불확실성이 발생합니다. 정부.

7. 위대한 실천적 목표(노동계급의 고양)를 위해서는 스파르트타쿠스와 볼셰비키 공산주의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경계를 설정해야 하며, 그들의 수법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된 사회민주주의는 오늘날 이러한 급진적인 집단들 앞에서 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가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교육의 근본 원칙으로 삼았고, 모든 마르크스주의적 사고방식은 논리적으로 공산주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번 항목은 사회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이 거의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진 모든 선동은 우리 국민 내부에 깊은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고용주, 더 나아가 모든 부르주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표면적으로는 도움 없이 일하는 육체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흡혈하는 자라고 끊임없이 비난하며, 부당한 원한과 노동의 오만함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오만함은 오늘날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당 선언)라는 요구로 표출됩니다. 에르푸르트 강령의 핵심 요구, 즉 생산수단을 사적 소유에서 공동체의 소유와 운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는 오늘날 "사회화"라는 외침으로 압축되었습니다.

모든 진지한 정치인에게 우리 경제의 파탄을 완전히 사회화하는 것은 국가의 완전한 파산을 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국민에게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거리낌 없이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사회화가 아니라 탈사회화가 모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화의 노골적인 실패를 망상적인 세금 프로젝트와 이러한 방식으로 두 번째로 "수탈자들을 수탈"함으로써 보상하려 한다. 이 모든 것은 국민 경제 전체를 완전히 파멸로 내버려 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성장(혁명 이후 시기의 사회주의 문헌 전체가 약속했듯이 생산량의 배가는 불가능한) 대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현 사회주의 정부가 막대한 외국 차관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쇠퇴할 뿐만 아니라, 결국 협상국에 대한 이자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그로부터는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잘못된 조약, 요구, 그리고 인민에 대한 약속의 사슬을 구축한 근본적인 실패, 근본적인 오류는 산업 자본과 차관 자본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공산당 선언, 에르푸르트 강령, 마르크스,

엥겔스, 라살, 카우츠키는 산업자본과 대출자본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회민주당 전체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오류는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능한 유일한 결론들을 끊임없이 도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결론들은 산업과 고용주에 대한 무의미한, 완전히 잘못된 분노를 근본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와 노동 제공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과 생산입니다. 생산 없이는 삶도, 문화도, 전진도, 상향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하는 자명하고 불가피한 대립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위대한 공동 이익보다 훨씬 덜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립은 임금 계약과 노동조합을 통해 양측의 상호 만족을 위해 해결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논문에서 다루는 가장 큰 정치적 힘의 범위 내에서 사소한 문제들은 더 이상 다루지 말고, 노동계의 집단적 이익이 우리 국민의 국가 산업, 국가 경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만 강조하도록 하자.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대립을 더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는 사람은 바로 근로자에 대해 무책임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근로자를 양육하고 지탱하는 나무의 뿌리에 도끼를 놓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그렇게 했고, 그로 인해 독일 노동에 대해 영원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는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없고, 우리에게 상호 이해의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고, 우리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고, 심지어 우리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원 없이는 지낼 수 없고, 일할 의무를 요구해야 하고, 20세 이상의 남녀에게 주어지는 보통 평등하고 직접적인 참정권은 누구에게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가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개인이 사회에 통합되고 종속되지 않으면 국가의 활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깊고 절망으로 가득 찬 실망의 물결이 온 국민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개인들이 여전히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대표들은 "혁명의 성과"를 "반동"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서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두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떤 진지한 정치가라도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혁명의 부정적인 행동, 일련의 낡은 왕조의 폐위, 장교의 폐위, 귀족의 폐지, 군대의 해산, 간단히 말해 "대파괴"는 실제로 "이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동?! 쓸려 나간, 부패한 신권(神權) 교리는 온 국민의 어디에서도 강력한 행동을 이끌어낼 만큼 충분한 도덕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부르주아의 관점에서 볼 때, 부르주아지는 너무나 비겁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계급의식적 노동에 맞서 결집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 지배계급은 왕조적 또는 부르주아적 반동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소위 혁명의 성과에 대한 민중의 깊은 실망, 다시 말해 민중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데 대한 실망,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러한 실망은 대중이 점점 더 좌파로 흘러가게 만들고, 이미 제시된 약속은 훨씬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이라는 약속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광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상, 모든 현상, 모든 활동이 극단적으로 확대되고 과장되면 결국 광기가 되고, 결국 그 반대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속해야 한다는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상은 결국 종식되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굶주림, 절망, 비참함, 질병, 그리고 궁핍이 러시아에 도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남은 용기와 기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회주의 사상계의 엄청난 근본적 오류는 결국 산업 자본과 대부자본 사이의 심오한 본질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이자를 탐식하는 대부자본은 인류의 재앙입니다. 생산적인 상품 생산, 산업 운전 자본이 아니라, 대부자본의 끝없는 무노력적인 성장이 민중 착취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왜 이 본질적인 차이가 인식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인식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대부자본의 이익을 위해 은폐되었는지,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에서 지도자와 수장들, 공산당 선언과 에르푸르트 강령의 저자들, 그리고 현 지도자들이 항상 필요한 양심성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사람의 절대적인 진지함과 확고한 신념에 의심을 품는 것은 가장 심각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과 관계를 더욱 면밀히 탐구할수록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위대한 영국 총리였던 디즈레일리, 비컨스필드 경의 말을 인용하여 크고 모호한 연관성을 암시하고자 합니다. 그는 소설 『엔디미온』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인종의 원칙을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열쇠이며, 역사가 종종 혼란스러운 이유는 이 원칙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지식을 무지한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세르기우스 남작이 엔디미온에게]

부르주아.

휴식이 부르주아적 의무처럼 여겨지는 부르주아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할 때마다 늘 그렇듯, 새로운 혁명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분명히 불안해진다. 이는 그에게 불안을 의미한다. 어쩌면 그는 그것에 대해 뭔가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변화는 그에게 혐오스럽다. 그는 휴식을 원하며, 돈주머니를 탐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에게서 이자, 주택 임대료 수입, 담보부채권 이자,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즉 그의 휴식, 만족, 그리고 행운을 바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관자본을 소유한 계층의 구성원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부르주아와는 별개로 형성됩니다… 부르주아는 더 이상 시작할 것이 없는 인간 유형입니다. 부르주아는 인류라는 나무의 가지로, 가능한 한 빨리 잘라내야 합니다. 이들은 열의를 가질 줄 모르는, 비참할 정도로 좁은 시야를 가진 자만심에 가득 찬 자만심에 가득 찬 배빗들입니다. 그들은 커피, 아침 신문, 아침 음료, 정오 신문, 점심, 오후 낮잠, 쿠폰 오려내기, 오후 음료, 술집 친구, 그리고 가끔은 영화관에 가는 것으로 영원한 단조로움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 젊은이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 민중과 국가, 사회를 괴롭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쟁과 승리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는 그들은 거만하면서도 아첨하며 초라하게 쇠퇴합니다. 하지만 부르주아지는 너무나 광범위한 계층이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자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검소함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자 노예 제도의 폐지가 일반적으로 검소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단호히 부인되어야 합니다. 검소함은 예를 들어 낭비와 마찬가지로 지배적인 경제 견해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검소함과 낭비는 시대가 이자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전환기에는 아마도 검소함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장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경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자로만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노후에 살면서 아이들에게도 뭔가를 남겨주고 싶다. 그러므로 이제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 이자 노예 제도의 폐지는 제 생각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노인들은 물론 공적 부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재산에 대한 직접세 부담과 모든 생활 방식에 대한 간접세 부담을 고려할 때, 그 사랑스러운 이자 지급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모든 소득이 영원한 이자 지급에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예외입니다. 이는 참으로 불의한 일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절약의 감소는 아마도 두려워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역겨운) 대자본이 정말 그렇게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걸까? 대자본은 또한 차용자본의 이자가 파괴하는 것보다 더 큰 결실을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대규모 진보의 수단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돈에 대한 맹목적 옹호론이 우리의 맑은 시야를 가렸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대자본은 대규모 진보의 수단을 창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자본은 노동에서 성장했습니다! 모든 자본은 축적된 노동입니다. 대자본은 그 자체로는 비생산적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돈 자체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 노동, 그리고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용 가능한 원자재나 광물 자원으로부터 가치가 생산되고 상품이 제조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장 비옥한 농지, 가장 풍부한 탄광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더라도, 그 농지는 곡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탄광은 스스로 석탄을 뿜어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확인해 봅시다.

사람들이 돈을 발명했다면 그것은 그에 따라 매우 유용하고 합리적입니다.
복잡한 경제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완료된 노동에 대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폐 제국"에 스스로를 무한히 확장하여 거대한 규모로 성장할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자가 붙을 수만 있다면 돈은 바로 그런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존재의 핵심이 반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돈을 다른 모든 지상적 현상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실로 인류의 가장 거대한 자기기만일 뿐입니다!

돈만으로는 아무것도, 전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식탁, 찬장, 옷, 집, 도구, 간단히 말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닙니다. 결국 부서진 가구는 땔감으로 쓸 수 있지만, 20마르크 지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치즈 한 조각도 그 안에 싸 넣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위한 상품 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완료된 노동에 대한 증빙을 작성하는 데 분별력 있게 합의한 후에야 비로소 종이 조각에 의미와 목적이 부여됩니다. 농부가 곡물의 대가로 탄광 회사로부터 석탄이 아니라 돈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다른 완료된 노동에 대한 증빙서류, 예를 들어 쇠스랑, 도자기, 쟁기, 낫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돈의 힘은 끝나야 합니다.

따라서 인류의 대규모 진보는 돈이 아니라 인간 자신, 그들의 대담한 정신,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전, 그들의 영리한 두뇌, 그들의 손의 힘, 그리고 그들의 공동적이고 따라서 사회적인 근면한 노동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자랑스럽고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상업의 단순화를 위해 인간들이 발명해 낸 초라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이었습니다.

추가 프로그램

이자를 받는 노예 제도의 폐지가 새로운 국가 운영의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가장 예리한 행위이며,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물질주의의 폭정에 맞서 모든 민족을 진정한 국가 연합으로 단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자 노예제도의 폐지는 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자는 세계의 악을 뿌리째, 사실상 가장 근본적인 근원으로 잡아두기 때문입니다.

이자 노예제 폐지를 요구하는 토대가 충족될 때에만 비로소 사회 국가를 위한 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는 분명히 인식되어야 하며, 모든 금본위적 권력에 맞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합니다. [이자 노예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화를 요구하는 것은 모든 산업의 트러스트(신탁)를 형성하고 도처에 거대 재벌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모든 부유세에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 자본이 미래에도 당연히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금본위적 토대 위에 세워진 사회주의 국가는 불합리하며, 본질적으로 이미 금본위제로 심하게 오염된 사회민주주의와 대자본 간의 타협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우리는 물질주의적 국가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정신에 따라 국가를 재건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은 양육의 의무이며, 공산주의의 오래된 기본 요구는 합리적이고 유용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이 국가가 가장 중요한 식량을 할당함으로써 조국 토지에 대한 할당된 권리를 받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국가의 골격으로서 가장 광범위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인민대표회의를 통한 인민의 대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직업과 경제적 계층에 따라 분포에 따라 발언권을 갖는 중앙 협의회인 상임 노동회의소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가 운영자들에게 최고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사회주의-귀족적 토대 위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국가 구성은 별도의 저작에서 다루겠습니다.

곧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성의 전제 조건은 이자 노예 제도의 폐지입니다.

저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 아니, 제 지식은 이자 노예제 폐지가 강제로 시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형언할 수 없는 환희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며,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인류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다른 모든 사상, 운동, 노력과는 달리, 제 제안은 인간 본성의 개선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제안은 독성 물질, 교묘하게, 아니, 악마적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에 완전히 반하는, 인류를 병들게 하고, 인류를 물질주의에 빠뜨리고, 인류가 가진 가장 좋은 것, 즉 영혼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현상에 맞서 싸웁니다. 바로 그 곁에서 손을 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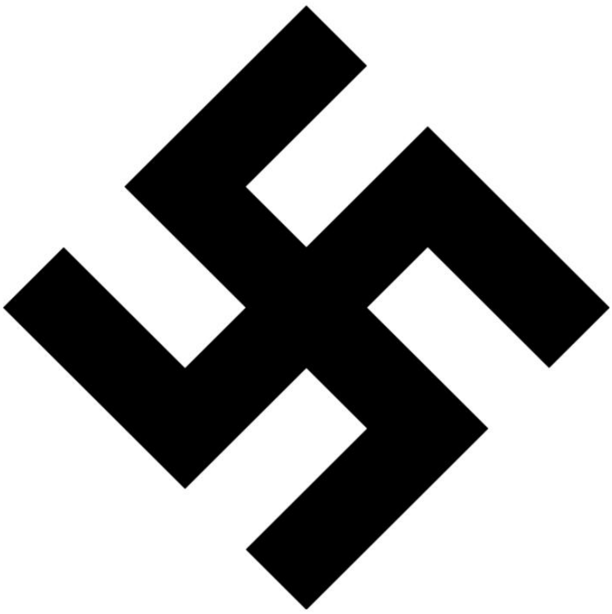
돈의 권력이 무섭고 무자비하게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자의 노예일 뿐이며, 오로지 배당금과 이자를 위해 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져, 유대인의 신 야훼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하신 옛 성경 속담의 두려울 정도로 명확하고 진실된 말씀을 깨닫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세상의 모든 보물을 주고 싶다. 네 발 앞에는 땅의 모든 민족이 누워 있고, 너는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 세계적인 문제가 이제 여러분 모두 앞에 펼쳐졌습니다. 세계적인 문제는 손짓 하나로 해결될 수 없지만, 그 아이디어는 대낮처럼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부지런히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적, 세계를 아우르는 돈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반대편에는 모든 힘이, 우리 편에는 오직 정의, 생산적 노동의 영원한 정의만이 존재합니다.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이여, 나에게 손을 내밀어라, 단결하라!

국가에 관한 독일 국가 사회주의 재단



머리말

~에 의해

아돌프 히틀러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에는 권력에의 의지와 명확한 목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권력에의 의지, 즉 해방에의 의지는 우리 마음속에 뜨겁고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트프리트 페더는 그의 저서 『국민사회주의 기반 위의 독일 국가』에서 우리의 목표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백만 명의 희망과 갈망이 하나의 형태와 강력한 표현을 얻었습니다. 우리 운동의 문학은 그 안에서 교리문답을 얻었습니다.

뮌헨, 1923년 11월 8일 아돌프 히틀러

머리말

5판까지

제 저서 『국민사회주의 기반 위의 독일 국가』는 "국민사회주의 도서관" 시리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기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지만, 이 저서가 출간된 당시(1923년)의 상황을 언급하고 그로부터 인용된 구절들은 삭제되었고, 유대인 문제에 대한 설명은 후자에 대한 특별 저서가 마련될 예정이므로 간략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새 판에서는 기본 프로그램에는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무르나우, 1931년 10월

고트프리트 페더

'절실한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고상한 정치적 사상을 강요합니다.

위대하고 단순하며,

'시대의 다른 모든 사상을 강요합니다.'

하인리히 폰 트라이치케

소개
첫 번째 판에

우리는 강한 희망과 갈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바라봅니다. 독일은 살아남을 것이고, 독일은 몰락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마치 새 시대의 엄청난 산고에 휩싸인 듯 흔들립니다. 자기 죄책감이라는 끔찍한 족쇄와 외국의 고문은 힘차게 어깨를 으쓱하며 떨어져 나갈 것이며, 독일은 열국의 선두에 설 것입니다.

만약 그토록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몰락과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 시대가 창조되는 날들에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며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타락과 현재의 혼란을 흘끗 살펴보면, 어디에서나 강력한 의지, 진지한 노력, 그리고 영감 어린 직관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영혼은 새로운 고공 비행을 향해 날개를 펼칩니다.

오늘날의 과제는 독일의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크고,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경제를 단순히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의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지적 삶에도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통일된 독일을 바라는 오랜 독일인의 갈망은 마침내 현실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경제 법칙이 생겨나서 이자 중심의 악몽 같은 경제 형태를 쓸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과제들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압도적입니다. 과거의 정신은 엄중하고도 훈계하듯 우리 뒤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 앞에 경외심으로 가득 차, 최고의 독일 전통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그리고 가장 초기의 아리아인 지혜에 기반하여, 국민과 국가, 경제와 문화는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노동자들은 엄청난 책임을 의식해야 하며, 실제로 그들은 자유를 향한 온 국민의 희망에 의해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사상은 단순히 옛 조상의 관습으로의 복귀나 우회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국가와 경제 형태의 족쇄를 끊습니다. 그것은 최초이자 가장 단호한 사상으로서, 세계를 포괄하는 유대인 제국주의의 권력, 탐욕, 이기심, 무관심의 정신에 맞서 의식적으로 가장 힘든 싸움을 벌입니다.

이 보편적이고 위대한 독일 자유 운동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에서 가장 강력하고 의지가 강하며 목표 의식이 뚜렷한 운동가를 찾습니다. 당은 운동의 근본적 요구 사항을 25개 조항으로 간결하게 요약한 짧은 강령을 통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대독일 국가사회주의 운동의 논쟁적 기관지인 『국민주의 관찰자』(Nationalist Observer)13의 편집장 알프레트 로젠베르크는 짧은 글14에서 강령의 요점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며 감사할 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

13 Volkischer Beobachter는 1920년에 NSDAP에 의해 당의 기관지로 인수되었고 Dietrich Eckart가 편집했습니다.
1923년 그가 죽을 때까지 알프레드 로젠버그가 이끌었습니다.

14Rosenberg는 처음으로 Wesen, Grundsdtze und Ziele der Nationatsozialistischen Deutschen Arbeiterpartei를 출판했습니다. 다스
1923년의 Bewegung 프로그램.

이 저작을 바탕으로 적어도 친구와 적에게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할 수 있다. 반면, 국가사회주의 문헌에는 국가사회주의가 어떤 정치적·경제적 사상에서 출발하는지, 그리고 국가사회주의 독일 국가, 즉 노동과 수행의 상태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국가 정치와 관련하여 어떤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할 포괄적인 저작이 부족하다. 본 저작은 이러한 과제를 완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사회주의의 출발점, 길, 목표를 밝혀야 하며, 독일 국가사회주의 국가가 기존 국가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분야가 본질적으로 손대지 않을 것인지, 어떤 분야가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공공 생활, 특히 국가 재정 정책, 인종 문제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거세지고 있는 적대적인 반대, 왜곡, 그리고 거짓말에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과제는 매우 크지만, 독일의 쇄신이라는 전체 범위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죽음에 대한 결의와 억제되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모든 노력은 헛될 것입니다.

리더는 아이디어의 효과를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승리한 후 , 이 독일 국가, 우리 조상과 자식들의 땅인 독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확고히 간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한 의지라도 아무 소용없이 낭비될 것입니다 !

1. 기초

도덕적 기초

국가사회주의 국가 운영의 기초는 국민과 자신에 대한 완전한 책임입니다.

"자기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국가 사회주의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러한 원칙이 국가에 일반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통치자들이 국가 지도력의 근간으로 전체의 복지를 염두에 두었던 시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원칙을 다른 모든 고려 사항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면, 이는 오늘날의 사회 상황이 이 유일하게 올바른 정치적 정서의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원칙에서 도덕과 경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이라는 것은 우선 도덕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전체의 복지와 개인의 정당한 소유 및 재산 추구 사이의 위계적 질서를 탁월한 언어적 명료성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사회주의 원칙은 사유 재산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사회주의는 재산의 중요성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국가사회주의는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모든 경제, 나아가 모든 고등 문화의 근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명확한 한계, 즉 재산이 단순한 권력의 도구가 되어 전체의 복지에 반하는 착취적 방식으로 사용되는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을 이런 일반적인 형태로 반박하려는 진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공익을 개인의 사익과 비교하여 올바르게 평가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하는

공익을 고려하는 것이 사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 사이에서 유효한 법적 관념에 따르면, 바로 재산 사용 형태와 관련하여 범죄를 넘어서는 도덕적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강탈, 살인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실치사(배신, 불법적 횡령 등)는 처벌 대상이지만, 헤아릴 수 없는 부를 축적하고 그 안에 종종 의심스러운 은행 및 증권거래 기술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그리고 어디에서도 금지된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법은 모든 채권자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채무 불이행 채무자의 집과 재산을 무자비하게 박탈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질병, 사망, 기형, 흉작, 기근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경험 많은 판사라면 누구나 우리의 엄격한 법률이 경제적 존립을 파괴한 수많은 사례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전한 정의감이 근면 성실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불운에 시달리게 했지만, 채권자의 잔혹한 압력과 손아귀에 넘겨주는 것을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에 대한 무한한 인정은 기본적으로 반사회적 법적 사상을 이기적으로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 원칙인 "자기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에 어긋납니다.

우리 사이에서 지배적인 잘못된 근본적 공식인 자본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극단은 국가와 경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사상입니다. 이 경제 형태의 근본 사상은 사유재산의 부정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교리는 재산을 "도둑질"(프루동)15로 직접적으로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독일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매우 모호한 외국어 용어로, "수탈자의 몰수" (즉, 재산의 박탈)16를 요구합니다! 국가, 국민, 문화, 경제를 파괴하는 이 교리는 러시아 볼셰비즘에서 극단적이지만 논리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 극단은 다음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소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산의 비인격화, 즉 모든 재산을 전체의 익명의 재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배적인, 무제한적인 재산권이라는 극단적인 관념은 이미 우리를 맘몬 신의 신전으로 이끄는 마지막 계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신전의 문에는 황금빛 글씨로 "모든 것은 유일신의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끔찍한 경제 형태조차도 재산의 비인격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노동하는 인류는 익명의 금융 권력에 대한 끔찍한 빚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서구 민주주의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와 고도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의 경제적 극단주의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국가 사회주의의 경제적 이상은 "각자에게는 자기의 것이 있다"는 원칙의 실현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 원칙에서 도덕성과 경제는 다시 한번 가장 밀접하게 상호 연결됩니다. 상업 생활에서 도덕 원칙이 제거되는 것은 오늘날 경제의 특징입니다. 더 큰 소유, 더 큰 교활함, 심지어 가장 위험한 거래에서도 국가 권위를 피하는 기술이라는 우월한 권력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대도시에서 엄청난 액수를 처분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수천 명의 음흉한 존재들,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회부되는 여러 소송들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상업 도덕이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아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우유와 빵을 더 이상 사줄 수 없는 중산층과 기혼 노동자들의 끔찍한 비참함을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 명예로운 노동으로도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거의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돌보고 키워야 할 아이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적이고 자유로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류 예술가들, 특히 그들의 지향이 오늘날 지배하는 유대적 취향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은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진정한 독일 시는 대중 앞에서 공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 정책 부실로 저축을 잃은 사람들, 소액 자본 연금 수급자와 퇴직자, 전쟁 상이자들, 자선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공채의 확실성과 국가 통화의 안정성, 그리고 마르크화의 금본위제에 의존했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의 붕괴, 즉 무정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면은 부족한 보수로 보상받고, 게으름은 보상을 받으며, 명예로운 장사는 곤경에 처하고, 불건전한 장사, 중개 무역, 그리고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가장 번창합니다. 제작물의 문화적 측면이 우수할수록 얻을 수 있는 보수는 더욱 나빠집니다. 신뢰는 다음과 같이 보답됩니다.

---

15 Pierre Joseph Proudhon(1809-1865)은 1840년 작품 Qu 'est-ce que la proriete?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la propriete c'est le" 권".

16 이 문구는 프랑스어 'Texpropriation des expropriates'에서 빌려온 것으로,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자본론』 1권 24장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사유재산의 마지막 순간이 닥치면 수탈자들이 수탈당한다."

배신이며, 실제로 법과 정의의 수호자, 대중 도덕의 변호사가 되어야 할 국가에 의한 배신입니다.

우리는 공공 생활의 부패, 언론의 유대화와 빈곤, 그리고 외교 정책의 비참하고 무력하며 가치 없는 리더십을 지적하여 우리의 공공 생활과 경제적 도덕성이 극도로 타락했음을 지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물질주의적 빈곤과 공적 삶의 오염에 맞서 국가사회주의 국가 이념은 국가와 경제의 오랜 검증된 원칙, 즉 "각자 자신의 것 ",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한다"를 제시합니다. 이 원칙을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지도 원칙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국가사회주의는 독일 역사의 가장 훌륭하고 영광스러웠던 시기와 결부됩니다.

"Suum cuique(숨 쿠이크)"17는 이미 건전했던 독일 중세 초기의 경제 원칙이었지만,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길드의 조직을 통해 각 길드에 자신의 노동이 할당되는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스승과 도제가 최소한 1페니의 절반 또는 3분의 1에 대해 공동으로 일함으로써 노동자는 소득을 보장받았고, 더 나은 노동과 성과는 인정과 보상을 받았으며,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명성과 풍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숨 쿠이크(Suum cuique)"는 프로이센 최고 훈장인 검은 독수리 훈장에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공로가 있어야만 왕관을 쓸 수 있다는 특별한 의미로 쓰입니다. 바로 이러한 해석은 국가사회주의와 매우 잘 부합합니다. 궁정 훈장이나 일방적인 군 복무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도덕적 내용이 그 안에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 의무 이행은 어떤 의도도 없이, 짤막한 임금에 대한 사전 고려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뒤로 한 채, 국가와 국민에 대한 내적인 강한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사심 없는 의무 이행입니다.

우리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이 원칙을 반대 방향으로도 확장하여, 독일 중세 시대의 "각자에게는 각자의 것이 있다"는 사상과 프리드리히의 국가론에 "국가의 왕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상을 더하고, 특히 "범죄자에게는 처벌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 각자에게는 각자의 것이 있고, 왕관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질서 있고 명예로운 모든 업적에는 적절한 보수가, 모든 특별한 업적에는 더 높은 보수가, 모든 가난한 사람과 무고하게 곤경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는 공적 자금으로 충분한 지원이, 그리고 사회 도덕과 경제적 체면에 반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응징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의무 범위에 경제 문제에 있어 국가 시민을 개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포함되지 않으며, 경제가 관료주의적 감독에서 최대한 자유로울 때 가장 잘 번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를 통해 모든 개별 국가 시민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즉 나우만이 말한 "위험 없는 인간", 즉 국가가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해야 하는 인간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나우만이 국가에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18 국가의 의무는 스스로를 지탱하는 경제의 전제 조건을 조성하는 데 국한되어야 합니다.

---

17 각자의 취향에 맞게

18 프리드리히 나우만(1860-1919)은 개신교 신학자이자 자유주의 정치인으로, 1896년 〈디 힐페(Die Hilfe)〉라는 잡지를 창간하고 사회 자유주의의 한 형태를 전파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나우만은 독일민주당(DDP)의 초대 의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이자 중심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서운 고리대금 현상으로부터 가능한 한 자유로워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복지는 다시 한번 최고의 법이 되어야 하며, 국가의 효율성은 다른 모든 고려 사항보다 "자기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정치인, 국가 직원 및 공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정부와 공직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진 특성인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공적 삶은 무책임의 상징 아래 놓여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의회에서 자신이 하는 일과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의학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절박한 표현입니다. 의학 용어로, 몸은 이미 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새로 주입된 독은 몸에 해롭지 않거나 전혀 해롭지 않지만, 건강한 몸이라면 독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다수의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장관들은 정부 구성에 참여하는 정당의 간부일 뿐이므로 직무 수행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지만, 소위 책임 있는 장관은 또 다른 무책임한 정당 간부로 대체될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신성한 왕권 시대에 전능하신 분께 호소하는 것은 불행히도 지배 영주들의 무책임함을 매우 특별한 형태로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에 대한 책임이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동의어였던 드문 예외가 명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사랑하는 신은 결국 언제나 편안한 보호막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에는 상관에게만 책임을 지는 관리, 왕에게만 책임을 지는 대신, 신에게만 책임을 지는 통치자의 사다리 위에, 국민의 실제 생활 필수품과 관련하여 지배 계급과 그 대표자들이 저지른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책임한 행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국가가 승인한 이러한 무책임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할 것입니다.

'최고 책임'이라는 문구가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정문 위에 철문처럼 새겨질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지도적인 위치에 서는 영광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 책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실로, 가슴 속에 이 가장 깊은 책임감을 지닌 지도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 공무원과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임은 특별히 규정되어야 하며, 또한 무자비하게 엄격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말하자면, 진정한 회복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지도자와 국민이 다시 한번 진정한 국가적, 역사적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가장 소중한 것, 즉 신뢰가 되살아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로부터 다시 한번 믿음이 자랄 수 있으며, 이는 지도자의 책임감과 함께 독일의 회복과 쇄신, 그리고 독일인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 각자가 자신의 것을 발견하는 민족주의적 노동과 수행의 상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경제적 기반

건강한 경제 체제에서는 도덕성과 국가 경제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는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 특히 모든 경제에서 가장 명예로운 과제인 수요 충족 과 관련하여 더욱 그렇습니다 . 상업에 대한 신뢰, 근면성, 그리고 공무원과 근로자들의 충성심 없이는 어떤 사업도 번창할 수 없습니다.
효율성, 정의, 기업가 정신, 에너지, 그리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간의 상호 신뢰는 모든 경제의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특별한 중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만 언급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최근까지 경제 활동을 해야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날 이러한 훌륭한 것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구원 교리와 그 운영 방식, 파업, 파괴 행위, 그리고 부주의하고 게으른 노동으로 인해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나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그러한 국가와 인민을 해체하는 교리로 인해 공동체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고 계급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뿐입니다. 따라서 특히 민족주의 진영에서 울려 퍼지는 불평, 즉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국민이 아니며, 잃어버린 권력과 국제적 지위를 되찾고 싶다면 먼저 다시 한 번 하나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불평도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평은 정당하지만, 불평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그럴 힘이 있을 때 경제적,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잔혹한 탄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공화국 수호를 위한 법률을 통해 우리 내부의 부르주아 지식인 전체를 학살함으로써 적들을 영원히 침묵시켰습니다.19 정치 권력의 획득은 모든 경제적 또는 국가적 정치 개혁의 전제 조건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도 공산당과 사회민주당만큼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치 권력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며, 획득한 권력을 특정 계급에 대항하여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 공동체로 결속된 민족 동지들 사이에 경제적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 입니다.20 국가 경제 의 과제는 수요 충족이지, 오늘날 재화 생산에서 거의 전적으로 결정적인 요소인 이윤율이 아닙니다. 국가 사회주의의 이러한 근본적인 태도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 이념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애초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성 있는 것이 생산되었습니다. 충분한 이자와 배당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자 중심 자본주의 경제의 수익성 광기를 특히 잘 보여주는 사례는 주택 건설이 주택에 대한 엄청난 수요, 즉 가장 시급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국가적 정치적 관점에서 주택 건설이 실제로 수익성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지만, 특히 국가의 사회적 과제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내용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국민이 굶주리고 얼어붙는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저렴하고 좋은 신발, 옷, 속옷 등을 생산하여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구매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이러한 생산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모든 분야의 사치품 산업은 매우 분주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쉽게 부를 축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 전후 독일에는 유사한 법률인 연방헌법보호법이 있습니다.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은 1950년에 통과되었습니다.

[20] 수요 충족이란 저렴한 가격을 통해 삶의 필수품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국가 공동체로 묶인 총체.

오늘날처럼 사치로 자신을 둘러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수익성 개념은 오늘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우리 경제 분야, 즉 은행 및 증권거래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경제적 헛소리가 됩니다. 은행이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 개념의 경제적 무의미함을 가장 두드러지게 증명합니다. 은행과 증권거래소의 "생산"으로 인해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한 적도, 얼어붙은 사람에게 옷을 입힌 적도, 일반적으로 삶에 필요한 가장 사소한 필요조차 충족된 적이 없습니다. 이 주장은 결코 선동적인 유행어가 아니며, 화폐 거래 제도의 필요성조차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사회주의의 바람과 같은 진정한 국가적 경제 수요 충족과 완전히 사적 자본주의 지향적인 이윤 기반 경제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나치 국가조차도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을 갖게 되겠지만, 그들은 더 이상 국가 경제의 지배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하인이 될 것이며, 돈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의 주인이 되지 않고 단지 상품 교환에 필요한 도구가 될 뿐이다.

우리는 은행과 증권 거래소 자본에 맞선 이 싸움이 국가사회주의 운동에 있어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지구상이 지금까지 지녔던 가장 엄청난 권력이 은행과 증권 거래소 자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향한 생사의 기로에 선 이 싸움은 상대가 우리의 친구와 지지자들 대부분보다 이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수익성에만 집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싸움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국가사회주의가 재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1장의 근본적인 관찰, 특히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에서 비롯된 결론은 국가사회주의가 재산을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데에 자연스럽게 귀결됩니다. 이러한 사유재산 인정은 아리아인의 삶에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환경을 인식하고, 환경을 관조하여 그로부터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 형성하는 창조적 정신, 부지런한 노동을 통해 땅에서 열매를 거두고, 정착하여 집과 도시를 건설하는 창조적 인간, 친족, 동지들과 함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린 인간, 땅에 뿌리내린 이러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더 높은 문화로 나아가 철학, 시, 음악, 미술, 조각 분야에서 더 높은 지적 의미의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창조하는 인간, 이러한 인간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창조적 인간에 대한 지식에서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이 직접적으로 생겨나고, 법이 생겨납니다.

창조적 정신과 근본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대립 구도는, 다른 성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탐욕스럽고 도둑질 같은 정신입니다. 그들은 창조의 숨결을 결코 알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어디에도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오랫동안 발전하여 땅에서 더 높은 문화로 확장되지 않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정신과 돈을 가지고 개별 도시나 땅을 "방목"한 후 나라에서 나라로 옮겨 다녔습니다. 창조적인 국가의 들판에서도 유대인은 본질적으로 실제 생산물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농부, 상인, 기술자 또는 건축업자, 공장 노동자 또는 임금 노동자로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창조적 천재성은 미술과 과학 분야에서조차 유대인에게 생소합니다. 움직이는 정신은 창조적인 손으로 작품이 창조되고, 대상이 생산되는 곳에서만 그 특징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탐욕스러운 정신은 바로 그곳에서 이러한 재화를 조달할 줄 압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이를 금전적 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경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이러한 교류를 통해 최대한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상인이라는 존재가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상인과 환전상은 이사회와 은행 주인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가장 무의미한 방식으로 뒤집혔습니다. 영리하고, 창의적이며, 대담하고, 창의적이며, 생산적인 정신은 더 이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는, 착취적이고 탐욕스러운 비뚤어진 정신이 지배합니다. 돈이 노동과 피를 지배합니다.

유대인의 움직이는 정신은 모든 것을 이동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담보 대출을 통해 토지를, 익명화와 주식회사를 통해 오랫동안 자리 잡은 거대 산업을, 그리고 국채 경제를 통해 국제 자본은 정부와 국민을 분리했습니다. 오늘날 정부는 모두 거액의 차관 자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민과 관련해서는 월가, 런던 시티, 파리의 익명의 주인들을 위한 이자를 징수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간략한 관찰은 창조적인 민족과 탐욕스러운 유대인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의 가장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리아인은 창조하고, 유대인은 세상을 장악한다.

여기서 재산과 소유 사이에는 매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략하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는 반드시 재산일 필요는 없으며, 소유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소유의 경우, 소유의 기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아리아 민족의 재산을 빼앗아 이제는 자신의 재정적 권력을 통해 그 재산을 만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적 청구권, 채권, 저당권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추상적인 형태의 재산은 오늘날 전 세계를 이자를 통해 자본에 종속시켰습니다. 이자 자본주의 경제 형태는 일반적으로 소유의 한계를 알지 못하며, 모든 노동력을 동원한 온 민족이 소수의 은행 및 증권 거래소 거물들의 이자에 종속되도록 방치합니다.

이러한 적지 않은 공포를 자아내는 자본주의적 약탈 경제에 맞서 국가사회주의는 재산권에 한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한계의 원칙은 "자기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이라는 문장에 있습니다. 더욱이 재산에 대한 이러한 한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국가사회주의가 아무리 대규모 산업 시설이라도, 그것이 (크루프, 만네스만, 티센 등을 예로 들 수 있듯이) 제작자의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한, 전체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결코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시설의 소유주가 사회 문제에 대한 감각과 이해를 갖추고, 생산을 통한 적절한 자기 이익, 판매에 대한 적정 가격 책정 및 국민 경제 수요 충족,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노동력의 시설 수익 참여 방식 사이에서 적절한 한계를 찾을 수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산의 외부 형태에 대한 간략하고 기본적인 관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전 강력하게 성장했던 독일 경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매우 유리하게 혼합된 구조로 특징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으로의 경향은 대기업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의 기업으로, 더 이상 수요 충족이 아닌 시장 지배와 가격 독재라는 자본주의적 고차원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민 경제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산업은 대기업으로서만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공업으로 지칭하는 산업 부문에도 적용됩니다. 이 시점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국가사회주의 국가는 이러한 외부 경제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이유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에서의 모든 종류의 "사회화 또는 국유화"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경제적 이상은 최대한 큰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의 수는 정확히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동과 노동 소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들만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진지한 책임감을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토양에서만 강력한 개성이 생겨나고, 자유와 책임 의 토양에서만 공동 노동을 통해 삶과 운명의 공동체에 묶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 의식이 번영하며, 이를 통해 그들을 자유롭고 자의식적인 국가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러한 토양에서만 개인의 복지가 전체의 복지와 통합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경제의 경계에서

맨체스터주의21 와 국가사회주의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때 지켜야 할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정반대입니다. 맨체스터주의는 모든 국가 보호로부터 최대한의 자유를 요구하며, 국가가 야간 경비원의 역할로 전락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깁니다. 국가사회주의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 자체에 의해 가장 잘 운영되고 관리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러시아어 용어인 사회화 또는 국유화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사회주의 실험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관찰한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공산주의적 생산 형태가 장기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의 기초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따라온 사람이라면 이러한 현상의 내적 원인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업가적 주도권의 억압, 이윤 동기의 부재, 경쟁의 부재,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이 무자비하게 행사했던 노동 강요가 생산의 이점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켰을 것입니다.

독일 경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진적이고 완화된 형태의 기업 "국가 통제"는 공적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만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 경제와 경쟁하는 분야, 특히 대규모 산업 생산(석탄) 분야에서는 자유 경제에 비해 상업적 성공이 크게 제한됩니다. 자유 경제는 국영 기업보다 모든 중요한 결정을 더 빠르고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이 일반적으로 국가 통제에 적합한지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국가가 국민 경제 전체의 운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사회주의가 경제의 과제를 수요 충족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제조업자와 사용자는 모든 경제의 두 주요 참여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용이 궁극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매우 명확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빵 조각은 실제로 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고, 옷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명령은 언제나 작고 연결된 집단에게만 지붕을 제공하고, 작업장은 언제나 더 많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제한된 수의 동료에게만 직책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품의 공동 소비나 사용에 대해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가 궁극적으로 개인적이라면, 생산, 즉 재화의 생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적인 노동의 산물이 더 가치 있을수록, 그것은 오직 매우 개인적인 창조적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과학과 미술 분야, 기술적 발명과 발견 분야에서의 정신적 작업의 경우 이는 즉시 명확하지만 조립 작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21 맨체스터주의는 1815년과 1846년에 시행된 보호무역주의적 코라법에 대한 반발로 19 세기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경제 사상 학파입니다 . 이 학파는 자유 무역을 옹호하고 토지 귀족의 농업 이익에 맞서 산업가들을 지지했습니다. 이 운동의 주요 지지자는 리처드 콥든(1804-1865)과 존 브라이트(1811-1889)였습니다.

기계를 통한 기계화가 인간의 개별 노동을 거의 완전히 억압하는 공장식 기업에서는, 결국 이 노동자가 생산하는 신발 한 켤레는 오직 이 노동자에 의해서만 생산될 수 있고 다른 노동자에 의해서는 생산될 수 없다는 주장은 여전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기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제품의 품질은 저하됩니다. 이미 농업 분야에서는 "주님의 눈이 가축을 살찌운다"라는 오래된 법칙이 유효합니다. 즉, 사육자의 개인적인 보살핌만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경제의 모든 시도는 매번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비와 생산 모두 사회화에 반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인류가 가족이라는 개인 경제의 본래 경제 형태를 버리고 분업을 통해 더욱 복잡한 경제 형태로 전환하여 거대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자마자, 생산과 소비 사이에 새로운 것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역과 상업, 그리고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매우 명료한 경제 철학적 관찰은 국가가 경제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모든 개인이 동등한 이해관계를 갖는 문제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가가 공동 이익의 구현체로서 의무의 범위를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철학이 옳다면, 국가는 이미 이러한 분야 중 하나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운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전 독일 철도 당국의 성과는 모범적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모범적인 면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국가 철도 시스템은 특히 완벽하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교통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관료 체제로 인해 우리가 겪는 많은 작은 어려움들이 거의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특정 맥락에서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대형 기관차가 건조된 것조차 이전에는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지만, 그 주된 이유는 미국 철도망의 궤간이 더 넓어 기술적으로 훨씬 더 쉽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운송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관찰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술적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질문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철도 운송의 안정성입니다. 이 분야에서 독일 철도는 국가 운송의 최우선 과제를 끊임없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기술적, 조직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해냈다는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철도에서 바로 이 분야에서 승객의 생명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모하게 위험에 처했는지는, 국유화 이전 미국 철도와 프랑스 철도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의 역사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파리 로스차일드 가문의 무모한 이윤 추구에 기여했던 한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우리는 자본주의적 수익성 개념과 수요 충족 경제의 의무 개념 사이의 근본적인 대립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상업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상품과 사람을 사용처나 작업장으로 안전하고,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시킴으로써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국영 기업에서 수익성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거나, 단순히 관세 정책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편 및 전신 시스템 또한 당연히 상업에 속합니다. 이 경우에도 독일 우편 및 전신 행정부의 업적에 대한 존경스러운 기억만으로도 국가가 이 중요한 국민 경제 임무를 얼마나 안전하고,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무역은 항상 민간 기업가의 독점적인 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제 무역은 운송 시스템만큼 명확하게 언급될 수 없습니다. 국가 규제는 처음부터 특정 유형의 상품, 즉 대량 소비재만을 고려합니다. 자유 무역 원칙이 우리 국민 경제의 사고방식을 지배했던 전쟁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식료품 무역에 대한 국가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전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식료품에 대한 파렴치한 고리대금업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식료품의 준비, 운송, 유통을 담당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는 생각이 비옥한 토양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경제 분야의 정반대인 볼셰비키들 사이에서도 생산과 유통에 대한 국가 통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발견됩니다. 이미 밝혔듯이, 그들의 문제는 생산을 항상 국가 통제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생산의 올바른 분배는 의심할 여지 없이 특히 중요한 국가 과제입니다.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부르주아 조직이 농업 생산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뿐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다시 말해, 이 조직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식량을 저장하고 수집하는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독일의

경제 생활은 이제 우리 사이에서조차 이러한 아이디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 도처에서 점점 더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국가사회주의가 이 매우 중요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염두에 두고 있는 전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농산물의 협동적 이용은 한편으로는 농민에게 적정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비료, 농기구 등의 공동 구매를 보장하며, 특히 농업 창고 설립을 통해 수요 충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 연합이 소비자에게 가능한 한 직접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간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매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국가 감독 하에 생산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을 통합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도 핵심 질문은 다시 한번 이렇습니다. 수익성이 아니라 수요 충족이 경제의 첫 번째 과제라는 것입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특히 개인적 위험 요소가 문제가 되는 모든 분야에서 충분한 자원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며 모든 판매 상황에서 안전한 식품의 경우, 기업가의 특징적인 요소들은 처음부터 배제됩니다.

금융 시스템은 국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금융 이론가들은 화폐를 상품 교환을 위한 교환 수단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사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이지 않고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의는 화폐가 상품 거래의 보조 수단이라는 올바른 생각을 표현합니다. 국가가 스스로 주화 발행의 특권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가 화폐를 공공 생활의 특히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국가가 형법에 위조를 다루는 일련의 조항을 만들었다는 사실 역시 화폐가 가장 중요한 공적 사안임을 증명합니다. 사실, 국가는 오랫동안 자체적인 권한으로 공적 영역에서 무엇이 화폐로서 유효한지를 결정해 왔습니다.

상업. 금융 이론가들, 즉 차탈리스트(Chartalist)22의 특별한 지향은 "화폐란 국가가 화폐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단언하는 국가 화폐 이론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화폐는 화폐의 본질과 완전히 분리되며, 국가 주권의 인장은 철, 알루미늄, 도자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이로 "화폐"를 만드는 데 충분합니다. 현재는 이 이론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금융 이론가들의 반대자들인 금속주의자(Metallist)23는 화폐는 내재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귀금속(금과 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오래된 관념을 고수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지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사실 국가는 심지어 종이로, 심지어 지폐가 전혀 가치 없는 종이로 만들어졌을 때조차도 실제로 무언가를 살 수 있는 화폐로 화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화폐의 구매력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화폐의 구매력이 지폐의 팽창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은 금속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금화와 은화는 지폐의 구매력을 감소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이유, 즉 금화의 상품적 성격 때문입니다. 금화가 실제 금이기 때문에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화 자체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20마르크 동전은 국가 화폐 기호인 '20마르크'에서 구매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금이라는 상품의 함량에서 구매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 이론적인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사회주의 개혁의 논리에 따라 국가 재정 시스템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국가와 경제의 경계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 전체 경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식품의 상거래와 무역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가장 신중한 수탁 규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야에 속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정 문제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대 금융 권력의 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가 금융 시스템과 관련하여 스스로를 무능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국가 재정의 파국적인 상황의 근본 원인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해 왔습니다. 소위 국가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은행이 순수한 국가 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특정 감독 권한만을 보유한 주식회사라는 사실만으로도 공공 금융 시스템 분야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정치 기반

권력 없는 국가는 없고, 권위 없는 정부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자명하고 상식적으로 명백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 조직에 있는 우리 중 누군가가 오늘날에도 군사력과 정치력이 전혀 없이도 통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대중의 사고가 완전히 무시된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도구가 없는 권력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치 권력과 군사적 권력 수단은 경제와 도덕이 분리될 수 없듯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군사적 권력 수단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22 차탈리스트들은 국가 통화로 불환화폐나 정부 발행 토큰(라틴어: charta)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23 금속주의자들은 화폐의 가치가 귀금속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며, 불환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반대합니다.

우리의 불쌍한 조국이 권력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지금 우리가 매일 매시간 경험하는 평화주의적 팡파르에 몸을 맡긴 탓에 얼마나 끔찍한 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더 나쁜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는 항복하고 무기를 파괴했습니다. "더 나쁜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는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더 나쁜 상황을 막기 위해" 베를린 정부는 우리에게 요구된 모든 것에 "예"와 "아멘"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나쁜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는 모든 악의, 모든 굴욕, 모든 착취가 우리에게 자행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비겁함과 비열함이라는 뻔뻔한 구호로 독일 국민은 더욱 깊은 비참함으로 이끌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것을 이행했고,

독일인이 되고 싶어 했던 장관 라테나우 박사는 감히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완수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능은 없습니다. 문제는 국민이 얼마나 깊은 곤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라테나우의 말이 이미 충분히 명확하지만, 독일 민족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력하며, 지적으로 거의 무감각해졌지만, 그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 민족은 스스로 엄청난 죄책감의 짐을 짊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선민들은 이러한 배상금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독일 노동의 대가로 영원히 일 없이 화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엄청난 독일 노동력조차도 그 엄청난 짐에 짓눌려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인들은 자극제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을 유지해야 하며,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신체적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여, 언젠가는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만적인 희망 속에서 항상 온 힘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민이 얼마나 깊은 곤경에 빠지도록 방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모든 공화주의자들이 극찬한 라테나우 장관의 정치적 감정이었다.

우리가 현대 독일 정치의 패러다임을 떠올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무방비 상태이고 무기도 없는 국가가 모든 것을, 심지어 모든 조롱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이 끔찍한 사례를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평화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 강대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이는 선언문의 과제가 아니라 역사가의 몫입니다.

외부 지향적 권력 정치라는 관념의 대응물은 내부 지향적인 엄격한 입헌 국가입니다. 우리는 비스마르크의 권력 국가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조건에 상당히 근접했지만, 금융 시스템과 사유재산의 무제한적 인정, 그리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요구 사항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우리의 법적 관념이 완전히 자본주의적 관념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국가사회주의가 국내 정치에 있어서 무조건 법의 관점을 고수한다는 것은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사회 질서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의 기본 개념과 관련하여 실현될 수 있는데, 이는 독일인에게 내적 필요, 즉 전체의 더 높은 이익에 대한 자발적인 종속을 의미하는 반면,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 법의 처방은 단순히 권력의 명령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전체를 위해 봉사하지 않고 재산 문제와 관련하여 재산 보호를 보호보다 우선시하는 권력의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24 발터 라테나우(1867-1922)는 1922년 재건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을 지낸 유대인 산업가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독일 민족주의자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1922년 6월에 암살당했습니다. 이 암살에 대한 바이마르 정부의 반응은 1922년 7월에 공화국 보호법(Republikschutzgesetz)을 공포한 것이었습니다. 페더는 이를 종종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개인의. 공법의 새로운 질서에 관한 문제는 다른 절에서 더 자세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외적 국가 형태에 대한 문제로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결코 시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정화한 후에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정치적 정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국민의 부패와 질병의 근원을 단호하게 차단하고 불태우는 독재 정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지도자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굽힐 줄 모르는 의지, 그리고 모든 결정에 대한 몽유병적인 확신이 그를 돋보이게 합니다. 그의 지적 능력이 평균을 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지식과 배움은 타인에 의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높은 지식, 뛰어난 사고력, 뛰어난 직관력,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그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즉 가장 깊은 도덕적 진지함에 기반한 열정적인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추진력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결코 국가의 선두에 서서 선구자이자 지도자로서 새로운 경지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루터, 사보나롤라25와 모하메드26 같은 종교적 천재들 , 비스마르크와 크롬웰 같은 정치가들, 프리드리히 대왕과 요르크27 같은 장군들 등을 떠올립니다. 독재자는 모든 불필요한 제약과 주저함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불가피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어야 하며, 그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대담하고 단호한 손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는 국민의 갈망을 구현해야 하며, 따라서 그는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고 그의 행위로 해방을 얻은 사람들의 광신적인 사랑에 의해 감내되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국민과 신성한 임무를 사랑하는 만큼 강렬하고 무자비하게 증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보좌관과 동료들과 관련하여 그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중 으뜸가는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이 오래된 독일의 사상은 지도자 사이의 이러한 철의 연결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그 목적을 위해.

그는 자신을 증명했기 때문에 리더이고, 그가 자신을 증명하는 한 리더입니다.

모든 힘은 그의 존재로 인해 두 배로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잠재된 모든 에너지를 끌어내며,
각자가 지닌 독특한 재능을 보여주며,
그러나 모든 것을 자연이 만든 대로 놔두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쉴러, 발렌슈타인)27

그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엄격하며, 자신의 법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5 지롤라모 사보나롤라(1452-1498)는 국가와 성직자의 부패를 비판하며 피렌체가 도덕적 악덕을 바로잡는다면 강력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도미니코회 수사였습니다.
프랑스에 대항하는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신성 동맹을 지지한 것이 1497년 그의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그 후 처형당했습니다.
년도.

26 루트비히 그라프 요르크 폰 바르텐부르크(1759-1830)는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당시 프랑스와 협력한 프로이센 장군 율리우스 폰 그라우베르트에 반대했던 프로이센 야전 사령관으로, 나폴레옹에 대항하여 제6차 대프랑스 동맹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동맹은 1814년 나폴레옹이 엘바 섬으로 유배되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27 프리드리히 실러, 발렌슈타인 3부작(1799)의 첫 번째 희곡 『피콜로미니』. 새뮤얼 테일러 콜리지의 번역을 따름.

피와 전쟁 속에서도 그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고 긴장을 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인간적으로 가능한 한 자신의 창조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재자 술라처럼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작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멀리서 활동하지만, 여전히 그의 강한 개성을 통해 모든 것을 특별한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거인이 정치적 일상을 끊임없이 지배하지 않고 영적인 의미에서 지도자 역할을 유지한다면, 더욱 자유롭고 독립적인 추종자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탁월한 행동은 독일을 다시 한 번 높은 경지로 이끌 독재자를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만약 탁월한 지도자의 업적을 통해 수렁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다면, 독립적인 국민 생활을 위한 내외적 전제 조건이 회복될 것이며, 그때 민족은 다시 한번 국가의 외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국가 형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특정 형태의 공적 생활, 특히 참정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대중 대표가 구성되는 방식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고대 로마처럼 건강한 공화정 국가 형태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거의 모든 역사적 기억은 군주제 국가 형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군주제 국가 형태가 왕조 사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왕조의 이익이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크게 발전한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왕조 간의 세습이라는 결과인 군주제 국가 형태의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독일 국민의 고통스러운 역사에서 우리는 중요한 통치자 이후 3세대가 조상의 유산을 낭비하고, 국가의 명예와 가치를 훼손하고, 제국의 권력 지위를 상실하고, 시민들의 평화와 복지를 파괴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인이 군주제, 특히 세습 왕가의 이점을 이야기할 때 상상하는 것은 언제나 역사에서 "대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준 이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카를 대제, 오토 대제28, 프리드리히 대제29 , 그리고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소수의 군주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는 경건왕 루트비히30, 오토 31, 벤체슬라스32 , 카를 63 의 이름과 얽힌 무능, 나태, 이기심, 낭비, 환상, 민중과의 거리, 그리고 그 밖의 위험한 특징들의 갤러리에 대한 덧없는 기억일 뿐입니다 .

,

[28] 샤를마뉴(742-814년경)는 768년에 프랑크족의 왕이 되었고 그의 통치를 프랑키아를 넘어 카롤링거 왕조로 확장했습니다.
서유럽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제국.

29 오토 대제(912-973)는 936년에 독일의 왕이 된 작센 공작이었고, 955년에 마자르족을 물리치고 961년에 이탈리아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962년에 그는 교황 요한 12세에 의해 황제로 대관되었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로마에서 통치했습니다.

30 루이 르 피외(778-840)는 샤를마뉴의 아들로, 813년부터 샤를마뉴와 공동 황제로 통치했습니다. 817년, 그는 제국을 세 아들과 이탈리아 왕으로 통치한 조카 베르나르에게 분할했습니다. 그러나 베르나르는 삼촌에게 반기를 들고 실명 선고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루이는 자신의 잔혹함을 공개적으로 속죄했고, 그로 인해 통치자로서의 위신을 크게 잃었습니다. 프랑크 제국은 그의 남은 재위 기간 동안 내전으로 얼룩졌습니다.

[31] 오토 3세(980-1002)는 996년부터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웠으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슬라브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엘베 강 동쪽의 제국 영토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2] 프르제미슬 왕조의 바츨라프 1세(약 907-935)는 921년부터 보헤미아 공작이 되었습니다. 929년, 보헤미아는 동프랑크 왕조의 하인리히 새공의 공격을 받아 하인리히에게 다시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바츨라프는 차기 보헤미아 공작이 된 동생 볼레슬라프와 결탁한 귀족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33 샤를 6세(1368-1422)는 '사랑하는 자(le bien-aime)'와 '미친 자(le fou)'로 불렸습니다. 그는 광기 발작을 겪었고, 그의 통치 기간은 소위 백년 전쟁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샤를과 부르고뉴의 지속적인 불화는 1415년 아쟁쿠르 전투에서 프랑스를 격파한 영국의 헨리 5세의 횡포를 이용했습니다.

1420년에 체결된 트루아 조약에 따라 헨리는 샤를 6세의 딸 캐서린과 결혼했고, 프랑스 왕위 계승권도 얻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34, 빌헬름 2세35 는 왕조 국가 형태가 어떤 식으로든 국민 복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기에 충분합니다.

독일인의 군주제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지도자에 대한 필요성과 지도자에게 기꺼이 복종하려는 의지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특징이 독일인의 특히 전형적인 특징일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인의 이러한 성격적 특징이 지닌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한 충성심은 그가 가장 강력한 승리를 위해 싸우고 이길 수 있게 해 주었고, 심지어 외국의 깃발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자들 사이에서 무가치함과 노예주의에 이를 정도로 독립심이 부족하고, 외국에 대한 애정과 판단력이 부족한 모습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독일 내에서 왕위 계승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는 리더의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자의 선택은 거의 항상 순전히 우연에 맡겨져 왔습니다.
사실, 귀족적인 혼인 관계가 군주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지적 능력과 필수적인 인격적 자질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당 가입 여부만으로 최고위직의 자격을 결정하는 현대 독일 경제를 떠올려 보면, 이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어려움은 국민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자의 도덕적, 인격적 자질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독재자가 국민적 열망의 전달자로서 스스로 지도권을 장악하는 반면, 미래의 지도자는 국민의 의식적 의지에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로 등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고의 가치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할지, 아니면 국가 지도부가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할지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확고한 한 가지는, 왕관을 쓴 수장이든 영사관의 두오모르 삼두정치든, 최고의 국가 업무를 지휘하는 자의 최고 책임은, 가능한 한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책임은 국가사회주의 국가를 이전 통치 형태와 구별하는 가장 본질적인 국가적 정치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적 정치 기반의 특별한 측면은 외국과 민족의 구성원이 국가 업무의 지도와 공직 임명에서 배제되는 민족주의 국가에 대한 요구입니다.

독일 역사 전체의 위대한 교훈은 독일 통치자들이 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개별 지방과 도시의 편협하고 사소한 관심사가 제국의 공동 문제보다 우선시되었을 때 독일은 항상 가난하고 약하고 비참했다는 사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이 통일되고 통치자들이 독일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지방과 도시들이 위대한 공동 조국의 구성원으로 느껴질 때 독일은 항상 강하고 강력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국가를 폐쇄하고 내부적으로는 모든 자유와 다양성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독일 국가에 대한 올바른 생각입니다. 비스마르크 제국은 이미

34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1770-1840)는 1797년부터 프로이센의 국왕이 되었다. 그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중립 정책을 추구하여 제3차 대프랑스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의 왕비 루이제가 지지하는 전쟁 지지 세력의 강요로 1806년 제4차 대프랑스 동맹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프로이센은 나폴레옹에게 패배하게 된 예나 전투가 벌어졌다.

35 빌헬름 2세(1859-1941)는 마지막 독일 황제로 1888년부터 1918년 11월까지 재위했습니다. 빌헬름은 비스마르크의 엄격한 반사회주의 법률을 지지하지 않았고 1890년에 총리를 해임했습니다. 사라예보에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된 후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해야 했을 때, 그는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개입할 수 있는 전쟁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헝가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국가라는 이상에 매우 가까이 다가갔지만, 독일 오스트리아36에 있는 우리의 인종적 형제들은 여전히 제국 밖에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게르만족을 폐쇄된 민족 국가로 통합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정치적 목표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대규모 지방의 연방적, 연방적 성격을 유지하거나 재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가적 정치적 기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에 대한 독일 제국의 권력과 정치적 지위가 문제되는 모든 제국의 기능은 제국의 소관입니다. 여기에는 외무부, 대사관 및 영사관, 여권 제도, 대외 무역 통제, 세관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해군이 포함됩니다.

반면 국내 정치에서는 개별 주(州) 또는 연방주의 가장 광범위한 독립이라는 개념이 장려되어야 합니다. 재정적 독립은 국가의 독립 존립을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세법은 주로 주(州)에 위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상법, 형법에 관한 법률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규정한다.
제국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방 사법부와 경찰 당국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송 기관은 제국의 법률에 따라 규제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행정, 운영 측면에서는 지방의 주권 하에 남게 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독일어로 완전히 쓰여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없으며, 그 내용에 국가에 위험한 교리가 포함되어 있는 종교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국의 기본 사회주의적 성격에 대한 헌법적 형태는 노동법 분야뿐만 아니라 질병, 사고, 노령 및 장애 보험 분야에서도 특히 강조되며 오늘날보다 더 잘 구현될 것입니다.

통찰력과 목표 설정

시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면, 지금 상황은 어떤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 – 이러한 기본적인 탐구 없이는 완전하고 성실한 작업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문제에서 더 높은 의미로 유효하다. 이 작업의 범위 내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국가와 경제의 현재 중요한 조건의 본질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문제일 때에만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한 작업에서 특히 어떤 증상도 원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외적 요인이나 돌발 상황에 속지 않고 사물의 이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모든 진단의 기술이다. 이는 의학적 사례나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서 가장 분명해진다. 신체 어딘가에 부종이 나타나면 그 원인은 먼저 해당 신체 부위의 질병에서 찾아야 한다. 신체의 이 부위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혈액 상태가 좋지 않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조차 최후의 원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혈액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영양 부족이나 영양 부족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제 의사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치료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36 독일-오스트리아 공화국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독일어권 지역에서 형성된 국가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이 국가는 현재 오스트리아 영토 외에도 남티롤과 타르비시오(현재 이탈리아), 남부 케른텐과 남부 슈타이어마르크(현재 슬로베니아), 그리고 수데텐란트와 독일-보헤미아(현재 체코 공화국)를 포함했습니다.

외부 현상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인 완화가 이루어지고 고통이 가라앉는 것이 최선일지라도 병은 계속될 것입니다. 피를 정화하는 치료를 시도하더라도 근본 원인, 즉 영양 부족이나 불량한 영양, 또는 기타 유해한 환경이 제거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치유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그러한 치료만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병든 국가 기관과 관련된 경우라면 바로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이 경우에도 병의 외부적 증상을 퇴치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작은 악당은 교수형에 처하고 큰 악당은 자유를 얻는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슬픈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공동 이익에 반하는 빈번한 침해는 공동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일들이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국가에 무언가 부패해야만 그러한 큰 피해가 지속되고 국가 자체의 존립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자체가 이처럼 병들었다면, 그 원인은 대중의 관심사와 국가 자체의 실제 기능과 권위에 대한 잘못된 지적 태도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과거의 죄악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건강하고 강력한 국가 지도부를 구축하여 국가에 대한 새롭고 건강한 관념을 확립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권력과의 타협에서 출발하거나, 이전 국가의 붕괴된 형태에 다시 묶이려는 모든 해결책은 그 자체로 쇠퇴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매우 빠르게 붕괴에 굴복했던 역사적 국가 형태에 묶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위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인가?

외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 열병의 경우처럼 – 고열, 또는 경제 정치 용어로 번역하면, 동요, 매 순간의 긴장, 불안과 무질서입니다. 답답하고 게으른 모든 사람, 그리고 실제 채무자들 전체가 항상 "휴식과 질서"를 만병통치약으로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해 왔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휴식과 질서는 물론 일반적인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조건이 국가 내부를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병들면, 그것이 불안과 무질서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휴식과 질서"만을 설교하고 확립하고자 하는 정치적 태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병이 점점 더 깊어지도록 도울 뿐이며, 결국 죽음이 끔찍한 경련과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의인화된 궤양과 화농조차도 환자가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간균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증식하여 온몸으로 퍼져 내부까지 완전히 부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반대입니다. 화농을 없애야 합니다! 이러한 화농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수술의 고통을 반대 이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환자는 나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며,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튼튼한 식단을 섭취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증상으로는 부적합한 요소들로 국가 직위를 채우는 것, 다수결로 국가 문제를 처리하는 것, 의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다수결 결정이 발생하는 것, 외부적으로는 가장 자유롭고 보편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추측하는 선거에 따라 의회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대중의 판단력 부족은 더 나은 통찰력과 더 높은 책임감을 억압할 뿐입니다. 의회 다수당에 의존하는 정부(이러한 다수당은 순전히 우연에 의해 형성되고 정당 정치적 고려 사항만이 결정적인 요소임)는 당연히 더 이상 공동 복지의 객관적 수호자가 될 수 없으며,

야심 찬 정당 정치인들과 완고한 교조주의자들의 온상. 이 모든 징후는 "의회주의"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주의는 국민의 자치 능력에 대한 거대한 민주주의적 거짓말입니다. 물론 책임감 있는 국가 시민들이 공적인 문제에 대해 권위적인 방식으로 판단하고 공동체나 국가의 운명을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세 이상의 남녀에게 주어지는 보통선거권과 같은 직접 비밀투표는 그 자체로 열등하고 파렴치한 자들의 사악한 통치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의회와 그에 의존하는 정부의 사악한 통치와 더불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모든 반자본주의적 구호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에서는 거액의 차입 자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급 금융은 국가와 경제의 무제한적인 지배자입니다. 어떤 정부도 은행 및 증권거래계의 이윤에 반하는 과감한 조치를 감히 취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엄청난 국가 부채를 통해 이 초국가적 세계 강국에 이자와 통행료로 묶였습니다. 이러한 이자 노예 제도의 결과는 엄청나며, 전 세계의 경제 및 국가 정치 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자 징수는 실로 정부의 주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들에게 직접세, 특히 간접세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끔찍한 세금 착취와 고갈을 의미하며, 멈출 수 없이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은 절정에 달했을 때 중산층 전체의 저축을 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돈주머니의 무제한적인 지배는 법적 이자를 청구하는 가면 뒤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잔혹한 지배를 행사합니다. 이는 대중, 특히 돈 획득 자체가 목표가 아니며, 따라서 전체 사고의 중심이 아닌 계층의 빈곤과 궁핍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절대적인 재정 지배의 가장 끔찍한 결과, 즉 이 지배 아래 놓인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이 발생합니다. 모든 본능은 획득과 소유로 향하고, 충성과 신앙에 대한 모든 개념은 무자비한 이익 추구에 빠져듭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존경받는 대가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으며, 부도덕함은 모든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절박하게 큰 계층은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노동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을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폐쇄된 전선에서 노동자들은 점점 더 높은 임금을 갈취하려 하고, 파업은 경제적 일자리를 뒤흔들고, 생산을 마비시키며, 그 중에서도 국가 경제를 위해 최대한 많은 재화 생산에 의존하는 사람들, 바로 노동자들 자신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적으로 "돈의 숭배"라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돈주의 의 이면은 돈주의적 침해의 희생자들의 지적 분위기에서 탄생한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 입니다 .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모자들이 국제 자본의 조종자로서 이러한 지적 분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동시에 피착취자들에 대한 증오를 다른 데로 돌리는 데 성공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건강한 국가 체제의 재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적대적인 방식으로 방해하는 지적 성향을 다루어야 합니다.

상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의 본질을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그로 인해 모든 경제와 그 이상으로 모든 고차원의 문화를 파괴한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계급투쟁의 관념을 조장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분열시켰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계급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의 이름 모를 비참함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련 국가에서 이 잘못된 민족과 경제를 말살하는 독트린은 최고도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질병의 실제 병원균을 찾아보면, 이상하게도 유대인이 지도자이자 주요 수혜자라는 사실이 도처에서 드러납니다.

유대인 문제는 복지와 관련된 해결책을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들의 재앙이 이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도서관 시리즈37에서 특별한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

역사를 살펴보면, 절망에 빠진 국가들은 피비린내 나는 탄압과 유대인 개개인에 대한 박멸을 통해 이러한 사악함으로부터 해방되려고 거듭거듭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난 후, 유대인들은 그러한 박해 이후 다시 강해지고 재정적으로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원시적인 방식으로 유대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실 전염병균을 개별적으로 죽일 수는 없고, 전염병균에 대한 생명 필수품을 차단함으로써만 전염병균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유대주의는 국가들이 가장 크고 치명적인 적을 인식했다는 횃불 신호이지만, 이제 우리의 임무는 이 올바른 감정적 지식을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에 맞선 투쟁 , 그리고 나아가 유대인에 맞선 투쟁은 중독된 대중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성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투쟁의 첫 단계입니다.

이자 노예제도의 붕괴는 초국가적 금융의 황금 네트워크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해방하기 위한 경제 분야의 최후이자 가장 힘든 전투입니다.

힘.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 싸운 후에야, 승리를 완전히 쟁취하고 확보한 후에야 약하고 병든 국가 조직에 새로운 삶의 의지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모두가 불타는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굽히지 않는 의지로 노력하는 것을 먼저 실현할 모든 추가 개혁을 실행할 때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재탄생.

건강하고, 확고하고, 강력한 업무 및 성과 상태를 갖춘 새롭고 자유롭고 통일된 대독일.

37 유대인에 대한 페더의 저작인 Die Juden은 1933년에 Nationalsozialistische Bibliothek의 45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2.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기원

모든 작업에는 계획이 필요하고, 모든 실현에는 지적인 창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설 계획이 더욱 명확하고 잘 짜여질수록 건물은 더욱 아름답고 빠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구조조차도 명확한 건설 계획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를 정치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정치 프로그램에 부과되어야 하는 요구 사항은 매우 높고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책임 과제의 문제입니다. 자국민의 복지와 불행은 계획의 적절성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은 공공 생활의 모든 중요한 분야를 최대한 간결하고 간결하게 다루어야 하며, 모든 비판을 견뎌내야 합니다. 세부 사항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반대자들에게 불필요한 약점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나중에 충족될 수 없는 유토피아적 희망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은 다가올 국가와 새로운 경제에 대한 충실한 이미지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바람직한 국가 및 경제 질서의 윤곽을 개략적으로 보여주어야 하지만, 세부 사항에서 실행을 제약하거나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강령에는 역사와 발전 과정이 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기본적 특징에서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단지 모호한 부분만 제거된다면, 그것은 운동의 근본적인 올바름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1923년 2월 24일자 11호 구 강령에서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강령 항목인 " 노동과 노력 없는 소득의 폐지, 이자 노예제 타파"만이 국가적, 재정적,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철저한 강령적 검토를 시급히 요구합니다. 당시에는 이 항목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저술, 즉 이자 노예제 타파와 국가 파산, 그리고 그 해결책이 거의 유일한 현존 저술이었고, 운동의 창시자들과 초기 추종자들에게는 충분히 알려져 있었고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저술들의 지적 내용이 사회주의적 활동의 범위를 더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근본적인 특징이 결정된 계획들, 즉 안톤 드렉슬러38와 아돌프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을 결집시킨 쇄신 의지 , 민족주의와 대중주의 사상의 집단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러한 강령적 요점과 요구 사항을 통해 독일 국가사회주의 자유 운동은 다른 모든 포퓰리스트 및 민족주의 집단, 운동 및 정당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며, 특히 소위 의회 정당과 차별화되는데, 의회 정당은 단지 맘몬주의적-부자적 통치의 표현일 뿐이다.

프로그램의 새로운 공식화에 있어서 또 다른 필요성은 더 명확한 것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공공 생활의 개별 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조와 형태가 확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에서 국가 사회주의의 평행적 표현에 기원을 둔 또 다른 획기적인 작품을 생각해내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즉, 이 책을 말합니다.

---

38 안톤 드렉슬러(1884-1942)는 디트리히 에카르트, 페더와 함께 뮌헨에 있는 원래 오스트리아 출신 독일노동당(Deutsche Arbeiter Partei)의 독일 측 창립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드렉슬러는 히틀러가 이미 1921년에 확실한 지도자가 된 이 당의 명예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드렉슬러는 1923년에 당을 탈당했다가 히틀러가 1933년 집권하자 다시 당에 합류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의회에서 수데텐 독일인을 대표하는 엔지니어 융[39] .

오스트리아 국가사회주의는 그 시작이 전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사상의 범위는 사회주의적 사상 세계를 민족주의적 사상과 조화시키려는 시도에 더 중점을 두었지만, 오스트리아 국가사회주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붕괴 이후에 생겨난 독일 국가사회주의는 처음부터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투쟁 입장을 취했습니다.

오늘날 두 운동은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뭉쳤습니다.

[39] 트로파우 대표인 엔지니어 루돌프 융

NSDAP의 국가 및 경제 프로그램

우리의 목표는 독일의 자유를 향한 독일 정신으로의 독일의 재탄생입니다.[40]

이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국가 정치 원칙: 독일 제국은 독일인의 고향입니다.

1. 외교 정책에서:

1. 모든 독일인을 포함하는 폐쇄적인 민족국가의 수립.

2. 해외에서 독일의 이익을 강력하게 대표함.

2. 인종 정책에서:

3. 유대인과 모든 비독일인을 모든 책임 있는 직위에서 제거합니다. 공공생활.

4. 동방 유대인과 기타 기생적 외국인의 이민 금지. 문제가 있는 외국인과 유대인은 추방될 수 있습니다.

3. 시민 정책에서:

5. 독일 문화와 공동체에 헌신하는 독일인만이 국가 시민권을 행사합니다.

6. 독일인이 아닌 사람은 독일 국가에 손님으로만 거주할 수 있으며 외국법에 따라 거주할 수 있습니다.

7. 독일인의 권리와 이익은 외국 회원의 권리와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민족 국가.

II. 경제 정치 원칙: 국민 경제의 과제는 대출 자본에 대한 최대한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8. 국가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국가 보호.

9. 그러나 국민의 복지는 개인의 손에 지나치게 부를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10. 모든 독일인은 공동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문화.

11. 모든 독일인의 일반적인 노동 의무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유재산의 기본적 인정 하에, 모든 독일인은 노동 소득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허용됩니다.

12. 경제 생활의 모든 분야, 특히 농업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건강한 결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13. 거대 기업(회사, 신디케이트, 트러스트)이 퇴치될 것입니다.

14. 고리대금업과 공갈, 그리고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비용을 초래하는 무자비한 횡령은 사형으로 처벌한다. 15. 모든 독일인에게 1년간의 의무 노동을 도입한다.

---

[40] 이러한 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Feder의 Das Programm der NSDAP und seine weltanschaulichen Grundlagen, 뮌헨, 1927; tr. ETS Dugdale, NSDAP 프로그램 및 일반 개념, 뮌헨, 1932

III. 금융 정치 원칙: 금융 시스템은 국가에 봉사하며, 금융 권력은 국가 내에서 국가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노예제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16. 국가와 국민을 이자로 묶인 거액의 부채로부터 해방시킨다. 대출 자본.

17. 라이히스방크 유한회사와 중앙은행의 국유화.

18. 무이자 국가 재정 바우처 발행이나 무현금 방식을 통해 대출을 회피하여 모든 대규모 공공 사업(수력 발전, 도로 건설 등)에 대한 자금 조달.

19. 안정적인 통화를 보장된 기준으로 도입합니다.

20. 무이자 신용 제공을 위한 비영리 건설경제은행(화폐개혁) 설립.

21. 사회주의적 민족경제 원칙에 따라 조세 제도를 철저히 개편한다. 간접세 부담으로부터 소비를 해방하고, 경직적인 조세 부담으로부터 생산을 해방한다(조세 개혁 및 감세).

IV. 사회·정치적 원칙: 공동복지가 최고의 법이다.

22. 생명연금 제도의 국유화를 통해 노령보험을 아낌없이 발전시킨다. 모든 궁핍한 독일 국민 동지에게는 일정 연령 이상 또는 조기에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적절한 연금이 보장된다.

23. 생산적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과와 연령에 따라 작업 수익을 분배하고, 작업의 국민적 경제적 과제를 완수할 책임을 함께 진다.

24. 정직한 노동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전쟁 및 혁명 이익과 축적 및 고리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고 이를 사회보험 개발에 사용합니다.

25. 제21조에 따라 설립되는 새로운 비영리 건설경제은행을 통해 제국 전역에 포괄적인 신규 주택 건설을 통해 주택난을 해소한다.

V. 문화 정책: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건강한 국가를 기반으로 모든 과학과 미술이 꽃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목표입니다.

이는 다음을 통해 달성해야 합니다.

26. 청소년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교육합니다. 독일 지식인의 위대한 전통에 따르면.

27. 종교와 양심의 완전한 자유.

28. 기독교 신앙의 특별 보호.

29. 독일의 도덕 감정에 반하고 국가와 민족을 파괴하는 성격을 지닌 종교 교리를 억압하고 배제합니다.

30. 문학, 언론, 무대,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의 유해한 영향력을 억제한다. 영화.

31. 독일 대학에서의 자유로운 교육, 품격 있는 인간으로 구성된 지배계급의 형성.

VI. 군사적으로:

32. 모든 자유민을 위한 군사법 도입을 통해 국가를 방어 가능하게 만듭니다.
독일 사람.

33. 용병부대의 폐지.

34. 엄격한 위계적 규율을 통해 구성된 전문 장교단의 지휘 하에 조국방위를 위한 민병대를 창설합니다.

VII. 기타 개혁:

35. 언론 시스템 개혁. 독일 국민의 우려에 반하는 모든 언론 매체의 탄압. 모든 뉴스에 대한 가장 엄격한 책임은

거짓되거나 편향적으로 왜곡됨.

36. 현재의 부패한 선거운동 형태를 폐지하고 선출된 자의 책임(면책)을 없애는 참정권 개혁.

37. 전문 변호사 협회의 발전.

38. 사법 개혁

토지법 –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기본적 인정, 사적 자본의 토지 임대 불가, 국가의 우선매수권, 부주의한 관리의 경우 토지의 국가 귀속).

민법 - (개인의 명예와 건강을 훨씬 더 엄격하게 보호함. 오늘날 재산에 대한 일방적인 법적 보호와는 대조적임).

39. 헌법 개혁:

헌법: 독일의 성격에 부합하는 헌법은 주권 국가가 최고위직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이 최고위직을 국민이 선출한 군주가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두세 명의 책임 있는 제국 최고 관리가 차지할 것인지는 나중에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제국의 연방적 성격: 부족과 역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결속된 여러 지방의 독일 국민의 구성은 각 연방주가 내부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독립성을 갖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제국의 관심사는 독일 국민의 대외적 대표, 여권과 통행료, 나아가 육군과 해군입니다.

국가사회주의의 이러한 국가적·경제적 강령의 달성을 가로막는 세 가지 주요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의회주의,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대규모 차관 자본입니다.

우리의 반마르크스주의 투쟁은 국가를 붕괴시키는 유대인 칼 마르크스의 이론, 계급투쟁의 인민을 붕괴시키는 이론, 사유재산 부정의 경제를 붕괴시키는 이론, 그리고 순전히 경제적이고 유물론적인 역사 개념에 맞서 싸웁니다.

2. 우리의 반의회주의 투쟁은 소위 인기 있는 대표자들의 무책임함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면책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부패, 인척주의, 뇌물 수수)에 맞서 싸우고, 최악의 결과인 그러한 의회에 의존하는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3. 우리의 반맘몬주의 전투는 다른 두 전선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세계를 포괄하는 금융 권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차관 자본을 통한 우리 인민의 끊임없는 재정적, 경제적 출혈과 착취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영혼을 파괴하는 물질주의적 정신과 이에 따른 모든 부패한 현상, 즉 우리의 공공,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 나타나는 현상에 맞서는 강력한 지적 투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층적인 분석에서,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지적 구조, 즉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정신과 유동적인 탐욕스러운 정신을 통해 표현되는 두 세계관의 갈등입니다. 땅에 뿌리를 두고 형이상학적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을 극복하는 창조적인 정신은 아리아인에게서 그 주요 대표성을 발견합니다. 반면 탐욕스럽고 뿌리 없는 상업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정신은 오로지 이 세상만을 지향하며 유대인에게서 그 주요 대표성을 발견합니다.

반유대주의와 마찬가지로 국가 사회주의는 유대인의 물질주의적 정신에서 악의 근본 원인을 엿보지만,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 전투가 순전히 부정적인 반유대주의적 요구로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사회주의의 전체 국가적, 경제적 프로그램은 확실히 획기적이지만 부정적인 반유대주의 전투를 훨씬 뛰어넘어 국가 사회주의의 작업 및 성과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주요 목표가 달성된다면, 국가사회주의당은 해체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사회주의는 온 독일 국민의 삶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사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일반적으로 관습적인 의미의 의회 정당이 아니라, 강한 의지와 지성을 가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집된 단호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국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들은 독일을 대외적으로는 수치와 무력함에서, 대내적으로는 파괴와 부패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는 강력하고 위풍당당한 지위로, 대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으로 꽃피우며 지성과 도덕성이 높은 민족 공동체로 이끌기 위해 결집했습니다.

우리는 Geibel41이 노래한 것처럼 독일의 갈망의 제국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

하나는 외부적으로 강력한 칼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깃발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내부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하며,
각 부족마다 고유한 방식이 있습니다!

41 에마누엘 가이벨(1815-1884)은 유대인 작가 하인리히 하이네와 루트비히 보른을 중심으로 한 당시 자유주의 '청년 독일' 문학계에서 공격을 받았지만 나중에 국가사회주의자들의 옹호를 받은 여러 애국시를 쓴 독일 시인이자 극작가였습니다.

3. 국가의 국가 구조

사회주의 국가

독일 국가의 국가사회주의 사상

권력의 정치적 기반에 관한 장에서 이미 우리는 독일 통치자들이 순수한 독일적 임무에서 벗어날 때마다 독일 국민에게 가장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독일 역사를 살펴보면, 폐쇄적인 민족 국가에 대한 독일의 갈망이 짧은 역사적 시기에만 실현되었음을 항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꿈은 거듭거듭 사라지고, 독일은 무력과 분열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따라서 독일 역사 전체에서 한 가지 교훈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력한 국가로의 국가 폐쇄만이 독일이 불리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위험에 저항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거의 어디에도 자연적인 경계를 갖지 않으며, 거의 모든 곳에서 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롭고 무방비 상태로 존재합니다. 영국을 둘러싼 바다도,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이웃 나라들과 분리하는 높은 산맥도 독일에게 자연적인 방어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열린 면만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독일만이 다른 국가들 사이의 중간, 즉 유럽의 심장부이자 전장으로서 존재합니다. 독일 영토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러시아, 몽골 군대가 전투를 벌였고, 30년 전쟁이라는 끔찍한 종교 전쟁이 독일 영토에서 벌어졌으며, 반대로 독일인들은 모든 땅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외국에 봉사하며 피를 흘렸습니다. 모국 게르마니아는 외국 군대가 입힌 수천 개의 상처와, 자신의 아들들의 투쟁으로 입은 상처로 피를 흘렸습니다. 독일 역사는 끝없는 비극이며, 통일되고 폐쇄된 독일 제국을 갈망했던 독일인의 열망은 동화, 키프호이저42에 나오는 바르바로사의 사가에 담겨 있을 정도로 비극적입니다. 수 세기 동안 독일 국가 이념의 실현은 1871년 위대한 대장장이가 독일 통일을 이룰 때까지 독일 국민의 가장 훌륭한 열망이자 희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국과 영토적으로 연결되어 사는 모든 독일인을 포괄하는 위대한 독일 국가의 실현에는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일인의 갈망이 부분적으로 실현되면서 독일 역사는 전에 없이 크게 꽃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약'과 '하지만'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정치는 역사이며, "역사 만들기"를 통해 우리 국민의 구원이 꽃피어야 한다면, 우리의 국정 운영, 즉 국가 정치는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존중하는 동시에 과거 시대의 실수를 피하고 최고의 전통에 얽매여야 합니다. 역사가 없는 정치인, 안락의자에 앉아 독단적으로 역사를 만드는 정치인은 지난 몇 년간 새로운 독일 마르크스주의 정부-쇼맨들에게서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은 재앙만을 국민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낡은 사회 형태의 완전한 붕괴는 비참하고 해롭지만, 특히 이러한 파괴가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힘과 동일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단지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옛 것을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수주의 정신의 비극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즉, 창의적으로 결실이 없고

---

42 튀링겐 주와 작센안할트 주 사이에 있는 키프호이저 산맥은 제3차 십자군 전쟁 중에 터키의 살레프 강에서 익사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1122-1190)의 안식처로 여겨진다.

상상력이 없는 사회는 새로운 모든 것을 단지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오래전에 본질을 잃은 낡은 형식에 완강히 집착한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사람과 국가는 미라나 구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한 번 잘린 옷이 영원히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기본적인 특성뿐이며,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국가에 뼈아픈 복수를 해왔습니다. 우리 독일인에게 있어 근본적인 역사적 국가 정치 교리는 "통일하라!"입니다.

그러나 "통일된"[43]이라는 단어는 "통일"[44]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하는 것"[45]을 의미합니다. 게르만족들이 대내외 정치 원칙에 합의해야만,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대외적으로 강력한 국가로서 대내적으로 자유로운 국가가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국가에는 유럽이나 국제적인 경제적, 교회적, 인도주의적 동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로지 독일 전체의 복지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치적 행동의 "동기"입니다. 이와 함께 교회적, 경제적,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성격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작용하며, 이는 적절히 평가되고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 국민 국가는 오직 독일인만을 대표해야 하며, 이는 국내 정치뿐 아니라 대외 정치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적 정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독일인을 포함하는 폐쇄적인 민족국가의 수립.
2. 해외에서 모든 독일 이익을 강력하게 대표합니다.

민족주의 사상

강력한 민족의식을 각성시키거나, 더 나아가 재각성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유대인과 비독일인을 공공 생활의 모든 책임 있는 직위에서 제외합니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대인의 침략에 맞서는 단호한 방어전은 오직 국가사회주의에 의해서만 전력을 다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맞선 투쟁은 독일 정신과 독일의 자유를 위한 의식적인 투쟁입니다.

유대인이 그들의 숙주 민족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다른 민족들의 권력 관계나 전쟁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으며, 오직 건강한 신체와 그 신체를 공격한 치명적인 독극균 사이의 생사를 건 투쟁과만 비교될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독극균의 공격을 받을 때, 문제는 오직 이렇습니다. 건강한 신체가 외부 침입자들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어 그들 때문에 죽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유대인의 숙주 민족에게도 선택지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유대인을 국가 조직에서 배제하든가, 아니면 유대인 때문에 죽을 것인가.

인체와 세균을 비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뛰어난 효율성 덕분에 어디에서나 성공할 수 있었다는, 흔히 오해하는 의견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부당합니다. 콜레라균이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효율적이어서 건강한 사람을 이겼다고 단순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43] 'einig'
[44] '아인하이트'
[45] 'Einigkeit'

그것은 인간에게 독입니다. 그리고 침입하는 독에 맞서는 생명체의 이 싸움에서 특별한 중독 증상이 발열, 경련, 마비 증상 등을 동반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공격받는 민족들의 싸움도 매우 유사한 질병 증상으로 표현됩니다. 시민 사회와 정치 생활의 불안과 동요, 국가 조직의 격렬한 격변, 혼란, 공포, 내전이 특히 국가의 지적인 부분, 즉 정부에서 매우 전형적인 마비 증상과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적을 인식하는 민족의식 계층이 정부에 경고하고 계몽하는 데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구성하고 유대인들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법은 확실하게 도입될 것입니다. 만약 치료법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민족의 죽음이 확실하게 도입될 것입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고립, 즉 의학적 이미지에 머무르는 것은 겉보기에 치료 효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조만간 균이 신체 혈관으로 다시 침투하게 되고, 이 두 번째 싸움의 끝은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인생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권력에의 의지입니다. 권력에의 의지, 즉 국가 유지에의 의지가 없다면 국가는 무력하게 몰락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몰락하지 않는 자는 노예, 펠라힌, 노예, 그리고 유대인 세계 강대국의 하인이 됩니다.

생사의 싸움입니다. 유능한 병사들이 대거 전장에 나섰지만, 우리 민족 동지들 대부분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육만이 해결책입니다. 이 교육을 그토록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중요한 인종 문제에 대한 아리아인들의 순수함과 연약함입니다.

우리 독일 민족 내부의 강력한 인종적 혼합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명확하고 고상한 인종 의식을 거의 완전히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인종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사라지고 인종적으로 이질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2천 년 넘게 자신의 인종법을 가장 엄격하게 준수해 왔으며, 인격과 민족을 위해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46

반면에 그는 인종적 동요를 시대에 뒤떨어진 헛소리로 묘사할 수 있었는데, 독일의 인종적 혼합과 관련하여 불행히도 그에게는 어느 정도 정당화되는 듯한 모습으로 그럴 수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의 인종 과학에 대한 유대인들의 경멸이 "독일인이여, 너희의 피를 순수하게 지켜라!"라는 요구로 단호하게 반대되는 대신, 독일인은 이 분야에서조차 유대인의 심리과학47보다 열등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이상을 내세운 계몽주의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강도와 고리대금업이라는 유대인 정신의 만연에 맞서 우리 조상들이 더 높은 지혜로 만들어 놓은 족쇄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주었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혼란과 불확실성만 안겨주었습니다. "유대인도 인간이다"라는 명제, 즉 그 누구도 결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명제를 통해 유대인들이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지적 구조를 가진 유대인 외국인에 대한 국가적, 인종적 저항은 이로써 가라앉았고, 시민 해방에 대한 투쟁은 처음부터 마비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이제 우리의 경제 전체가 정복되었습니다.
최근, 유대인의 무제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까지의 공적 생활.

---

46 참조. 민족사회주의 도서관의 인종과 유대인에 관한 책들!
47 가지 설득의 기술.

유대인들의 일련의 증언을 보면 그들은 국가 내의 국가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나라에 있는 인종적 동지들과 자신들의 주인인 민족보다 더 긴밀한 유대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족 간에 긴밀하게 소속감을 느끼는 유대인의 감정은 전쟁과 평화 시에 국가 간의 외교적 정치 관계에서 토착민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관심이 경제적 이익에 쏠렸습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받아들인 민족에 대한 사회적 감정이 전혀 없는 가운데,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를 통해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현대 신용 시스템의 창안자이자 소유자인 그들은 곧 국가의 전체 금융 경제를 쉽게 장악할 수 있었고, 은행과 증권 거래소를 통해 대부분 민간 부문의 금융 경제도 쉽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재정적 지위를 구축한 후, 유대인들은 국가의 지적 문화적 산물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움직이는 정신, 재치, 비판적 이해력 - 이러한 특성은 종종 진지하고, 무겁고, 현실적인 아리아 정신에 확실한 이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종교적 교리에서 이미 공표된, 그들의 도둑질 본능, 양심의 결여, 그리고 부도덕함일 뿐이었습니다. 슐찬 아루흐(Schulchan Aruch)48의 교리에 따르면, 유대인에게 비유대인의 재산은 주인 없는 재산과 같습니다. 유대인이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은 은행업과 증권거래 기술의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익명화, 즉 주식회사의 주식 시장화 형태를 통한 우리 경제의 비인격화는 어느 정도 자본과 노동을 분리했습니다. 주주는 극히 드문 경우지만 자신의 공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돈 의 수익성 에는 일방적인 이해관계만 있습니다.

그가 주식 형태로 투자했을 때 말입니다. 이 현상을 여기서 언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이러한 비인격화와 함께 경제의 몰락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처음부터 일궈낸 기업가이자 제조업자, 고객의 요구를 알고 있으며, 예전의 사업적 명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의 실제적 필요에 부합하는 견고하고 양질이며 지속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는 기업가, 그리고 제조업자. 이러한 진정으로 견고한 기업가는 순전히 자본주의적으로 대량의 주식을 소유한 현대의 대주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대의 대주주는 단 하나의 이익, 즉 최대한 높은 수익만을 추구합니다. 기업에서 양질이고 값싼 제품을 생산하든,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생산적 가치를 창출하든, 신용 회사(은행)처럼 일반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않든, 자본가, 즉 주주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는 결국 생산이 수요에 맞춰지기보다는, 오히려 막대한 광고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수요만을 자극하는 데 치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기업가의 명예 규범에 따라 자신의 제품을 칭찬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행하는 사람을 시장 선동가라고 불렀고, 건실한 사업가는 자신의 상품을 시장 선동가처럼 칭찬하는 것을 부정직한 경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상인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시장 선동 거래를 고집스럽게 수행했으며, 그의 설득 기술은 이 과정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끈질기게 주장하는 유대인 상인 대신 유대인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48 슐찬 아루흐는 유대교 법전 중 가장 권위 있는 법전으로, 1563년 요세프 카로가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편찬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유사한 발전이 있었는데, 특히 경제 과학 분야, 즉 소위 국민경제학이 두드러졌습니다. 점차 국민경제학의 과제는 더 이상 국가 경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탐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 지도부의 지침을 도출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경제 현상과 형태가 국민경제의 실제적 필요에 적합하고 적절한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단지 상황을 기술하는 데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볼 때 경제와 더불어 국가 공동체에 끔찍한 피해를 입히는 데 성공했고,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불변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분야에는 특히 국가 및 민간 신용 서비스 산업의 이론, 특히 이자 이론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날 우리가 국민 경제라고 부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사적 자본주의적 지시에 불과하며, 생산 국가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고리대금업을 정당화하려는 잘 조직된 시도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국가경제학 강사들 중에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유대인의 비율.

평신도에게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유대인들이 문학과 예술 분야에 침투한 것입니다.
필드.

오늘날 우리 연극계를 생각해 보면 그곳에 만연한 저속함과 냉소주의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현대 영화 현상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호색한과 방탕한 자들의 드라마가 우리 무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복적이고 교묘한 변증법을 통해, 훌륭한 독일인들은 도덕과 윤리, 명예와 양심은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것이며, 그것 없이는 더 나아갈 수 없다는 훈계를 듣습니다. 대중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유대인 연극 에이전시들의 골칫거리를 동반하는데, 예술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의 지식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연극 및 콘서트 에이전트에 대한 감사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간지를 통한 여론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대형 신문사가 점차 유대인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이로써 독일 국민을 둘러싼 고리는 끊어졌습니다. 경제적 지배에 지적 지배가 더해졌습니다. 유대인의 이익에 해로운 모든 것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이나 행위가 드러나면, 진정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노력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려는 시도를 통해, 그리고 그것마저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 거짓말과 허위 진술, 그리고 인신공격까지 자행되었습니다. 뇌물과 협박이 시도되었고, 결국에는 불편한 상대나 훈계자에게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심지어 죽이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가장 무서운 무기는 일반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드물게만 사용되었습니다. 정치적 또는 국가적 권력이 없는 진정한 국민의 친구가 유대인의 공공 기관에서 쏟아지는 거짓말과 중상모략에 의해 무너지기 전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당들 내에서는 극도의 과장을 통해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유산계급과 그들의 보호자라고 여겨지는 국가 권력과 군대에 대한 계급적 증오가 불붙었습니다. 민족 국가에 대한 이러한 공격의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주로 선동하고 조장한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계급 투쟁 교리의 창시자인 카를 마르크스가 실제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만 상기하면 됩니다(마르도하이

(그의 본명은) 독일의 전령관인 페르디난트 라살49은 원래 파이스트 라살이었으며,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전쟁과 혁명 속에서 독일 국가에 대한 유대인의 파괴 공작은 완성되었습니다. 제후들은 쫓겨났고, 장교들의 견장은 찢겨졌으며, 관리들은 굶주림으로 순응하여 사회주의-고자본주의 국가인 현대 독일에도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독일 민족은 무장 해제되고, 거세되고, 지도자들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약화되었습니다. 한편, 경제와 정치, 예술과 연극 등 공공 생활 전반에서 유대인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헤게모니를 독점했습니다.

그들의 통치의 기반은 막대한 부입니다.

그들은 자국 국민에 비해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요한 공직을 유대인 동지나 유대인과 가까운 독일인들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 단체에서 유대인을 제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업과 농업, 전문직과 행정 분야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생산 활동이 유대인에게서 거의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원에서 유대인을 추방한다고 해서 농업 생산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직 쟁기 뒤에서 고랑을 돌아가는 유대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노동자 부족으로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유대인이 고된 노동으로 석탄을 들어올리거나 대장간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장장이와 금속 세공인, 목수와 구두수선공의 작업장이 고아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추방된 후에도 집들이 폐허로 남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통계에는 유대인 석공과 목수, 지붕공이나 유리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역과 상업 분야에서도 유대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체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 체계 분야에서 국가는 지금까지 인적 및 물적 수송을 모범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어쨌든 누가 유대인을 철도 차장이나 기관차 운전사로 본 적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차 차장이나, 마부나, 운송 노동자로 일하는 게 어때요?

그러나 유대인의 전형적인 무역 및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전쟁 전 군사 행정직은 신중한 보관 및 공급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무역 자체에는 무역의 실제적인 측면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수십만 명의 상업 사무원과 독일 사업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국립은행과 우편은행에는 유대인 강도 경제에서 벗어난 건강한 국가 경제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간략한 조사를 통해 우리는 유대인이 우리 국가와 민족 생활에서 결코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남용하여 자국 국민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하고 논리적인 결과로 우리 국가에서 유대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됩니다.

독일 국민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국가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

---

49 페르디난트 라살레(1825-1864)는 독일계 유대인 사회주의자로, 마르크스와 친분이 있었지만, 마르크스는 라살레가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와 타협하려는 의지를 보였기에 그를 기회주의자로 여겼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라살레가 알게마이너 도이처 아르바이터페어라인(Allgemeiner Deutscher Arbeiterverein, 독일 노동자 연합)을 설립했을 때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1863년에 설립된 (노르웨이 의회)는 주로 보통 직접 선거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50 이 조항은 이미 1935년 9월 15일 제정된 뉘른베르크 법률 제2부 '제국 시민법' 제2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국의 시민이란 독일인 또는 독일인의 혈족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 독일 국민과 제국에 충실히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와 적격성을 보이는 신민만을 말한다." 유대인을 독일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은 이 법률의 제1부 '독일 혈통과 독일 명예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종 문제에 대한 이러한 고찰에서 동방 유대인 이민 금지의 다른 결과들도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도출됩니다. 이민 금지를 통해 동방 유대인들을 몰아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유대인 문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 부족입니다. 동시에 우리 민족에 정착한 유대인들을 외국인의 행위로 적대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방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보충하는 거대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이민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위험은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몇 년 만에 이 동방 유대인들은 가능한 모든 사업적 술수와 부를 축적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우리의 법정은 그러한 외국인들이 저지른 사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는 스스로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동방 유대인에 대한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이러한 입장은 다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가기관에 기생하는 다른 국가의 구성원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논의는 이제 우리를 국가 정책의 세 번째 섹션으로 이끕니다.
국가사회주의: 시민권에 관하여.

시민권

시민권은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국가사회주의는 현재 유효한 권리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현재 유효한 권리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독일인(남녀 모두)은 국가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바이마르 헌법에 따르면 유대인에게도 시민권이 허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몇 가지 피상적인 절차만 거치면 국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국가 시민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110조에서는 국가 구성원 자격에 대해, 제109조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 구성원의 법 앞에 평등한 권리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개념의 모호성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도덕적, 인종적 전제 조건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배제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국 헌법 제113조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일부"(!)를 특별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자유로운 전통적 발전, 특히 교육에서의 모국어 사용, 그리고 국내 행정 및 사법 집행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가장 포괄적인 고려 사항과 공화국을 자국 동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우리 법률의 실행, 소위 전범을 적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 그리고 제112조에서 보장하는 "외국 정부의 독일인은 박해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확실성을 비교해 보면,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조항을 크루프51 와 그의 간부들에 대한 프랑스의 악명 높은 판결과 비교해 보면, 이 헌법의 작성자가 유대인 프로이스52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모든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명을 비추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

51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바흐(1870-1950)는 1909년부터 1941년까지 프리드리히 크루프 AG를 운영했습니다. 크루프는 한스 폰 젝트(1866-1936)가 이끄는 독일 국방군과 협력하여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하고 독일의 비밀 재무장을 감행했습니다. 1923년 프랑스와 벨기에가 루르 지역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크루프에게

프랑스가 점령하는 동안 에센에서 크루프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3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추모하는 대규모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52 Hugo Preuß(1860-1925)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계 유대인 내무부 장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정에서.

베트만-홀베크53가 그의 불운한 의회 연설 중 하나에서 말했듯이 "폴란드인들의 더 나은 미래"나 (쿨만에 따르면) 루마니아 유대인들의 삶의 질 향상54이 아니라 오직 독일 국민의 복지만이 독일 국가의 주요 이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주제는 나치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NSDAP)의 국가 및 경제 강령(강령, 35쪽) 7항 "독일인의 권리와 이익은 외국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에 우선한다"와 6항 "독일인이 아닌 자는 독일에서 손님으로만 거주할 수 있으며 외국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시민권은 획득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가치함으로 인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유대인에게 근본적으로 배제되는 권리이며, 다른 민족 구성원들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독일 시민권 신청자의 내적 조건은 독일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서약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독일 국민에 대한 서약을 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를 독일 국가의 적이라고 선언하는 사람, 자신의 국민보다 다른 민족 구성원들에게 더 긴밀한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은 독일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독일 공동체와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피엔55와 다른 사람들이 한 것처럼, 자신들에게는 독일이라는 조국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 조언을 하려 한다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인 듯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대표자, 대의원으로서 여전히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이 의회에서 정부 직위로 승진할 경우 특별히 엄격한 법률(공화국의 보호)의 보호를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국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엄중한 심판을 요구할 것이며, 혁명 정부와 의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 소급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에 관해 제정될 법률은 소급적 권한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독일 혁명의 실수처럼 배고픈 "프롤레타리아"가 배부르고 만족을 모르는 자본가에 맞서 임금을 놓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며, 계급 투쟁이라는 관념을 통해 노동자 대중의 건전하고 올바른 감정을 오도하는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현 의회와 정부 체제의 수혜자들의 무책임함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필요에 따라 지나치게 부유해진 사람들이나 다른 계층의 책략을 방조한 사람들을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가 문제이다.

"작은 악당들은 교수형에 처하고 큰 악당들은 풀어주자"라는 구호는 옳다는 것이 증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국가사회주의 국가는 형벌을 결정할 때, 작은 악당들이 유혹당했다는 사실을 매우 감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반대로 독일 국민에 대한 큰 악당들은 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

53 Theodor von Betthmann-Hollweg(1856-1921)는 1909년부터 1917년까지 독일 총리를 지냈습니다. 전쟁 중에 베트만-홀베크는 군부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정책보다 더 온건한 정책을 선호하는 듯했다.

54 Richard von Kuhlmann (1873-1948)은 1917년 8월부터 독일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1918년 7월. 1918년 5월 그는 루마니아와 부쿠레슈티 평화조약을 협상했습니다.

55 아르투르 크리스피엔(1875-1946)은 1920년에 사회민주당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22년에 사회민주당(SPD)의 공동 의장이 되었습니다.

이 국가 법원의 정화 작업은 이제 혁명으로 처음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서만 멈출 수 없습니다. 제국 정부 하에서 부주의로 독일의 몰락을 초래한 자들 또한 타깃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책임자인 베트만-홀베크는 실제로 지상의 재판관들로부터 쫓겨났고, 그 다음으로 유죄인 에르츠베르거56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917년 7월 참혹한 의회 혁명의 아버지로서 적들의 약해져 가는 승리 의지를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심지어 아이스너57조차도

라테나우와 그 동료들은 국가 파괴 활동의 현장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방법이었지만, 역사의 철칙에 따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18년 1월 군수품 파업을 조직하여 전투 중인 군대의 등에 단검을 꽂아넣은 많은 이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또한 말과 글로 승리 의지를 꺾은 이들, '승자와 패자 없는 평화'를 설파한 이들, 전쟁과 혁명으로 민중의 고통을 악용하여 자신의 과도한 부를 축적한 이들이 여전히 살아 있으며, 이를 옳다고 받아들이는 이들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분명 그러한 국가적 정치적 요구는 공포와 두려움을 확산시킬 것이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에 대한 이러한 요구와 함께 국가사회주의는 독일 국민의 운명, 즉 독일 국민이 고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펠라힌 국가로서 굴욕과 부패 속에서 비참한 삶을 연명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가사회주의 운동의 존재 이유 또한 이 질문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가 시민권은 독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요람에 놓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국가 시민권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고의 도덕적 의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러한 책임의 준수는 이 권리가 부적격으로 인해 다시 상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국가 시민권 취득은 자비로운 행동이 아니라 독일 공동체에 합당함을 증명하고 독일의 인종적, 역사적 공동체에 헌신하는 모든 근면한 독일인이 제기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군 복무와 근무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직업에서 명예로운 일꾼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국가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시민권에는 모든 작업에서 더 큰 전체에 대한 관점을 잊지 않을 의무가 따르며, 경제 활동에서 항상 자신의 작업을 전체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즉, 특정 분야에서 완전한 자유가 있더라도 독일 국가 시민의 활동은 전체의 복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

56 마티아스 에르츠베르거(1875-1921)는 베트만-홀베크의 오른팔로 여겨졌던 독일 중앙당(Deutsche Zentrumspartei) 당원이었으며, 1917년 중반에는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독일군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에르츠베르거는 제1차 세계 대전을 종식시키는 휴전 협정에 서명했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재무장관으로서 베르사유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는 1921년 자유군 사령관 헤르만 에르하르트(1881-1971)가 창설한 '영사 조직'의 극우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57 쿠르트 아이스너(Kurt Eisner, 1867-1919)는 비텔스바흐 혁명을 조직한 독일 유대인 사회주의자였습니다.
1918년 11월 바이에른 왕조의 총리가 된 그는 바이에른의 공화주의 총리가 되었고, 베른 사회주의자 회의에서 온건 사회주의자들이 제1차 세계 대전 발발에 대한 독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1919년 2월 민족주의자 아르코 폰 발레 백작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국민경제

국민경제의 과제는 대출자본에 대한 최대한 높은 이자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모든 경제에서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사회주의 경제는 바로 이 지도 원칙에서 현재의 이익 자본주의 경제와 다릅니다. 순진한 생산자로서 수요 충족에 기여하지 않는 국가 경제를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해야 할 점은 현재 경제의 주인인 은행 및 증권거래소 자본에게 수요 충족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제 자본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충족이 고리대금적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한에서만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경제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태도를 다루어야 합니다.
전체 경제에 대한 전체 국민의 유일한 긴급한 요구는 당연히 식량 수요 충족이며, 그 다음이 주택과 의복 수요 충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고급 예술과 문화적 향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상 필수품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그 사이에는 지원 서비스, 전체 교통 시스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것, 무역과 금융 시스템이 있습니다. 건전한 경제에서 상품 생산은 생산 비용을 충당하고 기업가에게 상응하는 근로 소득을 제공하는 지불 방식을 통해, 그리고 불가피한 손실과 기업 개선 및 쇄신을 상쇄할 수 있는 적절한 이익 분배를 통해,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으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목표로 삼습니다.

정의로운 기업가는 개별 사례에서 과도한 이윤을 얻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설령 행운이 따른다면 가능할지라도 말입니다. 정의로운 기업가는 국가 경제의 과제를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생산을 확립하고, 동시에 기업이 성장하고 번영하며, 임금이 감소하지 않고도 생산 비용이 점점 더 낮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진정한 기업가적 사고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예나 자이스 공장의 공동 창립자이자 소장인 에른스트 아베58일 것입니다. 그는 기업가의 국가적 경제적 과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우리는 전쟁 전 우리 기업가들에 대해 특별히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알프레드 크루프59, 만네스만60, 베르너 지멘스61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
티센62, 보르지히63, 크라우스, 마파이64 등은 독일 산업사에서 사회적으로도 명예로운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방적인 이윤 추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

[58] 에른스트 아베(Ernst Abbe, 1840-1905)는 예나(Jena)의 창립자인 칼 자이스(Carl Zeiss)에 의해 고용된 물리학자이자 기업가였습니다. 광학 기기와 시스템을 생산하는 Carl Zeiss AG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아베는 이 회사의 공동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59 알프레드 크루프(1812-1887)는 1811년에 크루프 주강 회사를 설립한 프리드리히 크루프(1787-1826)의 아들이었습니다. 알프레드 크루프가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회사는 당시 최고의 무기 제조 회사가 되었습니다.

[60] 마네스만은 1890년에 설립되었으며 원래는 이음매 없는 강관을 생산했습니다.

[61] Werner Siemens(1816-1892)는 1847년 Telegraphen-Bauanstalt 회사의 발명가이자 창립자였습니다. 오늘 지멘스 AG는 세계 최대의 전기기술 회사 중 하나입니다.

[62] 아우구스트 티센(1842-1926)은 1867년에 티센-푸솔 제철소를 설립하고 다른 중공업 회사를 인수했으며, 이 회사들은 1926년에 통합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 최대의 광산 및 철강 카르텔인 베라이니히테 슈탈베르케(Vereinigte Stahlwerke)가 되었습니다.

[63] 보르시히는 1837년 아우구스트 보르시히(1804-1854)가 설립한 기관차 회사입니다.

64 크라우스마파이는 1838년에 설립된 기계 생산 회사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단순하고 겸손했으며, 오직 자신의 작품의 번영만이 그들의 지침이었습니다.

실제로 독일 산업의 지칠 줄 모르는 생산력과 창의력은 인구의 엄청난 증가로 일자리와 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과 모든 계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개선과 발명 덕분에 가장 중요한 제품들이 더 저렴해질 수 있게 했습니다. 독일 육체 노동자는 이것이 두뇌 노동자들에게 빚진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독일 경제의 이러한 고성장의 토대이자 전제 조건은 강력한 비스마르크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 즉 독일 제국의 단결되고 강력한 정치적 상황과 독일 기업가와 노동자들의 전례 없는 근면성 덕분에 전체 국민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독일 인구의 엄청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량, 의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었으며, 독일에서의 해외 이주도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870년 이후 수십 년간 독일인의 이주 규모에는 독일의 근면성과 독일의 성과를 개척한 선구자로서 세계로 흘러나온 독일의 기업가 정신과 상인 정신의 건강한 잉여분만이 포함되었습니다.

대체로 독일 제국의 국민 경제 전체는 우리가 건강한 국민 경제에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해 왔습니다.

수요는 충분히 충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깊은
우리 경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 피해.

1. 독일 국민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면서, 독일의 산업과 무역 효율성으로 생산된 제품이 전 세계의 판매 시장을 정복하면서, 국내 경제가 성공을 거듭하고 의료 및 생활 조건이 해마다 좋아지면서도 우리 국가 재정은 점점 더 큰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

이제 부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항상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시민들이 점점 더 많은 부를 누리는 국가가 동시에 건전하고 번영하는 국가 재정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터무니없고 터무니없는 일로 여겨져야 합니다. 독일 제국과 연방주들이 철도, 우편, 광산, 그리고 국유림 등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제국과 연방주들이 재정 주권을 통해 시민들의 상당한 세금 납부 능력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2. 더욱 깊이 뿌리박힌 경제적 피해는 농업 및 도시 부동산의 점진적인 부채였습니다. 전체 문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용되었던 토지 개혁 운동은 불행히도 완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3. 온갖 신용으로 인한 우리 산업의 인플레이션은 예리한 관찰자들도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물론, 번영의 시대에는 상업 및 산업 기업들이 외화 수입과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와 소득의 증가 가능성이 이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얼마나 큰 재앙인가! 그러면 이자가 붙는 신용 거래는 그 자체로 경제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시기에 등장한 주식회사 형태는 자본이 그에 얽매인 노동으로부터 실제로 분리되는 것, 즉 채권자의 돈의 이윤에 대한 순수한 자본주의적 이익과 개별 기업가의 건전한 협력, 그리고 그의 존재와 그의 기업 사이의 전체적인 동일시를 분리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4. 금융기관인 은행의 권력이 커져가는 모습은 국민의 존경하는 벗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은행은 경제의 하인에서 국가 경제 전체의 무제한적인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하고 의미심장하게도, 은행의 이러한 권력 확대는 국가 경제의 번영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가 비참해질수록 은행의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전개 과정을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겠습니다. 순수하게 금융 및 통화 경제에 관한 논의에서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금융 및 신용 시스템을 통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의 네 가지 근본 원인을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경제의 바로 이러한 측면이 진정한 국가 경제, 즉 금융 강국의 일방적인 강도 경제의 정반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생충에 시달리는 신체의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이 착취 경제의 수혜자에게 의존하는 데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행히도 후자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의 경제적 강도 귀족 체제에 대한 내부 저항이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충실히 다루어야 하는 과학, 아니, 특히 과학조차도, 몇 가지 예외(오트마르 슈판 65)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현대의 이익 중심 자본주의 경제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국가 경제는 진실과 올바른 지식을 향한 선도자가 아니라, 국가 경제 범죄의 대변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위대한 진리와 지혜는 모든 단순한 사람이 그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숙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혼동해서는 안 될 사실은 그러한 근본적인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자연히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 자체, 즉 직관은 지식에 영원히 목마른 영혼을 비추는 밝은 빛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이해 작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는 가장 신중하게 선택된 재료를 사용하여 전체 사고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벽돌을 하나하나 힘겹게 쌓아 올려야 하며, 완성된 작품이 모든 사람에게 자명하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가끔씩 스스로 그런 생각에 잠길 때만큼 훌륭한 칭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1923년 여름)을 집필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

65 오트마르 슈판(1878-1950)은 아담 스미스의 유물론적 자유주의 경제학에 반대했던 아담 뮐러(1779-1829)의 경제 이론에 영향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반사회주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였다. 그는 1919년부터 1938년까지 빈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나, 1938년 국가사회주의자들에 의해 교수직이 박탈되었다.
오스트리아 합병. 슈판은 나치당(NSDAP)의 민족주의적 성향에 공감했지만, 그의 기업주의 국가론은 국가사회주의자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오스트리아의 엔지니어 W. 쇼버66는 이제 노인이 되었지만,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논문에서 오스트리아의 재정 및 신용 상황의 전반적인 재앙적 전개는 이미 30년 전에 전례 없는 명확성으로 예측되었습니다.

Schober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가 경제 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국가 경제의 재앙적인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불행히도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이유는 쇼버의 기독교 사회당 친구들이 처음에는 열광적인 동의를 얻었지만,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게으른 변명으로 그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고위 재정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오래전부터 저축 자본과 경제 및 운전자본의 수요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 역할을 멈췄습니다. 오늘날 대형 은행들은 모든 주식회사에 이사와 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은행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이제 경제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행은 자본이 최대한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지는 은행의 관심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국가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하여 경제를 비옥하게 하는 것을 은행의 임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제조업이 가장 시급하게 선제적 신용을 필요로 할 때, 바로 그때 신용 패키지와 신용 통지를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도 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은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가? - 누군가는 '돈의 필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조건 하에서 충족시키는가? 제빵사, 구두 수선공, 공장주, 사업가는 실제로 식량, 의류 등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 즉 가격을 화폐 또는 자금 이체를 통해 받습니다.
이로써 수요는 충족되고, 공장주 등은 구매, 임금 지급, 그리고 추가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을 다시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경제적 순환이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생산자는 사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화폐는 교환 사업의 중개자로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며, 생산자의 손에서 경제를 새롭게 활력 있게 만듭니다.

대금업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어떤 은행도 예를 들어 모든 상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자신의 상품인 돈을 나눠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은행은 대부분의 경우 대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증권을 요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앞으로 벌게 될 모든 것으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채무 증서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은행은 돈을 지급하는 대가로 대출금보다 훨씬 더 큰 자산을 자신의 권력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또한 채무자의 근로 소득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채무 증서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중적이고 여러 번 담보된 대출에 대해 은행은 막대한 초과 근무 이자가 발생하는 형태로 더 많은 이자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고려하면 전혀 생산적인 성과가 아닌 절차를 여기서 다루어야 합니다. 반환 지불(담보, 채무 증명서)은 즉시 제공되고, 그 외에도 채무자는 담보권자 없이 몇 년 안에 받은 돈의 가치를 초과하는 또 다른 계속 지불에 동의해야 합니다.

---

66 벤첼 쇼버(1846-1928)는 오스트리아 출신 철도 엔지니어로, 빈의 요제프 슐레진거(1830-1901) 교수처럼 자신의 경제 저술에서 유대인 국제 금융에 대한 의존이 오스트리아 경제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3권으로 구성된 『북부와 우르자헨(Die North und ihre Ursachen)』(빈, 1880-82)과 『오스터라이히에서의 가치 지배(Die Valuta-Regalierung in Osterreich)』(1892)가 있습니다.

자유로워지거나 빚이 해결되는 것. 그런 금융 사업은 당연히 국가 경제에 터무니없는 일이며, 순수한 고리대금업입니다.

신용의 진정한 의미, 즉 타인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믿음은, 저축된 돈의 소유자가 자신의 돈을 수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자신이 신뢰할 수 있고, 이 돈을 맡길 수 있으며, 요청 시 저축액을 전액, 그리고 그대로 돌려줄 것이라는 보장을 제공하는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대출이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강화하여 훨씬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면,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는 것 외에도 채권자에게 자신의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제공한다면 이는 공정함이나 감사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화폐 및 신용 경제 개념은 중세 시대 전체를 지배했으며, 교회의 이자 교리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이자에 대한 요구는 고리대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고리대금으로 판단했던 이자는 우리 경제 전체의 공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용에 대한 국가적 경제적 감각은 국가적 경제의 헛소리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돈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교리는 노력 없이 지속되는 풍요로움의 원천입니다. 금이 – 금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 실제로는 스스로 돈을 생산하는 힘, 즉 세상의 소멸 법칙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불멸하고 영원히 그 마법 아래 두는 초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 금융 및 국제 경제학에서 모든 종류의 재정적 소유는 그 자체로 이자를 요구하며, 어느 정도는 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단순한 법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노동과 돈의 관계에 대한 이 가장 기괴한 역전은 법칙으로, 만질 수 없는 것으로, 이를 다루는 과학이 수많은 정당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방식으로만 국민경제 전체를 그 유일하고 자연스러운 임무인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식량을 창출하는 일에서 벗어나 은행과 증권 거래소 자본 소유자의 개인적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주로 오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 경제의 고도화된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우리의 반대 와 사회 정의의 요구를 충족하는 국민 경제를 위한 우리의 투쟁이 재산과 다른 형태의 소유 사이의 대립으로 묘사되고, "자기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공산주의적이라고 비난받는 것은, 이제 우리 운동에 맞선 정치적 투쟁에서 흔히 쓰이는 수법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는 국가 및 경제 강령 제8조(강령, 35쪽)를 끊임없이 지적해야 합니다.

"국가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정부 보호".

그러나 입법부의 임무는 다음과 관련하여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희생시키면서 개인의 손에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것.

긍정적으로, 그리고 경제 자체를 위해, 국가사회주의 정신에 따라 전체 경제와 그 과제에 대한 요구로서 "국가 및 경제 강령"의 10번 요구가 제기됩니다. 모든 독일인은 독일 국민의 공동 복지와 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동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독일인이 자신의 힘에 따라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일해야 하지만, 이러한 그의 노동은 전체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가 도출됩니다 .

나는 이것이 도덕적 요구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것을 확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련에서 도입된 것과 같은 강제 노동.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독일인이 완전한 국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1년간의 의무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목표가 젊은 시절과 성인 시절에 열심히 일한 모든 민족 동지들에게 걱정 없는 노후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자본 대출에 대한 이자와 통행료 의무로 인해 끊임없이 피를 흘리지 않는 국가 경제의 경우, 모든 국가 동지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노령 연금(공무원의 퇴직금과 유사)이 특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에 발생한 업무 장애의 경우 보장되도록 대규모 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여기에 제기하는 이유는 이 과제의 완수가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에 달려 있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에게 "일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 강요 뒤에는 위안과 화해를 가져다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평생 자신의 의무를 다한 모든 사람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줄 전망입니다.

사유재산을 우리 경제의 기반으로 인정하는 기본 원칙의 범위에는 모든 독일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유로운 가능성과 근로 소득 및 취득한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이 보장된다는 사실("국민경제강령" 제11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법률에 따라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노동만이 그러한 노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연쇄 거래와 폭리 행위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노동을 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강도는 석공이 집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노동"에서 더 많은 땀방울을 흘리지만, 그러한 "노동"은 타인의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면서 일방적인 개인적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노동"은 일반적으로 해로우며,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결의는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률 실무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직한 일로 규정되는지 너무나 자주, 그리고 놀랄 만큼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계선에 매우 가까운 일련의 활동들이 있는데, 이 활동이 여전히 "전체와" 조화를 이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든, 국가 건강에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모든 활동이나 사업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폭리와 고리대금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착취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적대적인 이런 해충에 대해 우리는 사형을 요구합니다. 재정적
이런 사악한 사람들에게는 벌금이나 징역도 효과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 사회주의의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수익성에 대한 거짓된 집중을 제거하고, 그 이유로 국가 경제의 유일하게 올바르고 합리적인 과제인 수요 충족을 명예롭게 회복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는 상인, 공장주, 정직한 사업가의 소득과 이익을 어떤 식으로든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당한 수익 창출 노력에 어려움이 생겨서는 안 된다. 단, 이러한 노력은 공공 이익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정화 조치의 문제이며, 독일 경제의 유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는 경제 형태와 성과 측면에서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및 경제 프로그램" 12항이 요구하는 바를 의미합니다. 경제 활동의 모든 분야, 나아가 농업 분야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건전한 결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 질서에 대한 국가 사회주의의 기본적 입장도 제시됩니다.

국가사회주의는 강력한 국가와 국민의 식량의 기반으로서 농업 종사자들을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하고 육성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17항에 특별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토지 몰수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아돌프 히틀러가 1928년 4월 13일 선언했듯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거나 국민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관리되지 않은 토지를 필요한 경우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창출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는 주로 유대인 토지 투기 기업을 겨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오로지 토착민 보호를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국가사회주의는 특히 건강한 상업 및 중산층의 번영과 독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소위 중공업의 생산 형태에서도, 국가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반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대규모 산업이 모든 것을 모범적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즉, 더 좋고 더 단순한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혀 절감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은 –

공유화를 목표로 삼는 것은 (실제로는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산업의 국유화 노력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여기서 우리는 주로 자체 세무 및 보험 직원 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사회주의의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과제의 마무리에는 또 다른 엄청난 조직적 성과가 있습니다. "모든 독일인에게 1년간의 근로 의무를 도입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깊은 도덕적 원칙, 즉 의무입니다.

국가 시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에 봉사했어야 하며, 의무의식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행위를 통해 증명해야 하며, 실제로는 보수 없이, 즉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군인이 조국에 봉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의무 복무라는 개념에서 보편적 군 복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 기간을 기존의 2~3년 복무 기간에 비해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모든 젊은 독일인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상업 활동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질에 대한 의무 의식은 기계의 지배와 기업가에 대한 노동자의 계급적 적대감이라는 더욱 파괴적인 교리 하에서 너무나 큰 타격을 입었기에, 획일적인 원칙에 따라 엄격한 국가 지휘 하에 이 분야에 대한 과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좋은 의미에서 기업가들은 그러한 제도를 환영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경쟁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동자 군대가 이미 경쟁일 수는 없습니다. 경험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생산적인 경제 활동은 공식 기구에 의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고, 경험이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고용하고 훈련하는 데 국가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해의 봉사 활동의 과제는 모범적인 국영기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에게 모든 기술 발전에 대해 더 잘 알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군 복무 중인 노동력과 국가 동지들의 실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 경제의 나머지 부분과 경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껏해야 특정 분야에서 가격 규제 기관으로 운영되어 시장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통해 자유 상인과 자유 기업가가 합리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선언문에서 더 이상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조명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우리 경제의 사기 회복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에 대한 의무라는 개념이 국가에 대한 도덕적 의무로 각성됨으로써 전체 경제가 얻게 될 이익은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시민의 입장에 관하여

비스마르크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산다."

이 도덕 원칙은 또한 국가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의 기초에 있습니다.

경제.

국가 재정 개혁 - 화폐와 신용
국가사회주의 국가

'이자의 법칙.'

이익 노예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 강령에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주장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장 폭넓은 계층이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가장 격렬한 반대를 표명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반대 세력의 대부분은 현재의 이익 자본주의 경제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상 속에서 자라나 이미 상실된 특권의 상실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반대는 사실상 아무런 추진력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본 연금이라는 이상에 갇힌 악순환의 고리에서 내적 추진력의 부재가 바로 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집단은 대출에 의존하고 있거나 적어도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단은 당연히 이자 지불 의무가 폐지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운영 자본을 받을 수 없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다른 그룹은 이 문제에 반대하는 훌륭한 국가 경제학자들입니다.
이자로부터의 해방은 그들의 국가적 경제적 지혜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또 다른 집단은 악의적인 사람들로, 실제로 더 나은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 또는 당적 전술적 이유로 국가 사회주의의 기본적 요구에 대해 거짓 주장과 왜곡된 표현으로 맞서 싸웁니다.

이자 규칙을 행사하는 국제 금융의 원들은 정확히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구로 인해 우리의 가장 화해하기 어렵고 맹렬한 적이 누구인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악의적이고 직업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반대를 제외하면 적대적이고 불신하는 태도의 주요 이유는 무지와 지적 게으름, 어리석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반대자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 반대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체계도 시행할 수 없으며, 설득력 있는 설명의 압력에 해파리처럼 물러나지만 압력이 완화되자마자 곧바로 다시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자 노예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자 노예제는 국가와 국민이 초국가적 금융 권력에 대해 이자로 지고 있는 빚을 뜻한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 금융 지배에 대한 노예제에 대한 문제이다. 이 노예제는 절대 군주 통치 하의 어떤 형태의 통치보다 더 끔찍하고 잔혹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도 없이, 오직 만족할 줄 모르는 확장과 확대 본능에 사로잡혀, 비교할 수 없는 권력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행사되기 때문이다.

이 규칙의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은 "돈은 세상을 움직인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돈은 금융 권력의 지배를 상징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금속과 지폐인 돈 자체는 본질적으로 선악이 없으며, 어떤 지배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화폐로서의 돈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에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을 기준으로 금융 권력의 지배를 다루려는 모든 시도는 처음부터 오류이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배의 경우, 우리는 좁은 통화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도구로서 돈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 자체로는 선악이 없으며, 오직 그 사용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돈이 살인적으로, 즉 오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화폐의 무한하고 다양하며 필수적인 유용한 활용 가능성을 무력화해서는 안 됩니다. 화폐조차도 유용하게 활용되면 국민 경제에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폐를 국민 경제의 혈액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화폐가 교환 수단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벌어들인 돈이 다시 경제로 환원되는 한, 화폐는 국민 경제 에 어떠한 해로운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

이제 한 가지 요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돈을 저축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 자체는 완전히 정당합니다. 오히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저축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저축의 의미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무책임한 국가 재정 정책으로 인해 독일 화폐가 지속적으로 위협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현실은 저축을 어리석은 짓으로 만듭니다. 몇 주 또는 며칠 후에는 화폐 가치가 이전 가치의 극히 일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폐가 저축 화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독일 화폐는 아직 조사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안정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안정적인 가치를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독일 저축자는 불안정한 시기에도 그러한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화폐를 찾아 헤맨다. 그러한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화폐로는 소위 고가 화폐, 즉 달러, 스위스 프랑, 네덜란드 굴덴, 스칸디나비아 화폐 등이 있으며, 귀금속으로 만든 금속 화폐도 있다.

그러나 이제 경제의 운전 자본으로서 화폐라는 국가적 경제적 과제는 안정적인 화폐 축적에 대한 이러한 열망과 대립합니다.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본질적으로 "수행된 노동의 증표"에 불과하며, 또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고수해야 합니다. '화폐는 교환 수단이다'라는 통상적인 설명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문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폐의 과제이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화 교환을 매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제는 중국인의 차 뭉치, 흑인의 조개껍데기 등과 같은 다른 것들에 의해서도 충족됩니다. 오늘날 국가가 분배하는 화폐와 화폐 대용품의 가장 본질적인 본질은 다른 사람들이 수행한 노동의 증표, 즉 증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된 노동"이란 모든 경제적 생산물, 나아가 원자재까지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조차도 채굴되어 시장에 반입될 때에만 상업적 또는 판매적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경제에서 이러한 상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제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단 하나의 상품만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이 교환 수단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교환 수단이 발명되어야 했습니다. 이 교환 수단은 일반적으로 타당했습니다. 구두 수선공은 해마다 신발과 부츠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빵, 고기, 우유, 계란, 옷 등이 필요합니다. 구두 수선공이 빵을 사는 제빵사는 일 년에 부츠 한두 켤레가 필요할 수 있지만, 부츠만으로 모든 사람이 먹는 빵에 대해 일 년 내내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밀가루와 연료를 위해 제분소와 장작 공급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들 역시 이미 다른 구두 수선공에게서 부츠와 신발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부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빵사는 자신의 생산물로 제분업자에게 밀가루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제빵사는 공동체를 위해 빵을 구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광범위한 분업이 이루어지는 선진 국민경제에서는 순수한 교환 경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환 중개자는
따라서 필수불가결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 교환 중개자는 국가가 보호하는, 국민 경제의 생산물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록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을 통해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은 이 교환 화폐에 대한 상업적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수행된 작업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화폐를 수행된 노동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로 인해 경제 순환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화폐가 실제로 수행된 수많은 노동 활동의 기록, 즉 모든 사람이 생필품과 기타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요가 충족되고 화폐가 경제로 다시 투입될 때에만 화폐의 기본 순환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화폐가 한 손에 비축되거나 저축된 돈으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단지 절반의 교환, 절반의 순환일 뿐입니다. 화폐는 아직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이 발명되고 존재하는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화폐라는 국가적 경제적 과업의 이러한 중단이 국가적, 국가적 정치적 이유로 용납될 수 없음을 근본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당연히 모든 수입금을 즉시 지급해야 하거나, 모든 개인이 자신의 월별 필요금을 충당하거나 매년 한 번만 지불하는 큰 규모의 서비스에 필요한 금액을 경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만큼 금융 시장에 돈이 풍부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가가 사회 복지를 위해 분배한 통화를 축적된 돈으로 대중 유통에서 빼내는 것은 국가 경제에서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 시스템에는 지출 의무, 즉 지출 의무도 해당됩니다.
획득한 돈을 다시 유통시킨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저축이 결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축은 올바르게 이해하면 결코 탐욕스럽고 인색하게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축이라는 개념과 자녀 양육비라는 개념을 결합한 가장 흔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 그것은 물건을 만들고 취득하는 것, 작은 집을 사거나 짓는 것, 귀중한 물건, 컬렉션, 책, 그림, 가정용품을 구입하는 것, 사업체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것, 주식을 늘리는 것 등을 의미하며, 이는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저축"입니다.

바로 우리 독일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웅장한 세계관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방금 설명한 이 올바른 "저축"은 스스로에게 가장 큰 보상을 주었고, 돈에 초점을 맞춘 거짓된 저축은 쓰라린 복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한 틀림없는 올바른 감정은 무용담과 동화에도 아주 정확하게 반영되어 왔습니다. 축적된 돈은 쓸모없는 덩어리로 변하거나 사라지거나 끝없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언제 어디서나, 근면함으로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건전한 추론으로 상업, 상업 또는 산업을 막론하고 번영하는 민간 경제를 항상 이해하는 사람은…

존경과 존중을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부의 발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돈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경제의 번영하는 구성원으로서, 가장 좋은 의미에서 사회적입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처럼 간략하지만 필요한, 본질적인 관찰을 한 후, 우리는 질문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자 노예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화폐의 국가적 경제적 과업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더욱이 모은 화폐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손에 돈이 쥐어져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 유통되는 화폐가 희소해지고 화폐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화폐를 소유한 사람들은 여전히 국가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화폐를 유통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속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집을 짓거나 다른 것을 샀기 때문입니다.

상업 또는 산업 생산물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업 유지를 위해 운영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가나 공장주에게서 생산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당하게 횡령한 돈을 특별 관세, 즉 이자로 지급합니다. 국가 경제의 압박

시작됩니다.

국민 경제 노동자의 재화 생산, 즉 생산자와 화폐의 관계는 단번에 뒤집힙니다. 본래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했던 화폐가 갑자기 스스로를 해방하여 재화 생산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금융 지배가 시작됩니다. 물론, 민간 경제는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국가 경제 생산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화폐 축적자는 국민 경제 노동자의 이러한 국가적 경제적 의무감에서 이중의 이익을 얻습니다. 첫째, 채무 증서, 즉 법적 소유권이 작성되는데, 이 증서에 따라 채무자는 전 재산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책임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다른 특정 부의 대상은 특별히 담보로 제공됩니다. 둘째, 채무자는 이자라고 불리는 지속적인 추가 지급에 대해 스스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 신용은 '신용'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 즉 더 큰 경제적 효능과 성과에 대한 신뢰에 상응하는 이유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경제 기업가가 자신의 노동 소득의 일부를 아무런 노력 없이 스스로 조달하려는 욕구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제공됩니다. 또한 신용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화폐 소유를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용이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에게 전혀 무관합니다. 채권자가 신용에 관심이 있다면, 이는 오직 자신의 돈이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해 중개되는 신용 시스템은 오늘날 화폐와 신용을 소유한 자본가가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흔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인 "자신의 화폐를 일하게 하는" 다양한 생산 부문과 개인적인 관계를 전혀 맺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가 "기르메스(Girmes)", "푀게(Pöge)", "베저(Weser)", "리벡 산(Riebeck Montan)", "오타비(Otavi)", "살리트레라(Salitrera)", "슈테우아 로마나(Steaua Romana)"67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 그는 이러한 공장에서 무엇이 생산되는지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으며, 단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그리고 자신의 자본이 창출하는 배당금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관계만 가질 뿐입니다. 주식회사든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 활동(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노동조합 등)이든 생산 전반에 기여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게 결정적인 것은 바로 "수익성"입니다. 은행 주식이 누리는 엄청난 인기는 이를 증명합니다. 대형 은행과 모든 신용 기관은 일반적으로 재화 생산이라는 의미의 생산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대형 은행 시스템에서 이자라는 개념, 즉 생산적인 노동의 소득 중 막대한 몫을 단순한 화폐 소유자에게, 그리고 후자에게는 아무런 노력 없이, 완전히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진정한 향연을 펼칩니다. 오늘날 어떤 형태로든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순전히 이자 자본주의적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국가 경제 활동은 은행과 증권거래 자본에 의존하며, 그에 이자라는 종속성을 갖습니다.

67 기르메스는 요하네스 기르메스(1854-1912)가 설립한 섬유 회사이고, 베저는 조선 회사였으며, 리벡-몬탄은 광산 회사였고, 오타비는 광산 및 철도 회사였고, 살리트레라는 칠레의 질산칼륨 회사였고, 슈테아우아 로마나는 루마니아의 정유 회사였습니다.

은행의 주인, 즉 고급 금융은 생산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생산이 중단될지, 아니면 시장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쏟아질지는 바로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직된 민간 부문에게 수요 충족은 전적으로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대 신용 시스템의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에 대한 관심은 가장 완전한 국가적 경제적 부도덕과 관련이 있으며, 경제의 하인이라는 의미에서 경제의 절대적 주인이라는 위치로의 금융 및 신용 시스템의 의미가 완전히 왜곡된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은 노예가 되었고, 교활하게 약탈하며 영원히 변덕스러운 유대적 고리대금업 정신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으로 부당한 자금 압류를 통해 인위적인 비상사태를 조성해야만 가능한 강탈 행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정의로운 권리로 여겨지며,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차관 자본과 갈등을 빚게 하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권리로 여겨집니다.

관심의 사로잡힘이 완벽해졌습니다!

그것은 이동 정신의 매혹적인 예술이 금융 시스템의 보호자인 국가를 이자 노예 제도에 묶어두는 데 성공함으로써 완성되었고, 국가 역시 묶인 손으로 국제 자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국가 경제의 보호자라는 실제 임무에서 대규모 대출 자본의 이자 징수자인 집행관의 위치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가 금융 경제

이제 우리의 특별한 임무는 국가 금융 경제의 이러한 발전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도 오늘날 발견된 사실을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구 문화권 국가들의 국가 생활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모든 국가의 막대한 부채입니다.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모든 국가는 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가장 중요한 통계 자료는 스테이츠먼 연감(The Statesman Yearbook)이다. 이 공식적인 국가 연감은 각 주의 공공 부채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개요를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1930년 3월 31일 기준 영국, 즉 영국 노동계급의 국제 자본에 대한 부채는 75억 9,600만 파운드였으며, 연간 이자 지급액은 약 3억 5천만 파운드였습니다. 이 금액을 독일 마르크로 환산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자 문제가 가장 광범위한 국제적 문제임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국내외 채권자들에게 약 2,790억 프랑의 금화를 빚지고 있습니다.

달러의 축복받은 땅 북미대륙 미국은 공공부채를 지고 있다
약 160억 달러의 부담.

캐나다, 호주, 인도, 이탈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어디에서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이 국제 자본에 빚진 절망적인 부채라는 비참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디에서나 국가 생활은 하나의 질문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국제 금융, 즉 거액 차관 자본에 대한 우리의 부채, 즉 차관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모든 국가의 재무부는 새로운 세수 확보에 끊임없이 매달리고 있으며, 의회는 새로운 세법안에 대해 수개월 동안 자문을 구하지만, 모든 저항은 허사로 돌아갑니다. 국제 고리대금 자본의 위엄과 그들이 이자 지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합법적" 권리 앞에서 의회와 정부는 거듭 거듭 무너지고 전례 없는 세금 부담으로 국민들을 억압합니다. 이 거대한 국제 사기를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단언하는 대신 말입니다.

불의가 법이 되었고, 주인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조국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일 매시간 경험합니다.

젊은 독일 노동자 거인은 피와 철의 힘으로 민족적 단결을 이룬 후 격렬하고 힘차게 일어섰습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창조적인 정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발명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독일의 기업가 정신과 대담함은 세계 시장을 정복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한 프랑스와 영국의 대부자본, 그리고 칸, 뢰브, 슈파이어 등 미국의 금융 거물들이 보유한 신탁 자본은 경악스러운 불안 속에 수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 즉 독일 제품의 품질과 저렴함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독일 마르크화가 언제 달러화 가치에 도달할지, 그리고 영국 세계 무역이 독일에 추월당할 때까지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일의 교통 시설, 교육 기관, 위생 시설, 도시 행정, 군사 방식이 모범 사례로 여겨졌고, 독일의 노동력 선구자로서 세계 곳곳에서 독일 엔지니어들이 철도, 교량, 도로를 건설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대출된 자본의 수익성이

전 세계적으로 국제 금융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국제 금융은 국제 프리메이슨의 도움을 받아 독일을 포위하고, 온갖 거짓말과 중상모략을 동원하여 독일을 세계의 적으로 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에드워드 7세는 이 체스 게임에서 단지 앞으로 밀려난 말일 뿐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독일에 대한 민족주의적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세계대전의 정치적 전사(前史)를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어쨌든 독일이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협상국들의 음모 게임에 대한 정치적 대항 게임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Rosenberg, International Freemasonry 68 참조).

독일에서 여전히 외국 정치 본능을 지닌 유일한 집단인 전독일인69조차도 무장 국가들 간의 이 격렬한 투쟁이 정치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일 노동자들을 국제 자본의 이권적 노예 제도에 재정적으로 종속시키려는 목표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독일에 대한 군국주의적 압도는 당연히 프랑스의 특별한 목표였고, 독일 해군의 파괴는 영국의 특별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이 두 제국주의적 목표 위에는 항상 국제 자본의 세계 지배를 향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족들이 격렬한 투쟁 속에서 서로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전장에는 가장 뛰어난 자들의 피가 흘렀지만, 온 세상의 유대인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온 유다에게 추수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세계 대전은 거액의 금융으로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유대인 기자들은 국제 언론의 편집실에 앉아 거짓말을 하고, 국가들이 서로를 상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노력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26개국이 중앙 동맹국과의 전쟁에 끌려들었습니다. 동쪽에서 동독 유대인들이 독일 영토로 흘러들어 왔습니다. 이들은 앞다투어 흥정하고 독점하며 부를 축적했고, 도시의 아파트를 차지하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군산복합체에서 독일 노동력을 약탈하고 부당하게 통치하는 일은 유대인들이 담당했고, 유대인들은 국가와 경제의 모든 직책을 맡아 힘겹게 나아갔습니다. 내부의 사기 저하 역시 유대인, 하아제, 디트만, 콘, 룩셈부르크, 바르트, 그리고 파르부스 헬판드, 아이스너, 레비엔스, 그라드나우어70에 의해 의도적으로 주도되었으며 , 이들은 야심 찬 사람들, 바보들, 권력에 굶주린 범죄자들의 지원을 받아 독일 국민에 대항하여 선동되고 부추겨졌습니다.

---

68 Alfred Rosenberg는 Das Verbrechen der Freimanrerei(1921)라는 제목의 작품과 Freimaurerische를 출판했습니다.
Weltpolitik im Lichte der kritischen Forschung(1929), Nationsozialistische Bibliothek 시리즈, vol.9.

69 독일 민족주의 연합(Alldeutscher Verband)은 1891년에 설립된 독일 민족주의 조직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이 협회는 독일의 팽창주의적 목표를 장려했고, 전쟁 후에는 사회주의자와 민주주의자들이 독일을 전쟁에서 배신("등에 칼을 꽂았다")했다는 에리히 루덴도르프 장군(1865-1937)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70] Hugo Haase(1863-1919)는 유대계 사회주의자로 1911년 독일의 August Bebel과 함께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화주의자라고 공언했고 1914년 7월에 거대한 반전 집회를 조직했습니다. Wilhelm Dittmann(1874-1954)은 1918년 2월 베를린 군비 노동자 파업에 참여하여 투옥된 SPD의 저명한 당원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1월 혁명이 일어나는 동안과 그 이후에 Dittmann은 독일 독립 사회민주당(USPD)의 당원으로 의회에서 활동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 디트만은 스위스로 도피했습니다.] 오스카 콘(1869-1934)은 스파르타쿠스 동맹의 창설자인 카를 리프크네히트와 함께 일했던 유대인 정치인이자 열렬한 시오니스트였습니다. 그는 스위스로 도피했습니다.

1933년 파리로 이주. 로자 룩셈부르크(1871-1919)는 유대계 마르크스주의자로, 리프크네히트와 함께 스파르타쿠스 동맹을 창설했고, 이 동맹은 결국 독일 공산당(KPD)의 전신이 되었다.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는 둘 다 1919년 자유군에 의해 암살당했다. 에밀 바르트(1879-1941)는 1917년 독립사회민주당(USPD)에 가입했고, 1918년 11월 독일 군주제가 몰락한 후 설립된 인민대표평의회(Rat der Volksbeauftragten)의 6인 위원 중 한 명이었다(다른 위원들은 SPD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필립 샤이데만, 오토 란츠베르크와 USPD의 하제와 디트만이었다).

Alexander Parvus(본명 Israel Helfand)(1867-1924)는 벨로루시 출신의 유대인 게토 출신으로 로자 룩셈부르크, 레닌, 트로츠키 등과의 다양한 국제적 접촉을 통해 "영구혁명"이라는 마르크스주의 전략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 터키스. 막스 레비엔(1885-1937)은 1913년에 독일 시민이 된 러시아 유대인 볼셰비키였으며

이렇게 독일 민족은 마침내 내부로부터 붕괴되었다. 유다의 별은 핏빛으로 붉게 떠올랐다. 국제 금융과 그 마법에 굳건히 저항했던 마지막 민족이 무너져 내리며, 무기를 내려놓고 베르사유의 명령이라는 무시무시한 멍에 앞에 머리를 숙였다. 수천 개의 상처에서 피를 흘리며 지도자를 잃은 독일 민족은 , 군주 들의 추방 때문이 아니라, 군주들이 진정한 지도자로서 완전히 실패했기에, 의회와 의회 정부에 의해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운명적인 선고, 즉 "더 나쁜 상황을 피하라"는 명언과 함께, 차용 자본의 이자 노예 상태로 이끌렸다.

1919년 4월, 레비엔은 또 다른 러시아계 유대인 KPD 당원인 오이겐 레바인(1883-1919)과 함께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비에트' 시도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대통령에 의해 진압되었고, 그는 뮌헨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자유군단을 동원했습니다. 레바인은 1919년 5월 자유군단에 체포되어 처형되었지만, 레비엔은 오스트리아와 소련으로 도피했고, 1937년 스탈린의 대숙청 당시 그곳에서도 처형되었습니다.

게오르크 그라드나우어(1866-1946)는 사민당(SPD) 소속 유대인으로, 작센 왕국 해체 후 작센의 초대 총리를 지냈습니다. 온건 사회주의자였던 그는 뮌헨의 에버트를 본받아 자유군단의 도움을 받아 라이프치히의 급진파를 진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선거에서 패배하여 1920년 사임해야 했습니다.

베르사유 독재령,
도스 협정과 영 플랜

세계대전의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근면하고 효율적인 국가였던 독일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 자리를 잃고, 군사적으로 압도당하고, 지도자를 잃고 거짓된 마르크스주의 교리에 유혹당하고 중독되었으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다시는 스스로를 없앨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파묻혔습니다. 독일은 영원히 국제 자본의 이자 노예로 봉사해야 했습니다.

런던 지불 계획에 따르면 독일은 관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1,320억 금 마르크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이 부채에 이자도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끔찍하게 심각하지 않고, 적들이 평화주의자들의 모든 상투적인 말과 정반대로 그토록 무자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합리성이 승리할 것이다". 아니!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금융은 독일을 이러한 이해관계에 계속 묶어두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오직 우리만이 스스로를 해방할 수 있다.

독일 민족의 깊은 비극은, 좁은 업무 범위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효율적이지만, 일상 업무의 한계를 넘어 거대한 세계적 사건들 앞에 시선을 돌리면 곧바로 불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이고 정확한 독일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경계를 잃고, 선견자이자 열정가가 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은 "독일 교수"는 세상의 일들에 직면하면, 우산을 잊어버리는 것부터 이념가들의 장황한 말투에 이르기까지, 희극지의 표적이 됩니다. 독일 장교는 자기 부대의 탁월한 효율성을 신뢰하며 정치적 본질의 영적인 불확실성과 사상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로 인해 최종적인 성공을 의심하게 됩니다. 독일 관리는 자신을 전체의 하인이 아닌 국민의 우두머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인의 성격에서 크고 작은 이러한 비참한 특징을 봅니다. 바로 전문가이자 몽상가라는 점입니다. 모든 특수 분야에서 어떤 민족보다 개인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근면하며, 어떤 위대한 아이디어에든 열광하고 영웅적인 용기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경제 및 정치 문제라는 여러 문제 속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내고 찾아내는 데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정치 분야에서 독일인의 이러한 근본적인 성격적 특징은 흔히 지적되는 민족감정의 부재와 정치적 무능에서 드러납니다. 일반 독일인은 어느 정도 대규모 질서 의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부채 수치가 진정한 자신의 운명이며, 이러한 수치, 즉 부채를 인정하고 이를 화폐와 물질적 재화로 갚으려는 의지와 시도가 독일 국민 전체의 절박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독일의 지불 의무의 수혜자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국제 금융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국제 금융에 있어 차입금 상환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이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무만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을 재정 부문에 명시한 국제 금융은 처음부터 기본 금액을 엄청나게 높게 설정하여 상환을 생각할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기본 금액이 결국 감소하고 (어쨌든 이자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에만) 독일은 영구적으로 이자율의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하고 근면한 국민들에게 이러한 이자 규칙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세계대전의 목표는 높은 수준의 재정 지원이었고, 이 목표는 완전히 달성되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관련 조항은 너무나 무섭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노력한 모든 것을 국제 금융의 손아귀에 넘겨주는 이 이자 규칙의 심각성과 파괴적인 엄격함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다음 발췌문에서 이를 인용합니다.

제231조. 연합국 및 연합국 정부는 독일과 그 동맹국이 전쟁의 발발자(!)로서 독일과 그 동맹국의 공격으로 인해 연합국 및 연합국 정부와 그 구성원들이 입은 모든 손실과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독일은 이를 인정한다(!).

제232조에서는 "독일의 자원이 이러한 모든 손실과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냉소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손실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제233조에는 "손해배상위원회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34조는 "배상 위원회는 독일의 지불 능력을 주기적으로 시험한다… 그러나 위원회에 대표되는 다양한 정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금액도 면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34조는 "독일은 배상 청구의 최종 금액이 결정되기 전에 … 금(금, 물품, 선박, 증권 또는 기타 방법) 200억 마르크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또한 부속서 II의 제12조 c항에 명시된 채권을 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베르사유 평화 조약 제8조 제12조 c항의 이 부속서 II에,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독일의 재정적, 정치적 교살이 아름답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제12조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조약에서 보장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위원회는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감독 및 집행 권한을 보유합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결정된 요구 금액의 전체 금액 중 금, 선박, 증권 또는 물품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불되지 않은 부분은 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독일이 해당 금액을 채권이나 어떤 종류의 채무로 이전하여 부채 금액을 인정해야 합니다.

b) 위원회는 독일의 지불 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독일 세금 제도를 검토하여, 우선 독일의 모든 수입, 국내 대출의 이자 및 부채 상환을 위해 결정된 수입을 포함하여, 독일이 명의 또는

배상금, 그리고 둘째, 독일의 세금 제도가 위원회에 대표된 다른 어떤 권력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정확히 (!) 억압적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단은 독일의 지속적인 억압에 악마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무제한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소규모 강도 국가를 언급하며 사실상 독일에서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채무 노예 상태에 처해야 한다는 점을 잔혹하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명 높은 문단 c가 등장합니다.

c) 연합국 및 관련국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제232조에 따라 독일로부터 1차 지급금을 수령합니다. 이는 독일의 책임에 대한 보증 및 인정으로, 소지자에게 금으로 지급되는 채권으로 구성되며, 제국 또는 독일 연방 정부가 도입했거나 도입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세금이나 부과금이 면제됩니다. 이 채권은 분할 지급되며, 아래 결정된 대로 3회 분할 지급됩니다. 1. 200억 금 마르크는 즉시 지급됩니다. 2. 400억 금 마르크는 1926년부터 상환 시 5% + 1%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는 채권으로 지급됩니다. 3. 400억 금 마르크를 추가로 5%의 이자를 보장하는 채권으로 지급한다는 서면 의무가 즉시 지급됩니다.

이 조항은 베르사유 조약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런던

최후통첩71은 지급액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총액을 1,320억 마르크로 정했습니다. 제16조는 "1921년 5월 1일부터 독일 정부는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5%로 설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제17조입니다.

제17조 독일이 조약의 이전 조항에 따라 부과된 채무를 이행하는 데 늦어지는 경우, 위원회는 모든 참여국에 이러한 불이행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동시에 이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를 제안한다.

이제 조약 전체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조항 중 하나가 이어집니다.

제18조. 독일은 연합국 및 연합국이 독일의 고의적인 (!) 불이행에 대해 취하는 조치가 정당하다고 (그리고 적국의 눈에는 무엇이 정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것인가?) 해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입 금지, 경제 및 금융 제재, 그리고 일반적으로 (!) 관련 정부가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모든 조치 (!)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든 테러, 심지어 가장 잔인한 테러에도 문과 관문이 열리게 되었으며 독일 정부는 더 나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서명했습니다.

---

71 1921년 1월 연합국 배상 위원회가 독일이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2,690억 금 마르크로 정한 후, 영국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1921년 5월 5일 런던 주재 독일 대사에게 6일간의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독일이 1,320억 마르크(1월의 2,690억 마르크와는 다소 다른 계산)의 상환을 인정하지 않고 베르사유 조약의 다른 조항도 준수하지 않으면 연합국이 루르 지역을 점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극심한 억압, 독일인 학살, 가장 잔혹한 추방, 약탈, 파괴 등을 "적대적 처우"로 규정했습니다!

독일 국민이 잔인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무자비한 적에게 보내는 이 서면 전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영원히 구상된 바에 따르면, Art.23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독일과 동맹국이 본 조약의 이행을 위해 납부해야 할 모든 금액을 지불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해산되며, 이러한 모든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참여국에 분배됩니다.

이것이 독일의 영원한 이익 노예제도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정치적 친구들과 적들은 이제 이자가 노예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끔찍한 이자가 노예제의 폐지가 우리 요구의 핵심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이 요구가 왜 국제적인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에게는 단순히 운명의 문제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회복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국제 문제에 비하면 다른 모든 문제는 무의미합니다. 이자 노예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서는 생산적인 국가의 부상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시작된 이자 노예 제도가 유지된다면, 맘몬 신이 왕좌에 올랐을 것입니다. 신은 죽고, 민족의 영혼은 죽고, 인간들은 국제 금융의 이자 노예로서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규정은 1924년 도스 조약으로 대체된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후, 이제 독일에 대한 추가적인 약탈은 "더욱 견고한 토대 위에서"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금융의 발달로 온갖 종류의 보장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한 것은 제국은행과 제국 철도의 국유화 해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빛 구름" 예언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는 계속 붕괴되었고, 도스 조약에 따른 지불의 불가능성은 결국 맹목적으로 맹렬히 반대하는 가학주의자들조차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도스 조약을 대체하여 영 플랜(Young Plan)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제 그 끝은…

오다.

국가사회주의 도서관(National Socialist Library)의 『도스 협정의 공포에 관하여』(On the horrors of the Dawes Pact) 제7권(정가 1.80마르크)은 원문의 재인쇄본과 포괄적인 비평을 수록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시리즈의 제13권은 청년 계획(Young Plan)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대출 경제

"국가에 돈이 필요하면, 스스로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국민에게서 빌려야 합니다. 국가는 당연히 이 돈을 돌려받을 때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는 이미 빚을 갚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베를린에서 저와 함께 토론할 때 전직 사회당 장관인 데이비드72 박사가 사용한 것입니다 . 제가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여기에 제시한 이유는 우리 시대의 흥미로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모범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마르크스주의자였다는 점이 이 글 전체에 특별한 매력을 더합니다.

이제 저는 수백 건의 토론과 강의를 통해 위의 공식이 현재의 이자 자본주의적 사상에서 완전히 유래한 것이어서 국가의 이자와 부채 경제에 대한 이 설명이 거짓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간단한 심리적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자-자본주의 경제 형태 내에서 개인의 화폐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적 인간에 대해서도, 일반 사적 경제에 대해서도, "누군가 돈이 필요하다면, 그는 자신이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 한다"는 문장은 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 재정 경제 문제에 대해 사적 자본주의적 관점이 아닌 정치가적 관점에서 답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적 경제 사고방식을 아무런 의심 없이 국가 경제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권력의 도구인 주권을 가진 국가는 결코 어떤 평범한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주권을 통해 자신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 주권, 화폐 주권 , 그리고 금융 주권입니다.

복무 주권이란 국가가 시민들에게 무상 복무를 요청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개인에 대한 국가의 이러한 주권은 의무 복무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며, 전시 복무에서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전시 국가가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에 직면하여 모든 사적인 고려 사항은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국가가 아들들을 국기에 부르면 가족, 직업, 사업, 수입 등 모든 것이 침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시민들을 전쟁 복무뿐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사업에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조 복무법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보조 복무법은 군 복무와는 정반대로 수행된 복무에 대해 높고 계속 증가하는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조국을 위해 매일 무보수로 목숨을 바쳐야 했던 전선 병사들과 고임금으로 전선 뒤에서 보호받으며 고국에서 복무하는 병사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덧붙여, 다른 나라들이 군 복무 의무를 바탕으로 강력한 성과를 낸 사례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것과 중세 도시들을 성벽으로 둘러싼 것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그것은 국가의 주권에 완전히 속하게 될 것입니다.

---

72 에두아르트 다비드(1863-1930)는 1919년 6월부터 10월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내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기존 병력을 처분하고 기존 병력과 팀 서비스를 부활시키고 확장하며 , 이런 방식으로 기존 병력과 함께 대규모 경제적 과제를 해결합니다.

국가의 주화 주권은 국가가 화폐 수요를 직접 충당할 수 있는 두 번째 권력의 원천입니다. 아무도 국가의 주화 주조권이나 국채 발행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국가는 주권 덕분에 가능한 모든 자원에서 화폐를 생산해 왔습니다. 구리, 니켈, 철, 도자기, 알루미늄,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이에서 말입니다. 우리 제국 정부가 매일 100조 마르크를 발행하고, 그 이상의 지폐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겼던 때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것이 옳고 용납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가는 주화 주권을 통해 실제로 필요를 충당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가진 시민들에게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점만 언급하면 됩니다.

국가의 재정 주권 이나 조세 주권 역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행관의 형태로 국가의 권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 주권 또는 조세 주권, 즉 국민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국가 구조만큼이나 명백하고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또한 가장 자연스럽고 건전한 형태입니다. 비록 이 분야에서 합리적인 과세의 의미를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으로 바꾸고 조세 제도를 초국가적 금융 권력을 위해 국민을 완전히 약탈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여기서도 세금 허용 여부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고, 국가가 세금을 통해 화폐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만 다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방식은 사적 경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자본가에게 이자 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가 화폐 수요를 충당할 필요성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물론, 모든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부채를 져서 자신의 필요를 충당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가능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에게는 이미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에게는, 이를 쉽고 간결한 독일어로 표현하자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공동 이익의 수호자라는 국가의 사명과 관련하여 명백히 범죄적인 행위입니다.

국가의 대출 경제는 국가를 사실상 파멸시키고 국제 금융의 손에 넘겼으며, 국가의 부를 금융 강국에 넘겼습니다. 오늘날 국가 대출은 국가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무서운 흡혈귀이며, 우리가 이자 노예 제도를 단호히 종식시키지 않으면 국가는 무력하게 붕괴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국가 재정 정책이라는 분야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고, 따라서 일반 독일인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숫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국민은 일반적으로 예산 토론을 읽지 않으며, 재정 예술의 비밀스러운 경로와 오도된 방식에 대한 종교적 존경심을 품고 있기에 이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는 모든 개인이 국가의 조세 주권에 대해 그토록 미미한 감정을 품고 있으며, 아무도 숫자를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도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은 세금 서류가 집으로 날아와야만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신이 항상 온갖 종류의 잘못된 국가 재정 정책의 희생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73 중세 시대에 영주들이 농부들에게 요구했던 수동 또는 동물을 이용한 농업 서비스

이제 국가 재정 정책의 문제가 첫눈에 보기에 그렇게 불투명하고 신비롭지 않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사실,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매우 명확하고 간단해서 적어도 대략적인 윤곽선으로는 모든 평균적인 이해력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화폐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전술한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는 거창한 헌법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국가의 봉사 주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자신의 삶에서 경험해 왔고, 모든 사람이 매일 국가가 발행하는 지폐를 손에 쥐고 있으며, 누구도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 세 가지 방법으로만 화폐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는 이 세 가지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일을 시키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데 성공할 수도 없고, 스스로 돈을 찍어 유통시키려 해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빚을 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게는 이자를 받고 빚을 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일반적으로 이자가 붙는 대출, 즉 빚을 받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은, 국가가 돈이 필요할 때 다른 주권적 권리를 국민에게서 빚을 징수하기 위해 은밀하게만 행사할 때에만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아무리 찾아봐도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없으며, 국가 재정 정책 문제에서조차 우리의 사고 전체가 사적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향하거나 타락했다는 사실만이 설명할 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여론 오염 속에서,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의 대출 정책에 대한 겉보기에 논리적인 설명은 매우 중요하고도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은 이러한 문제에서도 심리학의 달인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직접적인 부패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항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 추정은 자명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패는 없었고 금융 및 신용 시스템 문제의 불확실성, 근시안적 사고와 안일함만이 국가 재정 행정부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채의 광기에 빠지게 했으며, 지금까지도 그 광기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처음에는 철도 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이 대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처음에는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철도나 수로 건설 수익에서 이자를 즉시 충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자체 재원으로는 이처럼 대규모 사업을 국고에서 한꺼번에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 지원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로써 정부는 주 의회에서 새로운 세금을 승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국가의 유동 자산을 요구하지 않으며, 철도는 잉여금에서 이자를 쉽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빼앗아 이자를 추가로 지불하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는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차관 자본의 매혹적인 술책은 흑자를 백자로 만들고 국가를 사적 자본의 이자 징수원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의식하는 정부나 의회의 가장 단순한 경제적 성찰조차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어야 합니다. 외국 돈으로 철도를 건설하고 매년 5%의 이자만 내고 모든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20년 후에 이미 전체 금액을 40년 만에 갚아야 합니다.

이미 두 번이나 갚았지만, 여전히 같은 빚이 남아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의 몇 배를 넘는 이 엄청난 액수는 다시 한번 국민, 즉 전체 국민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조달되어야 하며, 국민은 이 이자 금액에 따라 정확히 인상된 철도 운송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대규모 철도 부담금을 한 번에 발표하는 것이 더 나았거나, 더 나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면 이러한 부담금은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억압적이었을 것이지만,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운송비와 철도는 머지않아 국가의 진정한 무부채 자산이 되어 나중에 막대한 연간 수입을 보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 꼬리를 조금씩 잘라내는 것이 훨씬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개의 꼬리를 조금씩 잘라내는 것이 낫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물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사업의 투자 비용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지만, 만약 차입으로 개발한다면 필연적으로 수년에 걸쳐 부채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사업에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순전히 재정적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미 여기서 우리는 국가를 차입의 광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그러한 생산적인 사업을 위해 신용 어음, 즉 국가 재정 신용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사업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아무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토큰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가 화폐를 창출한다면, 모든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되고 국가와 국민은 민간 자본에 대한 이자를 낳는 부채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곳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재정 행정이라면 이처럼 대규모 사업이 특별세와 국가의 다른 세입원을 활용하여, 그리고 신권의 일부만 발행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조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모든 다른 국가 지출, 특히 행정, 사법, 교육 등 소위 비생산적인 지출을 국가 상업 기업의 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때에만 상당 부분 실현될 것입니다.

철도, 우편 등의 현재 광란적인 적자 경제를 고려하면 이는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이미 1919년 쥐트도이체 월간지 (Süddeutsche Monatshefte) 2월호에 처음 기고한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급진적인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밝혔듯이,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민간 자본에 대한 이자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만이 우리를 이러한 이상적인 국가 금융 경제 조건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당시 이미 만연했던 망상, 즉 국가가 돈이 필요할 때 이자를 붙여 돈을 스스로에게 주입해야 한다는 망상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국가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외국 자금, 즉 빚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며, 모든 사람이 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는 노동과 팀워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 재정 신용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정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처음부터 모든 이자와 통행료 의무로부터 해당 사업을 해방시키는 엄청난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업은 즉시 무상 무부채 국가 재산이 될 것입니다. 사업 수익금에서 발행된 국가 재정 증서는 실제로 단기간 내에 상환 및 폐기될 수 있으며, 사업의 생산물, 즉 화물 및 여객 운송료는 상당히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국민 경제에 가장 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는 전체 국민 공동체에 가장 유용했을 상당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 자체를 고액 재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주인은 국가이지 고급 금융 기관이 아닙니다. 즉, 미래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은행들이 이러한 명백하고 자명한 사고 과정을 허용하지 않고, 한 번 표현되면 더 이상 모순되지 않는 사고 과정을 허용하지 않고, 위에서 인용한 문장으로 국가와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자본에 대한 이자 노예 상태로 끌어들인 것은 실제로 심리적 사기 수법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독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건전한 인간적 이해를 불신하고 그러한 불합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믿고 싶어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었을 리가 없어. 하지만 나는 판단할 수가 없어."라고 추측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정치 문제에 있어 국가의 명백한 무능에 대한 판단력 부족을 고백하는 것은 국가 조치에 대한 뻔뻔스러운 비난과 비난, 그리고 이 문제가 모든 사람의 지갑을 가장 예민하게 두드리는 문제라는 사실과도 모순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고려할 또 다른 관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방 또는 제국 의회를 통한 신용 승인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국가 과제는 실제로 의회에서 철저히 심의됩니다.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대출금이 "승인"됩니다. 일반 국민은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실제로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가 이미 승인된 수백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꽤 똑똑한 사람들은 아마도 귀를 긁적이며 "또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는군"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입문자들을 제외하고는, 의원이나 장관이 소속될 필요가 없는, 아니 기껏해야 한 명 정도만, 지방 의회나 제국 의회의 이러한 대규모 대출 승인이 단지 이 "대출금"을 다른 방식으로 이자를 붙여 대출받을 수 있는 허가를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이 "의회를 통한 대출 승인"은 ⁻ , 관련 장관에게만 대형 은행에서 이자를 붙여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통한 신용 승인"은 자연스럽게 희극, 희극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본과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전체 국민은 실제로 "신용"을 공급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먼저 대규모 대출 자본으로 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은 의회를 통한 신용 승인의 경우, 동시에 자동으로 이제 국가은행도 시행 당국의 지급 명령에 따라 관련 기업에 승인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승인한다는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필요한 통화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흔한 일인 것처럼 먼저 대출을 갚은 다음 자본가들이 방금 "승인된" 대출을 두 번째로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국가의 잉여 자금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인출되고, 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신용 관리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어떤 은행 전문가도 반박할 수 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음과 대출금 상환액 중 현금으로 지불되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찾아온 소액 저축자들이며, 이들은 수백 마르크 또는 수천 마르크를 저축하여 이제 이자 증서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 증서의 가치는 매년 한 장만 잘라내면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마법의 종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은행에 들어오는 자금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자금이 예치된 은행들은 이러한 현금 금액을 국고에 전혀 이체하지 않고, 그러한 어음 금액의 이체는 오로지 이체 또는 청산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에 대한 모든 대규모 인출은 처음부터 자본가에 의해 현금 없이 또는 은행 거래 과정을 통해 은행에서 이체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등.

따라서 실제로 국가는 현금을 손에 넣지 않으며, 현금을 받더라도 즉시 사업 집행을 위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된 이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는 대출 금액에 대해 소위 담보 증서 또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러한 국가 채권은 정교하게 인쇄된, 또는 정교하지 않게 인쇄된 종이로, 수령 금액에 대한 모든 국가적 보장이 부여된 채무 증서이며, 추가로 이자 지급일에 대한 필요한 결정과 국가가 자체 쿠폰 용지에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별로 쿠폰 용지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쿠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쿠폰 시트에는 소위 갱신 증명서(탈론)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첫 번째 쿠폰 시트가 일정 기간 후에 만료되면 새로운 쿠폰 시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자본과 이자에 대한 모든 재산을 책임지는 이러한 증권은 국가가 발행하는 것으로, 소유자에게 구매력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국가 증권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이 증권으로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증권을 직접 지불하든, 증권거래소나 은행에서 증권을 먼저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든 말입니다.

이제 국가가 새로운 증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구매력 창출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이것이 옳은지 정당한지는 지금 당장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새로운 지폐를 발행한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차이점은 한 경우 국가에 부채 외에도 지속적인 이자 부담을 지우는 증권을 발행하는 반면, 새로운 지폐 발행의 경우 이자 부담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후자의 형태가 국가와 국민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자금 조달 방법을 더 따라가 보면, 대출 경로를 피하면서 대규모 국가 사업에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채택된 국가 사업 자금 조달 방식이 추가적인 구매력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새로운 담보 증서 발행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새로 건설될 철도, 수로 등이 아직 건설 단계에 있고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당연히 신규 대출 금액 전체가 한꺼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방식으로 이처럼 대규모 국영 사업에 자금을 조달한다면, 대출에 드는 막대한 광고 비용은 우선 사라집니다. 신문 광고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금액이 낭비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 은행과 기타 신용 기관에 부여되는 이자는 처음부터 사라집니다. 이 이율마저도 수백만 마르크에 달합니다. 더 나아가, 액면가 이하로 대출을 발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00마르크 채권의 경우, 이 채권 매수자는 970마르크 정도만 지불하면 되지만, 이자는 전액을 이자와 함께 받게 됩니다. 이마저도 처음부터 손실입니다.

국가나 기업에는 부담이 되고 자본가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러한 대출을 다른 매력으로 "장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권 거래소에서 말하듯이, 세금 면제를 포함한 특별 추가 혜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가 지금까지 보여준 가장 환상적인 매력을 보여준 광산 프리미엄 대출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복권과 도박의 악마가 대출 광고에 등장했습니다. 1,000마르크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여 수백만 달러의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위 보너스 지급이 이루어졌고, 5%의 금리가 공표되었지만, 조항을 통해 헤지되었고, 일련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저축 프리미엄 대출은 모든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보험료와 혜택, 그리고 엄청난 복권 당첨금을 지불할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모든 돈이 다시 한번 국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받은 돈은 가장 긴급한 지출에 즉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에 대한 재정적 정치 범죄이며, 이러한 범죄들이 얼마나 극심한 무례함으로 연출되는지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입 방식을 전혀 택하지 않고 직접 화폐를 창출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국가 예산의 이 모든 어렵고 부당한 부담이 사라질 것입니다. 필요한 금액을 한꺼번에 새 지폐로 조달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이는 새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 매우 천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상당한 규모의 사업이 완료된 후에야 새 화폐가 지급될 것이므로, 미지급 화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 가치를 통해 완전히 보장된 화폐, 즉 안정적인 화폐, 즉 오랜 시간 동안 수행된 노동에 상응하는 화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건설용 신규 화폐의 연속 발행 형태조차도 결코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새로 발행된 지폐는 실제로 다시 국고로 유입되기 때문에 새로 발행된 지폐와 동일한 금액을 유통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폐를 유통시킬 필요 없이 다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특별한 국가적 목적을 위해 자체적으로 신규 화폐 발행을 선언해 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건설을 위한 자체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허용 가능성, 특히 명확성을 잘 설명할 수 있고 특정 목적을 위해 이를 고수하고자 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본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과제로 간주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국가 사업에 대한 완전한 무현금 자금 조달 입니다 . 앞서 이미 밝혔듯이, 국가가 대출을 통해 철도 또는 발전소 건설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현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들은 현금으로 작업 대금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매주 은행에서 인출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이나 제국은행 등의 국고채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수요를 다시 한번 충족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기존 유동성만으로도 전체 근로자의 주간 임금 지급에 충분하며, 예를 들어 바이에른 발헨제 발전소 건설을 위해 대규모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관한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곳에 고용되지 않았다면 다른 기업에 분산 배치되어 있더라도 주간 임금을 기대하고 받아야 하거나 실업 보험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지급 수단에 대한 총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국가적 과제임을 의미합니다.

경제는 대규모 국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 장소에 더 많은 노동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임금 지급을 위한 지불 수단의 제공과 기업가에 대한 기타 비현금 이체의 실행은 지불 거래의 업무이며 신용 상황과 인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국민의 합법적 대표를 통해 대규모 국가 사업에 대한 신용 승인을 받는 동시에, 국가은행이 승인된 신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급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급은 다양한 계약 국가 당국(농업부, 도로 및 하천 공사부, 철도 건설부, 특수 목적 부서 등)이 사업주가 요구한 지급 금액을 검토하고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지급을 승인한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대출 사기는 – 이는 국가를 속이는 현대적 형태에 불과하지만 – 완전히 쓸모없고 해로울 뿐입니다.

라이히스방크 주식회사

라이히스방크는 모든 속기 쉬운 국민이 결국 믿고 있듯이 진정한 국립은행이 아니라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라이히스방크는 1922년 6월, 협상국(Entente)의 요구에 따라 완전히 "자율화"되기 전까지 국가가 특정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코 국가 기관이 아닙니다. 은행 임원들조차 제국이 임명하고 급여를 지급했지만, 자문 위원회는 대형 은행계와 국제 유대인계 대표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이 둘은 같은 계층입니다.

1873년 설립된 최초의 자문 위원회에는 약 15명의 위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작 로스차일드, 상무부 장관 블라이히뢰더, 상무부 장관 멘델스존, 테오도르 플라우트, 상무부 장관 오펜하이머, 상무부 장관 바르샤우어, 상무부 장관 츠비커, 상무부 장관 스테른, 상무부 장관 겔프케; 순종적인 큰 유대인 11명과 장식으로 독일 이름을 가진 신사 4명이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에게 조언하는 은행가 블라이히뢰더가 옛 제국재상에게 제국은행을 순수한 국가 기관으로 발전시키지 말라고 권고한 것도 역시 영리한 체스 수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유재산의 안보에 근거하여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적이 제국은행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순수한 국가은행으로 발전시키면 적의 공격에 즉시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영리한 유대인은 다른 거대 금융가들과 마찬가지로 제국의 주요 금융 기관을 자신의 권력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신사들은 이것 역시 성공했고, 제국은 이로써 주화 주권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지폐 발행권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라이히스방크는 오늘날 독일 제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무서운 결과를 놓고 볼 때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 위치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개별 조사의 과제는 대형 은행들이 라이히스방크 설립 이래로 자신들이 행사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오용했는지 정확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비스마르크가 재임하는 동안 그의 정치가다운 견해와 그에 대한 존경심은 증권거래소의 하이에나들을 통제했습니다. 라이히스방크 역사상 비스마르크가 라이히스방크법에 규정된 총리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단 한 번뿐인데, 바로 러시아 주식의 인수를 금지했을 때였습니다. 오늘날 라이히스방크는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국제 은행가들의 우호적인 압력에 힘입어 완전히 독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라이히스방크 정부는 더 이상 사업 운영에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이자 노예제는 은행과 증권거래소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이자 노예제를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날 국가와 경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즉 모든 것이 생산적인 노동에 대한 대규모 자본의 이자에 대한 요구로 변합니다. 철도가 건설되면 차관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하면 전쟁 차관이 발생하며, 천연자원이나 수력발전소가 개발되면 수력발전 차관이 발생하고, 공장이 확장되면 신주가 발행되고,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면 어떤 형태의 이자 자본주의적 회사 형태가 선택되어 노동과 위험이 기업가에게, 이익의 대부분이 금융가에게 흘러가도록 합니다. 만약 더 이상 차관을 통해 진행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간단하고 더 많은

1923년 인플레이션 당시처럼 대규모 화폐 발행 방식이 선택되었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대규모 자본의 최대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용담에 나오는 미다스 왕이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했듯이, 오늘날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자가 붙는 증권으로 변합니다.

안타깝게도 세계 은행가들은 엄청난 식욕을 가지고 있고, 증권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며, 이는 분명 그들에게 아주 잘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미다스 왕처럼 굶주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의 입 속 음식마저 금으로 변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이자율 주인들보다 먼저 굶주릴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규칙을 포기하거나 완화하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으므로 이 이자 규칙은 깨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반인에게도 자본주의적 이자착취의 그림을 완성하고 마무리해 줄 세 번째 측면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재정적 정치적 비참함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인플레이션 모든 사람, 즉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서운 정도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수많은 설명이 쏟아지는데, 일부는 답변자의 편협한 관점에서, 일부는 선동적 슬로건 사전에서 따온 것이며, 일부는 실제 부분적 원인을 제시하지만 궁극적인 동기를 정확히 짚어내지는 못합니다. 여러 정당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을 듣다 보면, 어느 쪽이든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을 사회 질서나 직업은 곧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자 노예제에 대한 책의 설명을 따라온 사람이라면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초적인 책임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이자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이자-세금-인플레이션, 이렇게 논리적 체인이 실행됩니다.
국가가 파멸적이고 터무니없는 이자 약속을 내세우면서, 국가는 세금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인 이자 의무를 강제로 떠안게 됩니다. 세금,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가장 불쾌한 간접세인 미공개 지폐 발행세까지, 국가는 이 세금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국가의 지출을 더욱 증가시키는데, 국가는 대출의 광기에 갇힌 채 새로운 부채를 갚는 것만이 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부채는 그 자체로 새로운 이자를 낳고, 새로운 이자는 새로운 세금을 필요하게 만듭니다. 세법은 점차 완전히 실패합니다. 이러한 통화 붕괴의 경우, 모든 세수입은 통화 평가절하보다 훨씬 적고, 이제 국가는 1923년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끔찍하게 경험했듯이 화폐 발행의 금융 볼셰비즘에 아무런 저항 없이 굴복합니다.

저의 초기 논쟁적 저작들은 주로 이러한 연관성을 밝히는 데 전념했습니다. 이자 노예제 타파를 위한 선언 74에서 저는 국가 파산에서 이자 문제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해결책을 통해 국가 차관 제도의 어리석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대중의 생계를 더욱 비싸게 만드는 수많은 세법을 지적했습니다. 대중의 생산물은 전적으로 이자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1920년과 1921년의 새로운 세법 홍수와 1918년 제국예산과 함께 다가올 조세 파업을 다룬 저작에서, 제국과 주의 전체 재정 행정이 대규모 차관 자본을 위한 이자 서비스에 완전히 묶여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책에서는 이미 매우 명백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완전히 비참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국가 경제가 종이 돈으로 범람하면서,
이 지폐의 구매력은 꾸준히 감소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은 가장 내적인 성격으로 수행된 작업의 표시이므로 적어도 본질적인 특징에 있어서 소위 화폐수량설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74 잠재 구매력은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저축된 구매력입니다. 여기에는 비축된 현금과 확고하게 투자된 저축 자본이 포함됩니다.

실효 구매력은 현금 형태로 국민 경제에 대한 모든 수요 청구의 총액입니다.
또는 증권의 형태로 상품시장에 적용되어 물질적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잠재적 구매력은 언제든지 효과적인 구매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목표로부터의 도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 이론은 구매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국민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화폐는 어느 정도 재화 재고량에 대해 존재하며, 재화의 양으로부터 계산된 관습 통화의 가치 단위의 일정 수, 즉 재화의 평균 가격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저는 '평균'이라는 형용사를 매우 강조합니다. 사실, 더 나아가 평균 가격 수준(즉, 개별 가격의 양은 결코 아님)은 국가 전체의 총 구매력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력은 이미 현금 자산의 양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제적인 세부 사항에 너무 깊이 파고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구매력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 유통 화폐량이 천 배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약 천 배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상승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마르크의 구매력이 화폐량의 증가에 반비례하여 감소했을 뿐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국가의 이자 부담입니다. 이 이자 부담은 세금을 필요하게 만듭니다. 국가는 국민에게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징수해야 할 만큼만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시민을 강탈하는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세나 간접세, 또는 특수 간접 형태의 인플레이션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형태는 가장 불쾌한데, 파산한 국가들이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장 완벽한 위조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형태는 특히 더 해롭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근면한 계층의 저축 자산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독일 국민의 비극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 중 하나입니다. 수십만 명의 근면한 육체 노동자, 직원, 공무원, 자유 직업 종사자, 의사, 엔지니어 등이 평생 끈기 있고 지치지 않는 노동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저축하여 돌봄 없이 독립적인 노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1페니, 1마르크씩 저축을 모았고, 모든 마르크는 노년의 매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사람들이 저축을 위탁한 국가는 1923년 인플레이션 당시 어떤 방식으로든 저축으로 위탁받은 마르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저축된 페니가 반짝이는 금화로 예치되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약 3천만 파피에르마르크75였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스스로 초래한 화폐 가치 하락을 이용하여 "1마르크 = 1마르크"라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모든 사람들은 평생 노력의 결실을 앗아가고 극심한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한심하고 비참한 구호품으로 속여넘겼고, 민간 자선 단체가 도움을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형태는 피해자들에게 특히 수치스러웠습니다. 민간 단체의 손에서 나온 이러한 선물은 사실상의 구호품, 즉 자선적인 선물로 남았고, 이 불행한 사람들은 이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마땅히 얻어야 할 권리를 조직적으로 강탈한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설령 그 권리가 회복된다 해도 강탈당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

75 파피에르마르크는 1914년 8월 마르크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제정되었고, 금 마르크와 금 사이의 연계는 사라졌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은 1923년 11월 1조 파피에르마르크 규모의 새로운 렌텐마르크 발행 발표를 통해 통화가 안정될 때까지 계속 상승했습니다. 1924년에 발효된 렌텐마르크는 같은 해 말 라이히스마르크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글에서 잘못된 원칙, 즉 자본 연금이라는 이상이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복수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계층이 이러한 운명을 마땅히 받아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국가는 이러한 약탈당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보상하는 것이 명예로운 의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교훈이 국민의 무의식 속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자본 연금이라는 이상은 가라앉아 올바른 저축 이상, 즉 노후 보살핌, 자기 집, 밭, 정원 등을 마련하여 여성과 아동을 돌보는 순수한 독일식 이념이 돌파구와 승리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가 시민을 착취하는 두 번째 형태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는 그 결과로서 실로 사회적 범죄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형태로, 무자비하고 끈질기게 대다수 국민에게 엄청난 가혹함을 안겨주는 반면, 부유층은 간접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직접세는 납세자의 경제적 성과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면 그 자체로 정의롭고 정당한 세금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에 대한 국가 기여금으로서 직접세는 어떤 경우에도 생산 비용을 본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세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생활필수품을 충당할 수 없는 실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직접세를 취급하는 방식은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강도 행위에 해당하며, 바이마르 헌법 153조에 명시된 재산권 보장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요약하자면,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국제 금융에 이자 의무를 지는 데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국가가 세금 징수 기관 역할을 하는 초국가적 금융 권력을 위해 우리 국가의 경제 주체가 지속적으로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매우 특별한 형태의 인플레이션, 즉 이자 자본주의적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연적 인플레이션은 수확량이 부족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하여 자연적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항상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다음 해의 풍년이 되면 이러한 어려움은 사라지고 가격은 자연적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자 자본주의적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의 보물을 모두 소모하고 전 인류를 국제 금융의 이자 노예로 만들 때까지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과 같습니다. 혹은 이자 노예 상태가 깨질 때까지 말입니다.

국가 재정 개혁

우리 주 재정의 질병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받은 후, 우리의 재정

전반적인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치료법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래 형태로의 전환을 규제하는 규정과 조치는 이 연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가능한 한 경제 생활의 모든 교란을 피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지침이 유효합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어느 정도의 심각성과 일시적인 개입 없이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중하게 준비된 수술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출혈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빛나는 최종 목표는 관심의 속박을 깨는 것입니다.

국가 금융 시스템을 사립 기관인 Reichsbank, plc에 양도한 결과로 나타난 첫 번째이자 기본적인 조치는 Reichsbank의 국유화입니다.

이 은행의 규모만 봐도 "라이히스방크"는 라이히스포스트(Reichspost)나 라이히스코트(Reichscourt)처럼 제국의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라이히스방크(Reichsbank, 사진)가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라이히스방크의 임무는 이중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제국의 금융 사업을 담당해야 합니다. 단, 우편이나 철도처럼 개별 행정 직책만으로는 이러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급 거래의 수탁 중개에서 국가 경제 전체의 든든한 기반을 형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라이히스방크의 임무는 통화 거래를 위한 충분한 현금 자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 범위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 행정의 집행 기관이 되어야 하며, 이 기관은 전적으로 국가 재정 행정의 산하에 있어야 합니다. 라이히스방크의 임원은 다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유대인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는 당연히 완전히 불필요합니다. 국가가 은행의 재정 운영을 감독하는 특별 국가 위원을 임명하고, 이 위원이 은행의 재정 운영을 책임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은행의 업무는 자체 라이히스방크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며, 따라서 은행의 재정 운영은 라이히스방크가 오로지 국가 이익에만 기여한다는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라이히스방크에 대한 이러한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은행 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에른 국립은행입니다. 바이에른 국립은행은 사실상 순수한 국립은행이며, 누구도 이 은행이 은행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이의 없이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자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운영되었다는 단서가 따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은행은 은행 자본의 수익성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지 않고 통화 거래에만 전념했습니다. 따라서 800만 마르크라는 극히 적은 자본금으로도 모든 통화 거래 요구를 충족하고 수십억 마르크의 수익을 관리할 수 있는 매우 놀라운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1914/15년 자본가와 주주를 위한 핸드북인 Saling's Stock-exchange Yearbook(증권거래소 연감) 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것은 흥미롭지 않습니다.

독일 은행), 이 바이에른 국립은행(당시에는 "왕립 바이에른 은행")의 존재는 이 중요한 국가 기관에 대한 안내서 644페이지에 언급할 기회와 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적 자본주의적 목적에만 전적으로 봉사하지 않는 은행은, 고급 금융의 관점에서는 명백히 은행이 아닙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전쟁 직후와 뮌헨 볼셰비키 정권 시절, 바이에른 국립은행을 "더 넓은 기반"으로, 증권거래소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처럼, 민간 자본의 "수익 창출"을 위해 이 독립적인 기관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바이에른 국립은행에서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은행을 국가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반론은 이로써 반박됩니다.

라이히스방크 자체에 대해, 라이히스방크법은 사실상 국유화를 제안했는데, 이에 따라 제국은 1년의 통지 후, 1891년 1월 1일 처음으로, 그 후 10년 간격으로 라이히스방크를 폐지하고 순자산가치를 지불하고(!) 라이히스방크의 자산(엄청나게 고가의 건물 포함)을 인수하거나, 모든 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1921년 1월 1일, 제국이 라이히스방크의 전 재산을 180만 파운드(라이히스방크 주식의 액면가)에 인수한다면, 제국 입법의 중대한 오류를 독일 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Völkische Beobachter 와, 당시 국가사회주의의 지식인 선구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끌고 있던 Sch. 박사의 주간지.

독일 금융가 푸도르는 이 점을 지적했지만, 당시 독일 신문 중 유일하게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이었기에 당연히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라이히스방크 주식이 실명으로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153명의 외국인이 라이히스방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13년 기준으로 이 2,153명의 외국인이 라이히스방크 전체 자본 중 얼마를 처분했는지는 안타깝게도 라이히스방크 공시 자료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내 주주 수가 16,646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내 주주들의 경우, 훨씬 적은 금액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분명하지만, 외국인이 독일 라이히스방크 주식을 매수할 때 한두 조각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쟁 중에도 "독일 라이히스방크"에서 상당한 금액이 배당금 형태로 외국으로 유출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감춰줍니다.

이제, 위에서 배웠듯이 어음 할인에서 주요 수익을 얻는 라이히스방크의 이익 분배는 매우 독창적입니다. 먼저 주주들은 3.5%의 우선 배당금을 받고, 나머지 이익의 4분의 1이 주주들에게 분배됩니다. 이 남은 이익의 4분의 3은 제국으로 이관되고, 나머지 10%는 예비 기금으로 이관됩니다. 1913년에는 31,025,555마르크가 이러한 방식으로 제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국은 이 놀라운 기관에 소위 은행권 인쇄 특권, 즉 거래 필요에 따라 은행권을 발행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전쟁 발발 전까지 라이히스방크는 적어도 이러한 은행권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또는 외국 주화 또는 금괴 형태로 최대 3분의 1의 금이나 은을 비축해 두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한마저 사라지자, 무제한적인 지폐 발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이히스방크가 지폐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훌륭한 라이히스트레아주리(Reichstreasury) 지폐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또 다른

그 뒤에는 파산 국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 통화의 멈출 수 없는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국유은행이 지불수단에 대한 경제의 요구가 충분히 충족되도록 항상 주의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이 모든 요구 사항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더라도 여기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화폐 부족을 근거로 한 이자 강탈이 발생하며 이는 가장 큰 세계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외됩니다. 반대로, 발행된 화폐는 경기가 부진한 시기에도 수많은 공적 화폐 거래 채널을 통해 제국은행으로 다시 흘러들어가 유통 중인 지폐를 다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영란은행의 경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은행으로 다시 흘러들어온 지폐는 다시 발행되지 않고 새 지폐로 교환되는 반면, 기존 지폐는 폐기됩니다. 이는 주로 위생상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이제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소위 대체 화폐와 특히 무현금 거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래에는 화폐 문제가 실제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청산 경제에서, 이미 무현금·무이자 순수 통화 거래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한 우편수표국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편수표국은 국가 감독 하에 이상적인 통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쉽게 개발될 수 있는 핵심 기관으로, 국가 여객 및 화물 운송과 완벽하게 상응합니다.

우편수표국을 통한 지불 거래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용 및 직불 카드가 최대 48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오늘날 은행에서는 장기 미수금에 대한 신용 카드가 8~14일 후에 발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 고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여전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우편수표국을 통한 자금 거래의 경우, 이자 계산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불 거래, 특히 연말 마감 시에 상당한 편의성과 간소화를 의미합니다. 우편수표 고객은 매년 1월 2일, 그리고 매일 필요에 따라 우편수표 계좌의 계좌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을 통한 화폐 거래의 중개는 경제에 특별히 이롭지 않습니다. 은행을 통한 순수한 화폐 거래는 생산에 온갖 종류의 공급 부담만 안겨줄 뿐이며, 오직 은행만이 이자를 통해 이익을 얻을 뿐,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코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정의로운 공장주와 기업가에게 일시적 신용 거래에 대한 몇 마르크의 이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기업가는 임금과 기타 당좌 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은행에 예치해 둡니다.

우편수표 계좌는 이러한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하며, 전쟁 중에도 런던의 영국 "페이비언 협회"76가 재무장관에게 "전쟁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각서를 보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각서에서 그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우편수표 계좌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적들은 항상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암시할 때는

---

76 페이비언 협회는 혁명보다는 개혁을 지지하는 민주사회주의 단체입니다. 1884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 회원으로는 조지 버나드 쇼, H.G. 웰스, 애니 베산트, 레너드, 버지니아 울프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시드니 웹과 베아트리스 웹이었습니다. 실제로 1900년 초창기 노동당의 헌법을 작성한 사람은 시드니 웹이었습니다.

자국의 모범이 되는 기관이라면 그 안에는 뭔가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라이히스방크 국유화에 대해 언급된 것과 동일한 내용은 다른 중앙은행, 즉 바이에른의 경우 "바이에른 중앙은행"의 국유화에도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바이에른 중앙은행 역시 순수 주식회사로, 예를 들어 주주 대다수가 은행의 금 보유고(은행의 채권 발행 특권이 있는 곳)를 주주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뮌헨의 유대인 은행가 슈바이스하이머가 이러한 방향으로 시도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바이에른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바이에른 주정부는 지분의 6분의 1을 인수했고, 바이에른 모기지 및 할인은행이 추가로 6분의 1을 인수했으며, 나머지 3분의 2는 주주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중앙은행 "주주"들의 개입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국가적 우려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완강한 저항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이에른의 금 보유고에 대한 위험이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급진적인 중앙은행 국유화 방안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이에른 중앙은행 외에도 독일에는 바덴 중앙은행, 드레스덴의 작센 중앙은행, 그리고 뷔르템베르크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라이히스방크와 중앙은행의 국유화의 경우, 은행의 임원과 직원들은 국가 공무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국가에 의해 당연히 인수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폐 발행권은 국가에 의해서만 행사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폐 발행은 재무부의 조례를 거쳐 완전 보장을 전제로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화 안정화라는 중요한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앙은행이라는 소규모 조직 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단지 보장 없이는 어떠한 지폐 발행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록 작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결정이 유효합니다. 모든 위조는 형법 제8조 제146-152조의 규정에 따라 가장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주주들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주주들이 은행의 금 주식에 대해 제기하는 모든 청구는 법적으로 배제됩니다.

독일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이자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우리 통화의 실질적인 안정화는 완전히 배제됩니다. 통화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수단을 유지하려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자 경제라는 국제적 문제와 분리할 수 있는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 중심의 고급 금융이라는 이 국제적 강도 경제가 계속 존재하는 한, 여러 국가의 통화는 항상 고급 금융의 환영받는 투기 대상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통화의 안정성 , 즉 "통화"라는 용어의 내적 의미가 나타내는 안정성은 다른 요인들, 특히 무역수지의 활동성이나 수동성 에 달려 있습니다 . 여기서 우리의 시선은 조국을 넘어 확장되고, 국내 경제는 외국의 국민 경제와 상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광대한 국제 금융 분야에서 자신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 경제의 의미와 목표가 민간 자본의 수익성이 아니라,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단지 보조수단이자 지원일 뿐입니다. 국제 금융 경제, 즉 국제 결제 거래

– 그러나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실제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국제 은행들이며, 국가들의 통화 수요를 "보장"하고 그 지배권을 스스로 차지해 왔습니다. 오늘날 국제 은행들이 거대 트러스트, 철강, 석유, 통조림, 곡물, 지방, 기름, 면화 등의 생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제 은행들은 전쟁에 자금을 지원했고, 대형 은행들은 모든 전쟁 물자를 조달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생산적인 존재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생산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전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와 눈물, 전쟁의 공포, 대중의 굶주림, 신흥 부자들의 낭비, 증권거래소 대중의 투기적 분노 등 모든 것에서 이익을 얻었을 뿐입니다.

국제 금융에서 금과 금의 가치가 되는 모든 것. 생산국들의 모든 활동은 국제 금융에 이자를 가져다줍니다. 심지어 국제 경제에서도 자본과 노동 사이의 올바르고 합리적인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들은 합리적으로 일하고, 그들의 작업 결과물을 세계 시장에 내놓아 외국의 작업 결과물(원자재, 반제품 또는 완제품)과 교환합니다. 합리적인 경제 체제는 공급된 광학 기기를 외화(달러 또는 영국 파운드화)로 교환한 후, 이를 취소하고 외화로 추가 투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건전했던 시절에는 어떤 공장주도 그런 일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공장주는 추가 생산을 위해 추가 생산에 필요한 수익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원자재를 구매해야 합니다. 독일 경제 전체가 산업 제품 수출에서 외화나 외환 형태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국민경제 전체가 막대한 섬유 산업을 위한 면화, 마찬가지로 거대한 전기 산업을 위한 구리, 비단, 황마, 열대 과일, 국내 생산량을 초과하는 수요 증가, 식량 및 사료 등 원자재 수요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된 외화는 즉시 다시 지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평상시에는 자국에서 외화를 환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노동자는 프랑스 프랑으로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영국 사업가는 이탈리아 리라로 상점에서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외국으로 외화를 가져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현지 통화는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의 내부적 필요에만 기여해야 하며, 또 그래야 합니다. 국가 경제에서 상품 생산의 의미가 화폐를 거래하고 그 화폐를 마치 보유하듯이 경제에서 빼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국제 경제 상품 교환도 수입이 수출로 지불될 때 비로소 완료됩니다.

이론적인 이상적 상황은 모든 국가가 수출로 수입 수요를 정확히 충당하고 지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외화의 절대적 안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상향식 국가 경제의 노력은 당연히 수입 수요를 초과하는 수출 흑자 달성에 집중됩니다. 이는 부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활발한 무역수지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입 수요가 수출보다 높다면,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 부의 일부를 외국에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은 노동 소득에서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에서만 가져와야 합니다. 이는 금 수출이나 증권 수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마지막 "수출"은 국제적 이익 노예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증권 수출"이

기존의 국내 증권이든 외국 "채권" 형태로 위장된 것이든, 그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게는 사실상 무관심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제 경제 사고방식에서도 대차대조표 자본의 수익성 광기만이 지배적인 만큼, 명예로운 국가 경제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의심은 언론과 의회를 통해 짓밟히고, 모든 국가가 이 채권을 발행하는 국제 금융에 종속되는 국제적 노예 상태가 끔찍한 수준으로 확산됩니다.

국제 경제에서도 국내 경제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오늘날 여러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끔찍한 위기는 주로 서구 문화권의 모든 국가가 노예화된 결과입니다. 앞서 이미 배웠듯이 말입니다. 통화 약세 국가들은 국내 경제가 지나치게 취약해졌거나(러시아) 혁명으로 국내 정세가 불안정해졌으며(독일) 여전히 막대한 생산 잉여금이 적국으로부터 배상금으로 무상으로 몰수당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잉여 구매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입 수요를 재화로 충당할 수 없고, 외국에 대량으로 투입되는 지폐로 외화를 구매합니다.

그들은 국내 경제와 해외 경제 모두에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줍니다.
반면, 강세 통화국(예: 스위스)은 자국 통화 가치 상승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국 통화의 높은 환율로 인해 상품 가격이 너무 비싸져 더 이상 이전의 거대 시장으로 상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강세 통화를 통해 수입 수요를 쉽게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제품이 통화 약세 국가에서 훨씬 저렴해지면, 상인과 폭리꾼들은 통화 약세 국가로 가서 해당 국가를 매수하고 약탈하는데, 이는 양국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즉, 국내 생산의 불이익과 매수 대상 국가의 소비에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미 부족한 재고 수준은 이러한 무분별한 매수로 인해 더욱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통화 약세 국가의 국가 통화 구매력은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이처럼 완전히 뒤죽박죽인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에 무너지지 않은 것은, 국제 금융의 모든 술책을 넘어 상호적인 국제적 필요가 단순히 우세하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일이 마지막 순간에 신음과 투덜거림으로 일어나는 것은, 국제 자본의 이자 요구라는 스패너가 국제 경제에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의학적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국제 경제의 건강한 혈액 순환에 처음에는 작았지만 오늘날에는 이미 엄청나게 커진 암이 생겨났다. 이 암은 신체의 나머지 부분을 희생하여 모든 피를 자기 안으로 빨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통행료, 즉 이자를 받는 일방적인 이익만을 가지고 있다. 물론 모든 피는 심장으로 흘러들지만, 심장은 박동할 때마다 오염된 피를 내보낸다. 순수한 통화 거래만을 담당하는 국립은행이 바로 이 이미지에 부합하며, 암세포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은 국제 금융 활동입니다. 국제 금융은 신용 은행을 통해 전 세계 통화를 통제하고, 국제 경제 전체를 흡인력 있는 팔로 움켜쥐고 어디에서나 이자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은 어떤 식으로든 초국가적 금융 권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음 교환소나 우편 수표 계좌와 같은 의미에서 국제 통화 거래를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외환기관을 통해 처리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처리될 것입니다.

어쨌든 국제 우편 연합을 만드는 것과 매우 유사한 방법과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여 국제 지불 거래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주로 청산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제 금융은 이 모든 단순한 상업 활동에서 두세 배의 이익을 얻고 생산적인 국가들을 희생시키면서 거대해지고 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조했듯이 통화 안정화는 국제 관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 행정의 미비나 지폐 발행기의 무제한적인 조작에 기인하는 오류와 무책임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안된 조치들은 모두 이미 검증된 시스템 범주에 속합니다. 라이히스방크와 중앙은행의 국유화처럼,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국가가 화폐 거래의 보호자로서의 임무에 대한 새로운 입장에 대한 논리적 귀결로서 제기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도 고액 금융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라이히스방크 국유화의 합리적인 확장은 우편수표 제도 모델을 따라 국가가 화폐 거래를 규제하고 중재하는 것이며 ,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편수표 제도는 더욱 확장되고 더욱 적절하게 개발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이미 상당히 강력한 진전을 의미하지만, 국가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여 경제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과제는 사적 자본의 수익성이 아니라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재정 및 세금 시스템 분야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질서, 특히 대출 경로를 피하면서 대규모 국가 업무에 대한 자금 조달, 그리고 실제로 사회 정책 분야의 기능 범위에 근접하는 재정적, 정치적 조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새로운 방법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 중 하나는 민간 기업가 집단의 자본 자원을 초과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경제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상당한 공법적 이익이 관련되며, 천연자원이나 천연에너지원의 개발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동체에 속하는 자연자원의 개발이 문제가 되거나, 교통 분야 전체와 같이 국가가 주로 담당하는 과제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간 기업의 사업에 제한을 두거나 국가가 경쟁을 강요하지 않고도 국가 주도의 개발 분야를 상당히 정확하게 제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대규모 공공사업의 실행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 기업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본적인 관찰에서 국가가 얼마나 모범적인 방식으로 독일 교통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민간 기업이 더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개발했더라면 더 좋았을 부분도 있겠지만, 수백만 명의 안전이 걸린 사업의 경우, 안전 자체보다는 최대한의 견고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운송 사업은 분명히 순전히 국가가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신뢰성, 시간 엄수, 보안, 철도와 우편에 대한 균일한 요금 등은 운송 시스템에 대한 결정적인 관점이어야지 민간 자본의 수익성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러한 대규모 공공사업의 자금조달 형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작업.

우리는 의회에서 승인한 "대출"이 나중에 다시 민간 자본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고, 국가가 이자를 약속함으로써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는 내부적 어리석음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 이자 약속의 비참한 결과를 여기서 전반적으로 지적할 필요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실제로 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철도 요금과 같은 국가 대출에 대한 이 이자 약속이 얼마나 엄청나게 더 비싸고, 이 수치를 처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차관을 통해 건설되거나 운영된 독일 제국철도망 전체의 자본 비용은 1914년까지 약 250억 마르크에 달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평균 3.5~4%로 약 8억~9억 마르크에 달했습니다. 인건비(공무원 및 직원)와 자재비(석탄 및 윤활유)를 공제한 순수익은 약 8억~11억 마르크였습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은 독일 철도의 순수입의 거의 전부를 소모했습니다. 우편과 철도 수입이 국가 예산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을 때, 그것은 항상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자 지급이 순수입 전체를 소모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교를 통해 또 다른 흥미로운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독일 철도 공무원과 직원, 그리고 공장과 노선의 철도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임금과 봉급의 총 지출을 합치면 정확히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 자본에 대한 이자가 부과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782,731명에 달하는 최고위직까지 독일 철도 노동자들의 거대한 군대가 받은 소득은 차입 자본의 완전히 무기력한 손이 챙긴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철도에서 차입한 자본에 대한 이자는 당시 우리 제국군 전체의 총 지출보다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와 관련된 모든 것, 즉 군사 감독, 군사 사법 행정, 주둔군 행정 및 군 건설 시스템, 군사 교육 및 개발 시스템, 기술 연구소, 구호 기금 및 군인 미망인 기금, 그리고 더 나아가 군인의 피복 및 무장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1913년, 즉 평화의 마지막 해에 우리 군대 전체의 총 지출액은 7억 7,538만 5,300마르크였습니다. 이러한 비교 수치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은 의회 회기와 언론에서 끊임없이 "군비 부담"에 대해 반발했지만, 다른 모든 지출을 훨씬 능가하는 공공 차관의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필요를 위한 차관에 대한 이자로 해군 전체에 대한 지출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제국해군(Reichsnavy)의 총 지출액은 1913년 기준 1억 9,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국가 예산이 그토록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짓눌리지 않았다면, 이 모든 지출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충당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수의 대규모 대출 자본가들 , 즉 수천 명의 '붙잡이', 즉 수천 마르크의 자산을 보유한 소규모 저축자들은 그러한 공공 대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이나 노력 없이도 매년 돈을 챙겼고, 그 돈으로 제국 행정부 전체, 육군과 해군 전체를 유지하고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보고 이자 문제 전반과 특히 차관 경제를 포함한 완전히 실패한 국가 재정 정책의 엄청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수치와 숫자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구 왕립 통계청에서 가장 성실하게 발행한 독일 제국 통계 연감 과 공화국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푸트캄머 앤 묄브레히트 출판사의 독일 제국 통계 연감 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국 행정부, 육해군에 필요한 지출과 차입 자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한 국가 지출 간의 이러한 불균형이 하늘을 찌르는 불의라는 사실은 제국이 현재 이러한 이자 지급에 대한 금전적 필요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검토해 볼 때에만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관세와 세금의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제 저서 『다가오는 조세 파업』에서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묘사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해야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모든 세금의 가장 큰 부분을 광범위한 근로 인구가 부담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처음에는 재정 주권에 내재된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대규모 공공 사업 수행을 위해 차입 방식을 택하고, 즉 부채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산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순수입을 모두 이자 지급에 사용해야 하고, 나아가 이자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만 관세와 세금으로 국민을 억압해야 합니다. 모든 필수적 국가적 과제는 이제 지방과 제국의회에서 가장 큰 저항에 맞서 싸워야 하며, 결국 국가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대출 자본에 대한 이자 징수자의 역할을 자임하게 됩니다.

탈출구는 오래전에 이미 지적되었습니다. 현재의 부조리한 상황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그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는 재정 주권에 따라 그리고 의회를 통한 국민의 승인을 거쳐 제국의 모든 대규모 공공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며, 현금 없는 이체 거래를 통한 자금 직접 배분이나 무이자 국고채 발행을 통해 대출 경로를 엄격히 피할 것입니다.

이 조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는 바이에른 수력 발전입니다.

산악 강에 존재하는 막대한 수력 에너지를 대규모 산악 호수와 결합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계획과 노력은 이미 20년도 더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수력 에너지의 경우, 지역 사회에 귀속된 국가의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시설의 개발 과정에서 많은 공공 및 민간의 법적 이익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1920년 12월, 국민들은 대표자들을 통해 공채를 구두로 승인했습니다. 충분한 자문과 검토, 그리고 반복적인 재계획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에너지원을 활용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공채 승인을 통해 기업가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승인된 공채를 기반으로 국가은행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현금 없이 이루어질지, 지로 거래로 이체될지, 우편 수표 계좌로 신용 통지를 통해 이루어질지, 아니면 현금으로 이루어질지는 결국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립은행이 필요하고 승인된 신용 한도액만큼 자체 자금을 발행한다고 상상해 보면 이는 매우 명확하고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력 발전 건설 채권은 어느 정도 국가 보증 하에 예상되는 신용으로 상승하는 상수도 시설에 발행될 국가 재무부 채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장되는 자금 문제였습니다. 보장 범위는 첫째, 발헨제(Walchensee)의 수위 상승 공사 등이고, 둘째, 지불 대신 국고에서 전액을 수령한다는 국가 보증입니다. 건설 채권은 동시에 상수도 시설에 대한 부분 사채이지만, 이자 청구권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는 유통 중인 다른 채권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력 발전 건설 채권은 발행 시 그 가치를 전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1,000 마르크 지폐는 바이에른 수력 발전 개발을 위해 건설되는 시설의 가치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재무부에서 지불 수단으로 인정됩니다."와 같이 명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사가 완료된 후 수표 예치에 따라 몇 킬로와트시의 전기나 몇 백웨이트의 질소를 제공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가 물질적 재화로 완전히 보장되고, 동시에 어느 정도 전기 배급 쿠폰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면, 누구도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화폐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즉 달러만큼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토론자들의 공개 선전에서 "아무도 이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은 사람들의 완전한 편협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논쟁하는 신사분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국가가 발행한 돈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라이히스방크의 가장 손상된 지폐조차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그 돈이 순수한 인플레이션 화폐였음에도 말입니다. 심지어 영리한 투기꾼들이 외화나 상품에 대한 대가로 최대한 빨리 그 돈을 없애려고 했을 때조차도 모두가 그 지폐를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도시와 지역 사회의 비상 통화인, 마찬가지로 은닉된 지폐조차 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대규모 사업을 위해 물질적 자산으로 완전히 보장된 건설 자금처럼, 이처럼 바람직한 은닉된 지폐가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합니까? 주인을 대신하여, 또는 주인의 정신으로 무이자 정부 자금에 대해 그러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금속으로 만든 돈만을 화폐로 간주하려는 "금속학자들"의 온갖 불평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국가가 화폐라고 선언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이 돈이 종이든 도자기든, 철이든 가죽이든, 또는 다른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돈의 구매력에 관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속학자들이 옳습니다. 금으로 만든 화폐는 정치적 혼란으로 국가가 흔들리더라도 대체로 교환 가치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귀금속으로 만든 금속 화폐의 이러한 안정성은 화폐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금 이라는 상품 으로서의 특성 때문입니다 .

국가가 이처럼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째, 국가는 주권자입니다. 즉, 국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이러한 조치는 가장 엄격한 상업적 심사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국가는 신용을 바탕으로 이 현금을 일종의 증서로 발행합니다. 특히 국가가 지역 사회의 복지에 유용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누가 국가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국가가 수행된 사업(발헨제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가와 노동자)에 대해 종이로 지불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완료된 후, 국가는 이 종이를 국가가 수행한 사업(전기나 질소 공급 등)에 대한 대가로 다시 받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경제 순환은 완성됩니다. 이렇게 건설 공채는 다시 한번 첫 해의 전기 공급 등에서 회수되고, 공채는 폐기되며, 거대한 정부 조직 예술 작품이 이자 없는 고속도로에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무이자 소유물로 탄생했습니다. 이 작품은 전기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가에 또 다른 막대한 재원을 제공했으며, 이는 국가가 건전한 국가 재정 정책이라는 이상적인 목표, 즉 세금 없는 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공사에 대한 자체 건설 자금 발행과 관련하여 설명된 절차는 승인된 금액 전체를 건설 어음으로 발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이 현금이 아닌 무현금, 즉 이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규 건설 자금 전액을 새로운 국가 은행권으로 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다른 금액과 비교하면 이 금액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에른 수력 발전에 대한 8억 달러의 대출 때문에 바이에른 의회에서 머리를 다친 것과 동시에 – 아니, 더 나은 말로 – 대출을 끊지 않고 다시 한번 "대출"에 의지했을 때, 80억 달러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3차 독회에서 토론 없이"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

여기서 나는 이러한 새로운 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의 경우 어떠한 종류의 인플레이션도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고려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반면에 건설 기간 동안 이자 채권의 발행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생산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자는 이미 지불되어야 하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량론적 관점에서 화폐와 물질적 재화 간의 국민경제적 균형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화폐 측의 지불수단 증가에 반해, 재화의 증가는 정확히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중에 그러한 사업의 수익을 통해 발행된 화폐가 다시 인출되어 소멸된다면, 그러한 새로운 사업의 총 가치에 따라 국민경제적 균형은 자연스럽게 국부에 유리하게 개선됩니다.

여기서도 이러한 공사의 생산물 비용에 이자가 얼마나 심각하게 작용하는지 지적해야 합니다. Oskar Pöbing[77]은 이 문제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킬로와트시 생산 비용이 대출에 500%라는 엄청난 이자가 부과됨으로써 더 비싸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이에른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가장 가까이 있는" 대출 경로를 다시 이용했기 때문에 다섯 배나 더 비싸게 공급됩니다. 여기서도 바이에른의 대규모 전기 발전소와 도시간 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 보수에 드는 모든 자재비와 인건비, 즉 이러한 발전소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즉 수문 관리원, 기계공, 노동자, 노무자, 감독관, 그리고 이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 및 상업 행정 기관의 임금과 봉급이 매년 그들의 노동에 대해 (아주 훌륭한) 대출 자본가들이 아무런 노력이나 노동 없이 매년 이자로 인출하는 금액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이자는 모든 것을 더 비싸게 만듭니다. 오직 차입 자본만이 이익을 얻고, 주민들은 손해를 봅니다. 자력으로 공장을 짓는 주민들은 손해를 봅니다. 그렇다면 바이에른 공장을 짓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이에른의 엔지니어, 노동자, 감독, 그리고 기업가들입니다. 바이에른 공장들은 대부분의 기계와 장비를 공급합니다. 바이에른에서 직접 생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바이에른의 곡물이나 가축을 제공해야 하므로, 다시 한번 바이에른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지 바이에른 주민들만이 건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분명히!). 그래서 뉴욕과 런던, 파리, 베를린의 대자본가들이 필요합니다. 바이에른 주민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돈을 빌려야 하고, 수력 발전에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전기 요금이 500%나 더 비쌉니다!

이건 미친 짓이 아닌가? 이건 경제 범죄가 아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펜을 들고 수표를 발행하거나 은행에 바이에른 수력 발전 대출에 서명하도록 지시한 사람들, 그리고 그 대출에 대해 바이에른 주민들이 매년 지불하는 이자를 받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상수도는 더 이상 바이에른 인민의 자유로운 소유물이 아니라 자본가에게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더욱이, 특히 우스운 것은 대자본가들이 자본과 이권에 "좋지 않은" 국가에 "자신들의 좋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여전히 엄청난 신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8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실제로 수력 발전 채권 입찰에는 자본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확신을 주는 "바이에른 주가 전 재산을 투자하여 자본과 이자를 보장한다(!)"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77 오스카 푀빙(Oskar Pöbing, 1882-1956)은 뮌헨 공과대학에서 일한 바이에른 출신의 기계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Die Wasserkräfte Bayerns (1919) 및 Zur Bestimmung strömender Flüssigkeitsmengen in offenen Gerinnen (1922) 과 같은 연구의 저자였습니다 .

돈주머니,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바이에른 주는 발헨제 수력 발전과 미들 이자르에 8억 달러를 빌려줄 수 있을 만큼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주는 재정 주권을 행사하여 자체 권한으로 이러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에른 주가 차관과 이자라는 광기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 간단하고 명확한 이자 계획을 감히 판단할 만큼 사고력과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무료 금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문적인 은행 전문가에게 의지합니다. 이는 마치 결핵 환자가 자신의 결핵균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 다보스나 엥가딘[78]에 가는 것이 옳은지 물었을 때, 결핵균이 "아니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여행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철도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집에서 평소처럼 지내세요. 지금 상태로는 어떤 실험도 하지 마세요!"라고 안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핵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조언은 매우 타당하며, 소비는 자연스럽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결핵균은 놀랍도록 증식합니다. 금융 및 이자 경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적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순진한 독일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자신의 국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 이것저것 조언하고 책임자들에게 이런저런 사기 행각을 경고한다면, 십 대 십의 확률로 관련자들은 그 악당에게 달려가 아주 순진하게 "말해 보시오. 아무개가 당신이 악당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사실인지 말해 보시오!"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표정으로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악당입니다! 오히려 저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당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도와주었습니다."라고 설명한다면, 순진한 질문자는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했고, 특히 더 이상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의 골칫거리인 이 친구가 자신의 대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여긴다. 그리고 모든 일은 마지막 자유 국가적 부의 일부가 금융 강국에 담보로 제공되고 온 국민이 국제 금융에 이자만 지불할 때까지 이자 자본주의적 대출 정책의 틀에 더욱 갇히게 된다.

결론적으로,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에른 주 정부가 바이에른 수력 발전과 같은 중요한 국가 과제가 전혀 아니었던 당시, 즉 11월 정부의 통화 위기를 해결하는 문제였을 당시에도 바이에른 주정부는 바이에른 주은행에서 약 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바이에른 주정부 국고채권을 매우 신속하게 발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는 완전히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라이히스방크 지폐와 마찬가지로 이 바이에른 주채권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누구나 라이히스방크 지폐만큼의 빵을 바이에른 주채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이에른 주 전체가 될 필요는 없었고, 주도인 뮌헨의 시장과 몇몇 도시 원로들의 이름이 그런 화려한 종이 조각에 인쇄되어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이 비상 자금이 유통되어 모두가 그것을 받아서 라이히스방크의 잔돈처럼 모두가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 자금 자체가 모든 돈의 임무, 즉 상품 교환을 위한 도구로서의 임무를 아무런 문제 없이 완수했습니다.

지방과 지역 사회의 이러한 인위적인 부분에 의해 극도로 불쾌한 영향을 받은 사무실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즉, 금융 부문이었고 그들은 1921년 10월에 지방과 지역 사회가 발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제국법을 강요했습니다.

[78] 스위스의 다보스는 18 세기 중반부터 폐 질환 환자들을 위한 의료 휴양지로 유명했습니다. 엥가딘은 스위스 알프스의 계곡입니다.

비상 자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사실상 유대인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률이었으며, 1922년에는 "공화국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제 금융이 무이자 화폐, 심지어 무해한 형태의 비상 자금에서도 사람들이 손에 무기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지 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그 무기는 수세기 동안의 지하 및 위조 작업을 통해 거짓말과 기만으로 구축된 황금 네트워크를 단번에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이자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 바이에른 국가 화폐 발행의 경우, 라이히스방크는 이 화폐를 다시 인출할 것을 곧 요구했고, 이는 1921년에 순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화폐가 라이히스방크의 화폐가 제국 국고채권이라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얻는 것과는 달리 금융에 높은 이자를 가져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앞으로 모든 대규모 국가 사업이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 및 운영될 것이며, 차관 방식은 전면적으로 배제될 것입니다. 다른 국영 기업의 잉여금이나 그러한 특수 목적을 위한 특별 부과금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무이자 건설 자금을 간접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자금 조달은 국가의 천연자원 활용, 교통망 개선 등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일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만큼 부유합니다.79

---

79 이는 히틀러가 1939년 1월 30일 국회에서 한 연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필요에 따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가장 필수적인 자본, 즉 노동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R de Roussy de Sales(편) Adolf Hitler: My New Order, London: Angus and Robertson, 1942, 457f쪽에서 인용).

사회 건설 및 경제 은행

앞 장과 논리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특히 주택 건설을 위한 무이자 건설 자금을 발행하는 임무를 가진 사회 건설 및 경제 은행의 설립입니다. 물론 이 사회 건설 및 경제 은행은 국가 기관이 아닌 공법상의 법인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국가사회주의 조세 제도에 대한 논의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 건설 및 경제 은행은 사적 경제, 특히 주택 건설 시스템(따라서 가장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경제 분야)의 조건으로 이전된 무이자 자금에 불과하므로, 이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건설은행이 순수한 국영기업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러한 공적 법률 금융기관이 국영기업보다 더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주택 건설 문제라면 큰 이유가 되지 않겠지만, 공공의 이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경우라면 많은 경우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은행은 모든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무이자 신용을 제공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권한을 가져야 하며, 또한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의 자유는 순수한 국영 기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민간의 주도에 맡겨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통과된 그러한 법률의 개요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1922년 바이에른의 경우:

바이에른 사회 건설 및 경제 은행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가 바이에른 사회 건설 및 경제 은행(BWB)이 설립됩니다.

BWB는 국가 또는 민간(개인 또는 사회)의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민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2조

BWB는 공법상의 법인입니다. BWB의 조직, 행정 및 활동, 그리고 이사직에 관한 보다 자세한 규정은 전체 부처에서 정합니다.

제3조

BWB는 최초로 무이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물질적 자산을 최대 5천만 골드 마르크까지 제공합니다.

이 문제는 언제든지 발행되고 유통되는 화폐 금액이 최소한 동일한 가치의 물질적 증권(무이자 담보 모기지, 담보 매매 계약서, 담보권 설정 등)으로 보장되고 국고채권의 상환 또는 반환이 최대 50년의 적절한 기간 내에 개발될 기업이나 기관의 수익으로 보장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4조

BWB가 발행한 국고채권에 대한 담보 및 증권의 합계
BWB의 적용 범위 협회를 구성합니다.

보안 또는 재산 보호에 방해가 되거나 손상을 입히는 모든 종류의 법적 거래
보험협회에 소속된 보험은 무효입니다.

담보 기관의 적용을 받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재산 또는 점유권 변경은 담보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해당 물건에 계속 귀속됩니다. 전임권자는 채무자의 인적 변경에 BWB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개인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이와 상반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제5조

BWB의 보험 기관의 모든 구성 요소와 권리는 이 공개 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원칙과 법적 결과는 등록부와 마찬가지로 이 책에 적용됩니다. 등록부는 대중의 신뢰를 받고 그 자체로 권리로 추정됩니다.

등록부 또는 그 관련 섹션에 대한 접근은 접근에 대한 법적 이익을 입증하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됩니다.

발행된 국채의 총액, 이에 대해 BWB에 지불해야 할 증권의 총액, 추가 및 공제, 국채의 성공적인 상환 및 상환에 대한 잔액 요약을 매년 발행해야 합니다.

제6조

BWB의 국고권은 법정 통화입니다. 모든 사람은 국가의 다른 법정 통화의 환율에 대한 액면가의 전액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위에 언급된 최소 환율로 지불하는 대신 BWB의 국채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로 국채로 지불을 제안한 한 그 금액에 대한 부채에서 면제됩니다.

BWB는 국고채를 무이자 발행하며, 발행 기간 및 금리,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증권 및 저당권, 상환 및 기타 관련 법적 조건에 관한 상호 법적 조건의 일반 및 특별 조건을 계약서에 합의합니다. 이러한 계약서 사본은 보험협회 등록부 항목의 부록으로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BWB는 대출 약정 및 연간 징수에 대한 행정 비용에 대한 추가 비용이나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언제든지 균일한 공개 방식으로 해당 프리미엄이나 할인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조에 정한 최저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상환은 발행된 국채와 동일한 종류의 국채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7조

BWB의 활동은 이 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재무부 장관 또는 그가 지명하는 대표자, 내무부 장관 또는 그가 지명하는 대표자, 법무부 장관 또는 그가 지명하는 대표자, 그리고 의회에서 선출된 3인으로 구성된 공공 감독 위원회의 통제와 감독을 받으며, 임기는 2년이다.

제8조

처벌 조항: 보험협회의 증권을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 특히 증권거래법 위반, 건설 은행권 또는 그 환율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처합니다. 또한, 법인에게도 높은 금전적 처벌이 적용됩니다.

"집행 조건"에서는 이사회와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발표되었으며, 이 위원회에는 각 부처, 의회, 건설사 대표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임무는 건설 채권의 합법적 사용 관리, 상환 심사, 담보권 확인, 무이자 건설 채권 담보 설정 근거 승인 등입니다.

이후 추가 조건으로 상환 및 청산, 발행된 일련의 건설 채권과 그에 따라 등록된 증권에 대한 주식 공시, 그리고 승인된 건설 설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사회 은행 설립의 동기는 막대한 주택 수요와 제국과 지방 정부가 이러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주택 사무소들은 물론 여기저기서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는 있었지만, 새 주택을 건설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축 공사는 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무엇보다도 임대료에 대한 긴급 통제가 시행되면서 민간 자본이 새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전혀 "수익성이 없었다"는 사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위 '손실된 건설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제국과 지방이 지원한 보조금은 진행 중인 통화 평가절하 속에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시작된 개별 주택 건설조차도 전반적인 주택난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저렴한 건설 자금이라도 4%의 이자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렴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본적인 관찰에서 암시한 대로 가장 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제 매년 반복되는 이자 부담을 없애고,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이자 수단을 제공한다면, 주택 시장을 웅장하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건강적 피해를 초래하는 끔찍한 주택 수요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조 산업, 즉 자물쇠공, 목수, 지붕공, 배관공, 유리공, 설치공, 도예가, 바닥재 시공공, 타일 시공공, 도장공, 미장공 등이 주택 시장에 의존하게 되어, 그들 스스로 일자리와 생계를 찾고 구매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놀라운 방식으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이자 건설자금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건설 노트는 "사회건설경제은행"에서 발행합니다.
공급업체와 사업주는 이 돈으로 건설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건물주는 수령한 무이자 금액을 30~50년 내에 건물의 성격과 내구성에 따라 적절한 분할 상환합니다. 건설 채권은 제국 또는 지방 화폐와 다르며, 이는 제국은행권이 국채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건설 채권은 건설 은행의 신용으로 발행 채권과 동일한 금액의 새로운 유형 자산(주택)이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실질적인 보장을 받습니다.

이는 동일한 금액의 무이자 담보대출 등록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실상 여기에서도 신축 건물의 전체 가치는 건축 공고에 기재되지 않고 실제 건축 비용만 기재됩니다. 따라서 토지는 최소한 건설사, 건축 조합 또는 지역 사회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그 이상은 주택 수요자가 건설 가치의 최소 10~30%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 중 5%는 건설 은행의 행정 비용 충당을 위해 토지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후 상환은 추가 이자 계산 없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택 소유주의 주택 내 자유 재산은 해마다 증가하며, 발행된 건축 공채에 대한 담보로 전체 조합 내에 보유되는 가치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유통 중인 건설 수표의 양은 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감소합니다.

이 건설 자금의 법적 성격은 채권 발행에 불과합니다.
이 채권의 채무자는 건설은행입니다. 채권의 채권자는 현재 소유자입니다.
이 채권.

채권 발행을 금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항상 외부 상황, 즉 누군가가 발행한 채권이 일반적으로 지급 수단으로 수용되는지 여부의 문제일 뿐입니다.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건설 채권은 항상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서도 물적 자산으로 충분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은행이 언제든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건설 수표의 기간 한정 상환에 대한 보증을 맡겠다고 약속하고, 수표의 존속 기간 동안 수표를 지불 수단으로 등록하거나 수표가 합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선언되면 보편적인 수용이 보장됩니다.

지금 이러한 보증 수용이 국가에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부담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날 국가는 손실된 건설 지출에 대해 승인된 보조금에 대해 매년 수백만 달러를 실제로 지출하고 이자를 지불한 후 일반 세금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완전히 취소됩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실상 지역 사회에서 회수해야 할 손실된 돈이며, 실제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운 좋은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무이자 건설 수표 수령자 중 체납자가 실제로 어느 시점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국가 예산이 창출하는 막대한 절감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국가 예산은 완전히 상실되는 희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과제이므로 이를 확립하는 것이 정당하다.
집행의 도구이자 전달자인 독립적인 공공 법적 법인.

이렇게 하여 이 제도는 국민의 눈에는 당연히 개인적 이익과 부를 축적하려는 의도가 따르는 사적 경제 사회 형태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는 순수한 국가 기업의 영역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경제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일정한 혐오감이 존재하는 것은 불의에 의한 것입니다.

시행 규정에는 기본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모든 것이 있습니다.
대중의 안전과 은행 경영의 보안에 필수적입니다.

제안된 자문위원회는 이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자체도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집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건설은행을 공공법인으로 설립하면 이런 방식으로 창출된 부의 가치의 전체 복합체가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건설은행이라는 독립된 법인의 소유로 나타난다는 유쾌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설은행의 법적 구성 또는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은행은 공법상 법인으로 인정되거나 설립된다는 사정에 따라 법인격을 갖습니다. 이 건설은행은 개별 구성원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건설은행은 그 자체로 그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국가기관의 구성원도 아닙니다.

그러한 법적 형태의 창출은 사실 흔하고 전통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그에 상응하는 현대적인 제도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것이 확립될 때, 바로 여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시대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인 것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개별적인 예를 통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건설은행은 건설은행 자금 승인 요청이 고려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 사항과 전제 조건을 미리 알립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와 함께 건설은행에 요청을 제출하고, 긍정적인 경우 주택이 필요한 사람(주택 소유자)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계약에는 건설은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 즉 건설자금을 건물 건설에만 사용해야 하는 의무, 저당권 설정 의무, 그리고 상환 의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계약에 따라 필요한 기타 모든 법적 조건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이 필요한 자가 부동산을 재매각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저당권 설정 명령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권 승계 및 채무 불이행에 대한 조건은 1회 이상의 상환 분할금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제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납품업체와 근로자는 건설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건설은행권으로만 임금을 받기 때문에, 건설은행권은 어떤 상황에서든 해당 재산에 대한 지급액 상당액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만 처음으로 유통됩니다. 근로자와 공급업체로부터 건설은행권은 대중에게 도달합니다. 기존 담보를 고려하면, 특히 국가가 건설은행권에 대한 보증을 맡고 국고가 건설은행권을 지불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중은 다른 화폐와 마찬가지로 건설은행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가 건설은행에 대출금의 2%를 건설은행권으로 매년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주택 소유주의 몫입니다. 다시 말해, 건물 소유주와 건설은행의 담보권자는 유통되는 금액에서 매년 2%의 건설은행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담보권자들은 상환 기한 전에 지역 화폐와 함께 유통되는 건설은행권을 회수하여 상환을 완료할 것입니다.

의무. 건설 지폐를 구하기에 특히 적합한 곳은 언제든 가동 중인 건설 현장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뮌헨에서 1천만 마르크짜리 건설 은행권이 발행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중 매년 20만 마르크가 건설 은행으로 반환됩니다. 따라서 기껏해야 50년 후에는 1천만 마르크 전액이 반환되어 건설 은행에 회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50년 후에는 건설 은행으로 건설된 주택이 상환되어 소유주의 무부채 재산이 됩니다. 이 모든 상환은 이자를 위해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국가 보증을 받는 건설 은행 설립이라는 단순한 수단을 통해서만 상환이 완료됩니다.

사회적 행위는 국가가 주택의 가치를 완전히 무에서 창출했다는 사실, 즉 이 건물 전체를 건설함으로써 수천 명의 노동자와 사업가에게 소득을 창출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수천 채의 개별 주택에 관한 문제라고 가정한다면, 수천 명의 토지 없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다양한 반대와 보류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론. 이 반론은 근시안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성도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플레이션은 보장되지 않은 화폐가 발행될 때만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실질적인 보장은 건설 은행권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액수의 건설 은행권이 유통되더라도 이는 중요하지 않다.

2. 이 문제가 새롭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론. 이 반론은 적용될 수 없으며, 아마도 독일에서는 새로운 문제일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물질적 자산으로 담보되는 이러한 무이자 채권에 익숙하다. 이러한 전형적인 예는 100년 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영국 워런트(warrant)이다. 워런트는 특정 중앙 창고에 보관된 일정량의 원철에 대한 권리를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명령서이다. 이러한 워런트 어음은 통화로 사용되며, 워런트의 구매력은 세계 시장에서 원철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독일에 그러한 워런트가 있었다면, 이는 독일 통화 및 그 변동과 완전히 무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워런트의 가치는 원철 가격과 연동되었고, 이러한 가격의 가치는 결국 통화를 기준으로 자동 조정되었습니다.

영장에서는 물질적 자산으로 보장되는 무이자 채무 증서와 채무 명령서의 대중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건물을 건설해야 하는 만큼, 전체 식민지를 연속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집을 찾는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할 때에만 개별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관점일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피해는 주택난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주택 문제라기보다는 주택 공급 기회 창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업용 임대 아파트 건설이 촉진됨으로써 해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 주택 소유주가 신규 임대 주택 건설을 위해 건설 은행권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 전체 건물 가치의 10%보다 더 많은 선급금을 현금으로 미리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 이들 중 다수는 건설은행으로부터 무이자 보조금으로 나머지 금액이나 일부를 지원받는다면, 자신의 재산에서 상당한 금액을 주택 건설에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럴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건설은행 자금의 무이자 특성은 대도시에 매우 중요한 건설 시장 부흥의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건설 및 경제 은행은 나중에 주택 건물 자금 조달의 범위를 넘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사업, 산업, 공동 사업, 농업 개선 등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쪽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상환 기간이 짧더라도 말입니다.

세금 없는 국가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주요 목표는 세금 없는 국가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광기 어린 유토피아처럼 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울 만큼 좋은 약속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목표가 완벽하게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세금 압박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말입니다.

앞 장들에서 우리는 오늘날 거의 모든 세금이 단지 이자 지불에 소모되고 있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먹는 모든 빵에 세금을 내고, 모든 따뜻한 응접실에는 과도한 세금이 들어가며, 모든 구매에는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세금으로 들어가는 모든 돈은 배상금 채무에 대한 세금을 내기에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금 없는 국가가 유토피아라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러한 주요 목표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항상 미적 감각과 비판적 이해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금융 정치의 넓고 복잡한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왔고, 아리아드네의 실타래, 즉 국가의 이자 의무를 잊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일 것입니다.

자신을 굴욕에서 벗어나 더 높은 입장에서 국가의 이자 의무 - 세금 - 인플레이션이라는 설명에 따른 연관성을 살펴보는 사람, 서구 문화권의 모든 국가의 이자 의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실임을 인식한 사람, 일과 부 사이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조건이 완전히 역전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한 사람, 특히 국가가 재정적 주권으로 인해 대출 경로에 완전히 구속되지 않고 자체 권리로 모든 대규모 공공 국가 업무를 창의적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다는 절박한 논리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국가 재정 행정이 국민에게서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모든 부담스러운 세금 압력을 제거하고 국가 경제를 비옥하게 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여기는 국가를 요구하는 것은 재정적 정치적 신세계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세금 없는 국가가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수치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모든 질서 있는 국가 예산에는 유토피아가 실현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묻지 않고도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 파산의 역사를 통해 입증되는데, 여기에는 파산을 통해 이자 부담과 부채 부담에서 벗어난 수많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제가 쓴 작은 논쟁적 저서인 '국가 파산: 해결책'에서 제시한 정확한 증명을 여기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즉, 공공 대출의 이자 지급을 조정하고 동시에 채권을 무이자 은행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파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지만, 국가와 국민을 이자 부담 부채로부터 해방하는 이러한 형태는 실제로 국가와 경제가 견딜 수 없는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 지급을 조정했다면 전쟁 이전에 이미 국가 행정 전체에 대한 국가 지출을 충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1911년 바이에른 주 예산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바이에른 주 정부의 소위 상업 국영 기업(철도, 우편, 전신) 수입은 1억 2천만 금 마르크였고, 국유 임업 수입은 4천만 마르크였습니다. 총

사법 행정을 위한 국가 행정 전체(모든 지방법원의 인건비 및 물적 비용 전액, 모든 주법원, 지방법원, 뮌헨, 뉘른베르크 등의 최고법원)에 소요된 비용은 2,700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바이에른 주 전체의 광범위하고 신중하게 개발된 내부 행정 전체, 즉 수많은 지방법원, 주정부, 뮌헨 경찰서, 헌병대, 그리고 의료 기관, 지방 예방접종 병원, 식품 및 준고급 식품 연구 기관, 요양소 및 정신병원, 행정 법원, 지방 통계청, 계량 당국, 보험 협회 등 수많은 기관과 기관에 대한 지출은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교육, 학교 및 교회, 특히 모든 중학교, 중등학교, 예비학교, 라틴어 학교, 중등 교육 학교, 중학교, 고등 직업 학교, 교사 양성 기관, 모든 국립 건설 학교 및 전문 학교, 직업 및 음악 학교, 농업 및 지역 농업 학교, 바이엔슈테판[80] 및 생물학 연구소, 모든 여성 교육 기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컬렉션과 연구소를 보유한 대학, 기술 대학, 기타 예술 대학, 직업 대학, 음악 아카데미, 그 다음에는 막시밀리아네움[81], 나아가 중앙 과학 및 예술 연구소, 과학 아카데미, 국립 과학 컬렉션, 바이에른 박물관, 국립 도서관, 국립 극장 등 문화부의 이러한 –, 1911년에는 4천만 명 방대한 활동 분야와 수천 명의 공무원, 컬렉션과 박물관에 있는 엄청난 예술 보물, 이 모든 것이 실제로 건물, 행정 및 1911년에는 총 5,100만 유로가 지출되었습니다. 단순히 국민에게서 돈을 뽑아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재무부 산하 에는 수백 명의 임업 관리인을 둔 산림 행정, 광산, 제련소, 소금 공장, 중앙 및 보조 세관, 중앙 조폐국, 국가 채무 관리국, 국립 은행, 측량사 사무소, 지방 측량 사무소, 그리고 국립 온천 관리국, 궁정 양조장 사무소, 뮌헨 등이 포함됩니다. 이 대규모 사업은 1,500만 유로의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교통부의 비용은 자체 운영 수입으로 충당되었지만, 노령 공무원들의 연금은 약 3,600만 유로라는 막대한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사법 행정, 건물을 포함한 내부 행정(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과 재무 행정, 교육 및 개발, 연금을 모두 합치면 27+40+51+13+36=1억 6,700만 달러가 요구되었습니다.

국유기업, 우편 및 철도, 광산, 산림 등이 국가 재정에 낸 잉여금은 약 1억 6천만 유로로, 세금 한 푼 없이도 거대한 국가 행정 기구 전체를 감당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없는 국가는 바이에른 주 주민들에게서 징수된 총 세금, 즉 직접세 6천만 달러와 간접세 5천3백만 달러, 그리고 여기에 수수료 3천1백만 달러, 총 1억 3천4백만 달러가 자본 차입금 이자 지급에 전액 사용되지 않았더라면 현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이에른 주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도

[80] 바이엔슈테판은 11 세기에 지어진 상부바이에른의 수도원으로, 1803년에 임업 학교이자 국립 양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81 뮌헨의 막시밀리아네움은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 2세가 학생 재단의 본거지로 설계했습니다.
1949년부터 바이에른 주 의회가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8,460만 파운드를 요구했고, 바이에른은 제국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을 위해 5,000만 파운드를 제국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 생활의 크고 작은 영역들에 대해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가사회주의가 옛 국가가 얼마나 비범하고 모범적인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해 보입니다. 결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니라면, 그 중 많은 부분은 개혁이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 기관조차도 고착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더 신선하고 자유로운 정신은 해롭지 않을 것이며, 곳곳에서 철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행정 기관의 여러 분야에 적어도 새로운 정신,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자신이 섬기는 국민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신이 들어와야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분야는 단 하나, 국가 재정 행정뿐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상황이 가능하다면, 이는 분명히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쟁 이전부터 이미 국가에 해당합니다. 당시 국가는 이미 민간 차관 자본에 대한 이자 서비스에 묶여 있었습니다.
당시 이미 존재했던 차입 자본에 대한 국가 의존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양한 소득 형태에 대한 세금 분포 조사입니다. 지금까지의 관찰을 바탕으로 한 1911년 예산에 따르면, 토지는 1,260만 마르크, 주택은 1,210만 마르크, 상업 기업은 1,700만 마르크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총 연금 수입이 2억 5,300만(!) 마르크인 자본 연금은 단 1,000만 마르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노동 인구를 희생시키면서 노력과 노동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극도로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액 연금 수입(여기서 우리는 7000만~7억 마르크의 연금 그룹을 생각합니다)은 실제로 자본 연금 세금 의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약 15만 마르크입니다. 그러나 자본 이익으로부터 얻은 수입이나 세금 납부액은 약 70만 마르크로 국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이유는 대규모 대출 자본이 이 수십만 명의 소액 이자 수혜자에게 이자로 인한 노력과 무노동 소득에 대한 모든 공격으로부터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액 이자 수급자들에게 저축이 어느 정도 영구적인 이자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은 당연히 쉽습니다. 평생을 수고하며 저축을 위해 실제로 일해 온 이들과 국가 및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처한 연금 수급자들의 유사성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와 연금 개념의 차이점은 연금 청구권이 개인에 따라 달라지고 사망 시 소멸되는 반면, 이자 청구권은 물질적인 것이며 개인과는 무관하게 "영원한 법적 청구권"으로서 금전적 소유에 구속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반 노령연금에 대한 논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부당한 영원한 이익에서 모든 국민 동지의 정당한 노후에 대한 요구로의 전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액 이자 수혜자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 국가가 대출 자본을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게 대우한 문제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 연금의 사자 몫을 삼킨 후 다시 국가의 큰 재정 기부자로 나선 사람들만 고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 경제의 헛소리, 즉 자본주의적 국가 재정 행정을 버리고 모든 세금이 면제된 자유로운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가 이자 부담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면, 국가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수력 발전이나 천연자원 개발처럼 광범위한 새로운 수입원이 추가된다면, 세금 없는 국가는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니라 행복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조세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조세 재원을 통해 실제로는 국가적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과제들을 위한 재원이 흘러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에는 이러한 과제들을 위한 재원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 보건, 성병 퇴치, 알코올 남용, 체육 진흥, 예술과 과학의 실질적인 진흥, 출산휴가, 육아, 전원 도시 건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 부상자, 전쟁 미망인, 고아들에 대한 독일 국민의 명예로운 빚을 갚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 정책 분야에서 국가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지침 원칙으로 삼아야 할 사항입니다.

1. 내부대출에 대한 이자지급 목적의 과세는 제외됩니다.
2. 세금은 행정, 사법, 군사, 경찰, 보건 시스템, 교육 등 비생산적 목적을 위한 국가 지출을 충당하는 데에만 허용된다. 다만 상업 국영 기업, 철도, 우편, 전신, 국유림, 국유 광산의 잉여금과 대규모 국가 도시 간 기지에서 공급되는 전기로는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3. 특별한 필요나 특별한 비상사태, 특히 전쟁의 경우를 대비하여 직접세와 간접세가 허용될 뿐만 아니라 부과됩니다.
4. 직접세는 어떤 형태로든 재산에 부과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광범위한 단계적 세율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적절한 범위까지 비과세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는지 또는 기타 부양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지금까지보다 더 철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5. 국가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세금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자녀의 수당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6. 간접세는 평상시에는 사치품에만 적용됩니다. 국가는 이를 통해 매력적인 사치품, 사치와 폭식, 그리고 과도한 유행에 편승하는 상품의 생산 가격을 통제하고 인상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담배, 알코올, 와인과 같은 순수한 준사치품조차도 건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한 간접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오늘날 사람들을 완전히 착취하는 모든 간접세는 근본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접세란 설탕, 소금, 성냥, 램프, 레모네이드와 같은 가격 상승에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터무니없는 간접세, 그리고 생산 비용을 엄청나게 높이는 석탄세, 개인 및 화물 운송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품 판매세를 의미합니다.

7. 전쟁과 혁명으로 인한 이윤의 징수는 정의의 과업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현재의 부를 과거의 부와 비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산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도 생산적인 노동에서 발생하는 부(전쟁은 특별한 호황을 의미했지만)와 생산적인 노동에서 발생하는 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는 정당한 권리에 불과하며,

그렇게 상당한 전쟁 수익의 일부가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중개 거래와 투기에서 발생하는 부의 경우에는 훨씬 더 날카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8. 인지세와 수수료, 심지어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제한하는 세금조차도, 그 처분이 공공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제한되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이에 속한다.

근본적으로 세금 재정 정책은 "세금 없는 국가"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거짓된 국가 대출 경제를 영속시키기 위해 국민에게서 돈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거액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징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신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천연자원을 지역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생산적인 국가 업무를 위한 재원은 주로 상업 국영 기업의 잉여금에서, 둘째로는 사치세에서, 셋째로는 단순한 노동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부와 소득에서 충당되어야 하며, 오직 그런 경우에만 유산계급과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준사치품에 대한 간접세에서 충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전시에만,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군 복무를 요구할 수 있듯이, 지역 사회에도, 그리고 다시 한번 유산계급을 특별히 언급하며, 간접세와 직접세의 형태로 전쟁 수행에 재정적 기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업적 국영기업" 문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국영기업이 "수익성"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익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논의했습니다.

철도 등을 "사무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노력, "비경제적인 국영 기업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노력", 또는 "혼합 경제 형태로 전환하려는 노력"에는, 국가의 상당한 부의 구성 요소마저도 스스로에게 유용하도록 만들려는 거액 차관 자본의 은밀한 욕망만이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국가가 이러한 부의 구성 요소마저도 넘겨준다면, 그 부의 전부는 차관 자본에 귀속되는 것이며, 차관 자본에 대한 이자 징수 허가 외에는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거나, 규제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재정적 정치적 해방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미래에는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분명 창의적인 노력을 요구하지만, 기존의 법적 조건을 훼손하거나 변경하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가 대내외 채권자들에게 이자 부담으로 묶여 있는 부채의 기존 사슬을 끊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취해야 할 조치들은 그 자체로는 극히 간단하며, 실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국내 차관으로 인한 영원한 이자 의무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이 이자 지급을 법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대규모 차관 자본은 소액 연금 수급자들의 이익을 위해 큰 소란을 피우고 "불가침의 권리를 짓밟고", "마지막 신뢰까지 빼앗을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국가에 대해 끔찍한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대규모 자본은 당연히 "기본 경제 법칙에 대한 엄청난 범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국제 강대국이 갑자기 통치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단지 강철 신경을 유지하고 자신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높은 금융에 의해 유지되는 언론인들의 울부짖음에 겁을 먹다.

유대인은 이 싸움을 가장 끈기 있고 완강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 로스차일드가 말했듯이 "그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돈은 내 명예이고, 내 돈을 가져가는 자는 내 명예를 빼앗아 간다."

물론, 그들의 돈은 어떤 식으로든 국가 채권 소유자에게서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국가 사회에 큰 불의를 초래한 법적 요구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국가 채권자들의 법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동을 통해 막대한 금액을 조달해야 하는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법적 요구"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큰 불의의 문제입니다. 즉, 국가의 지원을 받는 소수의 대자본가에게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약탈하는 것입니다. "이자 노예제 폐지"를 사실로 만드는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꼭두각시처럼 행한 행위에 대한 매우 강력한 불의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현 국가를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전체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국제 금융의 집행관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호한 단속만이 목표 달성과 해결책 도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국가는 이 강력한 결정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자 자본주의 경제를 대체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이처럼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알고 있기에,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 전투에 승리의 확신을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자 지배가 오직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에, 아무리 애써 짜인 거짓말과 기만의 거미줄 이라도 단 한 번의 힘겨운 힘으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외국은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 특히 외국 이자 채권자에게 더 이상 이자 지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네, 외국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 질문은 그 자체로 우리 독일의 고민과 더불어 거대 사회의 세계주의적 태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이란 무엇일까요? 프랑스인, 영국인, 미국인일까요? 스웨덴인, 네덜란드인, 노르웨이인일까요? 러시아인, 중국인일까요? 아니면 인도인, 푸에고인82 , 콩고 흑인일까요?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관련해서는 "외국"에 속합니다. 이 모든 "외국인" 중 대다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극소수의 중국인, 극소수의 러시아인과 프랑스인조차도 대체로 무슨 일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쟁 적국 정부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당연히 –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 유대인 국제 은행가들이 "그것에 대해 뭔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 금융이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는 매우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러한 절차를 문명 인류에 대한 전례 없는 범죄로 규정할 것이고, 가능한 모든 거짓말과 왜곡을 동원하여 헌신적인 언론을 통해 소위 문명 세계를 그러한 전례 없는 의무 위반에 맞서게 할 것이며, 유럽의 완전한 붕괴를 언급하고, 유럽 문명의 특별한 계승자인 프랑스를 독일에 대한 전면전으로 선동하려 할 것입니다. 외국, 즉 유대인의 거물 금융가들이 거대 유대인의 전권에 대한 그러한 암살 시도에 반대하는 모든 발언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 자체와 답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방 전쟁의 대상이 되는 세력이 싸움 없이는 스스로를 굴복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일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인들은 외국의 이익과 권리를 독일인의 권리보다 더 신성시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잔혹한 권력 의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최종적인 역사적 문제에서 적이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추측적인 관찰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적이 해방이나 반란을 즉시 허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떤 무력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지 고려하는 것과 자신이 어떤 힘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히 안다면, 적이 어떻게 공격을 막아낼지 관찰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야 대응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군사 계획도 첫 번째 공격 이후의 작전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정력적인 행동 방침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우, 상대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비인격적이고 초국가적인 세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거 계획은 어떤 세력과 이해관계가 상대가 되지 않는지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이 전혀 없는 방향으로 불필요하게 세력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중요합니다.

"외국들이 이에 대해 뭐라고 할까?"라는 질문 뒤에는 대개 그런 경우 우리가 해외로부터 신용이나 식량, 기타 원자재를 전혀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곳의 상황은 어떤가요?

국가 경제로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수입에 대한 대가를 항상 수출을 통해서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을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이지, 종이 돈이나 "신용"으로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국이 실제 신용을 제공하는 한, 즉 여러 외국 공급업체가 독일 수입업체가 해당 상품에 대해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한 한동안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수입업체가 독일 상품 수출자로서 외국 자금을 확보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면화나 지방을 전혀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82 남아메리카 남쪽 끝에 있는 군도, 티에라델푸에고의 주민들.

구리나 사료의 국제 이자 지급 거부는 기본적으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거대 은행조차도 장기적으로 원자재 생산국의 잉여금이 어떤 방식으로든 독일 공장과 작업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독일 완제품이 세계 판매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 경제 간의 이러한 상호 상품 교환은 실제로 수요와 공급의 강력한 법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경험했듯이, 그리고 루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제한과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83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외국에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매 무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입 수요를 충족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품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중립국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적 의무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를 통해 수출 품목의 효율성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국가 경제는 오히려 과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입과 수출의 일시적 중간 신용은 무역회사의 문제이며, 그들의 개인 신용에 기반합니다.

이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국이나 연방주(州)의 전쟁 채권 및 기타 이자부 채권에 대한 국채 이자 지급 중단으로 인한 정치적 강제 조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마저도 독일 국채에 대한 개별 채권자들의 이자 요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 채권자들을 위해 정치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국가 파산 역사상 국가가 이자 지급을 중단했을 때 군사 개입이 뒤따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 경우 프랑스가 즉각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은 논리적으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적들은 당시 독일 마르크화 가치 하락에 군사 행동을 통해 개입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화 가치 하락은 결국 독일 국채를 보유한 외국 채권자들의 모든 것을 박탈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조치는 이러한 독일 국내 국가 부채의 탕감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단지 이자 탕감과 국채의 은행 자산 전환만을 예견할 뿐입니다. 반면, 현금 지불은 외국 채권자에게 즉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 일리노이주나 시카고에 사는 X씨가 은행에서 독일 정부가 전쟁 채권을 현금으로 갚고 있으며 이 금액이 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그가 몹시 화가 나서 독일에 대항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독일의 민족주의 정부가 모든 이자부 채권의 이자 지급을 중단하고, 동시에 이 채권을 국립은행이나 우편수표 계좌의 무이자 자산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한다면, 어느 쪽에서도 심각한 저항이 예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치로 인해 공동체가 피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측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해방의 행위를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치의 경우, 바로 여기에서 영혼의 분리가 일어날 것이며, 이 정부 조치에서 해방을 느끼는 사람들의 닫힌 대열이 형성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

[83] 1922년 후반, 독일이 연합군에 대한 전쟁 배상금으로 목재와 석탄을 지불하지 않고 심각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프랑스 총리 레이몽 푸앵카레의 지휘 하에 프랑스와 벨기에는 1923년 1월 루르 산업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 점령에 대한 독일의 반응은 대부분 수동적 저항이었는데, 이는 세계의 동정을 얻었고 도스 조약의 배상금 조건이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24년 4월(위의 94쪽 참조)에는 루르 지방에서 연합군 점령군의 철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압박으로부터의 노동 해방은 머지않아 모든 노동자를 포함할 것입니다. 오직 은행과 증권거래소, 그리고 자기 이익에만 얽매인 소액 연금 수급자 집단만이 그들의 반대자로 남을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은행에서 일시적 자산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에 특별한 관심이 없으며, 더구나 대출에 대해 매우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을 운영 자본으로 사용하여 일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업가, 공장주, 그리고 상인은 이자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 이는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었듯이 정부의 이자는 생산적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에서 직접 또는 간접 세금을 통해서만 추출된다는 점을 명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명백해집니다.

이 지식을 명확히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실제로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에게서 다시 빼앗아야 할 것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자 지급에 대한 이자는 어떤 경우에도 생산 노동자에게서 징수되어야 합니다. 어떤 노동자도 이 원칙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특히 이자가 붙는 채권을 처분할 수 없는 육체 노동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직접세, 특히 간접세가 노동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바로 노동자가 다른 모든 계층보다 소득 공제 형태로 직접 소득세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노동자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미 통찰력을 갖게 했으며, 이는 모든 임금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러한 계층은 훨씬 더 근본적인 간접세에 대해서는 훨씬 덜 의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플레이션" 장에서 설명했듯이, 그들은 주로 인플레이션을 통해 간접세를 체감하지만 말입니다. 간접세는 가장 비사회적인 세금입니다. 순수 차용 자본에 유리하게 노동에 부담을 줍니다. 아무도 간접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을 가장 심하게 억압합니다. 반면 간접세, 즉 석탄, 소금, 성냥, 설탕, 맥주 및 음료세, 개인 교통세 등은 많은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해방적 행위에 반대하는 노동자 집단의 한 사람은
이는 이러한 연결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국제 이자 의무의 제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 부채에 대한 추가 이자 지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독일의 역사적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독일의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이 묻기 때문입니다. 독일 민족은 자유를 원하는가, 아니면 노예제도를 원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최종적인 문제에서 오직 확고한 의지만이 승리를 결정하고 달성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재정적인 정치적 관찰의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러나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라면, 자국의 노예 제도가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정치적 문제이며, 정치와 경제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현 상황에서 새로운 점입니다. 재정적인 권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관점이 지배하고, 군사적인 권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관점은 그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실제로 맘몬주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맘몬 신이 이 세상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황제와 왕은 그 앞에 절합니다. 의회와 정부는 그의 복종하는 하인입니다. 그는 임금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거대한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자본 또한

세계의 언론이 그 목적에 도움이 되도록 했지만, 동시에 그 나라는 문화적 부의 관리자이자 모든 국가의 토착 예술과 문학을 오염시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이 세상에 대한 맘몬주의적 침략과 지배의 가장 두드러진 담당자로 인식했으며, 따라서 우리의 지식의 원이 다시 한번 모든 질문 중 하나 인 유대인 문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자 문제의 해결은 유대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의 설명에 따르면 이자 문제의 해결은 유대인 세계 지배의 붕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 유대인의 힘, 즉 그들의 재정적 힘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자 문제의 해결책은 또한 건설적인 의미에서 동시에
시간은 또한 사회 문제의 해결이기도 하다.

전쟁 채무에 대한 모든 이자와 관세 납부를 거부한다면, 국제 금융, 즉 프랑스는 독일 전체의 재정 행정을 장악하는 것보다 우선시될 것입니다. 적에게 이자 지급을 위해 현재 징수되고 있는 제국의 모든 세금이 폐지된다면, 이는 무엇보다도 내부적으로 광적인 세금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즉 가장 큰 규모의 위대한 사회적 정치적 행위를 의미할 것이며, 적군은 독일 내에서 자체적인 재정 행정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국민이 프랑스인이나 유대인 세무 관리인이 모든 세무 및 연금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외국의 압제자들이 농부들의 마구간에서 가장 좋은 소를 빼앗는 것을 본다면, 분노와 분개가 곧 커져서 어느 날 밤 피의 빗자루로 외국의 유령을 쓸어버리고 독일을 해방시킬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군사력이 그러한 기업을 수행할 것인지 여부
따라서 재정력은 여전히 매우 의심스럽다.

해방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결코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독일이 "전쟁 영웅"의 인도를 만장일치로 거부했던 바로 그 순간, 이 "아니오"라는 대답으로 그 망령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국제 금융은 분명 다른 방법, 특히 보이콧과 국제 시장의 완전한 교살을 모색할 것입니다. 후자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며, 독일 상품에 대한 보이콧은 독일을 처음에는 경제 활동만, 그리고 당분간은 국내 시장으로만 이끌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숙련된 국내 정책, 특히 주택 건설 분야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길이 결정될 때까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대인의 지배가 무너짐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별 국가들이 건강한 국가 경제로 나아가는 길 역시 유대인-맘몬주의라는 독으로 인한 국내적 오염을 치유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한 국제 무역과 국가 간 경제 통상의 자연스러운 길이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억압에서 해방된 인류는 전례 없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의 심장인 독일이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버전 1.0

Sudetenland Verlag가 기독교력 2018년 10월 Kali Yuga에서 AH 130 년에 출판했습니다.

SUDETENLAND VERLAG

에이나르 비르케만 편집.

이탈로가 그린 책의 표지.